

이 자료집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1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자료집

속초

도시변천사 Ⅱ

동명동 · 중앙동 · 금호동



속초 도시변천사 Ⅱ

동명동 · 중앙동 · 금호동

발 간 사

‘도시변천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속초문화원에서 관심과 열정을 다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점차 변해가는 우리 지역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시간 속에 묻혀있는 옛것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단절성은 연속성으로 다시 우리 곁을 채워줍니다.

2021년 도시변천사 발간사업은 2020년 『속초 도시변천사 I, 영랑동·장사동 편』에 이어 연간·연차 사업으로 이번에는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속초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역사와 동명항의 횃집타운과 관광업 조사, 중앙시장이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번에 발간하는 『속초 도시변천사 II, 동명동·중앙동·금호동 편』은 향후 속초문화원에서 도시변천사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근간으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김정환, 한정규, 정종천 속초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들과 최영택, 박명선 선생님 그리고 보조연구원분의 기획과 연구, 조사, 집필 전 과정 등이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우리 지역 도시변천사 연구의 체계를 세워나가고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속초문화원장 김 계 남

머 리 말

옛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속초에 대한 기록은 조선 단종 2년(1454년)에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한 『여지도서』에는 속초가 양양도호부에 속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근대로 와서 1937년 면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하면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고 1942년 속초읍으로, 20년 후 1963년에 시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로 승격한 지 60여 년이 지나는 속초시는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 양상을 띠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오래전부터 지리적 특성상 산과 호수와 바다를 갖춘 덕에 산촌·농촌·어촌의 문화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점은 속초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아울러 해방 이후 공산 치하에 있던 속초는 6·25전쟁이 끝나면서 휴전 상태가 되어 피란민이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정착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 결과 아바이 마을과 피란민 문화라는 독특한 양상을 띠는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설악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속초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자연을 즐기는 관광 문화, 음식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문화, 각종 축제나 행사를 통한 축제 문화, 워라벨을 추구하는 웰빙 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옛 골목을 이용하여 현대적 감각을 겸비한 퓨전 요리나 카페가 생겨나 젊은 층이 자주 찾는 명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떠오른 화두는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우리 지역의 옛 모습을 기록하여 추억을 살리고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속초문화원에서는 향토사연구팀을 구성하여 옛 문헌과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속초의 변천사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간행하는 속초 도시변천사Ⅱ(동명동·금호동·중앙동)는 2020년에 발간한 속초 도시변천사Ⅰ(영랑동·장사동)에 이어 두 번째로 집필한 향토 변천사 자료이다.

이 변천사를 통해 속초의 극장이 TV가 보급되기 전인 1970년대 초반까지

지역 문화 활동의 중심이었다는 점과 다방이 예술 활동의 장으로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금정 주위의 바위가 방파제를 쌓기 위해 발파하고 남은 잔재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갯배의 유래와 거기에 실려 왕래한 실향민의 애환도 읽을 수 있었다. 그동안 농경지 개발과 도시의 확대로 사라진 동해북부선 역사(驛舍)와 철도 노선도 옛 문헌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었다. 중앙시장에서 시작하여 속초관광수산물시장으로 발전한 속초의 중심 시장과 속초항의 축조 과정도 자세하게 밝힐 수 있었다. 의욕적으로 진행했던 백두산향로(북방향로), 금강산 향로, 경수로 향로, 한·중·일·러 신향로, 크루즈 향로 등은 현재 운항이 중단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과제임도 발견했다.

변천사 정리 작업은 관련 자료의 부족, 증언을 해주실 어르신들의 희소함, 동일한 사항에 대한 다른 증언, 잔존하는 옛 모습의 미약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작업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작업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계남 속초문화원장님과 직원들, 유용한 사진을 제공해 주신 전태극님과 박경심님, 속초 음식에 대한 증언과 재현에 힘써 주신 최정자님, 영금정 관련 증언을 상세히 해주신 김종규님, 그 외 증언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집필의 어려움을 다소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 발간이 속초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옛 추억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02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속초 도시변천사Ⅲ(교동·청학동·노학동)편의 집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1. 12.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목 차

발간사

머리말

I · 자연 · 인문 환경

13 / 조사지역

14 / 자연환경의 특색과 인문환경의 변화

32 / 인문환경의 특색과 변화

II · 역사

65 / 지명의 해석

72 / 마을의 형성

75 / 전근대의 역사

88 / 일제강점기

104 / 현대

143 / 기념물 및 문화재

149 / 근대 건축물

153 / 주요기관 및 시설

170 / 지명

III · 산업

183 / 속초 발전의 원동력 수산업

192 / 속초관광수산시장

IV · 문화예술

- 201 / 속초 문화의 특징
- 203 / 예술 활동
- 204 / 문학 활동
- 206 / 다방 문화 활동
- 207 / 극장 문화
- 214 / 구비전승 설화

V · 삶과 민속

- 219 / 세시풍속
- 221 / 마을신앙
- 222 / 민속놀이
- 225 / 의식주

- 239 【부록1】 연표
- 247 【부록2】 증언 기록
- 297 【부록3】 사진 기록
- 311 【부록4】 추억을 간직한 거리

참고문헌

I. 자연·인문 환경



1979년 동명동·중앙동·금호동 지역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 조사지역

가. 지역개요

〈표 1〉 조사지역 개요

동명(과거 구)	인구(총인구 대비 %)	면적(총면적 대비 %)	행정동	법정동	동
동명동(2구)	3,653명	0.79km ² (0.7%)	1	1	17
중앙동(3구)	5,984명	1.44km ² (1.4%)	1	2	30
금호동(4구)					
속초시 합계	82,254명	105.73km ² (100%)	13	8	221

2021. 8. 31기준

나. 조사지역 지도



〈그림 1〉 속초시 행정구역(법정동)

다. 조사지역 요약

동명동은 동계 실시 전에는 속초리 2구로, 동해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온다는 뜻으로 동명동이라고 하였다. 속초시청, 시외버스터미널과 수복탑이 위치한 곳이며 북쪽은 영랑동과 영랑호에 접하고, 서쪽은 중앙동과 금호동과 경계를 이루며, 동남쪽은 동해에 접한 영금정과 속초항이 자리잡고 있다.

중앙동은 동계 실시 전에는 속초리 3구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중앙동이라고 하였다. 1998년 금호동으로 통합이 되었다. 중앙시장은 3구에 있다고 해서 삼구시장이라 불렸으며 현재는 속초관광수산물시장으로 통칭되고 있다. 동쪽으로 동명동, 서쪽으로 금호동, 남쪽으로 청초호와 접해 있다.

금호동은 동계 실시 전에는 속초리 4구로, 영랑호와 청초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호수가 아름다워 거문고 소리가 들릴 듯한 호수의 주변에서 동 명칭이 연유하였다. 북쪽은 영랑호와 범바위가 있고, 동쪽은 중앙동, 서쪽은 교동 및 청학동과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 청초호와 접해 있다.

이들 3개 동은 1966년 동계 실시 전까지 2구 동명동, 3구 중앙동, 4구 금호동으로 불리며, 1구 영랑동, 5구 청호동, 6구 청학동·교동과 함께 속초 시가지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자연환경의 특색과 인문환경의 변화

가. 1918년 지형도

1918년 지형도는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측량기법으로 제작된 최초의 지형도로 개발 이전의 속초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고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동명동의 내륙은 해발 40m 이하의 구릉성 산지가 영랑호와 해안 사이에 위치하고 주로 침엽수(소나무)가 분포하고 있다. 돌출된 작은 반도의 정상에는 해발 38.7m인 성황봉이 위치하고 아래 해안에는 암석이 나타나며 100m 떨어진 곳에는 해발 20m 이내의 숲섬이 위치하고 있다. 구수로와 성황봉 아래 암석해안 사이는 만입해안으로 모래해안이 분포하고 있는데 오늘날 시청 앞 구 7번 도로 건너편 해안지역이다.

중앙동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진 능선이 구수로를 향해 뻗어 있고 산지에는 주로 소나무가 분포하고 있다. 능선 사이의 골짜기에는 아래 지도의 적색원에서 보듯 눈이 분포하고 있고 이곳은 중앙시장에 해당된다. 구수로는 석호인 청초호와 동해를 이어주는 통로로 중앙동과 사주(砂洲)¹⁾로 이루어진 청호동 사이에 좁고 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금호동은 영랑호와 청초호 사이의 비교적 넓은 지역으로 불규칙한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고 있으며 드문드문 화강암 암괴가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속초 8경

1) 해안의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 등에 의해 이동·퇴적되면서 생긴 막대 모양의 모래톱 지형

중의 하나인 범바위이다. 금호동 북쪽의 영랑호안과 접한 완만한 능선 사이의 골짜기에는 소규모 논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지금은 영랑호 리조트와 영랑호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다. 남쪽에 길게 발달한 완만한 능선지대는 오늘날 속초관광시장입구에서 교동사거리에 해당되는 곳으로 지금은 시가지로 변모하였다. 한편 영랑호안의 윤곽은 지금과 거의 같은 형태이며 청초호 북쪽 호안에는 모래해안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1918년 속초지형도

나. 1940년대초 지형도

국토지리 정보원에 기록된 1956년 발행 속초지형도이다. 하지만 지도 왼쪽 하단에 속초면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동해북부선과 철도가 뚜렷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아 1956년 속초지형도로 보기 어렵다.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하였으므로 이 지도는 6·25전쟁²⁾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지도를 토대로 일본어를 삭제하고 우리말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지 지형을 보면 동해북부선 철도가 통과하면서 청초호 북쪽 호안 지역과 동명동 지역의 구릉성 산지가 확연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영랑호 남쪽의 구릉지도 논으로 많이 개간되어 전체적으로 1918년에 비해 산림면적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안지형을 보면 동명동 성황봉(청색원) 아래 해안선과 솔섬 일대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 1937년 속초항 1기 수축공사로 성황봉 앞쪽 해안절벽의 암반을 발파하고 암석 덩어리들을 레일로 운반하여 구수로 양안에 쌓는 축항공사 때문이다. 이

2) 『도시변천사 I』에서는 ‘6·25전쟁’을 ‘한국전쟁’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학술적인 논쟁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이번 호부터는 ‘6·25전쟁’으로 표기한다.

로 인해 육지와 떨어져 있던 솔섬(적색네모)이 매립되어 육지화되었다. 또한 구수로가 준설되고 청호동 방파제가 건설되었으며 끝 지점에 등대(적색삼각형)가 설치되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성황봉(적색삼각형) 왼쪽은 새쪽 마을과 마쪽 마을로 두 지역은 당시 속초면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었으며 남서쪽에 위치한 장안마을까지 세 마을이 연속해서 이어져 있다. 중앙동의 철로 아래에 위치한 지역(적색원)은 현재 관광수산시장으로 금호동 남쪽지역과 함께 밀집된 촌락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에 있어서는 동해북부선 철도가 대포역을 통과하여 청초호에서 반원을 그리며 북상하고 있으며 속초역(적색삼각형)은 굽게 표시되어 있고, 양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21번 국도가 반부평(청호동) 사주를 통과하여 나루3(적색네모)를 건너 속초리 방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3〉 일제강점기 1940년대 초 속초지형도

다. 1965년 지형도

1965년 지형도의 가장 큰 특징은 1966년 속초시 동제(洞制) 실시 직전으로 1942년 속초읍 당시의 행정구역인 구(區)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1942년 부령(府令) 제 104호로 속초면에서 속초읍으로 승격되는 동시에 읍의 중심지역은 1구(영랑동), 2구(동명동), 3구(중앙동), 4구(금호동)로 분리되었다. 1951년 수복 이후 군정기를 거쳐 1954년 민정 이양 이후 5구(청호동), 6구(청학동·교동)가 추가되어 지도와 같은 6구

3)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으로 갯배나루, 오구도선장, 갯배선착장으로 불렸다.

체제가 갖추어졌다.

속초 2구(동명동) 지역의 북서쪽에는 구릉성 산지가 나타나고, 해안지역에는 1957년 건립된 속초등대가 표기되어 있으며, 방파제와 부두 및 항만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2구 어민들의 대부분은 무동력선을 든대질⁴⁾로 해변 모래사장에 정박시켰다.

속초 3구(중앙동) 지역의 구릉성 산지 지역은 1950년대와 유사하고, 1953년에 개장한 중앙시장(청색원)에 밀집된 주거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2구(동명동)와 인접한 해안지역에 모래해안이 분포하고 있다.

속초 사구(금호동) 지역의 북서쪽에는 비교적 넓은 구릉성 산지와 골짜기 논들이 분포하고 있고, 청초호와 접한 지역에는 밀집된 주거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구수로와 청초호가 만나는 지점에 속초항이 표시(녹색원)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속초내항(청초항)이 속초 어업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해북부선은 공식적으로 1967년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6·25전쟁 이후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철독길로 바뀌어 시민들의 주요 교통로가 되었고 지도에서도 이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철로 주변으로 밀집된 주거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우아파트가 위치한 지점(적색원)에 속초고등학교 두 번째 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림 4> 1965년 속초지형도

- 속초 삼구, 사구, 오구의 위치가 동쪽으로 속초고등학교의 위치가 남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4) 배 밑에 둥글고 긴 막대기를 여러 개 넣어 배를 바다에서 육지로 또는 반대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일

라. 1974년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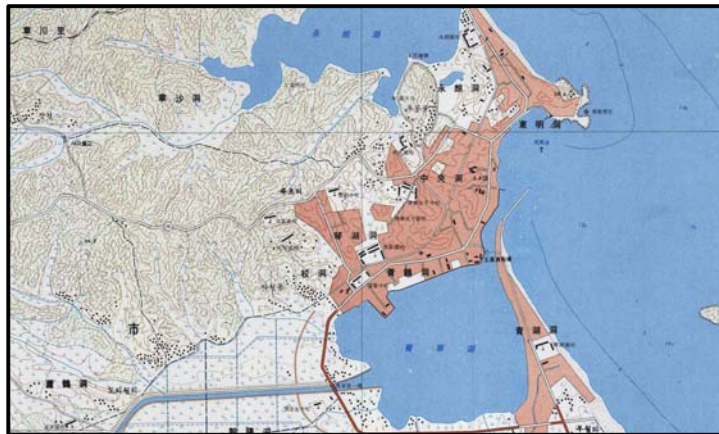
1970년대에 발행된 지형도를 보면 영랑호에 인접한 지역을 제외하고, 청초호 북쪽과 동명동과 중앙동이 접한 해안지역에 농경지와 산림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적색으로 표시된 시가지 면적이 크게 확대되어 교동 - 청학동 - 금호동 - 중앙동 - 동명동 - 영랑동을 연결하는 연속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동명동의 영금정 일대 해안은 암석 해안 표시가 선명하며, 수복탑 앞쪽 해안은 소규모 항만 개발이 이루어져 동명항이 되었고 시청 앞에 길게 늘어진 모래해안도 사라지고 시가지화 되었다.

중앙동은 대부분 시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수로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지도에 비해 폭이 넓게 분포한다. 이는 속초항 완공의 결과이며 구수로와 청초호가 만나는 지점에 작은 갯배 표시와 함께 오구도선장이란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

금호동 남쪽은 시가지가 되었으나 북쪽은 구릉성 산지로 곳곳에 취락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영랑호 부근에는 6·25전쟁 당시 속초지역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11사단장 김병휘 장군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금장대와 6·25전쟁 당시 전사한 140여명의 전몰용사를 기리는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가 위치하고 있다.

동해북부선 철독길은 시내에서는 교통로로 완전히 변화하였고, 조양동과 교동의 소야벌에서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다.



<그림 5> 1970년대 속초지형도

- 금호동의 위치가 수정되어야 하며, 금호동 북쪽의 속초리는 폐기되어야 한다.

마. 1980년대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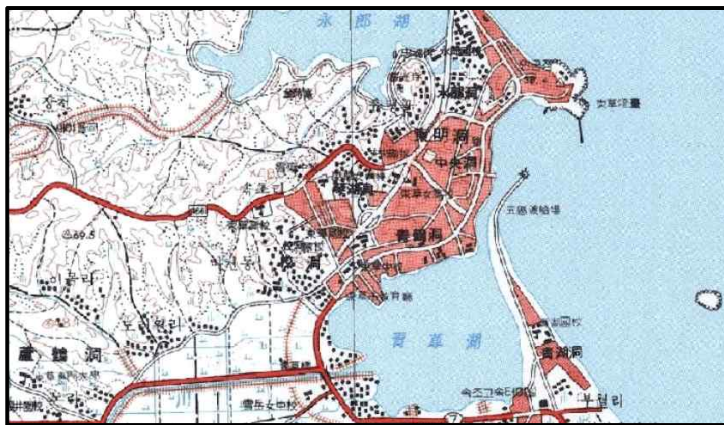
1980년대에 발행된 지형도를 보면 시가지 면적은 1970년대와 거의 일치하고, 새로운 시설이나 건물, 신규도로, 대규모 지역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산업화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수도권, 남동임해공업지역, 경부축 도시들과 대비되며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속초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80년대 초반 당시 7번 국도를 제외하고 속초시 대부분의 간선도로는 비포장이었다.

동명동 일대를 보면 시가지와 도로망은 70년대와 달라진 점이 없고, 다만 1980년대 들어 속초외항(동명항) 방파제 공사가 시작되었다. 속초 어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속초항 북방파제 공사가 착공되어 길이 300m 정도 진행되었으며 당시 바다 매립에 쓰인 암석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북쪽 야산에서 채굴되어 56번 지방도를 거쳐 덤프트럭으로 운반되었으며 당시에는 돌차라고 불렀다.

중앙동 일대를 보면 시가지와 도로망은 70년대와 달라진 점이 없고, 3구시장(중앙시장)이 청학동의 육구시장과 함께 속초 상권의 중심을 이루었다.

금호동 일대를 보면 시가지, 도로망, 구룡성 산지의 분포는 70년대와 비슷하고, 1985년에 교동으로 이전한 속초여고가 현 속초정보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도로망을 보면 교동 - 청학동 - 금호동 - 중앙동 - 동명동 - 영랑동 - 장사동을 연결하는 7번 도로를 중심으로 간선도로가 배치되었으며, 주목할만한 점은 1980년대 동방원양에 의해 개발된 영랑호에 순환도로가 개설되어 영랑호가 비로소 속초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림 6〉 1980년대 속초지형도

- 청학동, 금호동, 중앙동, 동명동, 영랑동, 오구도선장 위치가 수정되어야 한다.

바. 1990년 지형도

1990년 지형도를 보면 1980년대와 비슷한 시가지와 삼림면적이 분포하고, 해안지역의 항만개발, 방파제의 건설로 동명동 해안 경관이 크게 변모하였다.

동명동 일대를 보면 도로망은 70년대와 달라진 점이 없고 현재 속초시청 건너편의 구수로 입구에서 해양경찰서까지 대규모 해안을 매립하여 공공용지가 대폭 증가하였다. 속초등대 남쪽 해안이 매립되어 암석해안이 사라졌고 영금정 아파트가 건립되었으며 직선의 항만부두가 완공되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속초 어민들의 한 맺힌 숙원사업인 속초항 북방파제 공사가 계속 추진되어 1994년 완공되었는데 총연장 933m로 남북방향으로 건설된 북방파제는 동해 외해의 거센 파도와 태풍으로 인한 풍랑을 완벽히 차단하여 속초발전의 큰 전기가 되었다. 어선 전용부두가 완공되어 속초항은 내항(청초항), 외항(동명항) 체제를 갖추어 종합항으로서의 기반이 1990년대 중반에 조성되었다. 하지만 속초 향토 사람들의 추억이 서려있는 많은 바위섬이 사라졌고 시청 건너편의 모래해안도 콘크리트 아래로 파묻혔다. 이러한 매립공사의 결과 중앙동 - 동명동을 잇는 천연의 완만한 만입해안이 직선의 인공해안으로 변모하였다.

중앙동 일대를 보면 구수로 양쪽으로 콘크리트로 보강공사를 진행하여 수로 양쪽이 직선으로 변화하였고, 청호동 방파제는 동쪽 해안 방향으로 300m 연장되어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풍랑을 차단하여, 동명항은 안전한 피항처로 완벽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금호동 일대를 보면 7번 국도 주변 시가지는 번성하였고, 영랑동 남서쪽 임야 지역은 작은 정사각형으로 표시된 가옥 또는 건물이 80년대에 비해 증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1990년 속초지형도

- 청학동과 오구도선장의 위치가 수정되어야 하며 속초리와 유령골은 폐기되어야 한다.

사. 2006년 지형도

2006년 지형도를 보면 1990년과 비교하여 시가지가 확장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였으며 도로가 확장되고 간선도로망도 확충되었다. 해안지역에서는 동명항의 항만공사가 완공되어 일대의 해안선이 직선 형태로 변모하였다.

1999년 개척된 관광엑스포를 계기로 도로망이 대폭 정비되었다. 우선 속초시내를 관통하던 7번 국도가 지도 왼쪽 하단에 표시된 것처럼 교동을 거쳐 장사동을 지나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다. 56번 지방도는 4~6차선으로 대폭 확장되었고 영랑호 순환도로, 영금정 해안도로, 청호로, 수복로, 번영로 등 주요 도로망이 확·포장 되었다.

동명동 일대를 보면 동명항 2차 항만공사와 속초국제여객터미널(2000.4)이 완공되어 속초항이 북방항로와 금강산 해로관광의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이를 계기로 속초항에서 러시아 연해주 자루비노항에 도착하는 북방항로가 개척되어 2000년 4월 28일 동춘호가 처음 출항하였고, 2001년 1월 6일 속초항에서 장전항까지 금강산 관광선 현대 설봉호가 역사적인 첫 취항을 했다.

중앙동 일대를 보면 구수로 양쪽이 매립으로 폭이 40~50m로 좁아졌고, 엑스포를 계기로 청초호 연안정비사업으로 호안이 정비되었다. 한편 중앙시장은 1988년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신형 건물로 재탄생하여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곳곳에 대형마트들이 입점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속초관광수산물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폭 환경을 정비하면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금호동 일대를 보면 영랑호 일대에 영랑호 리조트와 영랑호CC 등의 관광지과 접근도로가 정비되면서 새롭게 변모하였다. 56번 도로 북쪽으로 현대, 동부, 이편한 세상 등의 아파트 단지가 조양동의 부영아파트 단지와 함께 속초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8> 2006년 속초지형도

아. 2016년 지형도

2016년 지형도를 보면 2006년과 비교하여 시가지가 확장되고 녹색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건물이 증가하였다. 도로가 확장되고 간선도로망도 확충되었으며, 해안지역에서는 청호동방파제가 항만공사를 통해 확장되었다.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2012년 개통되어 속초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명동 일대를 보면 영금정과 영랑동 해안을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개통되어 인근에 해산물 전문점과 카페가 입지하여 속초의 새로운 먹거리 명소로 등장하였다. 동명동 항만부지는 오징어 난전이 들어서고 해마다 도루묵·양미리 축제 장소로 변모하여 속초 관광의 활력소 역할을 하였다. 속초항은 꾸준한 준설 작업을 통해 수심 10m의 국제항으로 변모를 갖추었고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은 중앙동 고속버스터미널과 함께 속초 대중교통의 허브로 주변에 카페, 숙박시설,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등이 새롭게 입지하였다.

중앙동 일대를 보면 2015년 속초수협과 수협공판장이 청호동으로 이전하였고 속초 관광수산물시장으로 새롭게 변모한 중앙시장이 닭강정, 아바이순대, 씨앗호떡, 수산건어물, 해산물 등 다양한 메뉴와 품목으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 속초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금호동 일대를 보면 노란색 56번 지방도 표시 주변으로 주거 구역이 확대되었고, 영랑호 주변지역은 9홀의 영랑호컨트리클럽과 영랑호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영랑호리조트가 외지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한편 이에 앞서 2003년 신수로가 뚫리어 청호동이 양분되면서 양쪽을 연결하는 설악대교(구청호대교)가 건설되었고 오랜 공사 끝에 2012년 구수로를 지나는 금강대교

가 건설되면서 대포동 - 조양동 - 청호동 - 동명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청호로-설악금강대교로)가 개통되어 두 개의 다리는 속초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그림 9> 2016년 속초지형도

자. 2021년 지형도

2021년 속초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일대의 지형에서 이제 인간과 기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던 영금정 암석해안은 속초항 건설로 인해 발파되어 큰 상흔을 입은 채 남아있다. 동명동 해안은 항만조성과 방파로 공사로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으며, 구수로의 준설과 축소, 신수로의 개통, 청초호안의 직선화 등으로 이제 자연적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천연호수라는 영랑호도 아스팔트 순환도로 개설, 도로주변의 별장형 콘도의 난립, 도류제 시공, 의료원 앞쪽의 직선제방 축조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1년 속초는 여전히 공사 중이며 타워 크레인이 하늘을 덮고 있고, 힐스테이트, 디오션자이, 롯데캐슬, 아이파크 스위트 등 낯선 이름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림 10> 2021년 속초 동명동·중앙동·금호동 지형도



<사진 1> 2021년 속초 동명동·중앙동·금호동 위성사진



<사진 2> 힐스테이트 속초센터럴

지상 24층으로 속초시청~농협 일대와 갯배에서 동명항 방향의 조망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진 3> 아이파크 스위트

지상 27층으로 등대 주변 마을에서 설악산 방향의 조망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진 4>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동명동 우렁골에 건축 중이며 주변 주민들의 분진과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5> 디오션자이

속초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43층)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속초감리교회와 동명동 성당의 조망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차. 화강암 지형의 전형 범바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간성군조(杆城郡條)에는 “영랑호는 고을 남쪽 55리에 있다. 주위가 30여 리인데 물가가 굽이쳐 들어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라고 표현하였는데 바로 이 암석이 속초 팔경 중 제2경 범바위이다. 범바위는 설악산의 수많은 봉우리들, 달마봉, 울산바위, 금강산 일만이천봉과 형성시기가 같은 화강암이다.

마그마가 그대로 굳어서 된 암석인 화강암은 대략 1억 8,000만~1억 2,000만 년 전 중생기 중기 대보조산운동⁵⁾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지각의 하부에는 대규모로 화강암이 관입하였는데, 이를 대보화강암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암석 중 큰 비중(대략 30%)을 차지하는 화강암들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관입한 화강암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설악산, 금강산, 북한산, 관악산, 치악산 등 유명한 화강암 산지가 많은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심성암(深成巖)⁶⁾으로 지하 깊숙한 곳에서 형성된 화강암이 오랜 세월 지표면이 풍화되고 침식됨에 따라 지표까지 드러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화강암 산지인 것이다.

영랑동 범바위 위에는 공통알 같은 둥근 바위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화강암 바위는 학술 용어로 ‘핵석’이라고 한다. 설악산 계조암의 ‘흔들바위’ 고성 화암사 앞의 ‘수바위’도 범바위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핵석이다.

‘토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핵석이 정확한 표현이다. 토르의 형성 과정은 다양하게 설명되지만, 기후 변화 또는 지반 용기와 관련짓는 경우가 많다. 온난 다습한 기후 조건하에서 기반암이 심층풍화를 받아 새프로라이트⁷⁾(saproilite)와 핵석⁸⁾이 생겨나고, 그 이후 다시금 지반 용기나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핵석 위를 덮고 있는 풍화층이 제거되는 과정을 거쳐 지면으로 노출된 토르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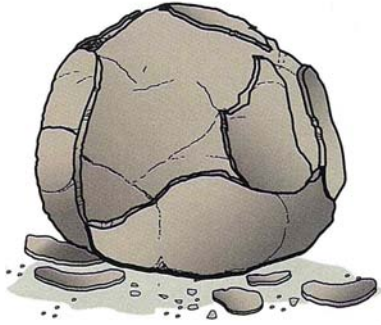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바위는 화강암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는 화강암에 형성되는 ‘박리(exfoliation)’라는 풍화 작용 때문이다. 박리 작용은 암석의 표면이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풍화되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화강암의 표면이 낮에는 태양열에 의해 가열·팽창되고, 밤에는 냉각·수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암석의 표면에 적당량의 수분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⁹⁾.

5) 중생대 쥐라기 말에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각 변동으로 화강암이 분포와 밀접하다.

6) 마그마가 지각 아래 깊은 곳에서 굳어 결정의 크기가 큰 조립질의 암석

7) 땅속의 단단한 암석이 오랜 세월이 지나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연약한 암석층

8) 절리가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암석이 풍화돼 부서지지 않고 둥근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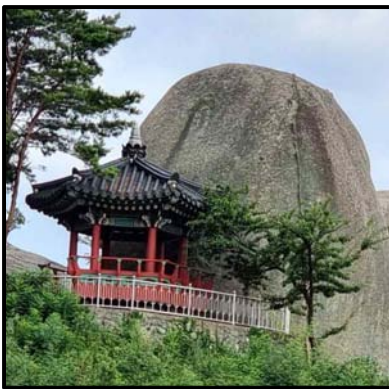
<그림 12> 박리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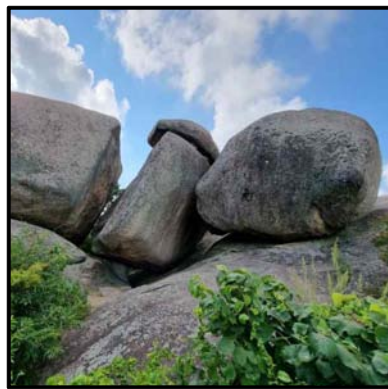
<사진 6> 울산바위 표면의 박리



<사진 7> 영랑호에서 바라본 범바위
출처 : 『속초 그때 그곳이 지금은』, 제4화 범바위



<사진 8> 범바위와 영랑정



<사진 9> 범바위 정상부 핵석

9) 네이버 지식백과 ‘사면 위의 미지형’ 참조. (한국의 자연지리, 2012. 12. 30, 김종욱)

카. 암석해안의 전형 영금정 해안

영금정 해안은 1932년 속초항 축항 공사로 원형이 훼손되었으나 고성 거진 뒷장 해안, 문암 능과대¹⁰⁾ 해안, 속초 외옹치 해안, 양양 하조대 해안과 더불어 아름다운 절경으로 동해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해안 지형은 해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따라 암석해안, 모래해안, 자갈해안, 갯벌해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암석으로 구성된 해안을 암석해안이라고 한다. 암석해안은 주로 산지나 구릉지 또는 대지(臺地)가 바다까지 이어져 나타나는 곳(串)과 같이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잘 나타난다. 즉, 파랑에 의한 침식작용이 활발한 곳에서 나타난다.

암석해안은 끊임없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반암의 단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 채, 약한 부분은 침식을 많이 받아 해안선이 후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안절벽을 해식애(海蝕崖)라 하며, 해식애의 후퇴로 인해 해수면과 비슷한 높이에 형성된 대지를 파식대(波蝕臺), 해식애의 후퇴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남은 돌기등을 시스택(sea stack)이라 한다. 이밖에 해안단구, 해식동굴, 시 아치(sea arch) 등이 암석해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형들은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지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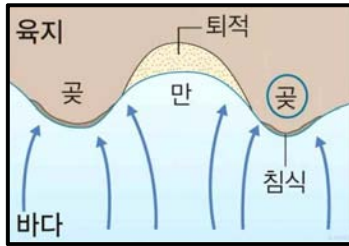
영금정 해안에서 속초등대 아래는 높이 20m 내외의 절벽이 남아 있는데 이는 자연적인 해식애가 아니라 과거 속초항 축항공사로 암석 채굴을 위한 발파작업의 결과이다. 등대 정면의 해안에 완만하게 파인 넓은 암반지대는 파식대가 아니라 역시 공사의 결과물이다. 또한 1918년 영금정 일대 지형도에서 술섬과 옆의 작은 돌섬은 시스택 지형이며 현재 매립되어 육지화되었는데 이와 비슷한 형태로 고성 오호리 해안의 서낭바위, 동해시 해안의 촛대바위가 있다.

동해안의 해안선은 단순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육지가 바다로 돌출한 곳과 바다가 육지쪽으로 들어간 만이 번갈아 나타난다. 곳은 파랑의 침식작용이 강하여 암석해안에 나타나고, 만은 파랑의 퇴적작용이 약하여 모래가 퇴적된다. 속초해안도 장사·영랑 모래해안 - 영금정 암석해안 - 청호·조양 모래해안 - 외옹치 암석해안이 교대로 나타난다.

영금정 암석해안은 모래해안 등 다른 해안에 비해 보통 수심이 깊어 항구가 입지

10) 고성군의 죽왕면 문암2리 해안가에 있는 기암괴석으로 타보니(곰보바위)가 분포하는 절경이다.

하기에 유리하지만, 파랑 작용이 커서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영금정 인근의 속초항(동명항)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천연의 장소에 입지하였으며 다만 동해 먼바다의 파도를 막기 위해 북방파제와 청초호 방파제가 축조되었다.



<그림 13> 침식해안 · 퇴적해안



<그림 14> 해안지형 모식도



<사진 10> 솔섬(1956년도 영금정)



<사진 11> 솔섬(2021)



<그림 15> 1918년 영금정 부근

<사진 12> 2021년 영금정 부근 위성사진

<사진설명>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1918년 일제가 제작한 영금정 부근 지도는 해안선을 단순하게 처리하였으며, 2021년 지도에서 적색선은 1918년 해안선이며, 청색선은 당시 원산~양양 3등 도로를 표시한 것이다.

- (가)는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한 T형 방파제(헤드랜드)이다.
- (나)는 등대해수욕장으로 방파제와 해안도로의 영향으로 해안침식이 진행되어 모래해안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 (다)는 과거의 사료로 추정한 영금정(비선대)의 추정 위치이다.
- (라)는 1918년지도에 38.7m로 표기된 성황봉으로 현 속초등대이다.
- (마)는 술섬으로 1937년 속초항 1기 수축공사 완공 이후 육지화되었다.
- (바)는 동명동 매립지로 현 영금정로 남쪽의 상가, 속초해경, 여객터미널 등은 1980년대 초반까지 모두 바다였다.
- (사)는 구수로로 1937년 준설 당시 폭 92m로 폭이 확대되었으나 현재는 양쪽에서 매립이 진행되어 폭 40m로 축소되었다.



<사진 13> 등대 남쪽 발파로 인한 절벽



<사진 14> 등대 동쪽 발파로 인한 절벽



<사진 15> 암석 발파공 흔적



<사진 16> 파랑의 침식이 진행 중인 절리층



<사진 17> 화강암절리층에 관입된 규장암¹¹⁾



<사진 18> 암석채취 흔적과 영금정 추정위치



<사진 19> 청호동 방파제와 소년(1961)
‘제3회 속초 장롱 사진 공모전’
김형관(속초시 교동)씨의 ‘아버지를
기다리며’ 금상수상작

<사진설명> 소년이 밟고 있는 울퉁불퉁한 암석이 있는 곳은 바로 뒤에 보이는 영금정 석산에서 발파하여 레일과 도선으로 운반하여 축조한 축항(청호동방파제)의 일부이다.



<사진 20> 청호동 방파제 측면의 암석
<사진설명> 축항(청호동방파제)의 측면으로 발파로 잘려진 화강암 암괴가 노출되어 있다. 축항은 1937년 속초항 1기 수축공사로 820m의 축조된 방사제로 현재는 신수로 개통으로 중간이 끊어진 상태이며 북쪽은 속초크루즈터미널 부두로 활용되고 있다.

11) 마그마가 기존의 암석의 틈을 따라 관입하여 연속된 모양으로 나타나는 화성암의 종류이다.

3. 인문 환경의 특색과 변화

가. 인구의 변화

1) 개요

속초의 지형적 특성은 태백산지와 연계된 구릉지가 해안 근처까지 다다르고, 영랑호와 청초호로 유입하는 하천 부근에 소규모의 충적지가 분포한다는 점이다. 장사동 갯바위, 동명동 영금정, 대포 외옹치에는 암석해안이 나타나고, 암석해안 사이에는 2개의 사빈해안(등대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이 전개된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동해안의 취락 형성 및 인구 분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업·어업 활동에 유리한 충적지나 해안에 취락이 발생한 후 구릉지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견게 된다.¹²⁾

동명동·중앙동·금호동 지역은 6·25전쟁 때 월남한 피란민과, 1950년대~60년대 연안 어장 풍어로 각도에서 몰려든 유입민들과 원주민이 함께 거주하면서 현재와 같은 시가지에 인구가 분포하게 되었다. 하지만 흉어로 인한 어업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수산물 제조 공장의 도산과 이전, 이촌향도 현상, 1990년대 이후 교통, 조양동으로 관내 유출에 의해 인구가 급감하였다. 1973년 속초시 전체인구 75,968명의 37.5%인 28,285명의 인구는, 2021년 8월말 전체인구 82,391명의 11.6%인 9,551명으로 급감하였다.

동명동·중앙동·금호동 지역의 구체적인 인구통계에 관한 최초기록은 1785년 간행된 『여지도서』에 속초리와 속진리를 합쳐 144호 447명으로 등재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1925년 발간된 『면세일반』에는 189호 1,058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인 동별 인구를 산출할 수 없다.

〈표 2〉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리별 인구(단위 : 명)

연도/리별	장항리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내물치	대포	외옹치	부월	논산	노리	속초리 속진리	장천리	사진리	합계	
1785	호수	20	20	-	35	18	34	78	18	20	-	144	15	18	420
	인구수	49	66	-	126	52	104	107	86	97	-	447	59	70	1,263
1925	호수	50	129	92	27	86	155	93	84	95	119	189	-	-	1,119
	인구수	214	741	541	174	468	777	463	476	572	735	1,058	-	-	6,219

출처 : 『여지도서』, 『면세일반』

12) 장정룡 외, 『강원도민 이북도민 정착사』, 속초시립박물관, 2009, 76쪽.

1962년 속초 1구에서 6구까지의 인구가 평균 5천명 이상이 되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당시 속초읍의 인구는 총 50,703명이었고, 당시 속초 4구(금호동)의 인구는 7,0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하였다.

<표 3> 1962년 속초읍 인구(단위 : 명)

리별	1구 영랑동	2구 동명동	3구 중앙동	4구 금호동	5구 청호동	6구 청학동교동	도리원 부근	청대 부근	부월 부근	대포 부근	중도문 부근	합계
인구	5,082	5,570	6,255	7,044	6,852	5,043	2,531	2,095	5,927	2,450	1,854	50,703
비율	10.0	11.0	12.4	13.9	13.6	9.9	5.0	4.1	11.7	4.8	3.6	100.0

출처 : 『1963 속초통계연보』

2) 동명동 인구 통계 분석

<표 4> 동명동 인구 추이

년 도	속 초 시			비율	동 명 동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963	55,619	28,149	27,470	11.2%	6,280	3,189	3,091	속초시 승격
1968	71,033	35,741	35,292	12.4%	8,849	4,438	4,411	
1970	73,096	37,097	35,999	13.5%	9,910	4,986	4,924	동명동 최대인구
1973	75,968	38,450	37,518	12.3%	9,357	4,775	4,582	
1978	71,737	36,209	35,528	12.6%	9,102	4,671	4,431	
1983	72,324	36,279	36,045	11.5%	8,376	4,211	4,165	
1988	72,006	35,795	36,211	11.5%	8,307	4,143	4,164	
1993	76,646	38,140	38,506	8.7%	6,670	3,283	3,387	
1998	86,923	43,167	43,756	6.7%	5,910	2,930	2,980	8개 행정동으로 통합
2001	90,231	44,630	45,601	6.0%	5,451	2,763	2,688	속초시 최대인구
2003	89,047	44,040	45,007	5.7%	5,160	2,625	2,535	
2008	84,599	41,676	42,923	5.2%	4,407	2,253	2,154	
2013	83,109	40,929	42,180	4.7%	3,919	2,012	1,907	동명동 최소인구
2018	81,682	40,248	41,434	5.2%	4,288	2,138	2,150	
2021.8	82,391	40,847	41,544	4.4%	3,634	1,831	1,803	

※ 상주인구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 집계만 기재함

출처 : 『속초통계연보』

동명동의 인구 분포를 보면 속초등대 아래 암석 해안에 인접한 영랑동 삼짜개(새 쪽마을)가 북으로 확장하고 인접한 영금정 부근 마쪽 마을, 수복탑 부근 장안마을,

버스터미널 뒤쪽 우렁골과 건너편 법원 주변에 인구가 증가하고 남쪽으로 7번 국도를 따라 시청 부근의 사이렌 마을도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3구(중앙동), 4구(금호동), 6구(청학동·교동)와 연속된 시가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1963년 시 승격 당시 동명동 인구는 6,280명으로 속초시 전체인구 55,619명의 11.2%를 차지하였다. 1970년 속초시 전체인구는 73,096명이었는데 법정동 12개 중 동명동이 1위로 9,910명(13.5%)의 인구가 분포하였고, 2위는 교동 9,722명, 3위는 금호동 9,461명 순이었다.

1960년대~70년대 초반 당시 동명동은 연안 어장의 호황으로 어민들이 지리적으로 부두가 가까운 지역에 입주하였다. 교통발달에 의한 7번 국도의 활성화, 버스터미널의 이용객 증가, 시청, 우체국, 방송국, 법원 등 공공시설의 입지가 인구 유입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어획량 감소,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 어선들의 납북과 대규모 해난사고로 인한 어업이 불안정성, 조양동, 교동 지역 아파트 단지로의 관내 유출 등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였다. 속초의 최대인구였던 2001년 전체인구 90,231명 중 6.0%인 5,451명으로 급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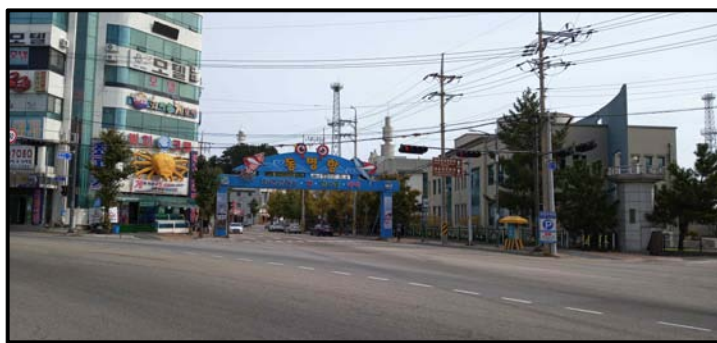
2000년대에도 인구감소는 지속되어 2013년 인구 4,000명 선이 무너졌다. 2017년 이편한 세상 영랑호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잠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다시 감소 추세에 있고, 2023년 수복탑 로타리 인근의 ‘디오션자이’, 버스터미널 뒤편의 ‘롯데캐슬’이 준공되면 부분적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사진 21〉 동명동 버스터미널 부근(1966)



<사진 22> 동명동 영금정 입구(1980년대)



<사진 23> 동명동 영금정 입구(2021년)

3) 중앙동 인구 통계 분석

<표 5> 중앙동 인구 추이

년 도	속 초 시			비율	중 앙 동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963	55,619	28,149	27,470	11.7%	6,528	3,229	3,299	속초시 승격
1968	71,033	35,741	35,292	13.0%	9,246	4,515	4,731	
1969	73,023	36,911	36,112	12.7%	9,334	4,559	4,775	중앙동 최대인구
1973	75,968	38,450	37,518	11.9%	9,072	4,404	4,668	
1978	71,737	36,209	35,528	11.1%	8,021	3,945	4,076	
1983	72,324	36,279	36,045	9.4%	6,867	3,268	3,599	
1988	72,006	35,795	36,211	8.0%	5,798	2,858	2,940	
1993	76,646	38,140	38,506	5.7%	4,421	2,189	2,232	
1998	86,923	43,167	43,756	3.6%	3,165	1,556	1,609	행정동은 금호동
2001	90,231	44,630	45,601	2.7%	2,516	1,203	1,313	속초시 최대인구
2003	89,047	44,040	45,007	2.7%	2,419	1,177	1,242	
2008	84,599	41,676	42,923	2.7%	2,352	1,149	1,203	
2013	83,109	40,929	42,180	2.2%	1,851	874	977	
2018	81,682	40,248	41,434	1.9%	1,610	768	842	중앙동 최소인구

※ 상주인구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 집계만 기재함

출처 : 『속초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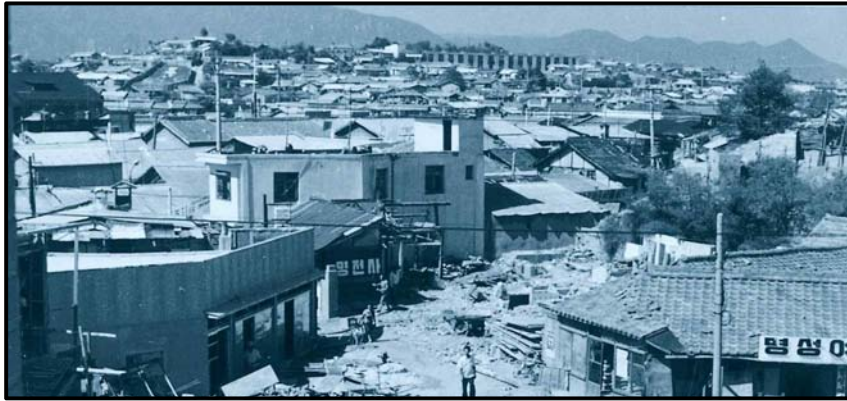
중앙동의 인구 분포를 보면 1953년 중앙시장(3구시장)을 개장하면서 인근 용소골 마을, 현재 시장 주차장 부근, 공설운동장으로 올라가는 중앙시장로 주변, 갯배 선착장과 수협 인근 지역에 점차 인구가 증가하였다. 2구(동명동)와 4구(금호동), 6구(청학동·교동)의 중간 위치에 있던 3구(중앙동)는 이들 지역과 함께 연속된 시가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1963년 시 승격 당시 중앙동 인구는 6,528명으로 속초시 전체 인구 55,619명의 11.7%를 차지하였으며, 1969년 속초시 전체 인구는 73,023명 중 9,334명(12.7%)의 인구가 거주하여 중앙동 최대 인구를 기록하였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당시 중앙동은 연안 어장의 호황으로 어물전, 건어물 등의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미곡, 포목, 의류, 식당, 청과, 잡화 등 모든 점포들이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또한 수협어판장과 인근 얼음공장에서 시장 또는 부두까지 리어커를 이용하여 수산물, 얼음 등을 운반하는 개인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어획량 감소는 중앙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져 1983년의 중앙동 인구는 7,000명 선이 붕괴되어 6,867명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들어 설상가상으로 대형마트가 등장하여 시장은 더욱 활력을 잃었고, 속초의 최대 인구였던 2001년 전체인구 90,231명 중 2.7%인 2,516명으로 급감하였다. 2006년 중앙시장이 속초관광수산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폭 환경을 정비하면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였으나, 중앙동 인구는 급감하여 2018년 현재 2,000명 선도 붕괴하여 1,610명이 거주하고 있다. 중앙동 인구가 급감한 것은 위에 언급한 어획량 감소,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의 불황과 조양동, 교동 지역 아파트 단지로의 관내 유출이 가장 큰 감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동 인구 분포에서 특이한 점은 1963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기준 연도에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여초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시장 점포 운영 특성상 여성종사자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 24> 중앙시장 부근 중앙가로 공사(1975)



<사진 25> 중앙동 문천당 앞 국도(1968)



<사진26> 중앙동 문천당 앞 국도(2021)

4) 금호동 인구 통계 분석

〈표 6〉 금호동 인구 추이

년 도	속 초 시			금 호 동			비 고	
	계	남	여	비율	계	남		여
1963	55,619	28,149	27,470	14.6%	8,150	4,052	4,098	속초시 승격
1968	71,033	35,741	35,292	13.1%	9,321	4,620	4,701	
1969	73,023	36,911	36,112	13.0%	9,521	4,744	4,777	
1970	73,096	37,097	35,999	12.9%	9,461	4,727	4,734	
1973	75,968	38,450	37,518	13.3%	10,156	5,129	5,027	금호동 최대인구
1978	71,737	36,209	35,528	12.9%	9,295	4,594	4,701	
1983	72,324	36,279	36,045	11.8%	8,602	4,266	4,336	
1988	72,006	35,795	36,211	11.6%	8,400	4,111	4,289	
1993	76,646	38,140	38,506	9.7%	7,481	3,712	3,769	
1998	86,923	43,167	43,756	8.0%	7,025	3,466	3,559	중앙동과 통합
2001	90,231	44,630	45,601	6.8%	6,168	3,066	3,102	속초시 최대인구
2003	89,047	44,040	45,007	6.5%	5,813	2,898	2,915	
2008	84,599	41,676	42,923	6.7%	5,695	2,819	2,876	
2013	83,109	40,929	42,180	6.9%	5,735	2,868	2,867	
2018	81,682	40,248	41,434	6.2%	5,140	2,525	2,615	금호동 최소인구

※ 상주인구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 집계만 기재함

출처 : 『속초통계연보』

금호동은 속초에서 유일하게 영랑호와 청초호 두 개의 호수를 끼고 있으며, 미시령로, 번영로, 수복로, 중앙로, 4개의 주요 도로가 지난다. 도로 사이에 개인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 건물, 호텔 등 다양한 건물이 입지해 있다.

6·25전쟁 중 피란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청호동 아바이 마을과 함께 전쟁으로 폐선된 동해북부선 철길을 따라 현 수복로 길 인근에 40계단 마을이 비탈진 구릉지 사면에 들어섰다. 많은 실항민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판자집을 짓고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살았다.

1963년 시 승격 당시 금호동 8,150명으로 속초시 전체 인구 55,619명의 1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73년에는 속초시 전체 인구는 73,023명 중 10,156명(12.7%)의 인구가 거주하여 금호동 최대 인구를 기록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당시 금호동은 연안 어장의 호황으로 수산업과 관련 업종인 수산물건조업, 운수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높았고, 인접한 중앙시장과 구 7번 도로 양쪽 상가도 경기가 좋아 상주인구 및 유동 인구가 많았다. 이후 연안 어장의 쇠퇴와 중앙시장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금호동의 인구는 1980년대 초에 준공된 성진주택, 금호연립, 설악연립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1980년대 말까지 8,000명 이상이였다. 또한 1992년 속초대명 2차 아파트, 2006년 이편한 세상 아파트, 2011

년 생모리츠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수의 인구가 유입되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청장년층의 관외 유출과 조양동, 교동 지역 아파트 단지로의 관내 유출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2003년 6,000명 선이 붕괴되었다. 2018년 속초시 전체인구 81,682명의 6.2%인 5,14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1973년 금호동 최대인구 10,156명의 절반에 해당된다.



<사진 27> 금호동 구 7번 국도(1950년대)



<사진 28> 금호동 현 중앙로(2021)



<사진 29> 금호동 40계단 마을(과거)

출처 : 『속초 그때 그곳이 지금은』, 제8화 철독길



<사진 30> 금호동 40계단 마을(2021)



<사진 31> 속초여중 앞 노가리촌(1978)



<사진 32> 속초여중 앞 변영로(2021)

나. 교통의 변천

1) 도로 교통의 변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속초 지역의 근대도로 개통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속초의 도로는 태백산맥을 넘어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동서 방향의 도로와 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남북방향의 도로로 구분된다.

‘미시령로’는 인제군 북면에서 미시령을 거쳐 동명동까지 연결되는 현 56번 지방도로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후반기에 근대적 도로로 처음 조성되었다. 6·25전쟁 시기에는 군수물자를 운반하였으며 이후 비포장으로 통행량이 적었으나 1989년 2차 선으로 포장되고, 2006년 4차선 미시령터널이 개통되면서 철도가 없는 속초 도로 교통의 중심축이 되었다. 속초시 노학동-교동-금호동-중앙동-동명동을 연결하는 56번 지방도 주변 지역은 속초 도심을 통과하는 구 7번국도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교동, 금호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세워지고, 1999년 관광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도로가 확장 개통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 도로는 북부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도로명 주소 사용 이후 구간별로 ‘미시령로’ - ‘변영로’ - ‘장안로’로 명명되었다.

‘중앙로’로 불리며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 구 7호선은 1937년 속초면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도로로 자동차 통행량과 보행자가 많다. 1966년 시작된 제1회 설악제 행사부터 행진 및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과거 속초중·고 배구부 전국대회 우승시 시가행진 코스로도 활용되었다. 2021년 런던 올림픽 복싱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순철 선수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되기도 했다.

‘변영로’는 뉴욕제과 앞 교동삼거리에서 해랑중학교 앞과 공설운동장 오거리, 동명동 사거리와 의료원 입구를 지나 중앙로와 합쳐지는 도심 우회도로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하였다.

‘수복로’는 1937년 개통된 동해북부선 철도가 폐지되어 철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도로로 조성되었는데 조양동 동해대로에서 갈라져 청초천을 가로지르는 소야교까지를 ‘조양로’로 명명하였다. 만천사거리를 지나 금호동 40계단 마을 앞과 중앙시장을 통과하여 버스터미널 옆 사거리까지는 ‘수복로’에 해당한다. 양우아파트 앞에서 중앙로 합류 지점까지는 ‘법대로’로 명명되었으며, 이 길은 속초에 정착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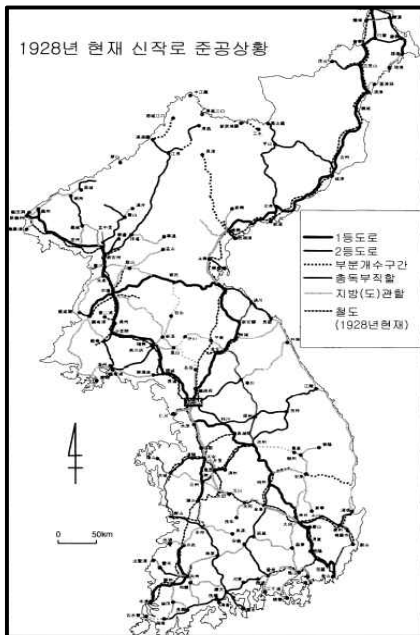
많은 실항민들의 애환이 깃든 추억의 도로이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 부산에서 고성까지 7번 국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도로의 연혁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7번 국도 연혁

1911년	조선총독부, 「조선도로규칙」 원산~양양 구간, 총독부 관리, 2등 도로 지정
1917년 10월 9일	조선총독부, 제1기 치도계획 전구간 준공, 원산~장전 2등 도로 완공
1928년	조선총독부, 「조선 도로현황」 고성 장전~포항 구간, 도지사 관리 3등 도로
1938년	조선총독부, 「조선도로령」 부산~원산 구간, 국도 제 21호선 지정
1945년~1971년	「조선도로령」 계속 사용
1971년 8월 31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부산~온성 구간, 국도 제7호선 지정-속초도심구간 통과 : 대포동-조양동-교동-청학동-금호동-중앙동-동명동-영랑동-고성 용촌리
1999년 10월 1일	속초 교동~고성 토성면 용촌리 5.39 km 구간, 국도 제7호선 신규 지정-속초외곽 통과 : 대포동-조양동-교동-고성 용촌리

출처 :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13/위키백과』



〈그림 16〉 일제강점기 도로현황(1928)¹⁴⁾ 〈그림 17〉 일제강점기 장전-포항 3등도로 현속초구간(1918)

13)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토목편」 제3부 도로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2010, 240, 257, 2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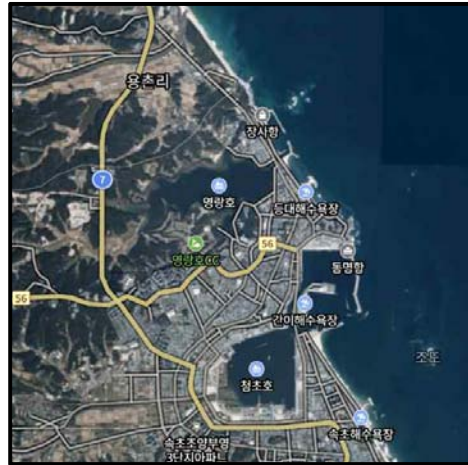
14) 도도로키 히로시, 『20세기 한반도 도로교통 체계변화』,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2004, 134쪽.



<그림 18> 일제강점기 도로 현황 강원도 상세도(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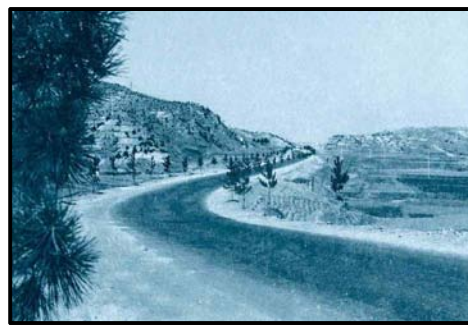
<사진 33> 속초 도심 통과 구 7번 국도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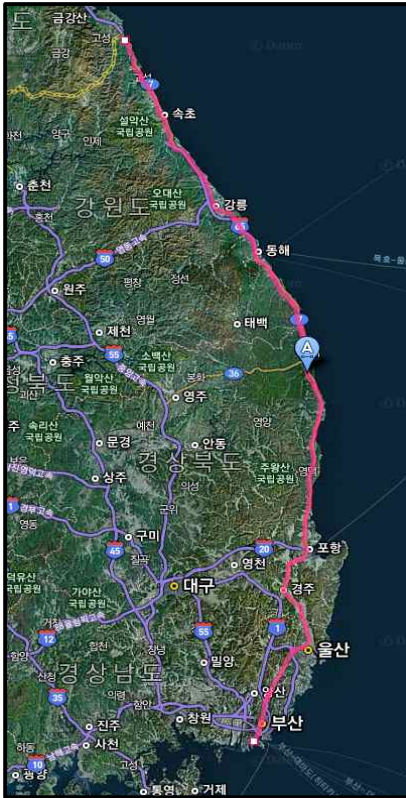
<사진 34> 속초 우회 통과 현 7번 국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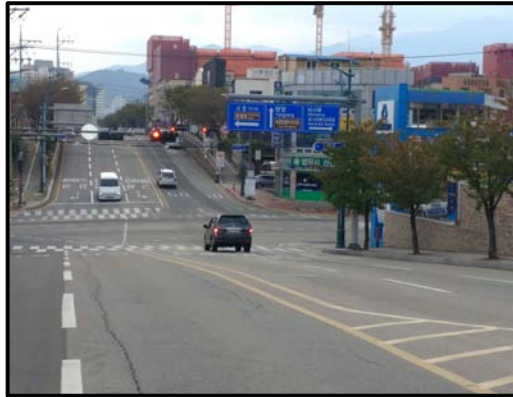
<사진 35> 미시령로 - 56번 지방도 (1970년대)



<사진 36> 7번국도 조양동-대포동 구간 (1970)



<그림 19> 7번 국도 남한지역(2021)



<사진 37> 수복로-법대로(2021)



<사진 38> 중앙로(2012)

2) 철도 교통의 변천

동해북부선은 부산진역~안변역간 동해선 건설이 진행되면서, 1929년에 함경남도 안변역~흡곡역간, 1931년에 흡곡역~통천역간, 1932년에 통천역~외금강역~고성역간, 1935년에 고성역~간성역간, 1937년에 간성역~속초역~양양역간이 개통하였다.



<사진 39> 동해북부선 외금강역(1934)¹⁵⁾

1945년 남북분단으로 인해, 전 구간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동해북부선은 북한의 철도가 되었다가, 휴전이후 남한은 1967년 전구간이 폐지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안변역~금강산청년역(舊 외금강역) 구간을 복원하여 금강산청년선으로 노선 명칭을 변경했다.

남한 지역에 있던 역의 명칭은 초구역~현내역~거진역~간성역~공현진역~문암역~천진역~속초역~대포역~낙산사역~양양역이며, 총 11개 역사가 건립되었으나 현재 남은 건물은 한곳도 없고 종착역인 양양역은 현 양양읍 송암리에 위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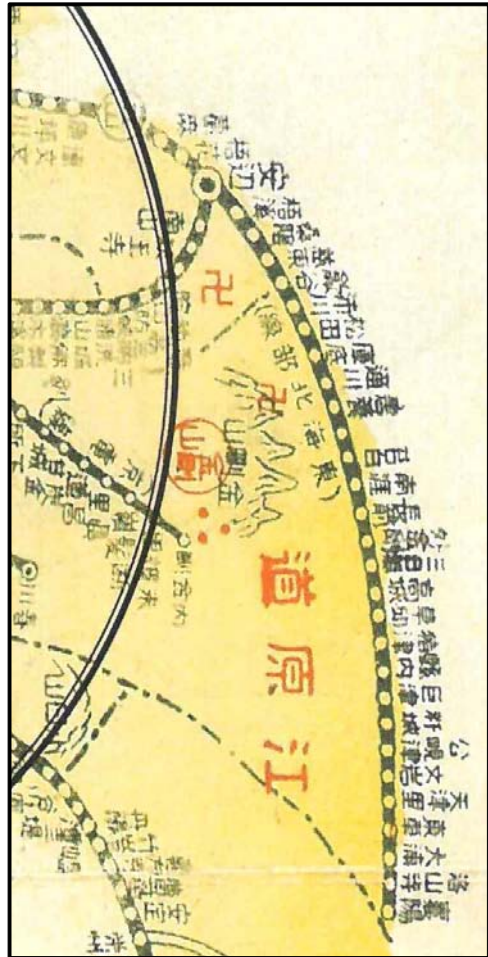
<사진 40> 동해북부선 간성역터
(현 간성읍 신안리)



<사진 41> 동해북부선 속초역¹⁶⁾
(현 속초시 동명동)



<사진 42> 동해북부선 양양역터
(현 양양읍 송암리 384-2)



<그림 20> 동해북부선 노선도(1949)

15) 독특하고 아름다운 독일식 건축물로 1932년 9월 16일 개통식을 가졌고, 현재 금강산청년역으로 불린다.

16) 속초시립박물관에 전시된 속초역 복원 사진.



<그림 21> 동해북부선 속초시 노선 복원도
 <사진1,2,3,4,5 전태극 사진작가, 사진6 속초시립박물관>

<지도설명> 속초 구간은 구체적으로 쌍천 철교~설악산 입구~대포역(현 농공단지 4거리 북쪽)~동명 아파트 앞~조양로~부영아파트 사이~청초천 소야교~수북로~만천사거리~교동사거리~속초초등학교 앞~중앙시장 주차장 앞~속초역(현 장안로 26-2, 26-4)~터미널 사거리~검찰청 속초지청 앞~양우 아파트 앞~영랑초등학교 앞~영랑교~영랑동 주민센터 좌측~사진용촌길~속초고등학교 앞~예다울 마을을 거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방면으로 노선이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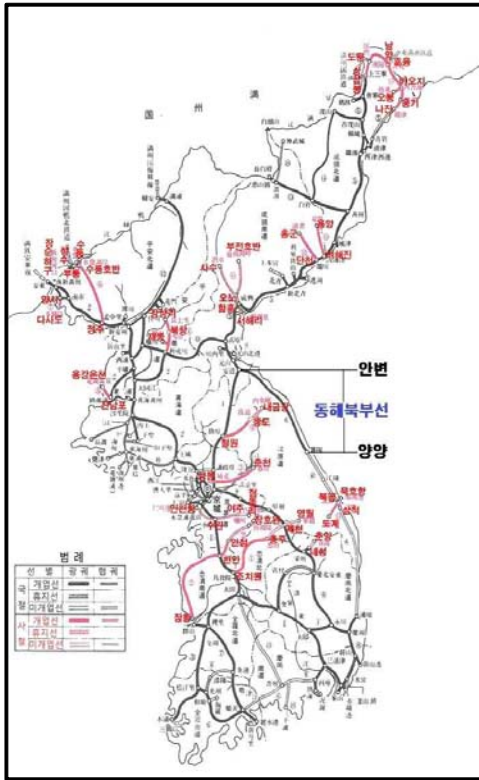
1967년 동해북부선이 폐선되었지만 철도길은 주요한 교통로로 아이들의 놀이터였으며, 교통의 만천동 마을, 속칭 청학동 니나노촌, 금호동의 40계단 마을, 동명동의 우렁길 마을 등이 철로변에 위치한 대표적 마을이었으며 수많은 애환과 추억이 이곳에 서려 있다.



〈그림 22〉 동해북부선과 속초지형도(1937)

〈지도설명〉 속초 지형도는 1956년(단기 4289년) 발행되었으나, 지도 오른쪽 하단의 순경주재소(일제강점기 파출소)와, 왼쪽 하단의 속초면(1942년 속초읍 승격) 지명으로 볼 때 1937년 동해북부선 개통 직후인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에 초판이 발행된 것을 6·25전쟁 후 일본어를 삭제하고 재발행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현면 물치리에서 대포로 이어진 철로는 구배(기울기)가 급한 대포 고개를 우회하기 위해 국도에서 떨어져 북상하는데 일반 철도는 열차차량 바퀴와 레일간의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3% 이상의 기울기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포역¹⁷⁾은 농공 단지 앞 4거리에서 150m 북쪽에 위치한 SK LPG 에너지 맞은편에 위치하였으며, 부월리 앞에서 왼쪽으로 크게 선회하여 청초호를 반원 형태로 통과하여 소야벌을 지나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직전에 위치한 속초역에 다다른다. 이어 영랑호 하구를 지나 철로는 다시 국도에서 떨어져 구배가 급한 용촌 고개를 우회하여 현 속초고등학교 앞을 지나 용촌리 내륙을 거쳐 천진역으로 북상한다.

17) 전태극의 증언, 현재 68세로 2021년 9월 29일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50년대 말 대포역이 위치한 곳에서 부모님과 밭을 경작하였으며, 대포역 공중화장실 흔적으로 5개의 변기시설이 있었다고 함.



<그림 23> 일제강점기 철도 노선¹⁸⁾



<사진 43> 동해북부선 철독길-수복로



<사진 44> 동해북부선 철독길-법대로



<사진 45> 동해북부선 고성군 북천 철교 교각



<사진 46> 동해북부선 양양 남대천 철교 교각

<사진 전태극 사진 작가>

18) 1945 조선교통사지도



<그림 24> 동해북부선과 북한 철도 연계도



<그림 25> 동해선 구간 현황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2020년 4월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되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 이 사업은 남강릉역~강릉역~주문진역~양양역~속초역~간성역~화진포~신호장~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되며 2021년 하반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강릉~제진 사이는 동해선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총 1,279.3km의 철로(건설 예정 포함) 중 금강산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8.2km의 구간은 이미 2004년에 복원이 완료됐으며 군사분계선~제진 6.6km 구간은 2005년에 복원됐다. 현재 포항~삼척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으로 강릉~제진 구간만 연결되면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철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돼 유럽까지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¹⁹⁾



<그림 26> 동해북부선 정차역²⁰⁾

동서고속화 철도는 정부가 2016년 7월 확정 발표하였으며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총연장 92.8km로 춘천역~화천역~양구역~인제역~백담사역~속초역을 연결하며, 2021년 하반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일제는 경인선과 경춘선으로 연결된 철도 노선을 연장하여 양구·인제를 거쳐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를 종점으로 동해북부선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941년 4월 25일부터 2개월간 거쳐 춘천군 후평리에서 양양군 속초리까지 90여km의 측량을 실시하였다²¹⁾.

이후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처음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역대 정권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비로소 확정되었다.



<그림 27> 동서고속화철도 기본노선도 <사진 연합뉴스 제공>



<그림 28> 동서고속화 철도신규대안노선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림 29> 동서고속화 철도 속초역사 부근도 <<https://blog.naver.com/aa3356aa>>

19) 「설악신문」, 2020. 4. 27일자.

20) ‘신호장’은 철도의 정거장의 일종으로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장소

2) 해운 교통의 변천

속초가 위치한 동해안은 해운업의 발달이 저조하였다. 조선시대는 삼남 지방의 특산물과 쌀을 큰 하천부근에 위치한 조창으로 모으고 선박으로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하구와 연안 바닷길을 통해 한강하구를 거쳐 서울 마포나루까지 운반하는 조운제도를 확립하였다. 하지만 동해안은 경제적 생산물이 적고 바다를 통해 한양까지 남해안을 돌아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태백산맥을 넘는 육상 교통으로 산물을 운반하였으며, 해안선이 남북 방향으로 단조롭고 연안 지역에 유인도가 없어 육지와 육지,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연안 해운 역시 발달하지 못하였다.

가) 백두산항로(북방향로)

본격적인 해운 교통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동해안에 기선이 운항된 것은 1880년 원산이 개항되면서 일본 고베에서 원산까지 월 1회 운항하였다. 동해안 연안항을 경유하는 기선 운항은 1909년 2월 정부 소유선 융희호를 원산의 일본인에게 빌려줘 부산~원산 등 4개 노선이 개설 운항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융희호의 정기항로 기항지가 바로 대포항이었다.²²⁾

2000년 4월 28일 오후 1시, 1만 2천톤급 여객선 동춘호가 뱃고동 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서서히 속초항을 빠져나갔다. 여객선에는 초청 인사 140여명이 타고 있었다. 총연장 944km의 ‘백두산항로’가 마침내 첫 취항길에 오른 것이다. 동춘호는 이튿날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자루비노항에 도착했다. 러시아측은 전통무용을 곁들인 대대적인 환영 행사로 속초에서 온 손님들을 맞았다.²³⁾

백두산항로는 속초항을 환동해권 북방교역의 거점항으로 육성하려는 야심 찬 프로젝트로 속초항~러시아 자루비노항~중국 훈춘을 거쳐 백두산 관광과 연계했던 사업으로 2000년 4월 첫 취항 이래 2014년 6월까지 중국(동북 3성)과 러시아(극동지역)와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환동해권 국제교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시간도 속초항에서 백두산까지 944km를 25시간에 도착하였는데, 이는 인천항~다렌항을 거쳐 열차를 타고 백두산까지 1,848km를 48시간 만에 도착하는 노선보다 경쟁력 있고, 비용도 인천공항~엔지(연길)공항을 거쳐 백두산에 도착하는 항공운임 대비 50% 수

21) 「강원일보」, 2019. 5. 22일자.

22) 엄경선, 『속초음식생활사』, 속초문화원, 2018, 138쪽.

23) 「설악신문」, 2011. 9. 5일자.

준이었다.²⁴⁾

2000년 4월 첫 출항했던 동춘호는 노후화로 퇴역하고, 2006년 4월 6일 1만 3,000톤급의 뉴동춘호가 새로 백두산항로에 투입되었고, 2010년 10월 사고로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2013년 3월 뉴-블루오션호가 새롭게 출항하였으나 이듬해 2014년 6월 항로가 멈추었다. 여객선도 2015년 11월 속초항을 떠나 필리핀으로 거처를 옮겼다.²⁵⁾

북방항로는 남북 관계 개선시 남북교역의 중심항로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항로 개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속초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용객과 화물량 감소, 남북관계 단절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냉전 시대를 맞아 현재 중단 상태이다.

<표 8> 북방항로 취항에서 운항중단까지

1999. 10. 5	한중 합작 신규법인 ‘동춘항운 주식회사’ 설립
2000. 4. 28.	백두산항로 ‘동춘호’ 첫 취항. 속초항~자루비노항, 초청인사 1백40여명 탑승.
2000. 5. 17.	동춘호 일반 승객 신고 첫 출항.
2003. 11. 9.	북방항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장 운항
2005. 4. 15.	강원도 ‘러·중 문화촌’ 조성 계획 발표
2006. 4. 6.	백두산항로 1만3,000톤급 뉴동춘호 취항, 속초항~자루비노항
2006. 3. 15.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 준공식.
2008. 3. 31.	북방항로 운항중단, 러시아측 여객·화물 통과비용 50% 인상 요구. 협상 결렬.
2008. 11. 25.	속초항 러시아 중고차 수출 1만대 돌파
2008. 6. 29.	속초항~러시아 자루비노항~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첫 화물 운송.
2009. 3. 12.	속초항활성화 지원조례제정. 소무역상 러시아 비자발급 비용지원 (연간 28만원)
2010. 10. 2.	뉴동춘호가 출항 중 삼발이에 스크루 훼손 사고 발생. 운항 중단.
2011. 5. 30.	동해상공회의소, 국토부에 동해항~러 자루비노 항로 개설 건의
2011. 10 11.	동춘항운(주) 면허 취소
2011. 11 29.	대아항운(주) 면허 취득
2012. 9. 10.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경매낙찰(대아고속해운)
2013. 2. 22.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승계(대아해운 → 스테나대아라인)
2013. 3. 19.	뉴-블루오션호 취항식
2014. 6. 28.	휴업

출처 : 『설악신문/속초시지』

24)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上), 2006, 999쪽.

25) 「설악신문」, 2015. 11. 24일자.

〈표 9〉 북방향로 운항실적

구 분	항 차	여 객(명)	컨테이너(TEU)	차 량(대)	중장비(대)	비 고
총 계	1,291	526,697	43,101	23,304	1,846	
2000	87	36,680	779	0	0	4.28 동춘호 첫 출항
2001	128	52,122	2,422	47	0	
2002	118	51,52	4,060	3	0	
2003	111	47,124	4,965	58	0	
2004	106	53,916	5,023	1,294	86	
2005	109	57,313	4,603	2,132	127	
2006	110	64,118	5,498	1,828	148	4.6 뉴동춘호 출항
2007	112	49,172	5,318	3,172	328	
2008	108	33,730	2,763	11,189	489	
2009	107	25,991	3,937	711	122	
2010	68	19,434	1,989	1022	96	
2013	82	20,287	1,000	485	345	3.19 뉴블루오션호 출항
2014	45	15,358	744	1363	105	6.28 휴 업

출처 : 속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수산 - 속초항 활성화



〈사진 47〉 동춘호 취항식



〈사진 48〉 뉴동춘호 취항식



〈사진 49〉 뉴블루오션호 취항식

나) 금강산 향로

속초항은 금강산 해로관광의 출발항이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2008년 7월 13일까지 약 10년간 진행되었는데 크게 해로관광의 시기와 육로관광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해로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금강호가 복한 고성군 장전항으로 첫 출항을 하였으며, 이어 봉래호, 풍악호, 설봉호가 차례로 취항하였다. 이중 풍악호는 2000년 3월 9일 부산항으로 출항지를 변경하였으나 오래 가지 못했고, 동해항에서 출발하는 관광노선도 2001년 6월 종료되었다.

속초항에서 시작한 금강산 해로관광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을 북에 제안해 시행하게 된다.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5백 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북한 측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을 합의하고 돌아와서 6월 25일 “금강산에 1천 명 승선 규모의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발표했다. 현대그룹은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유람선 출항지로 유력한 속초시와 동해시를 찾아와 현지 여건을 조사하였다.

이때 금강산관광이 속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에 속초시민은 온통 흥분에 휩싸였다. 금강산관광 발표 이틀 후인 6월 27일 속초시는 금강산 유람선 유치기획단을 구성했고, 7월 2일에는 속초 지역 1백 46개 사회단체가 나서서 금강산 유람선 속초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7월 9일 동명항 항만부지에서 시민 1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강산 유람선 취항 환영 및 속초항 유치 범시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1천 개의 소망 풍선을 하늘에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속초시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첫 금강산 출항지는 속초항이 아닌 동해항으로 선정되었다. 1998년 11월 18일 오후 5시 44분 동해항에서 관광객 933명을 태운 유람선 ‘현대 금강호’가 4박 5일의 여행 일정으로 북한 장전항으로 출항해 다음날 오전 6시 장전항에 도착했다. 이후 동해항 금강산 유람선 운항은 현대상선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2001년 6월 27일 금강호의 출항을 마지막으로 2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다시 1년 후 속초에서 금강산 쾌속선을 띄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99년 10월 11일자 「설악신문」에 현대상선이 속초시에 속초~장전간 관광선을 운항할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현대상선은 9천톤 규모에 7백 20명이 승선할 관광선을 하루 1회 왕복하는 노선으로 운항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쾌속선 속초취

항은 바로 이뤄지지 않고 다시 1년의 시간이 지났다. 2000년 10월 금강산 쾌속선 운항을 위해 현대상선은 이미 그해 4월 28일부터 속초~자루비노 항로를 운항 중인 동춘항운과 두 차례 터미널 사용을 협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금강산 쾌속선 첫 취항도 동해항에서 이뤄졌다. 대신 쾌속선 취항 이후인 12월 2일 현대상선은 속초항에 여객터미널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드디어 2001년 1월 6일 오후 1시 속초항에서 장전항까지 금강산 관광선 현대 설봉호가 역사적인 첫 취항을 하였다. 첫 취항에서 5백 명의 관광객을 실은 설봉호는 동해항 항로를 절반으로 단축시켜 장전항까지 3시간 만에 도착했다. 설봉호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운항하다가 2004년 1월 10일 마지막으로 출항을 했다. 이로써 금강산 해로관광이 끝났다.²⁶⁾

<표 10> 금강산관광 주요일지

1998. 6.	현대, 금강산 첫 출항지 결정 난항⇒후보지, 3개항(속초·동해·옥계항)
1998. 11. 18	금강산 관광선 금강호 동해항 첫출항
1998. 7	금강산쾌속선속초항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결성⇒157개 민간단체 연합체 결성
1998. 7	금강산쾌속선속초항유치범시민결의대회⇒참석인원 12,000명, 동명항
2000. 6.	금강산 관광선 속초항 취항 발표(현대상선)
2000. 8. 8	속초/장전간 금강산 관광선 운항 대북사업 승인신청(현대 → 통일부)
2000. 8. 10	속초↔장전항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현대→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00. 9. 29	속초~장전항 금강산 쾌속선운항 속초시민설명회(230명, 문화회관대강당)
2000. 10. 1	금강산 쾌속선 ‘트레저 아일랜드호’ 동해항 출항
2000. 10. 1	금강산 관광선 속초항 조기 취항을 바라는 속초시민의 입장건의 서명 (1204명 서명)
2000. 11. 20	속초항 금강산관광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허가 수리 (동해청→현대)
2000. 12. 27	관광사업자(관광 유람선업) 신청/등록 (2001.1.5) 현대 설봉호(8923톤), 114.5m, 탑승인원 730명, 속력 17노트
2001. 1. 6	금강산 쾌속관광선 설봉호, 속초 취항식, 속초↔장전간 첫 출항 : 435명 (2박 3일)
2002. 3	정부 이산가족과 학생 등에게 1인당 금강산관광 경비 지원(34만원) 1년간 지급
2003. 2. 5	금강산 육로 관광 사전 답사
2003. 8. 13	금강산 육로 관광 본격 시작
2004. 1. 10	설봉호 마지막으로 속초항 출항 - 금강산 해로관광 종료
2008. 7. 11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 - 금강산관광 중단

출처 : 「설악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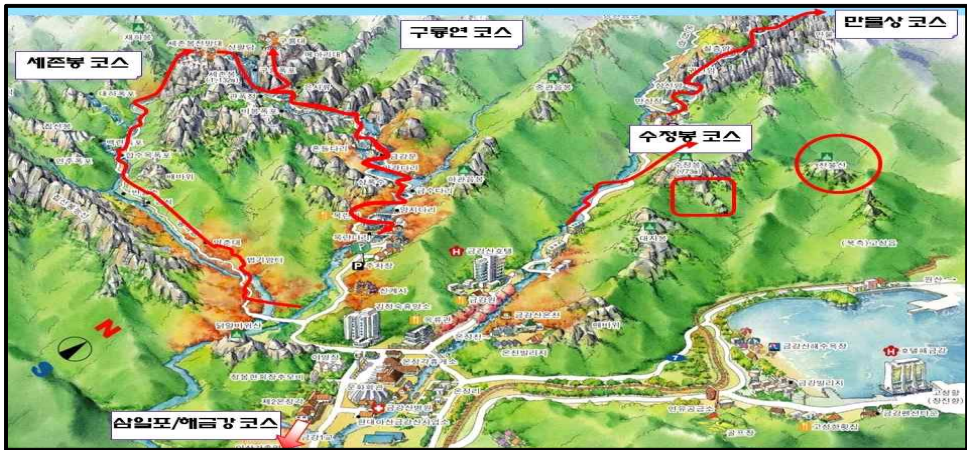
26) 「설악신문」, 2020. 7. 20일자.



<사진 50> 금강산 관광객



<사진 51>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 기념공연(금강산 온정각)



<그림 30> 금강산 관광안내도



<사진 52> 소떼를 몰고 방북하는 정주영회장



<사진 53> 속초 국제선 여객터미널



<사진 54> 현대 설봉호 속초항 출항식



<사진 55> 금강산 육로 관광

〈표 11〉 금강산 관광객 현황

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출발지
1998	해로											2,957	7,597	10,554	동해항
1999	해로	9,985	11,852	14,339	11,429	16,134	11,847	0	14,770	15,498	16,923	12,817	12,480	148,074	
2000	해로	12,930	15,611	20,502	17,373	15,917	19,355	15,569	19,132	19,157	28,152	17,817	11,494	213,009	동해항 부산항
2001	해로	6,482	7,349	10,433	5,859	5,458	3,992	1,678	4,208	2,648	4,064	3,555	2,153	57,879	동해항 속초항
2002	해로	1,463	1,173	3,002	4,640	6,034	7,451	11,203	12,101	4,076	12,432	10,994	10,158	84,727	속초항
2003	해로	1,931	1,589	3,082	2,781	0	166	5,360	7,219	3,400	6,851	5,397	2,126	39,902	
	육로	0	1005	0	0	0	0	0	756	6,579	11,435	9,023	5,634	34,432	고성
2004	해로	449	0	0	0	0	0	0	0	0	0	0	0	449	속초항
	육로	5,502	8,193	15,583	16,176	17,539	19,078	30,908	43,312	30,015	37,245	25,061	19,359	267,971	
2005	육로	15,335	16,323	25,336	31,303	35,950	36,116	34,472	42,839	16,041	18,321	12,466	13,745	298,247	고성
2006	육로	11,029	17,812	20,278	27,404	26,932	25,561	19,223	26,243	20,223	22,517	9,407	8,167	234,796	
2007	육로	11,118	10,539	17,610	17,805	32,641	24,182	26,505	32,515	41,904	63,606	49,157	17,424	345,006	
2008	육로	17,972	16,408	28,025	38,105	45,003	44,615	9,338	0	0	0	0	0	199,466	
총계		94,197	107,856	158,193	172,879	201,613	192,369	154,263	203,103	159,550	221,556	158,662	110,349	1,934,512	
비고	* 해로 관광객총계 554,594명 * 육로 관광객총계 1,379,918명 * 이산가족행사 및 남북공동행사 참석 등 방북인원은 미포함.														

출처 : 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관광협력사업), 통일부 / KOSIS-국가통계포털

다) 경수로 항로

1998년 2월 26일 속초항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여객선이 취항했다. 2월 26일 오전 12시 경수로²⁷⁾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자와 현장 인부 15명을 싣고 대아고속해운 대원카타마란호가 속초항을 출발해 오후 4시 30분 북한 신포 양화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경수로 기술자 24명을 태우고 북한 양화항에서 정오에 출발해 오후 3시 15분 속초항에 도착했다. 비록 임시항로지만 북한과 정식으로 여객항로를 개설해 여객선이 운항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속초시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북한으로 여객선이 처음 떠나는 날, 실향민을 비롯한 5백여 명의 속초시민들이 여객터미널에 나와 북으로 떠나는 여객선을 환송했다. 환송객 중에는 여객선이 도착하는 신포가 고향인 실향민이 고향으로 가는 배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이 첫 운항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여객선이 운항되었으며, 2000년 10월부터는 월 2회씩 운항 횟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1995년 12월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27) 감속제와 냉각제로 경수(보통의 물)를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체결되었다. 그 결과 1997년 8월 공사가 시작된 지 8년 4개월만인 2006년 1월 8일 신포 경수로 유지·보수를 위해 남아 있던 한국인과 미국인 등 모두 57명은 이날 오전 10시50분 대아고속해운 소속 선박인 ‘한겨레’호를 타고 현장을 떠나 오후 2시 20분께 강원도 속초로 귀환하면서 신포 경수로 사업은 사실상 완전 종료됐다.²⁸⁾



<사진 56> 대원카타마란호 출항



<사진 57> 대원카타마란호 항로



<사진 58> 대원카타마란호 출항식에 나온 신포사람들



<사진 59>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 현장

라) 한·중·일·러 신항로 운항

2009년 7월 28일 여객선 1만6천485t급 퀸 칭다오호가 속초항에서 일본 니가타를 향해 첫 출항했다. 퀸 칭다오호는 매주 월요일 속초항을 출항, 니가타를 거쳐 러시아 자루비노에 간 후 다시 니가타를 돌아 토요일 속초항에 도착하는 루트를 주 1회씩 운항하기로 했다. 국제신규항로는 4개국 교역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국제신규항로의 선사인 동북아훼리(주)는 강원도(10%)와 속초시(10%)·범한상선(31%)이 51%, 러시아 17%, 일본과 중국이 각각 16%씩 300만 달러의 자본금을 투자

28) 「설악신문」, 2020. 7. 13일자.

해 지난 2008년 12월 설립했다. 동북아횡리는 국토부로부터 재출항 허가를 받지 못해 첫 취항 후 한동안 운항을 중단해야 했고 어렵게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킨칭다오호는 여객과 화물이 없어 거의 빈 배로 다녀야 했다. 결국 2009년 9월 6항차 운항을 끝으로 용선계약이 만료된 킨-칭다오호 대신 일본 철도운송회사 소유인 히류 21호(1만4천700t급)를 투입할 계획만 세운 채 운항을 중단했다.

동북아 신항로는 취항 1년 3개월만에 좌초하였는데 6회 운항에 총 여객수는 226명, 화물은 컨테이너 17개에 불과했다. 당시 여객선인 킨칭다오호는 750명의 승객과 20피트 컨테이너 182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였다.²⁹⁾

한·중·일·러 신항로 운항이 좌초된 가장 큰 이유는 환동해권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남북한 모두 동해안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이며, 인구 또한 서해안에 비해 적다. 중국은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상실하면서 동해안과 접해있지 않으며, 러시아의 자루비노항과 북한의 나진항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물동량은 매우 적다. 일본 역시 서해안 지역은 흔히 도쿄-나고야-오사카-히로시마-기타큐슈를 연결하는 동해안의 태평양벨트 지역에 비해 소외지역이며 인구도 적고 산업발전도 미미하다.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도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9000km 이상 떨어진 낙후지역이며 역시 인구도 적고 소득수준도 낮으며 주산업은 1차 산업이다. 위와 같은 요인과 더불어 현재 남북관계는 단절되어 있으며, 북·일간, 중·일간, 러·일간 신냉전 관계는 설상가상으로 환동해권의 인적·물적 교류의 장애가 되고 있다.



<사진 60> 킨칭다오호 출항식



<그림 31> 환동해권 항로도
출처 : 「강원도민일보」

29) 「설악신문」, 2011. 9. 5일자.

마) 크루즈 항로

속초 국제크루즈터미널은 국비 373억원을 들여 연면적 9984㎡에 지상 3층 규모로 2017년 지어졌다. 속초항을 기항으로 하는 크루즈는 속초를 기점으로 블라디보스토크~가나자와~사카이미나토~부산~속초 등 코스를 순환한다. 당시 도는 속초항을 환동해권 크루즈 메카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준공 첫해에는 코스타 빅토리아(7만5000t)와 코스타 네오로만티카(5만7000t)가 총 11회 입출항 했지만 2018년에는 코스타 세레나(11만t급)와 코스타 네오로만티카(5만7000t급), 코스타 포추나(10만2500t급)가 각각 1항차씩 총 3항차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2019년에는 코스타 네오로만티카 1회, 코스타 세레나 3회, 실버익스플로러(6000t급) 1회 등 총 5회에 그쳤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2021년은 모두 28항차 모두 취소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졌다. 국제크루즈터미널이지만 음식점과 카페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면서 반쪽 터미널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도와 속초시도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이며 2021년 초부터 전국 5대 항만(부산, 인천, 여수, 제주, 속초)을 연결하는 연안 크루즈 항로 개설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코로나19로 성공 여부도 미지수다.³⁰⁾



<사진 61> 코스타 빅토리아호 출항식



<그림 32> 동아시아 크루즈 항로도

30) 「강원도민일보」, 2021. 8. 30일자.

〈표 12〉 속초 해운 항로(총괄)

사업명	운항지역	선박명	운항시작	운항종료	비고
경기연안항로	부산→울산→영일만→죽변→양양(대포항) →장전→원산	용희호	1909. 2.	1945-추정	폐지
경수로항로	속초항↔신포항	대원카타마란호 한겨레호	1998. 2. 26	2006. 1. 8	폐지
백두산항로	속초항↔자루비노항	동춘호 뉴동춘호 뉴블루오션호	2000. 4. 28	2014. 6. 28	중단
금강산항로	속초항↔장전항	설봉호	2001. 1. 6	2004. 1. 10	폐지
한·중·일·러 신항로	속초항→니가타항→자루비노항→속초항	퀸칭다오호	2009. 7. 28	2009. 9	폐지
크루즈항로	속초항→블라디보스토크항→가나자와항 →사카이미나토항→부산항→속초항	코스타빅토리아호 코스타네오로만티카호 코스타세레나호 등	2017. 5. 1	2019.	중단

출처 : 「설악신문」

4) 갯배 운항의 시작과 변천

속초시내 중앙동과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연결하는 갯배는 뱃사공이 없는 나룻배로 배를 탄 승객들은 저마다 쇠갈고리를 들고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쇠줄을 끌어당겨서 운행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속초를 상징하는 명물이다.

갯배의 역사는 한국 전쟁 이후가 아니라 훨씬 이전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지도를 보면 당시 원산-양양간 3등 도로가 대포리를 거쳐 청초호 동남쪽 반부평과 동쪽 모래 해변인 사주 한가운데 관통해서 청초호 하구 수로를 건너 속초리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의 갯배 운항로에 배 모양의 도선이 그려져 있고 우회도로와 연결되는데 이를 갯배의 시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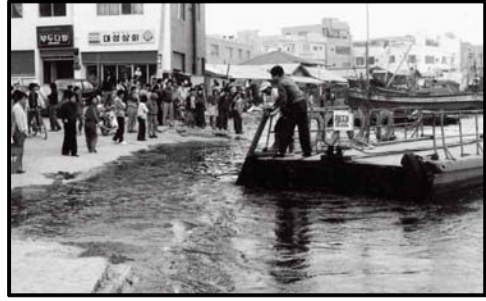
또한 다음과 같이 갯배의 운행을 보도한 내용도 있다. “속초호(束草湖)에는 면(面, 도천면)에서 경영하는 도선(渡船)에 의지하여 자동차는 물론 우마차도 운반해 왔으나 수년 전부터 호수 부근에 모래(砂)와 진흙(粘土)이 쌓여 통행상 장애가 있다. 양양읍 방면의 교통은 이용하기 편하나 속진 이북으로 토성, 죽왕 양면은 물론 북으로 고성군 일부와 고개 넘어 영서 방항으로는 경제활동이 어렵다.”

이어 1937년 속초항 수축공사가 진행되어 현재의 구수로가 완공되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31) 「설악신문」, 2018. 8. 27일자.



<사진 62> 갯배 1950년대



<사진 63> 갯배 1960년대



<사진 64> 갯배 1970년대

“당초 부월리 2구(청호동)와 속진(중앙동)이 맞닿아 있던 것을 준설해 외항과 내항(청초호)이 통수되고 폭 92m의 수로가 생긴 것이다. 그리하여 속초읍에서 갯배 1척을 만들어 도선에 이용하였는데 당시 갯배의 크기는 트럭 한 대와 우마차 한두 대를 같이 실을만한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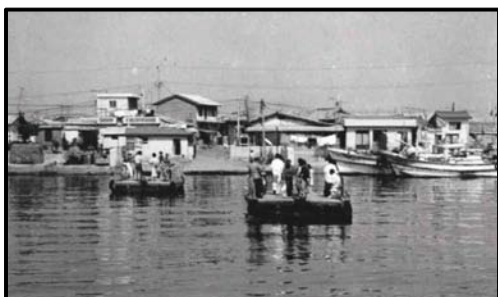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구수로 준설 당시에 청호동 동쪽에 방사제를 함께 축조하였는데 이때 영금정 석산에서 레일로 운반한 암석들을 도선을 통해 운반하여 청호동 방파제를 건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도선 운행은 중단되고 개인들이 거룻배를 이용하여 구수로를 왕복하였는데, 6·25전쟁으로 청호동에 피난민들이 밀집 거주하면서 당시 읍내와의 왕래가 매우 빈번하였다.

이 당시 조막손 영감으로 불린 김영학이라는 분이 거룻배 영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1955년 속초읍에서 지금 모양의 갯배 1척을 만들어 5구(청호동)에 관리를 맡겼다. 1961년 한 척을 더 만들었고(칠성조선소 제작) 정식 도선업 허가를 받아 재향군인회 속초지회가 위탁운영을 하였다.

이때 뗏목 형태의 갯배 원형이 등장하여 1998 FRP 갯배가 제작되기까지 오랜 기간 운행되었다. 당시 수협, 및 수협 공판장과 인접한 갯배 나루 주변은 속초 최고의 변화가로 자리매김하였고 속초시내에서 가장 활기찬 장소로 어민, 지역주민, 통학생들에게 갯배는 삶의 일부였다.

1998년 신수로가 개통되어 청호동이 양분되고 설악대교(구 청호대교) 개통과 더불어 아바이 마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인구감소로 갯배 승객이 감소하였으나 구수로 매립 계획이 철회되고, 2000년 <가을동화> 방영으로 갯배는 부활의 날개질을 하게 되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금강대교 공사로 제일극장 뒷편으로 잠시 갯배 선착장이 이동하기도 하였다.³²⁾



<사진 65> 갯배 1980년대



<사진 66> 갯배 1980년대 영화 '만추' 장면



<사진 67> 갯배 1990년대

갯배와 아바이 마을은 2010년 <1박 2일> 예능 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어 필수적인 관광코스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2012년에는 구수로 위로 금강대교가 개통되면서 청호동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

32) 「설악신문」, 2020. 5. 25일자.

아저 좀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주변의 고층아파트 완공으로 갯배의 낭만 관광은 안타깝게도 조망권을 상실한 채 운행되고 있다.

<표 13> 갯배의 역사

시기	구수로 형태 및 주변 특징	명칭	비고
1915~1936	바다에 접하는 곳 모래톱 발달하고 수심이 얕음	도선	포항~양양~장전 3등 도로 연결 갯배의 형태에 대한 언급 없음
1937~1945	폭 92m 정도 외항과 내항간의 어선 왕래	도선	1937 구수로 준설 및 확장 공사 트럭, 우마차, 손수레 운반
1945~1950	구체적인 자료 없음	거룻배	북한정권 통치 시기
1951~1954	수복후 청호동 실항민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등장	거룻배	개인 운영(김영학) 자건거, 손수레 이용의 어려움
1955~1960	양양군 속초읍에서 제작	갯배 1척	1955 목선이며 뗏목형태 갯배 등장 청호동 관리
1961~1997	수협, 수협공판장과 인접한 갯배 나루 주변 속초 최고의 변화가로 자리매김	갯배 2척	1961 갯배 1척 추가 제작 재향군인회 속초지회 위탁운영 1988 청호동 개발위원회 운영
1998~2009	1998 신수로 공사 시작 1998 구수로 매립 계획 철회 2003 설악대교 개통 교량 건설로 인한 수로 인근 매립으로 폭 56m로 축소	갯배 2척	1998 FRP 갯배 제작(정원 33명) 2000 드라마 <가을동화> 방영 2001 금강대교 공사로 제일극장 뒤편으로 갯배 선착장 이동
2010~2015	2012 구수로를 지나는 금강대교 개통으로 청호동이 속초시내와 직접 연결	갯배 2척	2010 예능 <1박 2일> 방영 2015 세월호 사건 영향(정원 12명)
2016~현재	2012 금강대교 개통과 2021 힐스테이트 준공으로 갯배 구수로 조망권 상실	갯배 2척	2017 현재 운행 갯배 건조(정원 32명)

출처 : 「설악신문」



<사진 68> 갯배 2021

Ⅱ. 역사



1915년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일대 지형도

1. 지명(地名)의 해석

가. ‘속초(束草)’ 지명의 유래

‘속초(束草)’ 라는 지명의 유래에 관해서는 향토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속초시 지명 연구의 선구자인 주상훈 선생은 속새가 많으므로 황무지, 원야(原野)의 의미로 속새, 한자로 속초(束草)라고 불렀다고 정리하였다.³³⁾

하지만 다른 향토사 연구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설을 주장하고 있다. 도시 이름의 기원을 정립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는 속초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며,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은 미래의 도시 방향성을 생각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속초’ 라는 지명이 처음 기록에 보이는 것은 조선 전기 기록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속초포(束草浦)’ 이다. 이 기록은 ‘속초’ 라는 이름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지역의 뿌리를 찾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자료이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속초’ 라는 지명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지금까지 연구된 ‘속초’ 라는 지명의 어원에 대하여는 4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속새풀<속새목, 속새과의 상록 양치식물> 관련 설

둘째, 솔섬(솔섬) 관련 설

셋째, 속초 지형의 와우형(臥牛形) 설

넷째, 울산바위 관련 설이 그 것이다.

4가지로 정리되는 지명의 어원 중에 마쪽마을과 관련 있는 것이 있다.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마쪽마을 바닷가 ‘솔섬(송도-松島)’ 과의 관련성이다. ‘솔섬’ 은 북방과제 입구에 있는 섬으로 현재는 육지가 되어 버렸다. 이 섬은 아주 오래 전부터 속초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올 때는 방향을 잡아주었으며, 휴식이 필요할 때는 자리를 펴고 놀게 해주었던 쉼터였다. 따라서 지역의 지명과 연관이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이 주장에 간단히 참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주상훈 선생이 쓴 『속초의 지명』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³⁴⁾

33)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19쪽.

“속초(束草)는 ‘뭉을 속(束)’ 자, ‘풀 초(草)’ 자라고 써서 이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영금정(靈琴亭)과 연관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영금정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 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솔산은 솔섬으로 동명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솔섬을 거쳐서 들어와야만 했다. 6·25전쟁 전까지만 해도 솔섬에는 노송들이 여러 그루가 있어 이곳을 ‘솔섬’ 또는 ‘송도(松島)’ 라고 하였다.

속초의 모습을 남기고자 노력한 김정우 선생의 기록물에는 마쪽마을을 이렇게 설명하였다.³⁵⁾

“속새라고 부르던 때는 섯쪽동리, 속진(束津)이라고 부르던 때는 전(前) 동명항 해안 변으로 속초시 동명동 37번지 일대에 쪽 민가가 있었을 당시의 이름인데 맞쪽이라고도 불렀다. …… 그 섯쪽동네는 속초 원주민의 모체이며 속초 역사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영금정 마을에서 구전(口傳) 되어지는 ‘속초’ 라는 이름은 그것이 기록되어졌을 당시 즉, 조선시대 단종임금 시기 이전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의미한다. ‘속초’ 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시기에 마쪽마을 거주민의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했을 것이고, 그들은 섬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아 항구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명의 고찰에서 ‘솔섬’ 의 의미를 다시 연구해 보는 것도 속초의 기원을 찾는 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마쪽마을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이 조선시대 이전부터라는 또 다른 증거도 있다. 그 근거가 최근 발굴된 장안골의 ‘속초리성지’ 이다. 속초리성지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천경삼년(天慶三年, 1113년)명’ 기와는 이 성의 축조시기를 고려 전기까지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발굴 결과로만 볼 때 이 성은 고려 전기의 동여진 해적과 같은 소규모 해적을 방어하는 역할과 고려 말~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청초호를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 속초포(束草浦), 쌍성포(雙城湖), 산성포(山城浦) 등으로 부르는데, 그 중 ‘산성포’

34) 주상훈, 앞의 책, 18쪽.

35) 김정우, 『내고향』, 강원일보사, 1997, 10쪽.

라는 이름은 속초리 토성이 청초호 출입구 앞의 만에 위치하면서 바다로 출입할 수 있는 포구를 가진 평지 산성이므로 산성포라고 했다는 주장이 있다.³⁶⁾

또한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속초리 성지는 치성(雉城)³⁷⁾이나 웅성(甕城)³⁸⁾의 용도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용도의 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성으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방어용·도피용으로 쌓은 것인데 주로 산악에 쌓았다. 여진, 왜구의 침입이 있을 당시 방어용으로 만들었다면 성의 안쪽과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귀중한 증거가 된다.

나. 비선대(秘仙臺)

옛 문헌에는 비선대(秘仙臺)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비선대는 현재 영금정 암반 자리에 있던 거대한 암봉(巖峰)으로 경치가 뛰어나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³⁹⁾ 비선대 주변에는 솔섬(松島)과 암초, 해식동굴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1925년에 기록된 『면세일반』에 의하면 소해금강(小海金剛)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지형이 아니고 기록도 많지 않아 그 모습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김정우 선생의 기록물에 구체적인 모습을 남겨 놓아 이를 통해 대략적인 모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지금 회집들이 늘어선 영금정 입구에는 큰 바위 돌산이 두 개 중간 밑바닥에 모래밭을 깔고 남북으로 갈라서서 마주 보며 형제 같은 모양으로 바위산이 서 있었고, 바위벼랑으로 늘어진 소나무 가지는 그 뻗시가 참으로 아름다웠다... (중략) ...그 형태는 설악권의 울산바위 형태를 닮았고, 지금은 허허벌판이 된 그 자리 옛 터전에 큰 돌산이 높이 서 있었다... (중략) ... 이 바위 제일 높은 곳에 장군 바위라는 마치 말을 탄 장군이 투구를 쓰고 양양한 동해를 감시하듯 서 있었다.⁴⁰⁾

암반 자리에 뽕족한 바위 봉우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봉우리 위에는 넓고 평

36) 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 『백산학보』 제108호, 2017, 85쪽.

37) 성벽에 접근한 적을 삼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성벽 바깥쪽에 덧붙인 시설물이다.

38)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또 한 겹의 성벽을 둘러쌓아 이중의 성벽을 만드는 성곽 구조물이다.

39) 김정우, 앞의 책, 31~33쪽 참조.

40) 김정우, 앞의 책, 32~33쪽 참조.

평한 지대가 있어 사람들이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암봉(巖峰)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문헌의 기록과 답사를 통해 대략 모양을 추론하여 【지리】 편에서는 주변 지형의 모습을 설명하였고, 【역사】 편에서는 문헌적 해석을 해보았다.

다. 영금정(靈琴亭)

영금정에 대하여 주상훈 선생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⁴¹⁾

“속초(束草)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3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이 있었는데, 이 석산이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일제시대(日制時代) 말기 속초항 개발 때, 이 석산을 파괴하여 여기서 돌을 채취하여 축항에 이용 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 그러나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 영금정(靈琴亭)은 누대(樓臺)정자가 있어서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音曲)이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영금정에 관한 김정우 선생의 기록은 보면 다음과 같다.⁴²⁾

낭떠러지 골짜기에 파도가 치면 미명(未明)의 소리가 퍼져 울렸고, 그 소리 때문에 영금정이란 또 한가지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넓은 암반에 큰 돌덩이산이 있었고, 이 돌산에 파도가 부딪쳐 내는 소리가 거문고를 타는 소리 같았다고 한다. 이 돌봉우리는 위에서 설명한 비선대이다. 『면세일반』 에도 비선대 편에서 영금정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옛 기록으로 남은 비선대와 구전으로 전해지는 영금정은 동일한 장소이다.

한가지 더 살펴볼 것은 주상훈 선생과 김정우 선생이 이야기했던 “선녀들이 밤이

41) 주상훈, 앞의 책, 32~33쪽.

42) 김정우, 앞의 책, 33쪽.

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읊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緋仙臺)라고도 하였다.” 라는 전설을 가진 장소이다.

현재 등대 아래 횃집 앞에는 넓은 양어장이 있었다. 현재는 물고기를 가두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물고기를 가두어 두던 곳이다. 이 양어장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파도에 밀려 들어오는 곳으로 양어장 뒤편(현 도로)은 예전에 바위가 파도에 파여 작은 담(潭)을 이룬 곳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선녀들이 목욕을 한다고 하여 선녀탕이라고 불렀다.

라. 솔섬(松島)

솔섬은 현재 동명항 북방과제 입구에 있는 섬이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도 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노송(老松)들이 고풍스럽게 우거져 있던 그림 같던 섬이었다.

섬이라고 하지만 해안선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섬까지 가는 길은 물이 깊지 않아 바지를 무릎까지만 걸어 올리면 건널 수 있는 섬이었다. 솔섬 주변 바닥에는 넓고 평평한 암반이 깔려 있어 건너가기도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은 동네 사람들의 생업터이면서 놀이터이기도 했다. <사진69>에서 보듯이 조그마한 섬에 노송들이 풍광을 더하는 형상이라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솔섬’이라고 불렀고, 한자로는 ‘송도(松島)’라고 했다.



<사진 69> 1956년의 솔섬 전경

솔섬은 어업과 관련이 많다. 솔섬 인근에는 건널바위(건너풀)라는 암초가 있었는데, 이곳의 물살이 험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항구로 돌아오는 배들은 가능한 솔섬 가까운 곳으로 운항을 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건너온 해녀들은 이곳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해 나갔다. 하지만 솔섬은 축항 공사를 하면서 동명항의 안전을 위해 육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 섬의 풍광을 만들던 노송들은 6·25전쟁 이후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송을 베어내어 민등산이 되었다. 현재는 육지가 되어 걸어서 올라갈 수 있으며, 섬 정상에는 정자를 지었다.

앞의 【지리】 편에서 언급하였지만 축항 공사를 하기 전의 지형도에는 솔섬 옆에 또 하나의 작은 섬이 보인다. 이 작은 섬은 섬이 아니라 암초였고, 축항 공사를 하면서 사라졌다. 현재의 모습에서 등대 아래 주차장 입구에 남아 있는 바위를 섬으로 생각하는 이도 있는데, 이곳은 산 사이로 레일을 깔기 위해서 절개한 지형이다.



〈사진 70〉 일제강점기 축항공사 때 찍은 솔섬(1930년대 중반). 출처 : 김정우, 『내고향』
 〈사진설명〉 속초 축항공사 중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작업장 망개 우인찌 기계를 중심으로 찍은 사진이다. 뒤편으로 솔섬과 레일이 보인다.

속초의 역사에서 이 섬은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속초’ 라는 지명의 시작이 솔섬에서 출발했다면 이 섬은 속초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것이다. 설사 지명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지를 건너 올리고 암반을 뚫으며 건너가 온갖 해산물을 땀다고 자랑하던 동네 어르신들의 추억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능하다면 이 섬을 복원하여 물길을 만들고, 물길 위로 둘다리라도 만들어 속초의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을 한다면, ‘속초’ 라는 지명의 전설과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명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더하여 이번 동명동 조사 활동을 하면서 옛 지형도를 참고하여 영금정의 옛 모습을 복원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리】편에서는 복구가 가능한 해안선을 다시 그려 영금정 인근 지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산과 암석 등의 모습을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려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하는 동안 솔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육지가 되어버린 섬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솔섬 만큼은 복원해 보자는 의견을 모아 예전 사진을 조합하여 6·25전쟁 전 솔섬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 보았다.



<그림 33> 6·25전쟁 전의 솔섬 주변 상상도 (고경애 그림)

<그림설명> 6·25전쟁 이후 솔산에 있던 소나무가 없어졌다. 솔산은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민둥산이 된 솔산 사진을 가지고 일제강점기 사진을 참고하여 솔산의 원래 모습을 그림으로 재현해 보았다.

2. 마을의 형성

가.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의 마을 분포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의 대표적인 마을로는 동명동의 마쪽마을, 윗(윗)마을, 장안골마을, 속초역 인근 마을, 수복탑 인근 마을, 중앙동의 3구시장 마을, 금호동의 갯배나루마을이 있다. 이 마을들은 해방 전후의 역사와 6·25전쟁 이후 속초의 도시 확장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곳으로 오랫동안 속초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마을들의 형성 시기와 마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의 마을 형성 시기

시기	마을명	위치	마을 형성기 행정구역
고려·조선시대	마쪽마을	동명동 해안가	속진리
일제강점기	윗마을	동명동 수복탑 부근	속초리
1950년대	장안골마을	검찰청 입구, 속초감리교회 안쪽	속초리 2구
	속초역인근마을	우렁골 주변	속초리 2구
	수복탑인근마을	수복탑 건너편	속초리 2구
	3구시장마을	중앙시장 주변	속초리 3구
	갯배나루마을	갯배 주변	속초리 3구



<사진 71> 6·25전쟁 이후 마을의 형성(1955년)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의 마을 분포도

나. 동명동 · 중앙동 · 금호동 마을 이름의 변천

일제강점기 양양군 도천면사무소는 대포리에 있었다. 그러나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속초리의 인구가 증가했고, 1937년에는 면사무소도 영랑동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속초리의 계속된 인구 증가로 속초면 속초리가 1942년 10월 1일자로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가 1구~4구로 나뉘어졌다.

해방과 6·25전쟁 후에는 피란민이 증가하였고 명태, 청어를 중심으로 어획고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더욱 늘어 1954년에는 3구에서 5구, 4구에서 6구가 분리되었다. 이렇게 나뉘어진 2구, 3구, 4구가 1963년 속초시의 승격 후 1966년 동(洞)제를 실시하면서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변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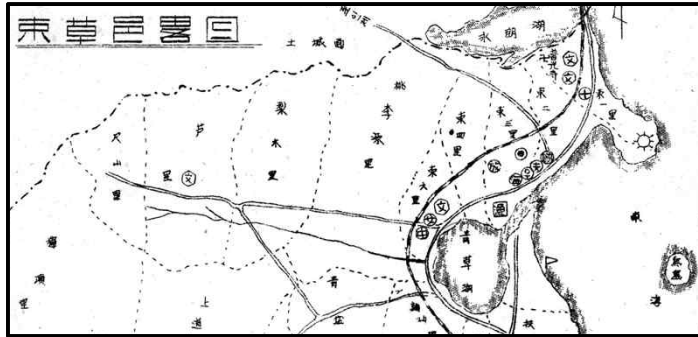
<표 15> 동명동 · 중앙동 · 금호동 마을이름 변천표

연도 동이름	조선 시대		1914		1937		1942		1945 ~ 1951	1951 ~ 1954	1954		1963 (1966 동제 실시)		1998
	동명동	소 천 면	속 진 리· 속 초 리	도 천 면	속 초 리	속 초 면	속 초 리	속 초 읍	속 초 리 2 구	북 한 소 속	군 정 기	속 초 읍	속 초 리 2 구	속 초 시	동 명 동
중앙동	소 천 면	속 초 리	도 천 면	속 초 리	속 초 면	속 초 리	속 초 읍	속 초 리 3 구	북 한 소 속	군 정 기	속 초 읍	속 초 리 3 구	속 초 시	중 양 동	속초시 금호동
금호동	소 천 면	속 초 리	도 천 면	속 초 리	속 초 면	속 초 리	속 초 읍	속 초 리 4 구	북 한 소 속	군 정 기	속 초 읍	속 초 리 4 구	속 초 시	금 호 동	

『도시변천사 I(영랑동)』에서 설명했듯이 조선시대에 존재하던 속진리(東津里)는 마쪽마을, 새쪽마을, 장안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지역으로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한 부군면 통폐합(府郡面 統廢合)에 의해 속초리(東草里)와 통합되었다. 이후 1942년에 속초읍 속초리 1구, 2구로 분리되었다가 1945년 북한 소속을 거쳐 6·25전쟁 중이던 1951년에 수복되었다. 그 후 1구는 영랑동으로, 2구는 동명동이 되었다. 속초리에 속했던 중앙동, 금호동은 속초읍 속초리 3구와 4구였는데

속초시 승격 후 동계 실시와 함께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이 되었다가 현재는 금호동으로 합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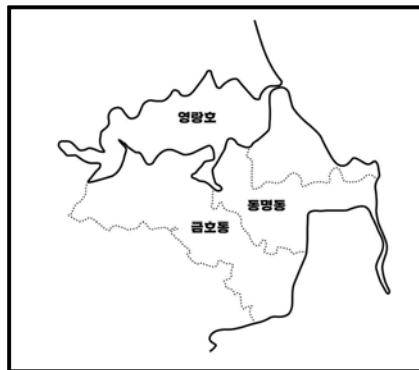
이 내용을 지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 1942~1965년 2구, 3구, 4구의 범위. 출처 : 1959년 『읍세일람』



<그림 35> 1966년~1997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의 범위



<그림 36> 1998년 동 통폐합 후 동명동·금호동의 범위

3. 전근대의 역사

가. 고려시대

속초리 성지는 현재 자이아파트 공사장 뒤편 일명 단천마을에서 시작하여 속초감리교회~속초 동명동성당~속초지원과 속초지청 그리고 속초 KBS방송국과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지역으로 속초항의 북서쪽에 인접한 해발 20m 내외의 구릉에서 남쪽으로 돌출하여 뻗어 내린 능선이다.

속초리 성지에 대한 기록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성지 도천면 속초리. 사유. 속초리 부락의 서쪽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주위 약 삼백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거의 완전하다.”⁴³⁾라고 처음으로 나타나지만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주민들이 전하는 말과 1950년대 미군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지형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위에서 말한 지역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10년 다수의 명문 기와와 연화문 기와 등이 발견되면서 “속초리 토성터”로 추정되어 ‘문화재 통합GIS 인트라넷 시스템’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표시되었다. 2012년 7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어 문화재청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속초리 성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2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속초 동명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기단석축과 그 상위로 판축(版築)을 실시한 토성의 성벽구간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벽의 끝이 확인되는 양상으로 볼 때 이 성벽은 돌출된 자연구릉을 이용한 치(雉) 내지는 웅성(甕城)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성벽 축조시점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내벽과 외벽을 축조하기 위해 이용된 기와 등을 통해 추정할 때 이 성의 축조 시기는 12세기로 추정하고 있다.⁴⁴⁾

43) “城址 道川面東草里 私有 東草里部落ノ 西方ニ 近接セル 小丘上ニアリ 周圍約三百間土築, 稍完全”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소화 17)년]

44) (재)에맥문화재연구원, 「속초 동명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2, 37쪽.



<사진 72> 속초리 토성터 추정 범위



<사진 73> 1950년대 속초리 성지⁴⁵⁾



<사진 74> 기단 석축 축조 상태



<사진 75> 조사완료 후 전경(북⇒남)



<사진 76> 명문기와

45)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레버렛 기증사진 No.01-07.

나. 조선시대

1) 산성포(山城浦)

산성포(山城浦)는 청초호를 지칭하는 속초포(束草浦)의 또 다른 이름이다. 속초포에 관해서는 앞으로 발간될 III권에서 자세하게 서술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산성포’ 라는 다른 이름은 속초리 토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산성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 4년(1422) 양양 관내의 산성포 만호(山城浦 萬戶)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전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 변처후(邊處厚)가 일찍이 양양(襄陽)에 군수(郡守)로 있을 때에 … 중략… 경내(境內)의 산성포만호(山城浦萬戶) 이 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棉花)와 닥나무[楮]를 바꾸었습니다. (하략)⁴⁶⁾

세조 8년(1462) 산성포 만호(山城浦 萬戶)를 없애는 기사가 다음과 같이 보인다.

병조에서 도체찰사 한명희(韓明澮)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려우며, 연곡포(連谷浦)는 포구에 암석이 많아서 역시 배를 정박시키기가 어려우니 만호(萬戶)를 두기가 마땅치 못하고, 중략. 청컨대 산성만호(山城萬戶) 연곡만호(連谷萬戶)를 없애고 울진 삼척에 만호를 두게 하소서.” 요청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⁴⁷⁾

여기에서 산성포(山城浦)를 언급한 것은 산성포라는 이름의 유래 때문이다. 문헌에 기록된 ‘산성포’ 라는 이름을 가진 산성을 살펴보면 지역의 산성(山城) 가운데 ‘포(浦)’ 가 붙은 (산)성이 없다. 그런데 산성포를 없애는 이유가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청초호 주변에는 항구로 활용할 만한 강 하구가 없으므로 청초호의 해안사주로 인하여 병선이 바다로 출입하거나 정박하는데 장애가 있음을 말한다고 보인다. 더구나 포구가 있는 산성이 라면 평지에 있는 산성이므로 산성포는 속초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수군 병선들은 청초호(靑草湖) 내에 정박해 있다가 필요시 출동하였는데, 세종

46) 世宗實錄 권15, 4년 1월 25일 癸未.

47) 世祖實錄 권29, 8년 9월 14일 乙巳.

대에 와서 적극적인 해상방어체제가 성립하면서 청초호에서 바다 밖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속초리토성이 수군 병선들의 기항지이자 보급처로서의 포구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초호 밖의 산성(마을)인 속초리토성 쪽에 수군 병선이 전진배치 되고, 그 운용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 군사적 거점으로 산성마을(속초리토성)이 기능하면서 산성(마을)의 포구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산성포(山城浦)로 부르게 되었던 것 같다. 바다로 출입하는 포구가 있는 평지의 산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산성포는 속초리토성의 입지와 성격을 잘 설명해주는 명칭이라 하겠다.⁴⁸⁾

2) 마쪽마을의 형성

속진리(束津里)는 고려시대 토성(土城)과 조선시대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주둔하던 군사요충지였다. 속초시 성지 안쪽에는 장안(長安)마을이라는 비교적 큰 마을이 있었고, 속초리성지 외곽 속진리 바닷가 주변도 천연 항구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 어민들이 모여 살았다.

동명동 바닷가 마을을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마쪽마을이라고 불렀다. 마쪽마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시대 영조 때이다. 이 때 기록된 『여지도서』에 마쪽마을을 포함한 인구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 기록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보면 속진리에 58호(戶) 175명(名)의 인구가 있었다. 이 기록으로는 지금의 영랑동(법정동), 동명동 마을의 인구를 구분할 수가 없다. 하여튼 이 두 마을과 장안골까지 합치더라도 속진리는 작은 마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표 16>을 통해 소천면의 각 리별 호수 및 인구수를 보면 속진리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었다. 속진리 인구수는 농촌지역인 논산리(인구수 97명)에 비하여 약 2배에 달하며, 당시 소천면 인구의 약 28%의 주민이 속진리에 살고 있었다.

<표 16> 18세기 소천면(所川面)의 리별(里別) 인구⁴⁹⁾

(단위 : 명)

인구	리별	부월포리	논산리	속초리	속진리	합 계
편 호		18	20	86	58	182
인구수		86	97	272	175	630

출처 : 『여지도서』

48) 홍영호, 앞의 논문, 83쪽 참조.

49) 『輿地圖書』 襄陽府 坊里條.

그럼 속진리 중에서 마쪽마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 <표 17>를 보면 18세기 중반~19세기 후반까지 속진리의 인구는 대략 180여 명이었다.

<표 17> 조선 후기 속진리의 인구 변동

서명	편찬시기	편호	남자	여자	인구계
여지도서	영조33(1757)~영조41(1765)	58	79	96	175
관동지	순조29(1829)~순조31(1831)	51	79	106	185
관동읍지	고종8(1871)	51	70	106	176

1925년 작성된 『면세일반』에는 속초리에 187호가 있었다. 당시 속진리는 속초리에 합쳐진 상태로 행정구역상 마을 이름은 속초리였다. 당시 기록된 187호를 『여지도서』의 편호수인 속초리 편호86, 속진리 편호58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925년경 옛 속진리 지역에는 대략 80~90호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우 선생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마쪽마을에는 약 30호 정도가 있었다고 하니, 새쪽마을과 주변에는 50~60호 정도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1930년대 마쪽마을 사진을 보면 30호 이상의 가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1929년의 신문기사에 속초리의 인구는 210여 호라고 한 것을 보면⁵⁰⁾ 1920년대까지는 그렇게 많은 인구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가면 속초리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속초 축항 공사로 일꾼들이 모여들었고,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일거리가 생겨나면서 1935년 통계에는 속초리의 인구가 2,400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⁵¹⁾

3) 비선대

옛 문헌에는 비선대(秘仙臺)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흔히 비선대라 하면 설악산(雪嶽山) 비선대(飛仙臺)를 말하지만, 옛 문헌에는 지금 우리가 영금정(靈琴亭)이라 부르는 일대(一帶)를 비선대(秘仙臺)라 하였고, 그 빼어난 경치를 이야기하며 시문(詩文)의 소재로 삼곤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비선대(秘仙臺)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50) 「조선일보」, 1929. 3. 24일자.

51) 「동아일보」, 1935. 9. 26일자.

부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있다. 돌봉우리가 가파르게 빼어났고, 위에 노송 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 같다. 그 위에는 앉을 만하며 실 같은 길이 육지와 통하는데, 바다 물결이 사나워지면 건널 수 없다.⁵²⁾

또한 허백당(虛白堂) 성현(成愼 1439~1504) 선생은 설악산과 울산바위와 어우러진 쌍성호(雙城湖)를 노래하면서⁵³⁾ “비선대는 소나무 숲 가지에 가려져 있다” 라고 했고, 치재(恥齋) 홍인우(洪仁祐, 1515~1554) 선생은,

(중략)쌍성호를 지나 호수 서쪽 10여리에 석봉이 있는데 직횡이 울타리 같다하여 이 산이라 하며 속세에서 말하기를 우는 산이라 한다. 호수 동쪽에 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고 실 같이 가느다란 길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비선대라 한다.(중략)⁵⁴⁾

이 밖에 비선대에 대하여 언급한 시문과 지리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지 리 지	내 용	연 대	비고
『동국여지지』 권7 양양 누대조	在府北五十里 雙成湖東 有石峰峭拔 上有獨松凝株 望之如畫 其上可坐 有徑如線通陸 海惡則不得渡(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가파르게 빼어났고, 위에 노송 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 같다. 그 위에는 앉을 만하며, 실 같은 길이 육지와 통하는데 바다 물결이 사나워지면 건널 수 없다.)	1656년	
『관동읍지』 양양 누대조	在府北五十里 雙成湖東 有石峰峭拔可觀 舊有亭 今廢(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데 가히 볼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데 가히 볼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1871년	
『관동지』 13 양양 누대조	在府北五十里 雙成湖東 有石峰峭拔可觀 舊有亭 今則廢(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데 가히 볼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1829년 ~1831년	

52) 秘仙臺 °在府北五十里 °雙成湖東 °有石峯峭拔, 上有虬松數株, 望之如畫 °其上可坐, 有徑如線通陸, 海惡則不得渡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江原道 襄陽都護府)

53) 하늘 높이 솟은 설악은 활화가 기괴하여라/雪嶽凌空活畫奇, 이산은 험준하고 내봉 또한 우뚝하구려/籬山巖峯鼎峯危, 심 리나 펼쳐진 호수는 평야를 감싸 안았고/湖開十里包平野, 대 숲 어둡한 쌍성은 옛터가 그대로 있네/竹暗雙城有古基, 속초도는 넓은 바다 가까이 쑥 내밀었고/束草島侵滄海近, 비선대는 소나무 숲 가지에 가려져 있구나/秘仙臺隱亂松枝, 춘풍에 채찍 드리고 말 가는 대로 가노라니/風信馬垂鞭去, 풀 파랗고 모래 흰 곳에 해가 한창 길구려/草綠沙明日正暉(『虛白堂詩集』 卷10 詩 雙成湖,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54) (중략)過雙城湖 °湖西十餘里 °有石峯 °直橫如藩 °即籬山俗云泣山 °湖東 °又有石峯峭拔 °有徑如線通陸 °即秘仙臺 °(중략) [『恥齋先生遺稿』 卷3 關東錄(附),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지 리 지	내 용	연 대	비고
『강원도양양군읍지』 2 누대조	在府北五十里 雙成湖東 有石峰峭拔可觀 舊有亭 今廢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데 가히 불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1899년	
『강원도양양군읍지』 누대조	郡北五十里(군의 북쪽 50리에 있다.)	1899년	
『현산지』 누대조	在府北五十里 海上巖石 平寬 可坐數十人(부의 북쪽 50리에 있다. 해상암석이 평평하고 넓어 가히 수십인이 앉을 만하다.)	未詳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 秘仙臺在湖之東北石峯峭拔其上可坐(북쪽 40리, 간성군과의 경계에 있다. 돌래는 수십 리이다. 비선대는 호수의 동북쪽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에 있는데 그 위는 가히 앉을 수 있다.)	1861년 ~1866년	쌍성호

위의 기록처럼 조선시대 지리지에는 영금정 일대의 암봉을 비선대라 하였다. 1925년의 『면세일반(面勢一般)』에도 지금의 영금정 일대를 비선대라고 말해주는 기록이 있다.⁵⁵⁾

속초리 동쪽 끝 암초에 돌출해 기이한 형상과 묘한 그림 같은 것을 칭하여 비선대라고 한다. 이곳에서 바위에 기대어 내려다보면 동남쪽의 조도(鳥島)는 바다에 하나의 떨어진 섬과 같이 구름 끝에 우뚝 솟아 송도 부근에 크고 작은 돛단배가 있는 것 같다. 서늘한 바람은 바다에서 서서히 불어 여름철의 더위를 잊게 하여 해수욕을 하는 느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중략)

『관동읍지』 이후 지리지에 비선대에 정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 정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고, 설사 정자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영금정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비선대(秘仙臺)는 정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설악산 비선대(飛仙臺)처럼 높게 치솟은 바위 위에 평평한 곳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그렇다면 비선대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 【지리】 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비선대의 위치는 영금정 등대 밑 암반자리이다. 이곳에는 성황봉과 분리되어 있던 석봉이 우뚝 솟아 있었다. 『면세일반』에는 그 모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⁵⁶⁾

靈琴亭ニシテ數十尺ノ石壁ノ間ニ長九間幅五間ノ沙原ヲ開タル谷中ニ一個ノ岩峰突出シ其ノ様特ニ妙ト云フヤ○ナリ

55) 속초문화원, 『옛 문헌으로 본 속초 II』, 2008, 9쪽.

56) 속초문화원(2008), 위의 책, 9쪽.

영금정은 수십 척의 석벽 사이에 길이 9간, 폭 5간인 모래벌판이 펼쳐진 골짜기 가운데 한 개의 바위 봉우리가 돌출해 그 모양이 특히 신기하다고 한다.

위의 기록은 앞서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옛 문헌으로 본 속초Ⅱ』에서 번역한 내용이 문맥상 어울리지 않아 다시 번역한 것이다.⁵⁷⁾ 이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의 문헌과 김정우 선생의 기록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다만 지형적으로 암석해안에 모래벌판이 펼쳐져 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대략적인 해안의 구조는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의 기록들에서 공통 문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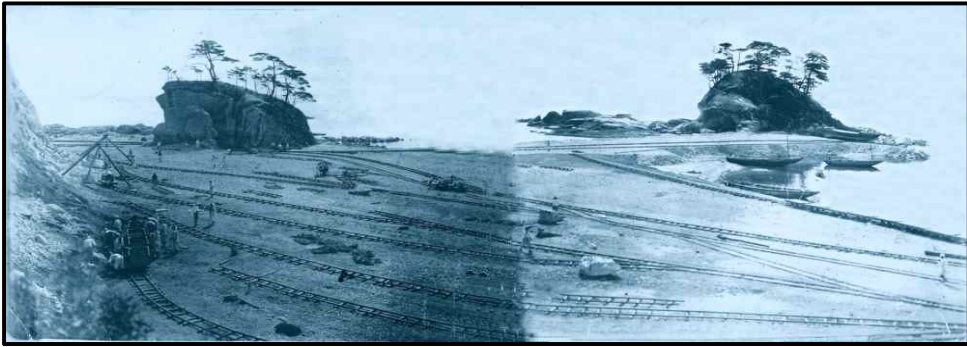
- ①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다. = 한 개의 바위 봉우리가 돌출해 있다.
- ② 바위 위에 넓은 암석이 있다. = 수십 인이 앉을 만하다.
- ③ 그림같이 경치가 좋다. = 기묘한 형상과 묘한 그림 같다.
- ④ 실 같은 길이 육지와 통한다. = 모래벌판이 펼쳐진 골짜기 가운데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현재 암반자리에는 성황봉과 분리되어 독립된 뾰족한 돌봉우리가 솟아 있었다. 이 봉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갈라진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곳은 절벽을 이루었다. 길을 따라 올라가 보면 노송 두어 그루가 있고 넓고 평평한 바위가 있어 수십 명이 앉아서 쉴 수 있었다. 성황봉 끝과 암석 봉우리 사이에는 넓은 모래사장(16m 정도^{58))이 있었는데 암석 봉우리로 접근하는 실 같은 길이 있어서 접근할 수는 있지만, 성황봉과 봉우리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와 파도가 심할 때는 건너갈 수가 없었다. 비선대는 봉우리의 모양만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운 자태를 가졌으며, 주변의 경치와도 어우러져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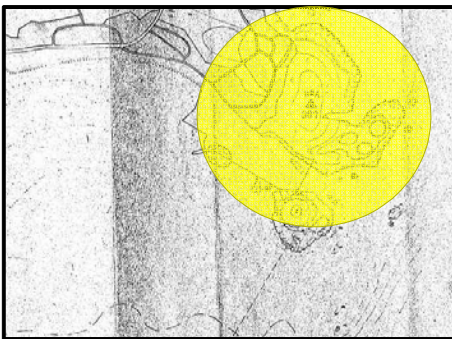
이토록 수려했던 비선대의 경관은 일제강점기 속초항 축항공사를 위해 암석을 채취하면서 훼손되었다. 안타깝게도 원형은 시문과 지리지에 전하는 글로 유추해볼 뿐, 지금까지 그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찾을 수가 없다.

57) 『옛 문헌으로 본 속초Ⅱ』, 9쪽의 비선대에 관한 해석에서 “높이 쌓은 대의 영금정은 수십척의 석벽 사이에” 라고 하여 그 모양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아 다시 해석하여 살펴보았다.

58) 간(間)은 기둥과 기둥사이를 말하며, 대략 1.8m로 계산하였다.



<사진 77> 1940년대 영금정 일대⁵⁹⁾



<그림 37> 속초항 평면도⁶⁰⁾(1/5,000)



<그림 38> 영금정 부분지도⁶¹⁾ (1970년대, 1/50,000)

※ 현재 영금정 일대의 등고선과 지형이 많이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영랑호 정자(永郎湖 亭子)

속초시 금호동 619-22번지 영랑호(永郎湖) 남서쪽 호숫가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이 바위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호수(영랑호)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터가 있다. 여기가 영랑(永郎)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⁶²⁾하여, 영랑호의 유래가 된 화랑(花郎) 영랑(永郎)이 놀던 곳이라 적고 있다. 이 밖에도 옛 정자터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59) 영금정에서 속초항 방과제 축조를 위해 암반을 채취하는 모습과 이를 운반하기 위해 설치한 레일이 보인다.(속초시·속초문화원,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2001, 26-27쪽.)

60) 국가기록원 DB, 「1941년 속초항수축공사 도면」(엄경선, 『속초 수산업의 발전 역사』, 속초문화원, 2017, 125쪽 재인용.)

61)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국토정보앱/구지도(<http://map.ngii.go.kr/ms/map/>)

62) (생략) 汀回渚曲 巖石奇怪 湖東小峯半入湖心 有古亭基 是永郎仙徒遊賞之地(『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간성 산천조)

지 리 지	내 용	연 대	비고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지리전고	암석이 기묘하고 괴이하며, 호수의 작은 봉(峯)이 있는데 반은 호수의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 巖石奇怪 湖東小峯 半入湖心	1776년	
『대동지지』 권16 간성 산수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 터가 있다. 汀回諸曲 岩石奇怪 東小峯半入湖心 有古亭基	1861년 ~1866년	
『증보문헌비고』 권23 輿地考 2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가 영랑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汀回渚曲 巖石奇怪 湖東小峯 半入湖心 是永郎仙徒 遊賞 地云	1907년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 터가 있다. 여기가 영랑(永郎)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汀回渚曲 岩石奇怪 湖東小峰半入湖心 有古亭基 是永郎仙 徒 遊賞之地	1940년	

6·25전쟁 이후에는 속초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11사단장 김병휘(金炳徽)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금장대(金將臺)가 있었다. 김장군(金將軍)에서 정자 이름이 유래되었으므로 당시에는 김장대라 불렀을 것으로 생각된다.⁶³⁾

금장대가 있던 곳인 범바위는 신성한 곳으로 인식하여 신과 만나는 성역으로 여겼다. 범바위 아래에는 아예 굽당이 있을 정도였고 범바위 위에는 젓밥과 제주(祭酒)로 쓰인 술병이 뒹굴어 다녔다. 하지만 영랑호가 동방호산에 의해 개발되고 범바위에 예비군 훈련장이 생기면서 신성한 곳이라는 위상은 추락했다.⁶⁴⁾

화랑 영랑의 전설이 스며있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영랑호와 범바위는 1999년 속초시에서 속초 8경으로 지정되었으며, 금장대가 1980년대 초에 무너지면서 6각으로 된 콘크리트 기단부(基壇部)만 남아 있었는데, 이 터에 2005년 12월 23일 속초시에서 6각 정자를 짓고 영랑정(永郎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63) 東草市, 『東草市誌』, 1991, 12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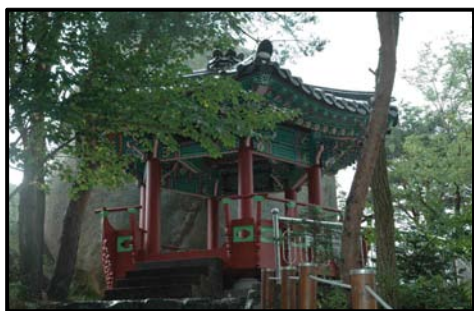
64) 속초시, 『시정 50년사』 별책부록, 2013, 70쪽 참조.



<사진 78> 범바위 전경



<사진 79> 영랑호 범바위와 금장대⁶⁵⁾



<사진 80> 영랑정 전경



<사진 81> 영랑정 내부(영랑정 중건기)

永郎亭重建記

束草市之北 永郎湖 束草八景之中一也 其周二十餘里 景觀秀麗如珠藏 以大潭美湖 有名也 永郎湖 新羅花郎 四仙 永郎 述郎 安詳 南石 以爲風流 修練心身 故取高永郎之名稱 永郎湖也 古文獻云 永郎湖 在郡南五十五里 周三十餘里 汀回渚曲 巖石奇怪 湖東小峯 半入湖心 有古亭基 是永郎仙徒 遊賞之地也 永郎亭之源當 六二五戰爭時 於收復此地 有赫赫之功 以第十一師團長 金炳徽將軍之功績 立金將臺之亭也 然歲月悠久 風雨頽落 亭子 損傷其地 但以六角築造基壇部存也 幸有賴於二千五年 束草市與童文星市長 以爲新築亭子 其功顯於白日下 又束草市民 協助呼應 有歷史之名存也 此處望雪嶽之趣一色 如此永郎湖之 秀麗景觀 何處可見乎 其仙境 可以神仙遊賞之地 其欣無窮也 此遺緒幽勝之境 深意深刻 以爲導後生則其志 後人繼承 又修理葺宇 以永久保存 則其所謂亭名 永遠也

丙戌正月 梁彥錫韓晶圭共撰

齋山池應準書

無形文化財第一六號刻字匠素齊李昌石

65) 속초시·속초문화원(2000), 앞의 책, 34쪽.

5) 침산정(浸山亭)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청초호변에 침산정(浸山亭)이 있었다고 하며 『현산지(峴山誌)』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부의 북쪽 40리, 청초호 동쪽 기슭에 있다. 도암 상서 이재(李穡)가 일찍이 산을 유람하다 이곳에 도착하여 수일 동안 시를 읊었다고 한다. 현수 참의 이휘진(李彙晉)이 호수 인근에 정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노년을 이곳에서 소요하고자 미리 이름을 지어 침산(浸山)이라 불렀다. 침산이라 이름 지은 이유는 설악산의 바위 봉우리가 거꾸로 호수 중간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없다.⁶⁶⁾

설악산의 봉우리가 청초호에 비친 경치를 보고 “침산(浸山)”이란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청초호에 비친 설악산의 비경을 읊은 기록으로는 이상질(李尙質, 1597~1635)이 청초호를 지나면서 읊은 시에,

청초호변으로 하얀 햇빛이 비추고, 서쪽에서 온 산 그림자는 푸른 물결에 무너지네, 해당화 모래길 따라 고루되어 있으니, 말을 타고 서행하며 낙화를 밟네.⁶⁷⁾

이도현(李道鉉, 1726~1776)의 “청초호”라는 시에

암석은 기괴한데 동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가 호수에 반쯤 잠겨 있고, 그 위에 옛 정자터가 있다.⁶⁸⁾

『면세일반(面勢一般)』의 소야팔경(所野八京) 중 청호마경(靑湖磨鏡)의 기원(起源)을 설명하고 있는데,

서쪽 가까이 태백산계의 주봉우리인 설악산 꼭대기를 갈아 흡사 화병과 같다. 청초 호수면에 웅대한 모습이 거꾸로 비추고...(하략)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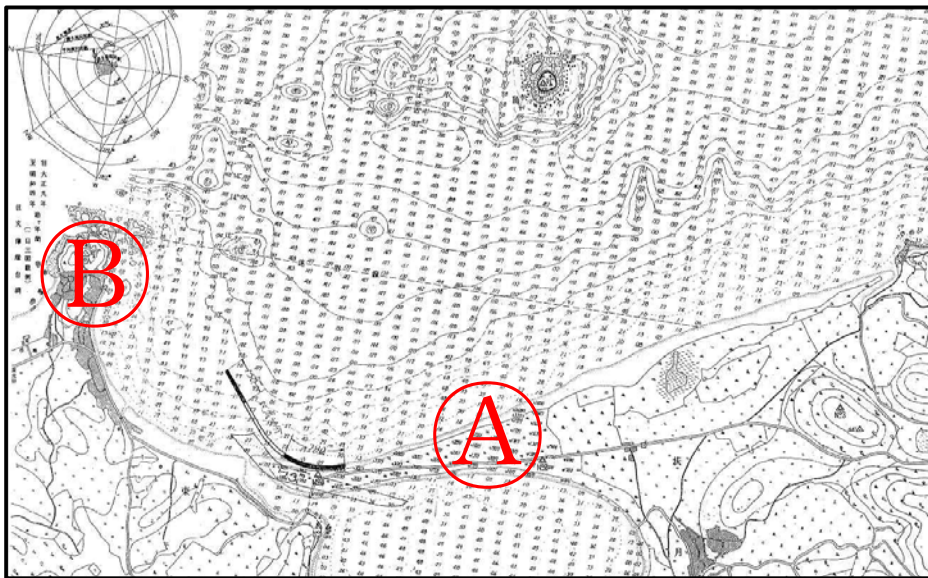
66) “在府北四十里 靑草湖之東岸 陶庵李尙書穡 嘗遊山到此 數日誦詠 見峴叟李參議彙晉 約以臨湖起亭 以作晚年 逍遙之所 而預作名曰浸山 以雪岳峯嶽 蕪倒湖心 而然也 今廢”(『峴山誌』 古蹟條)

67) “靑草湖邊白日斜 西來山影倒清波 海棠開遍鳴沙路 放馬徐行踏落花”(『家州集』 卷之一, 七言絕句 “過靑草湖”)

68) “靑草湖 --(중략)-- 有大湖 --- 巖石奇怪 東有小峰半入湖心, 其上有古亭基蓋 --(중략)--(『溪村先生文集』)

69) 一. 靑湖磨鏡 西エ近ク太白山系ノ主峯雪岳山天定ヲ摩シテ恰モ畫屏ノ如ク靑艸ノ湖面ニ雄姿ヲ倒影 (하략) [속초문화원(2008), 앞의 책, 82쪽.]

19세기 중·후반에 비선대 혹은 청초호를 기록한 지리지 등에서 거리가 북쪽 40리 또는 50리로 비슷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청초호를 비선대까지 넓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이상질과 『면세일반』의 기록은 설악산이 청초호에 잠긴 광경을 건너편에서 조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도현의 시는 논산 또는 부월리 방면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솔산 주변을 노래한 것으로 보이며 정자가 그 주변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1934년 강원도에서 속초항 수축을 위한 공사비 보조 요청 문서에 첨부된 1930년에 속초항 실측 평면도(축척 1/9,000)를 보면 비선대로 보이는 바위산 주변에 많은 봉우리들이 보이는데⁷⁰⁾ 축항 수축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 속초항 급 대포항 실측평면도(축척구천분지일)

<그림설명> A는 이상질의 시로 추정된 정자의 위치이며, B는 이도현의 시로 추정된 정자 위치이다.

70) 江原道, 束草港修築工事費補助, 1934.(국가기록원 cja0014719)

4.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가. 마쪽마을의 변천과 윗마을의 형성

1) 마쪽마을의 변천

마쪽마을은 엄밀히 말하면 영금정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다. 지금은 길을 따라 마을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마을이 형성될 때는 바다를 바라보는 열촌(列村) 형태로 만들어졌다.

영금정 해안마을은 입구를 중간말, 안쪽은 아랫말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조선시대 ‘속진리(束津里)’ 라고 할 때는 이 동네를 같은 마을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쪽마을은 새쪽마을의 산너머 마을로 중간말, 아랫말을 포함한 개념으로 서술한다.



〈사진 82〉 아랫말, 중간말, 윗마을 표시 항공지도
(A 아랫말, B 중간말, C 윗마을)

마쪽마을과 새쪽마을은 언제 형성되었을까? 속초에서 어업을 기반으로 한 원주민들이 가장 먼저 터를 잡은 곳이 이 두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마쪽마을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성씨(姓氏)의 조상들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터를 잡았다는 증언이 있다.⁷¹⁾ 하지만 마쪽마을은 조선후기의 기록에도 계속 등장한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의 ‘속초포(束草浦)’와 고려 전기에 축성한 것으로 연구된 ‘속초리성지’

71) 김종규의 증언. 김종규 노인회장은 현재 86세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담당하여 속초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다. 이번 도시변천사 기록 작업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이후 발전과정을 현장 증언으로 속초의 옛모습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마쪽마을에 관한 증언은 2021년 7월 21일 속초문화재단 사무실 및 영금정 현장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와도 연결된다. 이와 연관지어 보면 마쪽마을이나 새쪽마을의 출발 연도는 고려 시대까지 올라간다.

그럼 마쪽마을과 새쪽마을 중 어느 마을이 먼저 형성되었을까? 글쓴이는 단연코 새쪽마을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새쪽마을은 지형적으로 비교적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입지하여 바람을 막을 수 있고, 바다와 조금 떨어진 곳에 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며 평지에 입지가 가능하다.

마쪽마을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마쪽마을은 항만 매립 공사⁷²⁾를 하기 전까지 바닷물이 지금의 도로까지 들어왔다. 그렇다면 집을 산(山)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산위로 더 올라가 터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조금은 더 안전한 새쪽마을에 먼저 집이 들어선 후 마쪽마을의 비교적 안전한 곳부터 집이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사진 83> 1930년대 마쪽마을



<사진 84> 속초항 전경(1954년)⁷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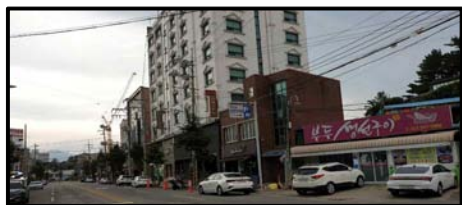
<사진 85> 마쪽마을 전경(1953~1954년)⁷⁴⁾



<사진 86> 1966년 마쪽마을



<사진 87> 1990년대



<사진 88> 현재(2021년)

72) 항만 매립공사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제2방파제 건설로 인해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편 속초항의 발전을 참고바람.

73)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레버렛 기증사진 No. 10-11.

74)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폴펜처 기증사진 No. (2010)-103.

2) 옷(윗)마을의 형성

일제강점기의 새쪽마을과 마쪽마을은 활황기였다. 정어리와 청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시작되었다. 부녀자들은 어업의 발전과는 달리 계절에 따라 해초를 뜯어 햇볕에 말리거나 날것으로 식품을 장터에 가져다 팔았다. 이러면서 수익이 생기고 이러한 요건들이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여 새쪽마을에 오일장이 생겨났다.⁷⁵⁾

또 하나의 변수는 속초항 축항 공사였다. 이를 위해 일본인 기술자들이 들어왔으며, 이곳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인부들이 유입되었다. 그러면서 집들과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마을은 동현아파트 쪽과 수복탑 쪽으로 뻗어나갔다. 새쪽마을은 공동묘지였던 동현아파트쪽 버덩으로 급격히 민가가 들어서 주택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동현아파트 쪽은 뒤쪽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가가 형성되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1930년대 들어서면 전(前) 동명동사무실이 자리했던 곳에서 서남쪽으로 상가들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상가는 현 수복탑까지 형성되었으며, 성업중이던 가게는 서모현(徐慕賢)씨 운영 잡화상회, 요로쓰야(よろすや, 전 동명동사무실 자리 철물점), 찌가모도(ちがもど, 잡화상), 호리우찌(ほりうち, 수복탑 건너편 잡화상), 안와야(あんわや, 요정업) 등이었는데 당시로 보면 신시가지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마을을 동네 사람들은 옷마을이라고 했다.



<사진 89> 1953년-1954

75) 「조선일보」, 1930. 12. 9일자. 속초시장(영랑시장)은 처음에는 오일장으로 시작하였는데, 1930년 11월 27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사진 90> 1970년대



<사진 91> 2021년

나. 속초항의 개발과 변화

1) 속초항 개발(1937) 공사

속초시는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의 작은 어촌마을이 1930년대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나 도시가 형성되어 면소재지가 되었으며,⁷⁶⁾ 6·25전쟁 전후에는 실향민의 정착과 속초항이 동해안 어업의 전초기지가 되면서 1963년에는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속초시로 승격되는데 발판을 마련한 속초항 개발의 첫 출발은 1929년 1월 5일 축항기성회(築港期成會)가 조직되어 활동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조선일보에는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는 양양에서 어산지로 제1위에 있고 현재 2백 10여 호의 대부락으로 미시령도로의 기점이 되어 산업상 교통상 어디로 보든지 전 양양에 있어서는 장래 발전의 희망이 다대한 곳인데 지난 1월 5일에 당지 유력자들은 회합하여 축항기성회를 조직하고 사업의 계획과 규약 등을 제정하고 5개년 사업으로 지금 맹렬한 활동을 하는데 강원도 당국에서도 이에 상당한 주목을 하여 지난번 평의회에서도 도 공익의견으로 가결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속초의 축항은 실현되리라더라(양양)’⁷⁷⁾로 기록하고 있다

76) 「조선중앙일보」, 1936. 7. 28일자 참조.

축항기성회는 강원도를 찾아가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속초항 수축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위와 같은 축항기성회 활동에 더하여 1930년 7월 18일과 19일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동해안 어민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속초항 개발이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다.⁷⁸⁾ 또한 가장 피해가 컸던 고성면 어업조합(高城面漁業組合)과 도천면어업조합(道川面漁業組合 : 신문기사는 道川面을 道川郡으로 표기), 강원도수산회(江原道水産會) 등 각 어업조합 대표가 합동으로 총독부에 청원서를 제출해 복구지원과 방파제나 선류장(船留場)⁷⁹⁾ 수축을 촉구하였는데, 청원서에 나온 태풍 피해는 처참하였다.

1930년 7월 28일 태풍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은 강원도 연해이며, 때마침 鯖(고등어)연승어업 성어기였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상당하였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731명이며, 어선 파손이 1,510척, 어구와 제조공장 유실 파괴 손해액 56만 2천여 원으로 미증유의 재앙이었다.--(중략)-- 양양군 속초리, 오희리도 이어 버금가는 참상을 겪었다.--(중략)-- 어민들은 투자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대우(大羽, 큰멸치)와 정어리 값까지 폭락해 자력복구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⁸⁰⁾

속초항도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931년 7월 16일 강원도지사가 조선총독부에 보낸 ‘속초항수축공사 국고보조 신청’ 서류에 지난번 발생한 태풍피해를 근거로 속초항 수축사업의 긴급성을 제기하였는데 문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양군 도천면 속초시 속초항은 강원도 동해선의 주요 어항으로 근해 어족 자원이 풍부하여 대형 선박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면적이나 수심이 낮아서 일부 작은 선박들만이 만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황파를 피할 수 있는 피난항으로 역할을 하지 못해 어민들은 항상 난파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작년 여름 폭풍으로 속초항에서 59척 중 3척만 남기고 난파되어 승조원 사망자가 50여명에 달하는 참상을 빚었다.--(중략)-- 이렇듯 수산업 발전 저해가 막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속초항 수축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기를 열망하고 있다.⁸¹⁾

이러한 노력으로 속초항 수축공사가 3개년 사업으로 당국의 허가가 이루어져 실시

77) 「조선일보」, 1929. 3. 24일자.

78) 엄경선(2017), 앞의 책, 97쪽 참조.

79) 항만시설 가운데 수역시설인 정박지의 하나로서, 소형 선박 및 부선(解船)이 정박하는 수역(水域). 폭풍에도 안전한 정박이 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내항(內港) 부분에 설치하는 것(네이버 지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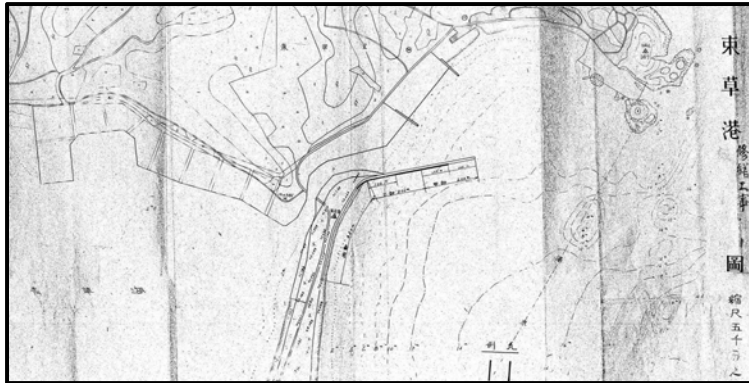
80) 「매일신보」, 1930. 8. 23일자. [엄경선(2017), 앞의 책, 98쪽 재인용.]

81) 국가기록원 DB, 「1931년 속초항수축공사 국고보조 신청서」 [엄경선(2017), 앞의 책, 98쪽 재인용.]

하게 되었다고 하는 보도는 있었지만⁸²⁾ 진척이 없자 축항기성회는 강원도지사 시찰을 기회로 조속히 속초항 수축을 추진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고⁸³⁾ 결국 1년이 지난 1932년 9월에서야 사업이 확정되었다.⁸⁴⁾

1929년 축항기성회 활동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어, 1932년 11월 6일 오후 3시 속초항만의 기공식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 축항 현장 부근 모래사장에서 거행되었다.⁸⁵⁾ 한편 속초항 개발로 큰 타격을 우려한 대포항의 일본인과 한국인 일부 인사들은 향후 들어설 철도역이 속초리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포리에 철도역을 설치해 달라는 진정을 철도국에 내기도 하였다.⁸⁶⁾

최초의 속초항 수축공사는 1932년 11월 6일 시작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1937년 3월 30일에 공사를 종료하였다. 당시 공사 규모는 설악권 지역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려들어 속초 경기가 대호황을 이루어 속초항은 날마다 진전되어 2년 전보다 7백여 호가 증가했다.⁸⁷⁾



〈그림 40〉 제1기 속초항 수축공사 준공도면⁸⁸⁾

82) ‘襄陽君民의渴望하는 東草港築港實施 君民負擔은五萬四千圓으로 總工費는六萬圓’ (『매일신보』, 1931. 8. 2일자.)

83) ‘襄陽東草港 築港을 陳情 李知事의 視察을 機會로 緊急實現의 企望’ (『매일신보』, 1931. 9. 25일자.)

84) ‘三十九萬圓으로 襄陽東草築港 東海岸 有數한 漁港이오 避亂港 多年熱望이 始實現’ (『매일신보』, 1932. 9. 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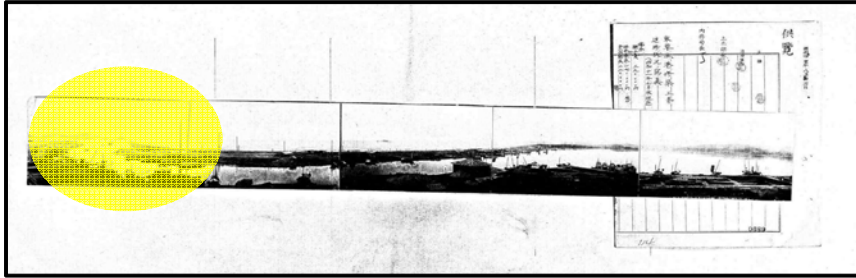
85) ‘多年熱望이 達成되어 東草築港遂起工 內務局長以下 官民多數臨席으로 來月六日에 起工式 舉行’ (『매일신보』, 1932. 10. 28일자.) 및 ‘暴風の中で 東草築港起工式 知事參列の下た六日 盛大舉行す’ (『부산일보』, 1932. 11. 13일자.)

86) ‘東草築港實現 大打擊の大浦 驛だけはぜひ設置されにいと 內鮮人代表陳情た入城’ (『부산일보』, 1932. 11. 25일자.)

87) ‘東草港의 發展相 二年間 七百戶 增加 住民은 大概 勞働生活’ (『조선중앙일보』, 1935. 10. 19일자.)

88) 朝鮮總督府, 昭和16年度 港灣修繕工事 功程報告, 1941년(국가기록원 cja0015855)

1937년 방파제 수축공사를 마친 속초항을 보면 수로가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완성된 수로 양쪽과 청초호 연안에는 정박한 선박들을 볼 수 있다.



〈사진 92〉 속초항 수축공사 준공 사진⁸⁹⁾

당시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속초는 큰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1935년 양양군과 경찰에서는 속초 청초호수 동편을 당시 최고의 소득원이었던 정어리공장 40개가 들어설 공장지대로 지정하였다.⁹⁰⁾ 1935년에는 숙원사업이었던 우편소도 속초항에 들어섰고, 1936년에 대포항에 있던 어업조합이 속초항으로 이전하였으며,⁹¹⁾ 1937년에는 도천면사무소를 속초리에 이축(移築)하였고,⁹²⁾ 1938년 9월 1일자로 도천면을 속초면으로 면 명칭을 변경하였다.⁹³⁾ 1937년 12월에는 동해북부선 간성-양양구간이 개통되면서 속초항 인근에 속초역이 생기고, 1937년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영광공립심상소학교가 들어섰다.

속초항 수축공사는 1기 공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었다. 1935년에는 방파제 축조가 불완전하여 오히려 파도가 더욱 심해져 인가(人家)쪽으로 닥쳐와 2기 공사가 시급하게 되었다.⁹⁴⁾ 동해의 파도가 심한 속초항은 1기 수축공사만으로는 완전히 좋은 항구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기 공사를 속히 시행하지 않으면 파도에 밀려드는 모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해놓은 공사도 못 쓰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 유지들이 1기 축조한 방파제로부터 180m를 연장하여 구축하고 송도(松島)로부터 270m의 방파제를 구축하여 그 사이에 150m의 항문(港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⁹⁵⁾

89) 국가기록원 문서관리번호 CJA0015456 속초어항수축공사준공의견(사진첨부) [엄경선(2017), 앞의 책, 126쪽 재인용.]

90) 「조선중앙일보」, 1935. 9. 1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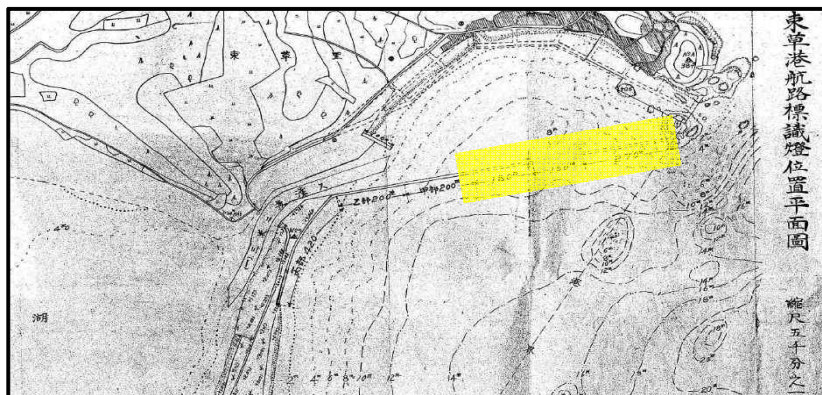
91) 「조선일보」, 1936. 5. 9일자.

92) 「조선중앙일보」, 1936. 7. 28일자.

93) 「매일신보」, 1938. 8. 24일자.

94) ‘속초의 중대문제 築港工事 選擧不進 防波堤築後에 波浪은 尤甚 二期工事最急務’ (「조선중앙일보」, 1935. 10. 1일자.)

그러나 2기 공사로 계획된 속초시가(束草市街)에서 해면(海面) 100m를 매축(埋築)하는 공사와 송도에서부터 270m의 방파제 신축 및 180m 연장공사 등은 설계뿐만 아니라 언제 착공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일반 주민의 불안은 물론 공장 주택 건축 및 대지 매매 등이 모두 정지 상태로 한산하여 하루바빠 2기 공사의 완성을 갈망하였다.⁹⁶⁾



<그림 40> 제2기 공사계획도

그러던 중 1941년 6월 19일 제2기 축항 기공식을 갖고 방파제 매립공사를 시작하고 축항공사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1942년도에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완성될 때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⁹⁷⁾ 제2기 속초항 축항공사는 무엇보다도 1939년부터 개발된 양양철광의 반출항으로 속초항을 활용하기 위해 방파제 매립공사를 시작하면서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⁹⁸⁾ 방파제 180m를 연장하는 공사와 술섬으로부터 270m를 구축하는 방파제 공사는 착공하지 못하였다.

1940년도 이후 3년차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속초항수축공사계획서에 첨부된 도면을 보면 현재의 속초항의 모습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95) ‘襄陽束草港 二期工事要望 有志가 猛活躍’ (『동아일보』, 1936. 8. 5일자.)

96) ‘二期工事遷延으로 束草港發展萎縮 工事, 住宅等 建築停止’ (『동아일보』, 1937. 10. 12일자.)

97) ‘束草港第二期 築港起工式’ (『매일신보』, 1941. 6. 22일자.)

98) 『매일신보』, 1941. 2. 1일자, ‘束草港埋立 明春엔 完城 總工費만 十一萬圓’ (『매일신보』, 1939. 12. 13일자.)



〈그림 41〉 속초항 수축공사 계획서

2) 속초항의 변화

가) 속초항 주변의 인구 증가

1760년 발간된 『여지도서』에는 속진리, 속초리의 호수(戶數)는 144호에 인구 447명이다. 100년이 지난 1870년경 『관동읍지』에는 98호에 386명으로 되어 있다. 1929년이 되면 작은 마을이던 속초 지역에도 인구가 늘어 210호의 큰 마을이 되었다. 양양에서 어산지(항구)로 제1위에 있기 때문에 축항 공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⁹⁹⁾

이러한 의견을 계기로 1932년 속초 축항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와 노동자가 모여 들면서 1935년에는 속초리의 인구가 2,4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¹⁰⁰⁾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축항 공사장 인부들이 유입된 측면도 있었지만 축항으로 인해 속초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 속초번영회 조직

속초항 축항공사와 속초리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지역의 유지들은 속초리의 발전을 위한 모임을 자주 개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자 대포리 주민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1925년의 경우 도천면에는 원래 도천면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대포리를 중심으로 일본인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번영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이권을 넘겨받아 이권을 챙기고자 하였다. 이에 분개한 도천면 각리 대표자와 면민 백여명은 1925년 2월 9일 부월리 동사에 모

99) 「조선일보」, 1929. 3. 24일자.

100) 「동아일보」, 1935. 9. 26일자.

여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포매축공사기성회를 조직하고 결의사항을 면당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¹⁰¹⁾

그러나 속초리 유지들은 속초 발전을 꿈꾸며, 목표를 세우고 구체화하기 위해 속초번영회 조직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런 논의 끝에 1934년 2월 18일 속초항 속초번영회 사무실에 30여명이 모여 최초로 속초번영회를 조직하였다. 회장은 矢野壽一郎, 부회장 고동환(高東煥), 간사 강래병(姜來秉), 김기순(金箕淳), 三輪高太郎 평의원 신응렬(申應烈) 외 9명이었다.

다) 도천면사무소 속초 이전 반대 운동

1937년 속초축항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경제의 중심이 속초항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당시 면장이었던 박상희는 대포에 있던 도천면사무소를 속초리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포리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면사무소 이전 반대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미 장소와 예산이 책정된 상태라 쉽지가 않았다. 이에 대포리 지역 유지 모임인 십일회(十日會)에서는 차라리 면의 중앙인 부월리로 이전하자는 새로운 안을 내세우며 반대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1938년 2월 20일에 도천면사무소 낙성축하식을 거행하였다.¹⁰²⁾

라) 개항 기념 시민 체육대회

1937년 개항 4주년 기념 시민대운동을 개최하였다. 이 당시는 체육대회가 보통 5일 동안 열렸는데, 이 해도 6월 19일부터 5일간 속초항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은 가장행렬, 기생연주, 자전거경주, 추천대회, 각희(脚戲-씨름), 축구, 어선경주, 수영, 인기투표, 미인투표, 농악대시합 등이었다.¹⁰³⁾

다. 도선(渡船)

1915년 이전부터 도선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¹⁰⁴⁾ 당시 도선은 원산부터 양양구간까지 이등도로(지방도로¹⁰⁵⁾) 상에 청초호 물길을 건너는 통행의 보조수단으로 활

101) 「조선일보」, 1925. 2. 2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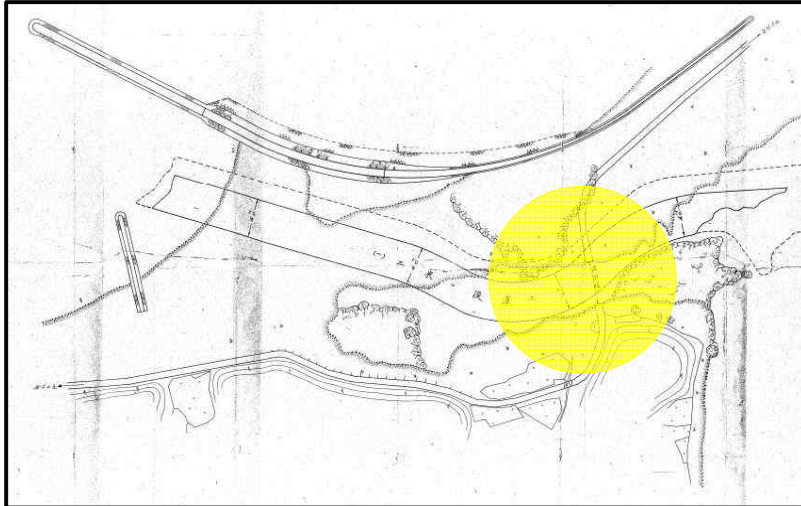
102) 면사무소는 이미 1937년에 이전되었다.

103) 「조선일보」, 1937. 6. 11일자.

104) 엄경선, 「속초 갯배 1백년의 역사를 찾아서」, 『속초문화』 제34호, 2018, 96~102쪽 참조.

105) 전술한 1. 자연환경·인문환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등 도로라는 개념은 올바르지 않다. 원

용되었다. 1930년대 들어서 속초항 개발 이후에도 도선은 운행되었는데, 도선의 크기는 우차를 실을 정도의 규모라 추측된다.¹⁰⁶⁾



<그림 42> 도선장(渡船場, 束草港修築工事平面圖, 縮尺 1/1,200)¹⁰⁷⁾

라. 경제 상황

1) 직업별 분포

일제강점기 초기 다른 지역도 그러했지만 속초 전 지역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가 않았다. <표 18>에서 보듯이 당시 도천면의 직업별 인구 분포를 보면 조사된 인구의 6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다른 직업군에 종사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농업으로 수입을 얻어 살아야 하는 농민들은 어려움이 더 많았다.

산-양양 구간은 2등 도로로 지정된 것은 맞지만, 도로 개설은 원산-장전까지 만 준공되었고, 나머지 구간인 장전-포항까지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로 지방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106) ‘牛車, 牛와 함께 渡船에 쓰러져 測量隊員, 車夫重傷’ (『매일신보』, 1937. 3. 3일자.)
‘靑草湖渡船入札’ (『매일신보』, 1939. 2. 7일자.)

107) 江原道, 束草港修築工事實施設計變更書, 1934년.(국가기록원 cja0015456)

<표 18> 도천면의 직업별 인구

직업	호구	조선인		일본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농업		640	3,941			640	3,941
어업, 제염업, 광공업		217	1,104	2	8	219	1,112
공무원, 자유업		12	92	4	15	16	107
기타유업자(其他有業者)		43	251			43	251
무업자(無業者)		3	17			3	17
상업		76	379	14	55	90	434
계		991	5,784			1,011	5,862

1925년(대정 14년) 출처 : 『면세일반』

도천면이 속한 양양군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경지 면적이 적어 다른 지역보다 1인당 경작 면적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더구나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대공황은 산미증식계획의 실시로 미곡 단작화된 조선의 농업구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실제로 1930년 가을, 미곡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절반으로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¹⁰⁸⁾ 미곡의 가격은 폭락했지만 소작료와 수리조합비 등은 오히려 인상되어, 농촌에서는 준공 농민수¹⁰⁹⁾가 증가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한편 이농자가 속출하였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도 이른 시기에 농민 운동, 노동 운동이 시작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¹¹⁰⁾

실제로 당시 신문에는 속초리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가 있다. 1934년 속초항 공사를 위해 준설을 하다보니 예전처럼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곳에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이 배를 움직이는 도선사를 1명 채용하기 위하여 1934년 3월 28일에 입찰을 하였는데 지원자가 126명이나 몰렸다. 위의 <표 18>에는 무업자가 17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통계와는 달리 실업난이 심각하였다.

농업에 비하면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어업 현황은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표 19>의 1935년 양양군 내의 어획고를 보면 정어리와 정어리 기름으로 많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와 있다. 당시 정어리 기름이 동명항을 통해 반출된 것을 볼 때 경제 상황은 농촌보다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108) 「조선일보」, 1930. 10. 3.일자. 보도에 의하면, 양양지역의 경우도 일무(五升)에 1원 20~30전하던 쌀값이 70전으로 떨어졌는데 매매가 없어 일반 민심의 불안과 세정(稅政)에 곤란을 받는다고 했다.

109) 이전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이 나 봄에 식량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말한다.

110) 김정환, 「日帝下 襄陽地域 農民運動의 展開에 關한 研究」,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2쪽.

〈표 19〉 1935년 양양군내의 어획고

구분 년도	연어(鱒魚)	온어(鱒魚-정어리)	명태어(明太魚)	어유산액(魚油産額)	어선수
1935	287,280원	135,057원	51,492원	107,029원	49

출처 : 「동아일보」 1936. 1. 23일자.

당시의 속초를 포함한 양양군의 공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도기(陶器)는 많지만 이렇다 할 특색을 발견할 수 없다” 라고 하였고 다른 공업에 대해서도 “특색이 없다” 라고 기록하여 이 지역의 공업이 발달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속초항의 개발과 함께 앞으로 비료공장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¹¹¹⁾ 속초항의 개발로 인한 도시의 확장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2) 竹中間스메 공장(다케나카 통조림공장)

대원극장이 있던 그 일대는 호수였는데 이곳을 메워 竹中間스메 공장(다케나카 통조림공장)을 세웠다. 공장의 규모는 수천 평에 달해 청학동까지 그 공장터였다. 이 공장은 1일에 50두의 소를 잡아 통조림을 만들어 군수물자로 납품하던 통조림공장이었다.

이 공장을 세운 사람은 다케나카신파로(竹中新太郎)인데, 1892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태어나 부친의 유업을 이어받아 대단위 목장과 우유 제품 연구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1926년 제주도에 공장을 세운 후 나주공장(1937, 정육통조림), 속초공장(1943, 정육통조림), 울릉도 공장(1938, 소라 전복통조림) 등 많은 공장을 지어 군수물자 납품 사업을 하였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1일 400두를 가공 생산하기 위해 800명 이상의 직원을 상주시켜 24시간 교대로 일을 하였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였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나주 지역에도 이 공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나주에는 맑은 곰탕이 유명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곰탕의 유래가 이 공장과 관련이 있다. 당시 곰탕집은 통조림 공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머리와 내장 부위를 싸게 납품받고, 소뼈도 2등급을 사용해서 국물은 만들다보니 상대적으로 뽀얀 국물이 덜하였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맑은 국물이 특징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일제는 1941년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전쟁을 시작하였

111) 「동아일보」, 1936. 1. 23일자.

다. 세계대전의 참전으로 군수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자 소고기 외에 다른 통조림 생산도 가능한 곳을 물색하다가 해안가이면서 항구가 있는 속초에 공장을 세웠다.

2015년경 제주대학교 고광명(高光明) 연구원의 「다케나카신타로(竹中新太郎)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1943年(昭和18)に束草工場を建設し、牛肉缶詰(一日に牛50頭を加工)を軍需物資に納品した。”

1943년(소화 18년) 속초공장이 건설되어 하루 소 50마리를 가공해 쇠고기 통조림을 군수물자로 납품하였다.

당시 보통학교를 졸업한 처녀들이 공장에 취직하여 일을 했는데, 여공들만 해도 100명이 넘었다고 하며 하루 3교대로 근무를 했다고 한다. 간혹 여공들이 공장에서 가져나온 통조림을 야매로 팔기도 했는데, 당시에 큰 쇠고기 통조림 하나가 쌀 한 되 값이었다고 하니 굉장히 귀한 식품이었음은 분명하다.¹¹²⁾

이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국에서 공출해 기차로 실어 온 소들은 청초호변에 소나무 울타리와 철조망을 쳐서 가둬놓았다가 굶겨서 똥을 빼낸 후 도축하였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는 소고기 뿐만 아니라 고등어가 많이 잡힐 때는 고등어 통조림을 만들기도 했는데, 통조림은 조도 부근에 정박해 있던 연락선으로 작은 배(종선)를 이용하여 실어 날랐다.

해방이 된 후 소련군이 양양에 진주하면서 이 공장을 강제 압류하고 소련군이 감독 관리하였다. 소련 사람들은 이 공장안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때 들리는 말에 소련군이 주둔하는 곳에는 마구 닥치는 대로 물건을 뺏어간다는 말이 돌았다. 이에 몇몇 사람들은 우차를 동원하여 이 공장에서 사용하던 간장, 설탕, 통조림을 빼내어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도 하였다. 그 후 소련군은 군용차로 식료품과 공장 기계를 몽땅 뜯어갔다.

6·25전쟁 중에는 미군의 함포사격이 있었다. 함포사격으로 공장건물이 다 부서졌는데 다케나카 통조림 공장이 주요 포격 대상이었다. 증언에 의하면 폭격 후 가봤더니 빨간 벽돌로 지은 굴뚝 잔재가 남았는데, 굴뚝이 보통 우리 사는 집 한 채 규모 정도였다고 한다.¹¹³⁾ 전쟁 후에는 이곳에 실향민들이 터전을 잡고 정착했다.

112) 「설악신문」, 2018. 10. 22일자.

113) 「설악신문」, 2018. 10. 22일자.

마. 신문물의 유입

1) 전기 공급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1898년 미국과의 합작으로 한성 전기 회사가 세워지면서부터이다. 속초지역은 1930년경 정어리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전기의 필요성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1933년 당시의 읍장 박상희가 속초 발전을 촉진하고자 전기 유치를 발의하고 지역 인사와 민간인의 협조를 얻어 서울의 전기업체에 의뢰하였다. 그 결과 경성전기주식회사에 의해 현재 중앙동(구 중앙동 사무소 자리)에 1,500마력의 발전기로 출력 800kw의 화력발전소를 설치하여 간성, 양양까지 송전하였다.

이것은 영북지역 주민의 밤을 밝혀 생활환경을 점차 변모시키는 한편, 동력에 의한 소규모의 산업이 시작되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1935년 11월 1일에는 춘천전기회사가 속초에 발전소(춘천전기)를 설치하고, 양양읍, 대포리, 속초리 3개소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당시 양양이나 속초는 대규모의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전기 공급이 숙원사업이었다. 전기라는 신문물의 유입은 주민들을 들뜨게 하였고, 양양읍변영회에서는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11월 29일부터 3일간이나 축하운동회를 열었다. 이후 춘천전기회사는 속초에서 발전된 남은 전기를 고성 일부 지역에 보내 1,200개의 전등을 켜기도 했다. 이후 무자경전(武者京電)이 1939년 춘천전기를 매수하여 소규모발전소 100kw를 설치하였는데 전기수요가 많아져 어려움을 겪었다.

2) 속초우편 출장소 설치

속초 체신(遞信)의 효시는 1915년 2월 16일 대포리에 설치된 대포우편소이다. 당시는 우편 사무와 송금예금을 주로 취급하였으며, 우편의 전달시간은 서울과 양양 간 이 2일 내지 3일이었다.

속초항 축항 공사가 시작되면서 속초리에도 우편소 설치가 절실했다. 이에 지역 유지들이 대포우편소장과 만나 대포우편소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약속받았다. 설치 시기는 1934년에 하기로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다가 1935년 10월 16일 전신전화취급소를 설치하여 사무를 개시하였다.

도천면 우편소 청사는 현재 속초우체국(속초시청 옆) 자리에 일본식 2층 목조건물로 1938년 12월 1일에 준공하였다. 이 당시 속초주민과 외래 어민들의 송금예금 창구로 이용을 많이 하였고, 우편업무량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대포우편소의 업무 대부분이 흡수되었다. 1939년에는 자석식 전화 100대를 설치하여 전화를 개통하고 가입자수 95명 정도로 운영하였다.



<사진 93> 도천면우편소

5. 현대(現代)

가. 8·15 해방(解放) 이후

1) 거룻배(從船), 갯배의 등장

일제강점기 말기와 해방 후 인공(人共) 시절에도 도선이 운행되었는데, 버스가 21번 국도를 다니지 않고 청호동으로 해서 도선을 타고 청초호를 건너 시내로 갔고, 사람만이 아니라 버스도 실을 정도로 활성화된 운송 수단이었다. 갯배의 크기는 버스 한 대에 옆으로 사람들이 같이 탈 정도였다.¹¹⁴⁾

1·4후퇴 때에도 우마차와 차량을 운반하는 등¹¹⁵⁾ 피란길에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동해북부선 철도에 비하여 도로가 발달되지 못하였다. 6·25전쟁 당시 미군과 국군의 군수물자 수송은 LST선을 이용하여 속초 항만사령부로 직통함에 따라 도로의 기능이 그다지 많지 않아 폐선(廢船)되었다.

수복과 함께 좀 더 고향에 가까운 곳을 찾아 청호동 모래톱에 정착한 피란민들은 청호동에 살면서 수협 어판장 및 3구 시장으로 가기 위해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자신들의 거룻배(중선從船)를 이용하였다. 그중 조막손 영감(김영학金永學)이 주업으로 거룻배를 이용해 속초리 6구(수복 후 청호동) 주민들을 실어 날랐다.

그러나 피란촌이 형성된 속초리 6구 주민들의 불편은 여간 아니었다. 특히 수협 어판장과 3구 시장까지 수산물 수송 수단인 손수레, 자전거 등의 운반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정이 실시되는 1955년 초 속초읍에서는 지금 모양의 갯배 한 척을 속초리 5구에 관리를 맡겼으며, 1961년에는 한 척을 칠성조선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후 정식 도선업 허가를 받아 재향군인회 속초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였다.¹¹⁶⁾ 이 당시 갯배는 피란민촌과 어판장 및 3구 시장을 잇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학업을 위한 통학과 영화 관람 등 발달된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실항민의 상징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가을동화 촬영과 한류 영향으로 갯배가 단순한 운반수단에서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신평마을이 실항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관광

114) 최창영 구술정리(「향토 원로에게 듣는 속초이야기」, 『시정50년사』 별책부록. 속초시, 2013, 223~224쪽.

115) 노광복, 「전쟁의 상흔과 새로운 희망의 공존」, 『1950년대 속초리 속으로』, 속초시박물관, 2011, 191쪽.

116)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187쪽.

지가 되면서 연일 300명 이상이 탑승하고, 2001년 연말연시 연휴에는 4천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승선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 되었다. 현재에도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아바이마을의 주요 관광객 운송 수단이 되고 있다.



<사진 94> 아바이마을 전경¹¹⁷⁾



<사진 95> 거룻배로 추측되는 세부 모습

2) 어판장과 중앙시장의 형성, 주변지역의 변화

6·25전쟁 후에도 상권의 중심은 여전히 속초 1구(영랑동)였다.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영랑동에 동해카바레, 망향다방, 사합촌, 계림관 등 주요한 유흥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상경기(商景氣)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민정으로 이양(1954년 11월 17일) 되고, 수복탑에서 시청 앞 부근까지 주둔해 있던 미군부대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점차 상황이 변하여 갔다. 미군부대의 이동으로 항만(港灣)을 어업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수협 위판장(이하 어판장)이 어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어판장의 활성화로 상인들도 어판장이 있는 중앙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맞춰 1953년 11월 5일 총공사비 800여만 원을 들여, 점포 263개인 3구 시장(중앙시장)을 개설하였다. 어판장과 3구 시장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였고, 여기에 실향민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더해져 상권이 서서히 속초 3구(중앙동)로 옮겨 오기 시작하였다.¹¹⁸⁾

이후 속초는 “모든 권력은 어판장에서 나온다” 고 인식될 정도로 어판장이 속초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속초주민이라면 어판장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자금이 어판장에 몰리게 되었다. 명실상부하게 속초의 정치, 경제, 사

117)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폴렌처 기증사진 No. (2010)-129.

118)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속초 도시변천사1』, 속초문화원, 2020, 82쪽 참조. 3구시장의 개장과 어판장의 활성화로 속초 1구의 경제가 갑자기 침체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적어도 1960년대 중반까지는 상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회, 문화가 어판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복 후 전쟁 피란민들로 재구성된 속초에서 생산기반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업에 종사하는 것뿐이었다. 속초 인구의 대부분은 수산업이나 수산물가공업·수산물유통업 등에 종사하면서 고달픈 삶을 영위에 나갔다. 남자들은 일용선원이 되어 배를 탔고, 오징어 할복과 쫄치그물 벗기기, 명태 미끼 꿰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생선 상자를 차에 싣는 일은 부두 노동자가, 수레에 싣고 덕장까지 끌고 가는 일은 힘센 리어카꾼에 의해 진행되었다. 자본가들은 선박을 운용하거나 상회를 경영했고,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에서부터 조업에 필요한 어로도구를 파는 선구점에 이르기까지 속초의 모든 산업은 수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¹¹⁹⁾

어판장에 밤새 잡은 고기를 실은 어선이 입항하면 어협 직원들과 중매인, 소매상인, 리어카꾼 등이 경매를 통해 경락받은 고기를 실어 노가리촌 덕장, 3구 시장, 식당 등지로 날랐다. 어판장에서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좁은 도로에는 사람과 리어카가 쉴 새 없이 오고 갔으며, 그 주변에는 선구점과 선술집도 많이 들어서 함께 호황을 이루었다.¹²⁰⁾



<사진 96> 해랑중앙 노가리촌(1978년)



<사진 97> 속초 중앙시장¹²¹⁾

속초의 상경기도 활성화하여 수산업을 비롯해 유통업, 운수업이 성행했으며, 잡화점, 여관, 양조장과 더불어 한성관과 같은 고급 조선요리집도 문을 열어 요정(料亭)경기가 활황을 이루는 등 수산업 활황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되었다.¹²²⁾

119) 속초시, 『시정50년사』 별책부록, 2013, 78쪽 참조.

120) 최재도·이수영, 『속초 그때 그곳이 지금은』, 속초문화원, 2020, 64~81쪽 참조.

121) 속초시립박물관, 『록웰 기증사진 전쟁이 멈춘 뒤, 속초』, 2021, 15쪽.

122) 엄경선(2017), 앞의 책, 158쪽.

나. 6·25전쟁(6·25戰爭) 이후 동명·중앙·금호 지역의 변천

1) 6·25전쟁 이후 마을의 생성과 변천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은 속초의 도시 확장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지역이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지만 속초는 해안선 주변 외에는 개척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다. 영랑동에서부터 청초호에 이르는 속초항 부근의 아주 좁은 해안평야와 그 뒤쪽의 낮은 구릉지에 해당되는 곳이 6·25전쟁 이후의 도시 개척지로 적당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선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란민들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다.

피란민들은 내륙 산간 지역의 농지를 개간하여 터전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륙 산간 지역은 삶의 터전으로 개척하기에는 경작지가 너무나 협소하였고, 시내 뒤편의 가파른 산지 지형은 화전의 개간이 어려웠다. 따라서 피란민들은 속초항과 청호동을 중심으로 어업과 관련된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란민들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도 많아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그동안 집을 짓지 않았던 구릉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피란민들도 소집단 위주로 내륙 쪽으로 이동하여 낮은 구릉지로 이주하여 자신들이 이름을 붙인 마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동명동 등대밀(삼호마을), 감리교회 밀(단천마을), 시내를 가로지른 구 철도부지와 동명, 중앙, 금호동의 산(언덕) 비탈의 피란민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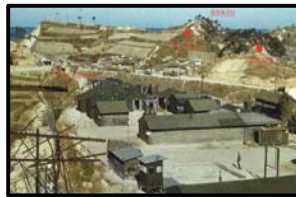
가) 동명동

(1) 장안골마을

장안골마을은 발굴 결과 이미 고려시대에 형성된 마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큰 마을이 사라지고 거주민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 이곳에 마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다. 처음에 마을은 법원으로 올라가는 초입부터 오른쪽으로 형성되었다.



<사진 98> 1955



<사진 99> 1950년대



<사진 100> 2021

(2) 속초역 인근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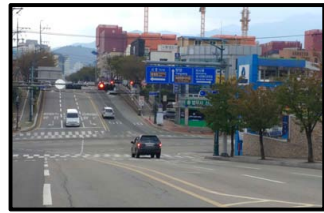
구 7번 국도 뒤편 길은 예전 동해북부선 철도길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속초역사가 보이는데, 지금은 자동차용품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속초역이 있었기 때문에 역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을 법한데,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주택이 들어서지 않았다. 이유는 철도가 그렇게 자주 운행하지 않아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사진 101> 1964년



<사진 102> 2017년



<사진 103> 2021

(3) 수복탑 인근마을

일제강점기에는 수복탑의 아래쪽(현 시내방면)으로는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다. 6·25전쟁 이후 1954년까지 시청 건너편 바닷가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LST선이 들어오던 곳으로, 이곳에는 마을이 형성될 수 없었다. 하지만 1954년 주둔해 있던 미군부대가 이동하고 어판장이 활성화되면서 구수로로 배들이 많이 드나들고 정박하기도 하였다. 항공사진을 보면 1955년에는 제법 많은 수의 주택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 104> 1955년 항공사진



<사진 105> 2021

나) 중앙동

(1) 3구 시장 마을

3구 시장은 1953년 11월 용소(龍沼)가 있던 늪지대를 메워서 조성하였다. 처음에는 늪지대와 논이었던 땅을 국군 1군단 공병단의 지원으로 옹덩이를 메워 점포를 만들었다. 시장의 개장과 함께 시청 앞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도 이동하였다. 미군 부대의 이동으로 자유로운 수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어판장이 활성화되었고,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3구 시장이 제일 큰 시장으로 자리잡아 갔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변의 구릉지대에는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어 갔다.



<사진 106> 1955년 항공사진



<사진 107> 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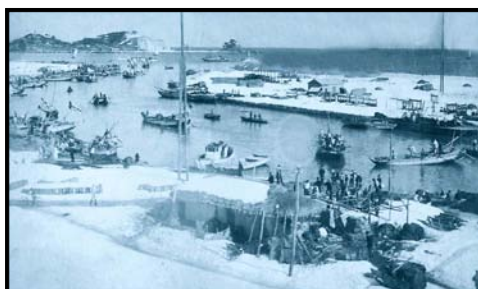


<사진 108> 2021

다) 금호동

(1) 갯배나루마을

갯배나루는 갯배의 중앙동쪽을 주로 일컫는 말이다. 갯배나루 마을은 1953년 이후 어판장이 활성화되면서 어판장을 중심으로 갯배 주변까지 집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점차 어항을 출입하는 배들이 많아지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식당가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속초항을 중심으로 어선과 관련된 직종과 음식점들이 들어서는 금호동 마을이 형성되었다.



<사진 109> 해방전



<사진 110> 1965년



<사진 111> 1975년



<사진 112> 2021

2) 미군부대의 이동¹²³⁾

6·25전쟁 당시 속초는 원산 일대에 있었던 미 8군 제10군단이 속초 해안 4곳을 부두로 만들어 미군 군수물자를 하역하고 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속초에서 활동했던 미군 군수부대는 지금의 농협속초시지부에 본부를 두고 일본에서 LST선으로 수송해온 군수물자를 하역해서 미군 10군단과 한국군 1군단 지역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문진에서 속초로 군수지원기지를 변경한 이유는 대형선박을 정박하고 하역하는 작업이 용이한 해변이 있고, 주전선과 거리가 가까워 일본에서 군수물자를 수송해 최전방으로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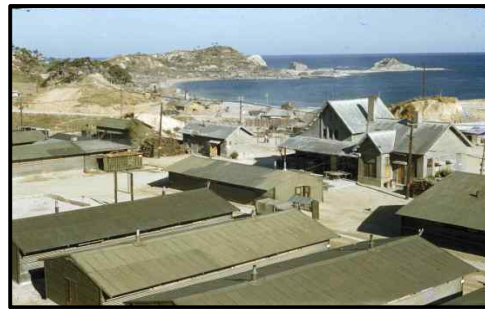
미군 8206부대는 일선부대 군수보급을 위해 속초에서 인제까지의 미시령도로를 개설했으며, LST선박의 안정적인 정박을 위해 속초항 수로를 준설하고 폭도 넓혔다. 이 부대가 지원하는 주둔부대는 모두 13개 부대로 장교 51명, 사병 989명으로 모두 1,040명이었고, 1953년 4월 한 달간 속초항에 화물선 19척이 입항했고 21척이 출항하는 등 군사물자 이동이 빈번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1953년 4월에는 수차례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민간인 노동자 막사에 폭탄이 떨어져 13명의 한국군과 민간인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1951년 7월 4일부터 실시되었던 군정이, 1954년 11월 14일 끝나고 민정이 들어서면서 속초항 주변의 군수부대도 속초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다.

123) 엄경선(2017), 앞의 책, 「5-1 수복 속초에 실항민 정착해 수산업 발달」을 요약함.



<사진 113> 속초항 주변 미군부대 사진¹²⁴⁾



<사진 114> 속초역 주변 미군부대 사진¹²⁵⁾

3) 공공기관

가) 속초경찰서 준공식

1955년 5월 15일에 기공하여 5개월 만인 10월 3일 준공식을 하였다. 건평 800평에 2층 건물이다.¹²⁶⁾

나) 속초 최초의 이장회의

1955년 7월 21일 영금정에서 속초 최초의 이장회의를 열었다.¹²⁷⁾

다) 속초읍사무소 소실

1955년 1월 5일 난로연통 과열로 인하여 속초읍사무소가 소실되었는데 피해액이 약 삼백만원이었다.¹²⁸⁾ 이로 인해 내무부로부터 속초읍장이 징계를 받았다. 속초읍은 행정을 볼 곳이 없자 군부에서 지어준 공회당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읍장은 관사를 공금으로 구입하였다. 이에 읍민들은 어업부진으로 힘들어하고 읍직원들은 월급도 못받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관사를 구입한다고 비난하자 “그래도 소위 속초읍장이 집 한채 없어야 되겠느냐” 고 했다고 한다.¹²⁹⁾

124)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폴펜처 기증사진 No. (2010)-153.

125)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레버렛 기증사진 No. 08-11.

126) 「경향신문」, 1955. 10. 19일자.

127) 「동아일보」, 1955. 7. 24일자.

128) 「조선일보」, 1955. 1. 11일자.

129) 「경향신문」, 1955. 9. 10일자.

라) 수복 후 학교 상황

1954년 11월 수복이 된 이후 속초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이북학교 출신교사에 대하여 정부에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교사수가 갑자기 부족하게 되었다. 당시 양양 관내에는 초·중·고 합하여 24교, 학생수 10,200여 명, 교사가 300여 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300여 명 교사 대부분이 이북출신 교사여서 수업을 할 수 없었고, 새로운 교사도 배치가 되지 않았다.¹³⁰⁾

이미 개학을 한 학교들은 등교를 연기하게 되었다. 이에 학부모들의 정상화 건의가 빗발치자 무자격교사퇴치와 기존교사들의 자격을 취득시키기 위한 강습회를 1955년 5월 28일부터 속초중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양양, 고성, 인제의 초·중·고 교사들을 ‘민주주의와 교육’ 등의 강좌를 수강하고 고시(考試)를 실시하여 준교사 자격을 부여하였다.

4) 사회 기반 시설 확충

가) 인제, 속초 간 버스 운행 개시

수복지구 인제와 속초 간 버스 운행이 1955년 2월 2일부터 금강운수에 의하여 개통하였다. 금강운수에 의해 2월 1일부터 서울-속초간 정기버스 운행도 시작하였다.

나) 전기복구사업

수복 후 군부대에서만 부대별로 자가발전기에 의해서 점등하였을 뿐이었으나, 정착 민가가 증가하자 1954년 동해기업(東海企業)이 설립되었다. 동해기업은 끊어진 전기를 복구하기 위해 제1군단의 협조를 얻어 전기자재와 전주를 들여와 1954년 4월 25일 발전소 자리에서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1개월 후 송전을 목표로 공사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1954년 8월 25일에는 발전기와 제반시설 준공식을 거행하여 전등 1,000등을 송전하게 되었다.¹³¹⁾ 처음에는 180마력, 60kw의 출력을 가진 미제 발전기 시설로 속초읍내만 일몰시 송전하고 자정에 정전하는 송전제한 방식으로 전력공급을 시작하였다. 이후 100kw 중유발전기 2대를 설치하고 3,000전등을 송전하다가 1955년 3월에 ‘동해전기회사’로 정식 인가를 얻어, 고성·양양지방까지 공급하기 위해 250

130) 「조선일보」, 1955. 2. 7일자.

131) 「동아일보」, 1954. 9. 3일자.

마력, 160kw로 교체 가동하였다.

그러나 전력수요와 공급의 투자 문제로 1956년 서울의 장수달(張秀達)씨가 동해전기를 인수하고 전 철도관사였던 현 한전자리로 발전소를 이전하여 600마력 350kw를 증설, 총 534kw로 늘리고 회사 이름을 우풍전업주식회사(祐豐電業株式會社)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기가설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데 반해 노후된 3대의 발전기가 잦은 고장으로 수시로 정전 사태를 일으키곤 했다. 전력 부족으로 인해 추가 가설 제한 등 조치를 취했지만 축광미달과 일부 민가에서의 무단 인입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¹³²⁾



<사진 115> 1954년 동해전기

다) 체신 · 전기통신

광복이후 전신전화 업무가 중단되었다. 6·25전쟁에도 속초우체국 청사는 피해를 입지 않아 수복 후인 1954년 12월 1일 주사국(主事局)으로 개국하였고, 이듬해인 1955년 9월 1일 속초우체국청사에서 128대의 시내전화를 개통하여 자석식 전화 교환 업무를 개시하였다. 전화가 개통되기 2개월 전에 가설공사를 마쳤는데 우체국 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개통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일반가입자의 비난과 항의가 잇따르자 서둘러 개통식을 가졌다. 1956년에 사무국(事務局)으로 승격하였다.

5) 속초읍 대화재 발생

속초읍이 수복된 후 대화재가 발생하였다. 1953년 12월 17일 속초리 3구 가정집에서 발화한 화재가 때마침 불어오는 서북풍으로 인해 주변이 모두 타는 전례 없는 큰

132) 속초시, 『시정30년사』, 1096쪽 참조.

화재를 당하였는데, 소방대와 미공병대의 노력으로 간신히 진화하였다.

당시 피해액은 가옥 전소 44호, 이재민 177명이었고 손해액은 562만 1천환에 달하였는데 화재원인은 까소링(가소린)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였던 탓이라고 한다.¹³³⁾ 제1군단장 이형근 장군과 8군사령관 대리 크라크 장군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담요, 의류, 부식비 등을 지원하였다.

6) 6·25전쟁 후 동명동·중앙동·금호동 소재 주요 업소 및 시설

가) 함흥냉면

냉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당시에는 ‘함흥냉면’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속초에서 냉면집의 원조라고 하는 함흥냉면옥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함흥냉면이라는 말이 붙여졌다. 이 가게는 1951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현재도 3대째 영업을 하고 있다.

1973년 속초의 함흥냉면을 별미로 다룬 신문기사가 있어 소개한다.¹³⁴⁾

속초의 함흥냉면은 1·4후퇴 때 자유를 찾아 월남한 함흥사람들이 옮겨놓았다. 군이 함흥에서 만든 냉면과 다른 점이 있다면 녹말가루 대신 주성분으로 고구마가루를 쓴다는 점이다.

함흥냉면의 특징은 양념은 쓰는 방법에 있다. 고추는 꼭지를 떼고 기계로 가는 대신 똑딱방아를 쓰는 것, 다른 양념인 생강, 마늘도 기계로 갈지 않고 방아로 찧는다.

고구마가루를 더운물로 반죽하여 덩어리로 만든 다음 국수틀에 넣어 뽑고, 끓는 물에 5분간 끓여 찬물에 씻어내어 사리를 만든다. 다음이 육수, 냉면의 맛은 시원한 육수 맛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 엉덩이살을 1시간 이상 나무를 때어 삶아내는 것이 함흥냉면의 육수 만드는 법.

함흥냉면은 비빔국수와 생선회국수로 나누어지는데 속초지방에선 생선회국수를 알아준다. 가자미, 가오리, 광어, 상어 등을 생선비린내가 나지 않게 요리하는 것이 비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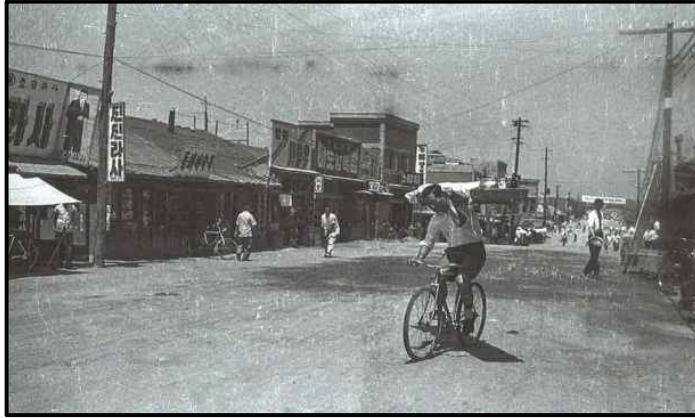
냉면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찾는 음식, 겨울에 먹는 냉면 맛과 여름에 먹는 냉면맛은 각기 다른 각별한 풍미가 있다. 특히 한여름에 맵고 질

133) 「조선일보」, 1953. 12. 27일자.

134) 「조선일보」, 1973. 8. 9일자.

긴 함흥냉면과 씨름하고, 육수를 들이키면 더위를 가실 수 있다고 한다.

당시 실향민들은 속초에 오면 꼭 냉면을 찾았고, 당시 유명 배우 김희갑(金喜甲), 주선태(朱善泰) 씨는 촬영스케줄이 부근에 있으면 꼭 속초를 찾아 냉면을 먹고 가곤 했다.



<사진 116> 60년대 시내 냉면 배달모습

나) 중앙시장

중앙시장 자리는 용수(龍水)골, 용숫골이라고 부른다. 원래 이름은 용이 물속에 살고 있었다는 연못 용소(龍沼)가 있어 ‘용소골’ 이었다.

이곳은 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계단식 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산골짜기 마다 물이 흘러내렸고, 여러 군데서 흘러내린 물들이 순대골목 쪽에서 합쳐져 못으로 들어갔다. 그 연못 자리는 지금의 중앙시장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와 야채시장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¹³⁵⁾ 현재 중앙시장안 속옷 가게 (트라이)가 있는 자리가 소의 중심부였다. 이곳의 주변은 늪지대여서 논으로 사용했다. 용수가 풍부하고 토질이 좋아 논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쌌다. 또 개울이 중앙가로를 지나 갯배가 있는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135) 심영호의 증언, 심영호 씨는 현재 64세로 시장상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4일 시장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사진 117〉 용소의 중심부 자리

다) 속초감리교회

속초감리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개신교 교회로 동명동의 산역사라고 할 수 있다. 속초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속초감리교회는 원산지방 소속 쿠퍼(Kate Cooper) 선교사¹³⁶⁾ 와 당시 교인들이 1927년 5월 17일 초가 8칸을 매입하여 예배를 보다가 1939년 속초리 2구(동명동)에 처음 교회를 건축하였다.

건축이 완료되자 양양경찰서에서는 교회를 국방헌금으로 내놓을 것을 강요하였다. 교회 청년이던 강용운은 이를 앞장서서 반대하였고,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1940년 12월 속초주재소로 끌려간 후 양양경찰서로 압송되어 2개월간 복역하였다. 또한 교회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예배 시간에 정복(正服)을 하고 칼을 찬 순사들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놀려 교인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교회는 폐교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있었다. 결국 일제는 1941년 교회를 강제로 빼앗아 병사(兵舍)로 사용하였다.¹³⁷⁾

해방 이후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교회 박해는 더욱 심해졌다. 설교 내용을 제출하게 하고, 1950년 5월에는 교회 비품을 몰수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136) Kate Cooper(1886~1987) 선교사는 조지아주에서 태어나 웨슬리안 여자대학을 졸업하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남감리회의 파송을 받아 원산에서 활동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양구역까지 전도를 다녀 속초감리교회 설립에 기여했으며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귀국을 당하였다. 해방 후 다시 내한하여 6·25전쟁 중에 일본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1953년 다시 돌아와 감리교 신학교 전수와 설치에 큰 공헌을 했다. 이어 대전신학원이 설립되자 교수로 활동하다가 1957년 은퇴하여 귀국했다.

137) 황기수, 『속초교회 70년사』, 속초교회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97, 74쪽.

공산군의 병사(兵舍)로 사용되는 등 환란을 겪던 가운데 수복을 맞이하였다.¹³⁸⁾



<사진 118> 속초교회 청년회의소¹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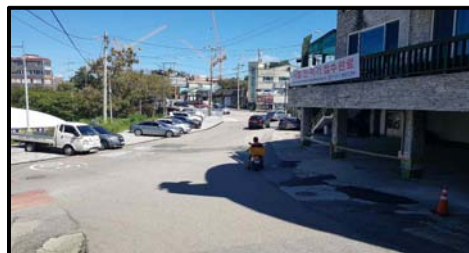
라) 짱터

현재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5거리 교차로까지를 부르던 옛 이름이다. 지금은 오거리 부근 옛 방범초소 인근을 그렇게 부른다. 도로 개설로 인해 지형이 변화되었지만 차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양쪽 산비탈을 깎아 깊은 골짜기였다. 골짜기에는 노송이 즐비했던 곳으로 미시령 쪽으로 나무를 하러 다니는 나무꾼들의 놀이터였다.

운동장 입구에는 수 백년(약 5백 년) 묵은 돌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마을 수호 나무로 오고가는 사람들의 기도처였다.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정성스럽게 돌을 쌓아 올렸고 돌탑에는 새끼줄로 인줄을 매놓고 소원을 빌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돌배나무는 6·25전쟁 때 총상을 입어 고사하였고, 수복 후에 명신국민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나무를 베어 책걸상 재목으로 썼다고 한다. 짱터는 돌배나무 외에도 노송들이 많이 있던 곳으로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쉼터로 적당했던 곳이다.



<사진 119> 1950년대 짱터



<사진 120> 현재

138) 황기수, 앞의 책, 98쪽.

139) 1939년 이후 기독교청년회가 조직되어 활동할 때 사진으로 추정된다. 사진 오른쪽 서양여성은 쿠퍼 선교사로 보이는데 6·25전쟁 이후 일본으로 피신하였다가 1953년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대전 신학원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 사진은 6·25전쟁 이후 대전으로 가기 전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 동명동·중앙동·금호동 거리의 노포(老鋪)



<사진 121> 1958년 승리사장, 백림약국



<사진 122> 1950년대 문천시계점



<사진 123> 1953년 승리사장 <사진 124> 1950년대 원산약방 <사진 125> 1950년대 중앙약방



<사진 126> 1968년 대한항공 속초지사



<사진 127> 1975년대 중앙가로 상가

다. 속초시 승격(1963) 이후

1) 속초시의 승격과 행정

가) 속초시청 개청식

속초항의 개발로 인해 1937년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바뀌면서 속초면사무소는 현 동명동주민센터 인근에 이전하였고,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구 영랑동 강원도립 속초병원 터(현재 영랑동 작은 도서관 자리)에 건립되었으나¹⁴⁰⁾ 공산치하에서는 남녀공학중학교로 사용되었다.¹⁴¹⁾

공산치하에서 속초읍은 속초면으로 강등되었고,¹⁴²⁾ 현재 속초시청 터에 속초면사무소가 있었으나 6·25전쟁 당시 소실되었다고 한다. 수복 후에 동명동에 있던 속초면사무소를 임시 사용하다가 미군정 당시 속초읍사무소를 1953년 8월 18일 양옥 2층으로 준공하여 수복지구의 명물로 불리기도 하였다.¹⁴³⁾

1955년 1월 5일 난로 연동에서 인화된 불로 전소¹⁴⁴⁾되어 속초읍장이 징계를 받게 되고¹⁴⁵⁾ 군정에서 지어준 공회당을 사용하였다.¹⁴⁶⁾ 1955년 8월 18일 현재 속초시청 민원실 뒤편에 건평 74평의 2층 현대실 건물로 읍청사 재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그해 10월 27일 상량식을 거쳐 1957년 준공하여 1966년 9월 28일까지 사용하였다.¹⁴⁷⁾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 『시설치(市設置)와 군(郡)의 관할구역(管轄區域) 및 명칭변경(名稱變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속초시로 승격하였고,¹⁴⁸⁾ 시장(당시 속초읍장이던 김치룡(金致龍)을 강원도지사가 속초시장 서리로 발령) 산하에 1실(공보실), 6과(총무과, 재무과, 교육과, 사회과, 산업과, 건설과), 2개 사업소(농촌지도소, 보건소)가 설치되었으며, 공무원의 정원은 72명이었다.

140)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앞의 책, 68쪽 참조.

141) 속초시, 『속초읍사(束草邑史) 1차 조사본』, 2016, 6쪽 참조.

142)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앞의 책, 72쪽 참조.

143) 속초시(2016), 위의 책, 6쪽 참조.

144) 「조선일보」, 1955. 1. 11일자 기사(속초읍사무소 소실 : 속초읍사무소가 지난五日 상오 六시 반경 전소되었는데 원인은 난로 연통에서 인화된 것이라 하며 피해액은 약 三백환에 달한다고 한다.)

145) 「동아일보」, 1955. 1. 20일자 기사(속초읍장징계 : 내무부에서는 지난 六일 읍청사를 소실케한 束草읍장을 징계처분하도록 八일 지시하였는데 이 지시는 최근 결정된 발화자 문책요강을 최초로 적용 처벌된 것이다 한다.)

146) 「경향신문」, 1955. 9. 10일자.

147) 속초시(2016), 위의 책, 6쪽 참조.

148) 「官報」 제3301호, 1962. 11. 21일자.

속초시제(束草市制)를 경축하는 기념대회가 7일 오전 11시 읍사무소 앞 광장에서 박경원 내무부장관과 이용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여 열렸으며,¹⁴⁹⁾ 속초 시청사(束草市廳舍)는 1964년 7월 21일 착공하여 1966년 9월 28일 준공하였다.¹⁵⁰⁾



<사진 128> 속초읍청사 전경



<사진 129> 속초시제 실시 경축 기념대회



<사진 130> 속초시제 실시 경축 기념대회



<사진 131> 속초시청사 준공 후 전경

나) 번호식 동명 부여

1963년 시(市)로 승격된 속초는 동명(洞名)을 정하지 못하여 제1동부터 제10동까지 번호를 붙여 표시하게 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당국자가 용단을 내려 동명을 명명해 주기를 건의하는 의견이 많았다.¹⁵¹⁾

다) 고향심기 운동

1963년 시로 승격되었지만 속초시의 고민이 있었다. 속초시의 도시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도시생활환경시설 및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의 도시를 성격에 따라 그 특성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49) 속초시, 『시정 30년사』(下), 1994, 1217쪽.

150) 속초시·속초문화원, 앞의 책, 65쪽.

151) 「조선일보」, 1963. 1. 24일자.

속초는 이때 ‘수산도시’로 방향성을 정하고 집중 투자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속초는 1970년대 초반의 경우 인구 7만5천의 70%가 유입인구¹⁵²⁾로 어황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 고장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속초에서 기반이 잡히면 서울 등지로 이주하거나 그대로 눌러 산다해도 서울에 집을 사 자녀들을 서울에서 교육시키는 풍조가 많았다.

이에 당시 시장이었던 김명한(金明漢)은 시민들의 애착심을 북돋우기 위해 1974년 5월부터 이색적인 ‘고향심기 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동마다 공원 한 개씩을 조성하여 시민 손으로 고장 땅에 나무 한그루라도 심고 스스로 땀 흘려 가로수를 단장함으로써 그 마음 속에 고장 사랑하는 정을 싹트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 운동으로 시가지 곳곳에 소담한 화단이 가꾸어졌고 설악산에 이르는 도로는 시민들이 헌수한 가로수와 화초로 곱게 단장되었다. 해변에는 해당화를 심어 시민정서를 한결 부드럽게 다듬어 주었다.

속초시는 「속초에 심은 사랑」, 「설악산메아리」라는 속초시 노래도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투자가 늘어나고 시민들이 집을 단장하는 경향도 눈에 띄게 많아지면서 점차 실향민들이 속초사람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⁵³⁾

그러나 이런 시민운동도 실향민들에게는 고향일 수가 없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적십자대표들이 휴전선을 넘나들 때만 해도 고향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았던 실향민들은 북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으로 기대가 식어버렸다. 고향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북의 남침에 대한 불안감 등이 겹쳐 돈을 벌어도 투자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자는 생각이 많았다. 이에 인구도 1973년 75,968명이던 것이 1976년에 72,04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위기감은 지방의 문화인들을 자극시키고 지방의 정신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악문우회’ 등이 조직되어 지방문화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방유지들은 설악산 관광촌 건설, 페리호 유치, 한일정기여객기 취항 등 관광개발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오늘날 수산도시에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⁵⁴⁾ 그러나 속초는 어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8년 말에는 인구가 더 줄어들어 71,737명이 되

152) 1970년대 초반 속초에는 원주민 30%, 함경도출신 실향민 43%, 기타지역 인구 27%로 구성되어 있었다.

153) 「동아일보」, 1975. 7. 2일자.

154) 「동아일보」, 1978. 11. 8일자.

었다. 1979년에는 타지로 나가는 이삿집이 하루 최고 7건을 기록하기도 했고 취학아동수도 9학급 540여명이 줄어들었으며 1981년에는 전국 시(市) 중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한 시가 될 정도로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라) 통금해제

1982년 1월 5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국에 ‘통행금지해제’ 조치가 해제되었다. 통금해제가 되자 도시의 시민들은 자정이 지난 뒤에도 상가에서 흥청거리는 모습이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안지역은 전방접적지역이라 통금이 계속 실시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속초는 해안지역 중 통금이 해제되는 16개 시에 포함되어 통금이 해제되었고, 고성지역은 군전체가 계속 통금이 실시되는 지역에 포함되었다. 통금이 계속 실시되는 지역내에서도 접적지역의 인제(麟蹄)-속초(束草)간 국도는 통금시간 중에도 차량통행을 허용하였다. 이에 속초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하는 버스를 밤 11시 30분에 도착하도록 조정하였다.

2) 사회기반시설 확충

가) 시 승격후의 한전(韓電) 유치

속초가 시로 승격된 후 한국전력 유치가 지역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 떠올랐다. 당시 김동석 시장은 지역인사들을 규합하여 1964년 1월 8일 속초시전력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4년 6월 25일 상공부장관이 ‘수복지구 전기복구 공사비 추경예산 계상의 건’을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총공사비 1억5천4백만원 중 국고보조 5천만 원을 장기기채¹⁵⁵⁾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1964년 8월 22일 성대한 전력 복구 기공식을 갖고 착공하여 강릉~속초간 72km의 고압선 시설을 속성 완공하여 1964년 12월 23일 준공과 더불어 점등식을 거행하였다.

속초시 2구에 있던 기존 관동전기회사 발전소와 전기시설을 1964년 11월 27일 2백만원에 한전에서 매입하여 변전소 시설을 하였고, 1965년 1월 1일 한국전력강릉지점 속초출장소가 개설되었다.¹⁵⁶⁾

155) 장기 공채 발행을 말함

156) 속초시(1994), 앞의 책, 1097쪽.



〈사진 132〉 1964년 12월 한국전력 영북지구 전기가설공사

나) 전신전화국의 분리

전신전화국은 처음에는 우체국에 있었는데 현 속초우체국이 있는 자리에 1965년부터 사옥을 짓기 시작하여 1966년에 완공하였다. 사옥 완공 후인 1966년 11월 자동식 전화로 전환되었다. 우체국의 시설도 점차 확장되어 1970년 12월 31일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체신청사를 청학동에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1975년에는 관내 전화 보급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당시 속초 시내 하루 통화량은 평균 2만 5천 건이었다. 통화량의 급증과 함께 114 교환원의 업무도 가중되었다. 전화번호부가 만들어지던 시절이었음에도 하루 통화량의 20%에 해당하는 6,520건을 114에 문의하여 교환원들의 업무 처리 한계를 넘기도 했다. 이에 우체국에서는 “전화번호부 좀 봐주세요” 라는 이색적인 호소를 하였다.¹⁵⁷⁾

1983년 1월 1일 통신공사 전신전화국이 개국되면서 독립해서 현 KT자리에 2층으로 지어졌다. 당시 전화는 3만 회선이었다. 사옥은 당시 건물로는 최신식인 내부 난방장치가 스팀이었고 화장실은 수세식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신기해하며 구경을 오기도 했다.¹⁵⁸⁾ 1989년 12월 4일 속초우체국 청사를 다시 시청 옆에 신축 준공하였다.

3) 경제

가) 툇(진저리) 수출

속초에서는 툇(진저리)을 많이 먹지는 않는다. 그런데 1960년대에 바닷가에 흔한

157) 「조선일보」, 1975. 11. 5일자.

158) 홍영건의 증언, 홍영건 씨는 현재 76세로 2021년 6월 21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해초였던 진저리가 신문에 기사로 등장한다. 속초 항내에 있던 수산물가공공장 동창 실업(同昌實業)에서 톳을 가공하여 1966년 6월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에 수출하여 23,400달러를 벌어들였다. 피클당 가격은 13달러이고 국내 원초 구입 가격은 60피클당 2,600원이니 많은 수입을 올림과 동시에 영세어민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¹⁵⁹⁾

나) 도루묵 인기

1985년 들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도루묵이 일본에 수출되면서 갑자기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폭등하였다. 속초항의 경우 하루 800kg(40상자) 정도의 도루묵을 잡았는데 1상자(20kg) 당 알도루묵은 89,000원~98,000원에 거래되어 전년도보다 두 배 가까운 가격으로 폭등하였다.¹⁶⁰⁾

당시 일본 상인들은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동시에 무제한으로 사전 구매 계약을 하는 관계로 속초 주민들은 그 흔하던 도루묵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다) 명태(明太)

해방 전만 해도 명태는 함경도 특산물이었다. 해방 전에 속초 앞바다에서 명태가 잡히긴 했으나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수복 이후 속초는 남한의 유일무이한 명태어항으로 등장했다. 1960년대 초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처에서 밥상에 오르는 명태의 대부분은 속초 앞바다에서 잡히거나 혹은 속초항을 통해서 공급되었다.



〈사진 133〉 명태할복(1950년대)

159) 「경향신문」, 1966. 12. 17일자.

160) 「매일경제신문」, 1985. 12. 6일자.

라) 속초 해녀

속초의 해녀 역사는 제주도 해녀들이 원정을 오면서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가이센’이라는 일본식 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작업을 하러 왔다. 이들이 작업을 하던 곳은 주로 솔섬 주변이었다. 이곳은 지형이 변형되기 전에는 바위들이 만든 그늘과 굴이 있어 같이 따라온 남편들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곤 하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속초에서 활동하던 해녀는 100여 명이었다. 이들은 작업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 올랐는데, 이 중에는 속초에 자리잡은 이도 있었지만 철새처럼 떠도는 해녀들도 많았다. 미역을 따기 위해서는 나잠(裸潛) 면허를 받아야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몰래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몰래 미역을 따다 발각되면 며칠씩 구류를 살아야 했다. 미역 채취를 위해 허가되는 기간도 고작 4, 5일로 현지 주민들이 배를 가지고 다 따간 후에야 겨우 알몸 잠수가 허락되어 찌꺼기 미역을 딸 수 있었다. 이들은 미역철이 짧아 전복철까지 기다리는 동안 산나물을 캐서 팔아 연명하기도 했다.¹⁶¹⁾ 그러나 수입도 괜찮다고 하여 몰으로 나온 해녀들은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살기가 훨씬 좋아진 제주도로 대부분 다시 돌아갔다.

마) 종합 중앙시장 상가 분양 광고

주식회사 건영은 1988년 7월 21일부터 중앙시장에 건설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상가를 분양하였다. 점포수는 모두 340개로 지하 1층은 어시장, 지상 2층은 일반상가를 유치하였다. 분양가는 지하 1층 어시장은 평당 173만원~198만원, 2층 일반매장은 평당 130만원~159만원 사이였다.



〈그림 43〉 속초종합중앙시장 상가 분양 광고

161) 「경향신문」, 1962. 5. 11일자.

4) 시 승격 이후의 사회

가) 건널바위 사고

지금의 북쪽 방파제 맨 앞머리 근처에는 수중 돌섬이 있었다. 이 돌섬의 이름은 ‘건널바위’ 인데 마을 사람들은 ‘건너풀’ 이라고 불렀다. 건너풀은 바위 돌레가 깊은 낭떠러지로 물밑의 바위 머리 부분은 맛풀(해초이름)이 마치 귀신 머리카락처럼 길게 자라 파도가 치면 춤을 추듯 흐트러져 무섭고 겁이 나는 곳이었다.

평상시 잔잔한 때도 이곳은 파도가 일어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왕래해야 했다. 육지와 가까우면서도 사고가 많아 해운항만청에서는 ‘표식부표등’ 을 세워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1962년 속초항 개설 이래 가장 큰 대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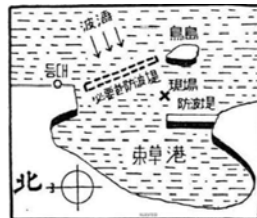
1962년 1월 2일 당시, 속초에는 오랫동안 명태가 잡히지 않았었다. 그런데 2일 새벽부터 명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속초항에서는 244척의 배에 1,500명이나 되는 많은 어부들이 급히 출어에 나섰다. 그러나 출어난 지 수시간 후 갑자기 심한 풍랑이 일기 시작하여 서둘러 항구로 돌아오던 배들 중 10여 척의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육지 근처는 바다보다 해일이 더 심하게 일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배들은 해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더 안전했다. 그러나 당시는 통신시설이 없어 배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고심하던 끝에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항구에 들어오지 말라” 라고 쓴 종이쪽지를 등에 싸서 저공비행으로 해상에 있는 배에 던지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알렸다.

방파제 바로 앞에 건널바위에 밀어닥친 해일은 파도의 높이가 10여 미터나 되었다. 침몰되어 부서진 5척 중 4척이 여기에서 부서졌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널바위 해상에서 배가 뒤집혀 침몰하는 광경을 보며 사람들은 통곡을 하였다.



<사진 134> 조도의 구조 작업



<그림 44> 사건발생지역

출처: 「동아일보」 1962. 1. 5일자.

나) 만남의 광장

속초에도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인 만남의 광장이 있었다. 1967년 시외버스터미널이 건축되기 전에는 터미널이 시청 앞(현 주차장)에 있었다. 당시 가장 번화가는 터미널과 시장 앞 도로로 상가가 가장 붐볐는데 시청~갯배 입구(황소광장), 서독약국 앞까지 변화가였다.¹⁶²⁾

1966년 대원극장이 설립되고 금호동으로 상권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전신전화국이 새로 사옥을 짓고, 그 옆에 속초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대한항공 건물이 5층 규모로 들어섰다. 이후 대한항공과 전신전화국 앞이 만남의 광장이 되었다.

다) 속초항에서 잡힌 특이한 물고기

속초 앞바다는 특이한 물고기가 잡혀서 신문에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70년대~80년대 신문에 물고기들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몇 가지 있다.

(1) 초대형 오징어

1971년 6월 26일 새벽에 속초앞 20마일 해상에서 오징어잡이를 나갔던 제 2동명호는 몸둘레 40cm, 길이 125cm가 되는 대형오징어를 잡았다. 오징어뱃시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줄이 끊어질듯 팽팽해져 3명의 어부가 10여분 동안 실랑이 끝에 끌어올렸다. 이 오징어는 보통 오징어 4백마리 값인 2천원에 팔렸다.¹⁶³⁾

(2) 헤비급 오징어

1972년 11월 15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서 정치망에 길이 76cm, 무게 10kg의 헤비급 오징어가 잡혔다. 이보다 큰 오징어는 가끔 잡혔지만 중량으로는 희귀한 무게로 중앙동 S상사에서 2천원에 사들여 서울로 반출했다.¹⁶⁴⁾

(3) 초대형 명태

1977년 12월 13일에는 명태잡이를 나갔던 거성호가 길이 102cm, 몸둘레 40cm, 무

162) 홍영건의 증언.

163) 「조선일보」, 1971. 6. 29일자.

164) 「조선일보」, 1972. 11. 17일자.

게 4,005g의 큰 명태를 잡았는데 어민들은 동해 명태잡이 사상 처음으로 용왕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하며, 올해 명태잡이가 풍어를 이룰 징조라고 기뻐했다고 한다.¹⁶⁵⁾

(4) 15m 물치

1986년 1월 19일 속초항북방 4.5마일에 쳐둔 정치망에 길이 15m, 몸둘레 5m의 대형 물치 한 마리가 생포됐다. 어부 17명이 2시간의 싸움 끝에 로프로 물치의 몸을 매달아 동명항으로 예인했다.¹⁶⁶⁾



<사진 135> 무게 2t 대형물치(1989년)



<사진 136> 대형 가오리(1982년)

5) 속초 항포구 음식의 탄생

지금은 전국적으로 음식이 보편화 되어 어느 지역의 음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속초 지역의 음식은 타지역과 다른 특이성을 가져 속초만의 특색을 분명히 하는 음식이 많다. 막장을 사용한 장칼국수나 순대를 만들 재료가 부족하여 오징어를 사용하면서 오징어순대가 탄생한 상황은 흥미롭다. 특히 가자미를 고명으로 올리던 이북식 냉면이 명태회냉면으로 변화되고, 이북 음식을 변형시켜 닭강정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 외 점심시간이 부족한 손님들을 위해 탄생시킨 회국수, 속초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 오징어물국수회,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는 물곰탕 등이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항포구에서 탄생한 속초를 대표하는 음식들은 금호동, 중앙동에서 시작한 것이다.

165) 「경향신문」, 1977. 12. 15일자.

166) 「경향신문」, 1986. 1. 20일자.

가) 회국수¹⁶⁷⁾

회국수는 오징어나 가자미를 회로 만들어 고추장에 버무려 국수와 함께 비벼먹는 음식으로 속초의 별미로 자리 잡고 있다. 회국수는 1980년에 속초회국수집을 운영하던 최정자 씨가 처음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메뉴를 개발하던 중 수협직원들이 입찰을 하고 난 뒤 싱싱한 생선을 갖고 와서 본인들이 손질을 한 뒤 무쳐달라고 했다. 거기에 국수를 같이 주었는데 그게 우연히 회국수의 시작이 되었다. 이후 수협직원들, 중매인 상인들, 선원들, 그 외 어판장에 드나들던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다가 회국수라는 메뉴로 자리잡게 되었다.

처음에는 물가자미와 해초를 넣어서 비벼먹다가 나중에 생미역을 넣었는데 반응이 좋아 생미역을 넣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미역은 익세지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미역을 쓸 수 없을 때는 지누아리를 썼다. 지누아리는 식감도 좋고 바다 향기도 나서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횡감도 가자미 외에 청어를 써보기도 했는데 미역과 조합이 잘되었다고 한다.

나) 오징어물국수회

오징어물국수회는 오징어나 한치를 국수발처럼 가늘게 썰어서 매콤한 고추장과 갖은 양념을 넣은 뒤 물에 말아 먹던 음식이다.¹⁶⁸⁾ 비교적 큰 오징어를 각을 떠서 국수가닥처럼 가늘고 길게 썰어서 잔치국수처럼 물회 양념을 하여 만든다. 오징어를 이용한 속초 지방의 명물 요리로 1990년대까지 항포구 인근 횡집에서 메뉴로 내놓았는데 요즘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음식이다. 아마도 오징어가 예전만큼 많이 잡히지 않고 손질도 비교적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국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속초의 음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기록으로 남긴다.

다) 물곰탕(곰치국)

167) 최정자의 증언, 최정자 씨는 78세로 속초회국수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 6월 20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68) 「경향신문」, 1994. 8. 6일자에 전국의 별미를 소개하는 코너에 속초항 오징어물국수회에 대한 소개가 있다. 한때는 특별한 음식이었으나 지금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다. 당시 불려졌던 이름으로 소개하며, 다시 한번 속초의 대표음식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급하였다.

물곰탕은 곰치국이라고도 부르는데 껌치에 무를 넣어 끓인 국으로 애주가들에게 사랑받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장국이다. 재료로 쓰이는 껌치는 원래 물메기과의 생선으로 몸이 반(半) 투명하고 물렁물렁한 것이 특징이다. 서남해안에서는 물메기라고 부르나 사실은 물메기보다 덩치가 약간 큰 다른 어종이다. 강원도 방언으로 껌치, 물곰이어서 껌치국, 물곰탕이라고 한다.

곰치라고도 하는 물곰은 사실 1990년대 이전에는 어부들이 잡아 올려도 살 사람이 없어서 바다에 다시 버리던 생선이었다. 그러던 것이 속초 항구의 어판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음식점에 들고 와 끓여달라고 요청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비싼 대구탕 대신 비린내와 기름기가 없는 특유의 담백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입소문을 타 요즘은 시원한 국물 맛 때문에 해장국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동해안에서 물곰탕으로 유명한 곳은 속초와 삼척인데, 삼척은 묵은 김치를 넣어 시큼하게 끓이는 것이 특징이라면, 속초는 무를 넣어 맑은 탕으로 끓여내어 고추가루와 소금으로 간을 맞춰 시원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라) 닭강정

닭강정은 닭튀김에 간장, 물엿 등을 넣어 조려내거나 볶아내는 음식이다. 얼핏보면 양념치킨과 유사하지만 다른 음식이다.

피란민의 증언에 의하면 북청지방에서는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 익힌 닭고기를 꿀에 바르고 땅콩가루를 뿌려서 먹었던 음식이 있었다고 한다. 속초는 양계장이 많아 닭튀김을 파는 가게가 많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응용하여 조청과 청양고추로 강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닭강정을 만들어 중앙시장 안에서 팔기 시작했다. 2010년 KBS '1박 2일'에서 '만석닭강정'이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시장에 몰리기 시작하여 속초 관광수산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운 효자 음식이 되었다.

마) 명태회냉면

함흥냉면은 원래 녹말가루를 주원료로 매우 쫄깃쫄깃한 면을 만들고 생선회를 얹어 만든 비빔국수인데, 가자미회를 양념하여 얹어 먹기 때문에 회냉면이라고 했다. 속초의 회냉면이 북한식과 다른 점은 녹말 대신 고구마전분을 쓰고, 가자미 대신에 명태를 고평으로 쓴다는 점이다. 속초에서도 처음에는 가자미를 사용했다. 그러나 가자미가 비싸져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명태를 사용했는데 비린내가 안 나고 좋아서

계속 사용하였다고 한다.¹⁶⁹⁾ 속초의 냉면집들은 명태를 고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함흥냉면과 더불어 명태회 냉면이라고 한다.

6) 동명동·금호동 행정 조직의 정비

가) 재건반의 설치

1963년 속초시 승격과 함께 ‘속초시 재건반 설치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1963년 1월 1일자로 속초시 하부 조직을 정비하였다. 속초리에는 202개의 재건반을 두었다. 재건반의 수는 인구 변동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며, 1972년 7월 1일자로 재건반 명칭과 구역 조정이 되었는데 속초리 2구~4구의 조정 전과 조정 후의 재건반수는 다음과 같다.¹⁷⁰⁾

<표 20> 1972년 전반기 동명동·금호동 재건반 설치수

구역	재건반 설치수	법정동 이름
속초리 2구	64	동명동
속초리 3구	70	중앙동
속초리 4구	75	금호동
계	209	

<표 21> 1972년 7월 1일자 동명동·금호동 재건반 개편 내용

구역	재건반 설치수	법정동 이름
속초리 2구	82	동명동
속초리 3구	72	중앙동
속초리 4구	80	금호동
계	234	

나) 새마을반의 설치

1973년 12월 29일 「속초시 재건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속초시 조례 제374호)」를 공포하여 ‘재건반’을 ‘새마을반’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다) 통반제(統班制)의 실시

속초시에서는 1975년 7월 5일 행정조직의 행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169) 김옥순의 증언, 김옥순 씨는 현재 76세로 유달면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21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70) 속초시, 「속초시 재건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공포(제325호)」 참조, 국가기록원, 1972.

위하여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 내용은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두는 것으로, 조례의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고 이의 실시로 그동안 설치되었던 새마을반을 폐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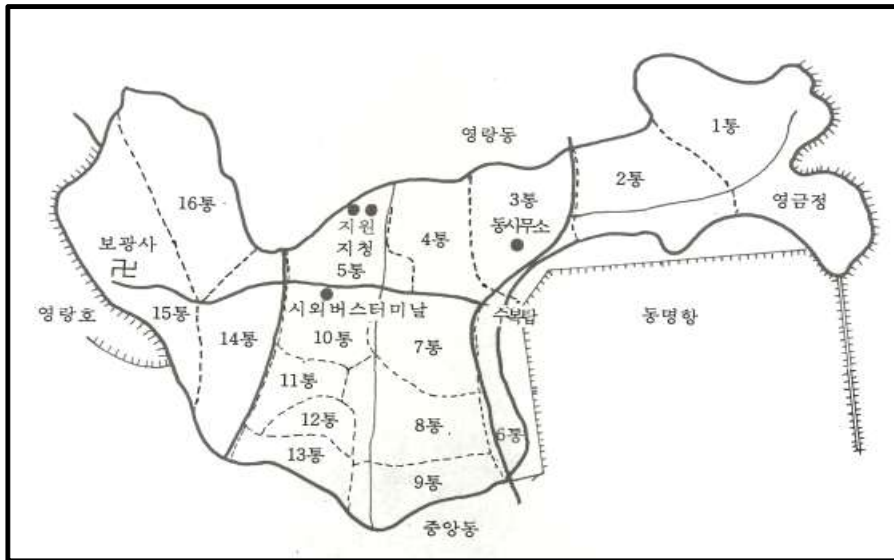
획정 기준을 보면 반은 20~30 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는데,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였다.

(1) 동명동의 통반 설치 내용

<표 22> 동명동의 통반 설치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1통	1반	1 새마을반 일원 3 새마을반 일부	9통	1반	37 새마을반 일원
	2반	2 새마을반 일원 6 새마을반 일부		2반	39 새마을반 일원
	3반	3 새마을반 일부 4 새마을반 일원		3반	40 새마을반 일원
	4반	5 새마을반 일원		4반	41 새마을반 일원
	5반	6 새마을반 일부 7 새마을반 일원		5반	38 새마을반 일원
2통	1반	10 새마을반 일원	10통	1반	57 새마을반 일원
	2반	8 새마을반 일원 9 새마을반 일부		2반	58 새마을반 일원
	3반	9 새마을반 일부 11 새마을반 일원		3반	59 새마을반 일원
	4반	12 새마을반 일원		4반	60 새마을반 일원
	5반	13 새마을반 일원		5반	61 새마을반 일원
3통	1반	14 새마을반 일원 15 새마을반 일원	11통	1반	62 새마을반 일원
	2반	16 새마을반 일원		2반	63 새마을반 일원
	3반	17 새마을반 일원		3반	65 새마을반 일원
	4반	18 새마을반 일원		4반	64 새마을반 일원
	5반	19 새마을반 일원		1반	45 새마을반 일원
4통	1반	20 새마을반 일원	12통	2반	46 새마을반 일원
	2반	21 새마을반 일원		3반	66 새마을반 일원
	3반	22 새마을반 일원		4반	47 새마을반 일원
	4반	23 새마을반 일원		1반	44 새마을반 일원
	5반	24 새마을반 일원		2반	67 새마을반 일원
5통	1반	25 새마을반 일원	13통	3반	68 새마을반 일원
	2반	26 새마을반 일원		4반	69 새마을반 일원
	3반	27 새마을반 일원			
	4반	28 새마을반 일원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6통	1반	29	새마을반 일원	14통	1반	70	새마을반 일원
	2반	30	새마을반 일원		2반	71	새마을반 일원
	3반	31	새마을반 일원		3반	72	새마을반 일원
	4반	32	새마을반 일원		4반	73	새마을반 일원
7통	1반	33	새마을반 일원		5반	74	새마을반 일원
		34	새마을반 일원		6반	75	새마을반 일원
	2반	55	새마을반 일원	15통	1반	76	새마을반 일원
		56	새마을반 일원		2반	77	새마을반 일원
	3반	53	새마을반 일원		3반	78	새마을반 일원
	4반	54	새마을반 일원		4반	79	새마을반 일부
5반	52	새마을반 일원	5반		80	새마을반 일부	
6반	35	새마을반 일원	6반		81	새마을반 일원	
8통	1반	36	새마을반 일원				
	2반	51	새마을반 일원				
	3반	48	새마을반 일원				
	4반	43	새마을반 일원				
	5반	49	새마을반 일원				
	6반	50	새마을반 일원				



<그림 45> 동명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시정 3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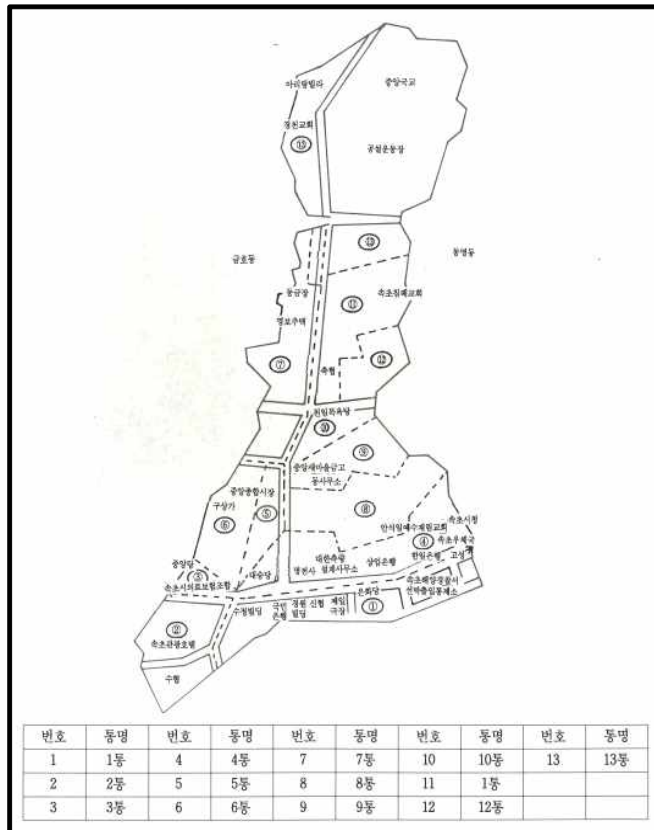
※<그림45> 통반은 인구 증감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자료는 1993년 현재로 15통에서 16통으로 증가함.

(2) 중앙동의 통반 설치 내용

<표 23> 중앙동의 통반 설치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1통	1반	1 새마을반 일원	7통	1반	48 새마을반 일원	
	2반	2 새마을반 일부		2반	49 새마을반 일원 50 새마을반 일부	
	3반	2 새마을반 일부 3 새마을반 일원		3반	55 새마을반 일원	
	4반	4 새마을반 일원		4반	56 새마을반 일원 57 새마을반 일부	
	5반	5 새마을반 일원 6 새마을반 일원		5반	57 새마을반 일부	
	6반	7 새마을반 일원 8 새마을반 일부		8통	1반	39 새마을반 일부
2통	1반	8 새마을반 일부 9 새마을반 일원	2반		39 새마을반 일부	
	2반	10 새마을반 일원 11 새마을반 일부	3반		40 새마을반 일원	
	3반	11 새마을반 일부	4반		41 새마을반 일원	
	4반	12 새마을반 일원	5반		42 새마을반 일원 43 새마을반 일부	
	5반	13 새마을반 일원	9통		1반	43 새마을반 일부
	6반	14 새마을반 일원 15 새마을반 일원		2반	44 새마을반 일원	
3통	1반	16 새마을반 일원		3반	45 새마을반 일원	
	2반	17 새마을반 일원 19 새마을반 일부		4반	46 새마을반 일원	
	3반	18 새마을반 일원 19 새마을반 일부		5반	47 새마을반 일원	
	4반	19 새마을반 일부 20 새마을반 일원		10통	1반	50 새마을반 일원 51 새마을반 일부
	5반	21 새마을반 일부	2반		51 새마을반 일부 52 새마을반 일원	
4통	1반	32 새마을반 일원	3반		53 새마을반 일원 54 새마을반 일원	
	2반	33 새마을반 일원 34 새마을반 일부	4반		59 새마을반 일원 60 새마을반 일부	
	3반	34 새마을반 일부 35 새마을반 일부 36 새마을반 일부	11통		1반	62 새마을반 일부 63 새마을반 일원
	4반	35 새마을반 일부 36 새마을반 일부			2반	71 새마을반 일원 72 새마을반 일원
	5반	37 새마을반 일원		3반	58 새마을반 일원	
	6반	38 새마을반 일원 39 새마을반 일부		4반	66 새마을반 일원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5통	1반	28 새마을반 일원	12통	1반	60 새마을반 일부		
	2반	29 새마을반 일원		2반	61 새마을반 일원		
	3반	31 새마을반 일부		3반	62 새마을반 일부		
	4반	30 새마을반 일원		4반	64 새마을반 일원		
6통	1반	31 새마을반 일부	13통	1반	68 새마을반 일원		
		22 새마을반 일원		2반	69 새마을반 일부		
	2반	23 새마을반 일원		3반	69 새마을반 일부		
	3반	24 새마을반 일부		4반	70 새마을반 일부		
	4반	24 새마을반 일부		5반	67 새마을반 일원		
5반	25 새마을반 일원	6반	70 새마을반 일부				
		26 새마을반 일원					
		27 새마을반 일원					



<그림 46> 중앙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시정 3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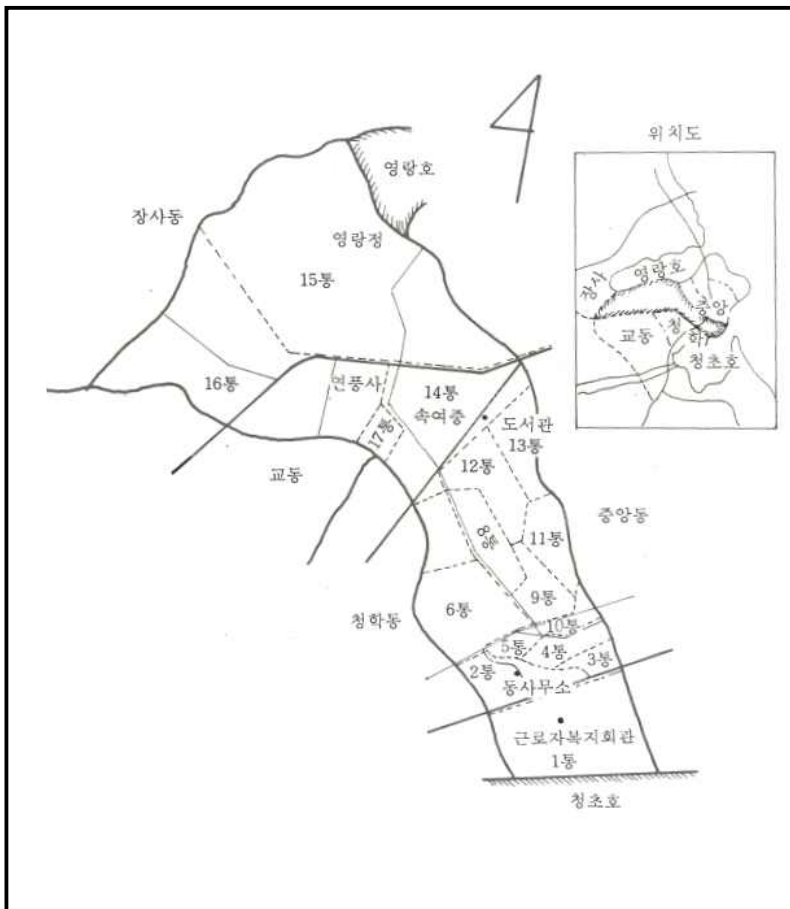
※<그림46> 통반은 인구 증감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자료는 1993년 현재로 증감 없음.

(3) 금호동의 통반 설치 내용

<표 24> 금호동의 통반 설치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1통	1반	1 새마을반 일원	9통	1반	42 새마을반 일원
	2반	2 새마을반 일부		2반	47 새마을반 일원
	3반	2 새마을반 일부 3 새마을반 일부		3반	48 새마을반 일원
	4반	3 새마을반 일부		4반	49 새마을반 일원
2통	1반	4 새마을반 일원	10통	1반	43 새마을반 일원
	2반	5 새마을반 일원		2반	44 새마을반 일원
	3반	6 새마을반 일원		3반	45 새마을반 일원
	4반	7 새마을반 일원		4반	46 새마을반 일원
	5반	8 새마을반 일원	11통	1반	50 새마을반 일원
1반	9 새마을반 일원	2반		51 새마을반 일원	
2반	10 새마을반 일원	3반		52 새마을반 일원	
3반	11 새마을반 일원	4반		57 새마을반 일원	
4반	12 새마을반 일원	5반		58 새마을반 일원	
3통	5반	13 새마을반 일원	12통	1반	53 새마을반 일원
	6반	14 새마을반 일원		2반	54 새마을반 일원
	1반	15 새마을반 일원		3반	55 새마을반 일원
	2반	16 새마을반 일원		4반	56 새마을반 일원
	3반	17 새마을반 일원		5반	63 새마을반 일원
	4반	18 새마을반 일원		13통	1반
5반	19 새마을반 일원	2반	60 새마을반 일원		
6반	20 새마을반 일원	3반	61 새마을반 일원		
4반	21 새마을반 일원	4반	62 새마을반 일원		
5통	2반	22 새마을반 일원	14통	1반	64 새마을반 일원
	3반	23 새마을반 일원		2반	65 새마을반 일원
	4반	24 새마을반 일원		3반	66 새마을반 일원
	5반	26 새마을반 일부 27 새마을반 일원		4반	67 새마을반 일원
	6반	40 새마을반 일원		5반	68 새마을반 일원
	6통	1반		25 새마을반 일원 26 새마을반 일부	15통
2반		28 새마을반 일원	2반	70 새마을반 일원 72 새마을반 일원	
3반		29 새마을반 일원	3반	71 새마을반 일원 73 새마을반 일원	
4반		30 새마을반 일원	4반	74 새마을반 일원	
5반		31 새마을반 일원	5반	75 새마을반 일원	
6반		32 새마을반 일원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7통	1반	33	새마을반 일원	16통	1반	76	새마을반 일원
	2반	34	새마을반 일원		2반	77	새마을반 일원
	3반	35	새마을반 일원		3반	78	새마을반 일원
	4반	36	새마을반 일원		4반	79	새마을반 일원
8통	1반	37	새마을반 일원		5반	80	새마을반 일부
	2반	38	새마을반 일원		6반	80	새마을반 일부
	3반	39	새마을반 일원				
	4반	41	새마을반 일원				



〈그림 47〉 금호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 『시정 30년사』

※〈그림47〉 통반은 인구 증감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자료는 1993년 현재로 16통에서 17통으로 증가함.

(4) 금호동(행정동) 통반구역도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동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행정동이라 한다. 속초시는 1998년 10월 17일 <속초시 조례 제1657호>로 중앙동·금호동 2개의 법정동을 통합하여 금호동의 행정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48> 금호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 『시정 40년사』

4) 도로명주소법 시행

도로명주소법은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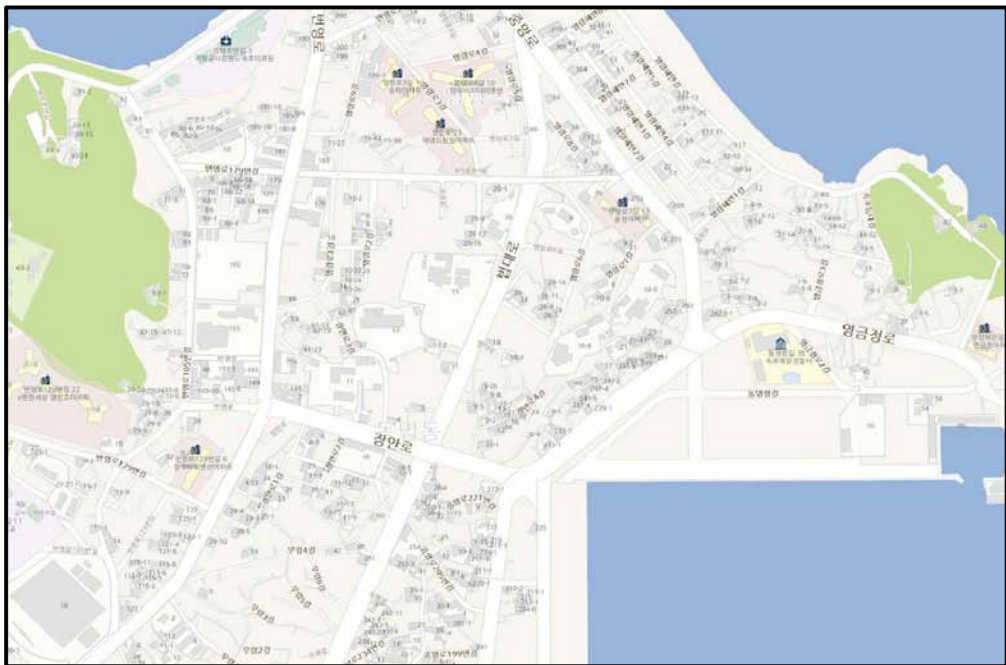
도로명 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전의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새로 나왔다는 의미에서 새주소라고도 불린다. 도로명의 기준은 ‘대로’는 폭이 40m 이상이거나 8차선 이상일 경우, ‘로’는 12m 이상이거나 왕복 2차선 이상, ‘길’은 12m 미만이거나 2차로 미만으로 하였다.

도로명 주소에 의해 이름을 부여한 동명동, 금호동의 도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 동명동 도로명

도로명번호	도로명	로마자표기
2223001	법대로	Beopdae-ro
3223007	수복로	Subok-ro
3223009	영금정로	Yeonggeumjeong-ro
3223014	장안로	Jangan-ro
3223024	번영로	Beonyeong-ro
3223025	중양로	Jungang-ro
3223027	설악금강대교로	Seorakgeumgangdaegyo-ro
4469033	동명항길	Dongmyeonghang-gil
4469083	번영로105번길	Beonyeong-ro 105beon-gil
4469084	번영로129번길	Beonyeong-ro 129beon-gil
4469097	번영로97번길	Beonyeong-ro 97beon-gil
4469137	속초등대길	Sokchodeungdae-gil
4469144	수복로234번길	Subok-ro 234beon-gil
4469145	수복로259번길	Subok-ro 259beon-gil
4469155	영금정로1길	Yeonggeumjeong-ro 1-gil
4469156	영금정로2길	Yeonggeumjeong-ro 2-gil
4469157	영금정로3길	Yeonggeumjeong-ro 3-gil
4469158	영금정로4길	Yeonggeumjeong-ro 4-gil
4469159	영금정로5길	Yeonggeumjeong-ro 5-gil
4469160	영금정로6길	Yeonggeumjeong-ro 6-gil
4469166	영랑로6길	Yeongnang-ro 6-gil
4469167	영랑로7길	Yeongnang-ro 7-gil
4469169	영랑해안1길	Yeongnanghaean 1-gil
4469178	영랑해안길	Yeongnanghaean-gil
4469180	영랑호반길	Yeongnanghoban-gil
4469182	우렁1길	Ureong 1-gil
4469183	우렁2길	Ureong 2-gil

도로명번호	도로명	로마자표기
4469184	우렁3길	Ureong 3-gil
4469185	우렁4길	Ureong 4-gil
4469186	우렁5길	Ureong 5-gil
4469187	우렁6길	Ureong 6-gil
4469188	우렁길	Ureong-gil
4469194	장안로1길	Jangan-ro 1-gil
4469195	장안로2길	Jangan-ro 2-gil
4469196	장안로3길	Jangan-ro 3-gil
4469197	장안로4길	Jangan-ro 4-gil
4469215	중동능선길	Jungdongneungseon-gil
4469224	중앙로187번길	Jungang-ro 187beon-gil
4469225	중앙로199번길	Jungang-ro 199beon-gil
4469226	중앙로205번길	Jungang-ro 205beon-gil
4469227	중앙로221번길	Jungang-ro 221beon-gil
4469228	중앙로229번길	Jungang-ro 229beon-gil
4469247	중앙시장로5길	Jungangsijang-ro 5-gil



<그림 49> 동명동 도로별 구분.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표 26> 중앙동 도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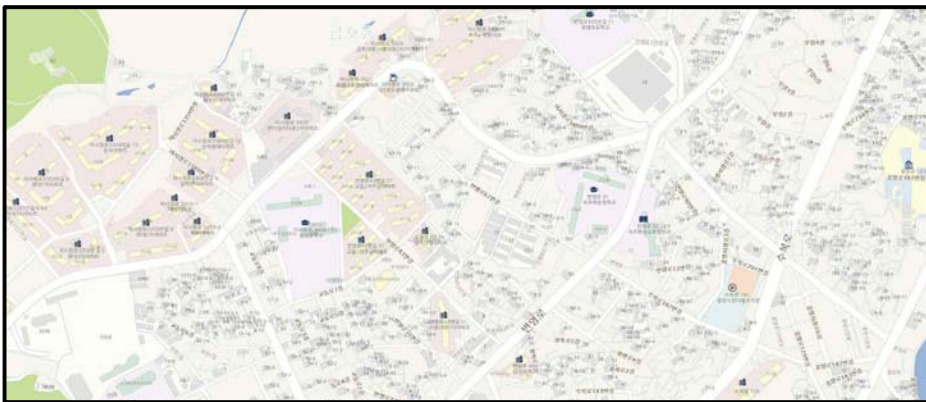
도로명번호	도로명	로마자표기
3223007	수복로	Subok-ro
3223016	중앙시장로	Jungangsijang-ro
3223018	청초호반로	Cheongchohoban-ro
3223023	미시령로	Misiryong-ro
3223024	번영로	Beonyeong-ro
3223025	중앙로	Jungang-ro
3223027	설악금강대교로	Seorakgeumgangdaegyo-ro
4469068	미시령로3489번길	Misiryong-ro 3489beon-gil
4469083	번영로105번길	Beonyeong-ro 105beon-gil
4469096	번영로90번길	Beonyeong-ro 90beon-gil
4469097	번영로97번길	Beonyeong-ro 97beon-gil
4469143	수복로201번길	Subok-ro 201beon-gil
4469215	중동농선길	Jungdongneungseon-gil
4469217	중앙로108번길	Jungang-ro 108beon-gil
4469219	중앙로129번길	Jungang-ro 129beon-gil
4469220	중앙로143번길	Jungang-ro 143beon-gil
4469221	중앙로147번길	Jungang-ro 147beon-gil
4469222	중앙로177번길	Jungang-ro 177beon-gil
4469224	중앙로187번길	Jungang-ro 187beon-gil
4469242	중앙부두길	Jungangbudu-gil
4469243	중앙시장로1길	Jungangsijang-ro 1-gil
4469244	중앙시장로2길	Jungangsijang-ro 2-gil
4469245	중앙시장로3길	Jungangsijang-ro 3-gil
4469246	중앙시장로4길	Jungangsijang-ro 4-gil
4469247	중앙시장로5길	Jungangsijang-ro 5-gil
4469248	중앙시장로6길	Jungangsijang-ro 6-gil
4469249	중앙시장로7길	Jungangsijang-ro 7-gil
4469250	중앙시장로8길	Jungangsijang-ro 8-gil
4469251	중앙시장로9길	Jungangsijang-ro 9-gil



<그림 50> 중앙동 도로별 구분.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표 27> 금호동 도로명

도로명번호	도로명	로마자표기
3223007	수복로	Subok-ro
3223018	청초호반로	Cheongchohoban-ro
3223023	미시령로	Misiryong-ro
3223024	번영로	Beonyeong-ro
3223025	중앙로	Jungang-ro
4469010	교동로7길	Gyodong-ro 7-gil
4469065	미시령로3359번길	Misiryong-ro 3359beon-gil
4469067	미시령로3469번길	Misiryong-ro 3469beon-gil
4469068	미시령로3489번길	Misiryong-ro 3489beon-gil
4469090	번영로43번길	Beonyeong-ro 43beon-gil
4469094	번영로67번길	Beonyeong-ro 67beon-gil
4469095	번영로72번길	Beonyeong-ro 72beon-gil
4469096	번영로90번길	Beonyeong-ro 90beon-gil
4469097	번영로97번길	Beonyeong-ro 97beon-gil
4469140	수복로167번길	Subok-ro 167beon-gil
4469141	수복로177번길	Subok-ro 177beon-gil
4469142	수복로187번길	Subok-ro 187beon-gil
4469143	수복로201번길	Subok-ro 201beon-gil
4469179	영랑호반1길	Yeongnanghoban 1-gil
4469180	영랑호반길	Yeongnanghoban-gil
4469217	중앙로108번길	Jungang-ro 108beon-gil
4469218	중앙로121번길	Jungang-ro 121beon-gil
4469219	중앙로129번길	Jungang-ro 129beon-gil
4469221	중앙로147번길	Jungang-ro 147beon-gil
4469245	중앙시장로3길	Jungangsijang-ro 3-gil
4469271	청학로2길	Cheonghak-ro 2-gil
4469273	청학로4길	Cheonghak-ro 4-gil
4469290	호반산책길	Hobansanchaek-gil



<그림 51> 금호동 도로별 구분.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6. 기념물 및 문화재

가. 수복기념탑

속초시 동명동 37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념물로 흔히 수복탑이라고도 부른다. 이 탑은 1954년 3월 당시 읍장이었던 김근식(金根植), 피난민 연락소장 박상선(朴相善), 후방 반공 계몽인 박성주(朴成柱) 등이 6·25전쟁이 끝나고 속초 지역은 수복되었으나 남쪽으로 피란하였다가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실향민들의 한을 달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이 탑을 만들었다. 제1군단 민사처 보좌관 전형윤(全亨胤) 소령을 통해 건의를 하고 제1군단장 이형근 장군의 승낙을 얻어 피란민의 회사금, 속초읍 부담 육백만 원, 군부대의 차량 지원으로 1954년 5월 10일 건립하였다.

수복기념탑의 제원은 좌대 폭4m, 좌대 높이 7m, 모자상 동상 높이 2.55m 등 총 9.55m의 화강암 재질로 되어 있으며, 전적비(탑)의 보편적인 군경 조각상이 아닌 민간인 모자 조각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탑의 특징이다. 이 탑의 맨 위에는 보따리를 들고 있는 어머니와 북녘 하늘을 가리키는 어린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고향땅을 바라보는 애절한 모자 조각상이 세워져 더 이상 고향땅으로 올라 갈 수 없는 실향민의 한과 통일의 염원을 대변하고 있다.

처음 이 모자 조각상은 당시 1군단 소속 군인인 박철성이 제작했으며, 애절한 사연을 담은 모자상부(母子像賦)는 당시 1군단 소속인 장호강(張虎崗) 시인(한국참전시인협회장)이 지었다. 그러나 1983년 4월 27일 새벽, 동해안에 불어 닥친 강풍으로 모자상이 파손되었다. 이로 인해 실향민들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컸고 어부들도 귀항길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수복기념탑 모자 조각상의 파손에 대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졌다. 이에 범시민적으로 수복기념탑복원건립위원회(위원장 김종록)가 구성돼 시민 성금 모금에 들어갔으며(시민성금 4천여만 원과 시비 1천여만 원) 그해 11월 17일 수복기념탑은 복원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



<사진 137> 수복기념탑 건립 중



<사진 138> 수복기념탑 원형¹⁷¹⁾



<사진139> 강풍으로 훼손된 모자 조각상¹⁷²⁾



<사진 140> 수복기념탑 복원 제막식¹⁷³⁾

위층 탑신에는 4면 모두에 전형운 소령의 ‘收復紀念塔’ 글씨를 그대로 옮겨 조각하였으며, 아래층 탑신 동쪽 면에는 ‘수복기념탑 복원기’, 서쪽 면에는 장호강 시인이 새로 쓴 ‘母子像賦’, 남쪽 면에는 한상갑(韓相甲) 당시 동우전문대학장이 쓴 ‘民族統一’ 이란 휘호, 북쪽 면에는 청동으로 조각한 ‘군경·민 조각상’ 이 조각되어 있다.

1981년 10월 10일 제16회 설악제 망향제가 영북지구 이북 5도민회 주관으로 수복 기념탑 앞에서 6·25 30주년 만에 거행되었고,¹⁷⁴⁾ 1998년 5월 3일에는 영북지역 최초로 범시민적인 통일시민대회가 이곳 광장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렇게 수복기념탑은 실향민 도시 속초를 상징하는 탑이며, 통일을 염원하는 탑이라고 할 수 있다.

수복기념탑에 새겨진 ‘母子像賦’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71) 속초시·속초문화원(2001), 앞의 책, 152쪽.
 172) 속초시·속초문화원(2001), 위의 책, 152쪽.
 173) 속초시·속초문화원(2001), 위의 책, 152쪽.
 174) 속초시(2013), 앞의 책(하), 148쪽.

母子像賦

詩 張虎崗

척척 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구비구비 험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손도손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북녘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치고, 어느 짓곳은 길손이 그 앞길 가로 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하도록 낮도 밤도 없이 가야만 하느니. 도대체 그 누가 날린 저주의 화살일까.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어느 날 땅과 바다와 하늘이 둘로 갈리고, 동족상잔의 처절한 피바다의 싸움으로 그 아름다운 강산, 두 고 온 옛집이 잿더미로 변했다손 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피땀 흘려 일군 밭과 논, 그 정든 삶터를 찾아 마냥 가야만 하느니. 뼈에 저리도록 허구한 고된 날이, 본시 살결 고운 북녘 아낙네 예쁜 얼굴에 주름끼 고이기로서니, 삼단 검은 머리에 흰 카락 불어나기로서니, 향시 머리 위에는 널고 푸른 하늘이 열려 있기에, 모진 풍파, 옥된 세월에도 손과 손 굳게 붙잡고, 통일의 새날을 겨누어, 줄곧 앞으로 가야만 하느니.

북으로, 오직 북으로 고향길 더듬는 네 다리는 비록 가날뜨지만, 성난 해일, 거센 폭풍에 깊이 쌓이는 모래밭 헤쳐가며 걸음걸음 내디디는 참된 보람에, 줄어든 보따리 옆에 소중히 끼고 오늘도 동해 갈매기 노래를 엿듣노라면 불현듯 아롱진 향수가 담백 어리는 그 길을 쉬지 않고 가야만 하느니.

나.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通川郡 殉國同志 忠魂碑)

속초시 동명동 595-37번지 영랑호 동남쪽 호수가에 있다. 통천군 출신으로 공산치하에서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북한 공산도당과 생명을 걸고 싸우다 전사한 통천군민과 6·25전쟁 전몰용사 140명의 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영북지구 통천군민회(嶺北地區 通川郡民會) 신세묵(辛世默) 회장 외 5명이 발기하여 박용학(朴龍學), 정주영(鄭周永), 강서룡 등 전국의 통천군민 150명이 낸 회사금으로 1969년 10월 15일 건립하였다. 그 후 1990년 5월 30일 보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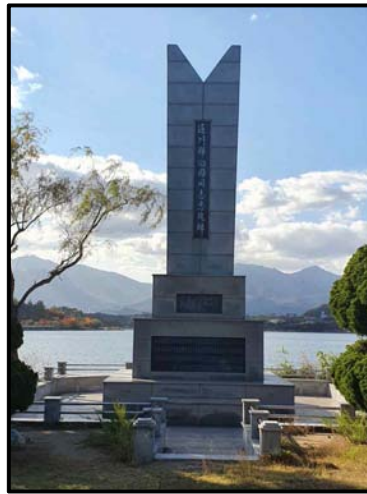
충혼비 규모는 기단 높이 110cm, 둘레 17m, 비신(碑身) 높이 625cm, 둘레 5m이다.

충혼비 앞면에 <비문>과 <순국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碑 文>

동방의 금수강산 아름다운 내 조국·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 아래 일신을 초개같이 던져 북한 공산도당과 싸우다 아깝게 순국한 동지들의 불멸의 충혼을 이 비에 새겨 고향 바다 흐르는 여기에 모시고 반공과 통일을 다짐하오니 충혼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통천군민일동



<사진 141> 통천군민 순국동지 충혼비

라. 보광사

보광사(普光寺)는 속초시 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69-2 일원 영랑호 동남쪽 골짜기에 위치한 절로 대한불교조계종 3교구 본사(本寺) 신흥사(新興寺)의 말사(末寺)이다. 1937년에 승려 정화담(鄭華潭)이 세웠고, 절 이름을 보광사라고 한 것은 부처의 제자 53불(佛) 중 수제자인 보광불존(普光佛尊)을 이 절에 모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진 142> 보광사 전경

절 입구 암벽에 ‘정화담(鄭華潭) 대법사(大法師) 보광사창건(普光寺創建)’ 이라고 새겨져 있다.

보광사에는 2건의 강원도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束草 普光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腹藏遺物)¹⁷⁵⁾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2020년 8월 21일에 불상 1구와 복장유물 9종을 일괄하여 지정하였다. 1654년 제작한 이 불상은 내시 나업의 부인 한씨가 죽은 남편을 위해 금강산 안양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발원한 작품으로, 조각승 초안이 제작한 불상이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하나의 나무로 만들어진 불상이며, 지장보살은 높이가 46cm, 무릎 너비가 30.5cm로. 높이와 폭이 1:0.6의 신체 비례를 가져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보살상에 비하여 옆으로 퍼진 느낌이 든다.

불상 내에서 발견된 복장물 가운데 조성발원문, 불교경전 등은 조선시대 불교사와 정치사 연구에 중요한 문헌 자료들이다. 특히 복장물 중에 「제불명칭가곡」은 15세기 명나라에서 조선 왕실에 보낸 경전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번 언급되었다.



<사진 143> 목조지장보살좌상



<그림 52> 현왕도

2) 속초 보광사 현왕도(束草 普光寺 現王圖)¹⁷⁶⁾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2018년 10월 26일에 현왕도 1점을 지정하였다. 보광사 현왕도는 비단바탕에 진채색으로 현왕을 중심으로 권속이 좌우대칭의 원형으로 화면을 구성하였고, 현왕도는 사람이 죽은 뒤 3일 만에 죄를 심판하는 현왕과 그 권속을 그린 불화이다. 현왕의 좌우로는 천녀와 동자가 있다. 화면 중간부분에는 대륜성왕과

175)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우리지역 문화재/강원도/속초시

17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우리지역 문화재/강원도/속초시

전륜성왕을 배치하였고, 그 아래 관관과 녹사를 배치하였다. 적색과 녹색, 청색, 백색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하였다.

현왕도는 전체적으로 얇은 먹선으로 매우 세밀하게 그려졌으며 중간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절제된 모습이 엿보인다. 보광사 현왕도에는 불화의 연기를 확인할 수 있는 화기가 없다. 그러나 불화의 복장에서 후령통과 이를 감싼 황초폭자, 발원문, 다라니가 발견되어 조성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1863년에 제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화사 궁진, 재준이 발원하고 화원 송암대원, 법인, 삼여, 금어 원명공우가 공동으로 그렸다. 보광사 현왕도는 조성연대와 작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19세기 중반 강원도 지역의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관음 각자(觀音刻字)



<사진 144> 觀音 刻字

속초시 영랑호 동남쪽 속초의료원 뒤편 산봉우리에 관음암(觀音岩)이라는 큰 바위가 있고 바위에 ‘관음(觀音)’이라는 큰 글자가 종서(縱書)로 새겨져 있다.

글자의 크기는 지름이 약 80cm 정도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줄에 4자씩 2줄, 종서로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지금은 잘 알아 볼 수 없다. 그 왼쪽에도 역시 작은 글자가 종서로 ‘西歷 日九五二年 六月 日/ 李亨根 題/ 崔泓熙 書’라고 3줄 새겨져 있어 수복 직후 이 고장에 군정이 실시되고 있을 때 제 1군단장 이형근(李亨根) 장군과 명필 최홍희(崔泓熙) 장군에 의해서 각자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랑호에 인접한 이곳은 옛 부터 관음보살(觀音普薩)이 출현하는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7. 근대 건축물

가. 속초역사(束草驛舍)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에 있었던 역사(驛舍)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사용되었던 속초역사는 속초시 수북로 254에 부지 160평에 건평 40평 규모의 프랑스식 고깔형 양식으로 모르타르 시멘트 기와를 입힌 고색창연한 건물로 1941년 건립되었다.



〈사진 145〉 束草驛舍(177)

站名	距離	時間	站名	距離	時間
元山	0.00	9.05	元山	0.00	9.05
山崎	0.25	9.20	山崎	0.25	9.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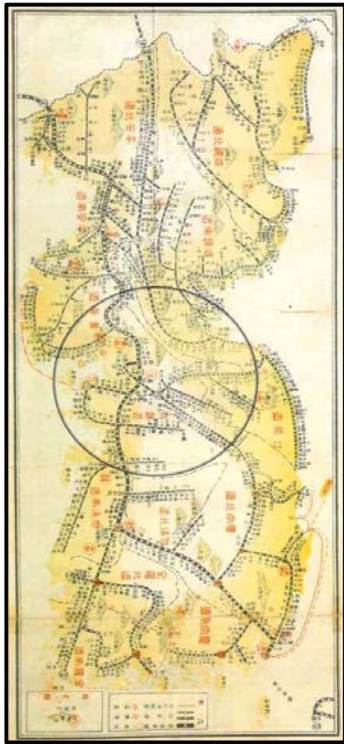
〈그림 53〉 열차시간표 (출처 : 다음카페 Rail+철도동호회)

동해북부선은 일제강점기 양양의 철광석을 원산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일제가 건설한 철도이다. 일제는 1928년 한반도 동쪽의 남과 북을 잇는 동해북부선 공사를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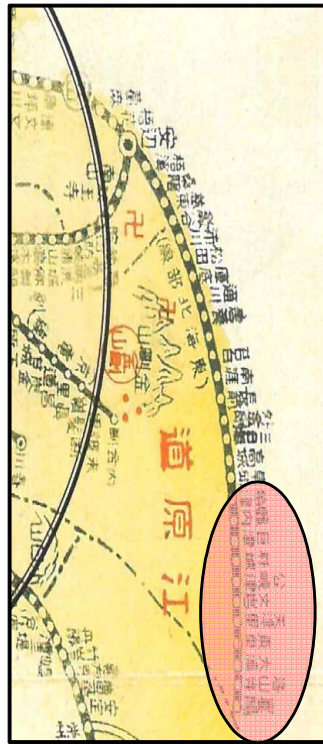
177) 속초시·속초문화원, 앞의 책, 72쪽.

해 1년 뒤인 1929년 안변-흡곡 구간을 먼저 개통하여 운영하였고, 1937년 12월 1일 간성-양양 구간이 개통되어 양양에서 원산까지 철로를 이용하여 철광석 등을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원산으로 가는 기차는 양양역(襄陽驛)을 출발하여 낙산↔물치↔대포↔속초↔천진↔문암↔공현진↔간성↔현내↔초구↔고성·삼일포↔의금강↔장전↔통천↔원산역(元山驛)을 종착지로 연결되었고, 29개의 역사(정차역 18개소, 간이역 9개소, 무인역사 2개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림 54> 최신판 여행안내도(1949)



<그림 55> 동해북부선(정차 및 간이역)

동해북부선 철도는 양양에서 하루 4번(05:00, 10:00, 16:00, 21:00)씩 출발하여 원산에 도착하는데 7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해방 이후 속초역사는 38선 이북지역에 속해 북한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6·25전쟁 중에 대규모 폭격으로 철도가 파괴되어 동해북부선 역사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국군이 북진할 때는 화장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6·25전쟁 중 속초지역이 미군의 군수물자 병참기지가 되면서 동해북부선은 한 때

군수물자 수송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또한 일부 구간이 폭격으로 인해 유실되었고, 1963년 현내-간성 구간과 1965년 간성-속초 구간이 폐지되고, 1967년 1월 1일 철도청 고시에 의해 속초-양양 구간 및 전 구간이 폐지되었다.

속초역사는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속초지역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미군항만사령부(ATC)의 취사장과 댄스홀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56년 4월에 명신고등공민학교가 입주하여 불우학생의 배움터가 되었다가 1957년부터는 벽돌공장인 고려산업사가 입주하여 경영하였다.

동해북부선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속초역사는 1978년 4월 10일에 철거되었다.



〈사진 146〉 束草驛舍(1953-1954년)¹⁷⁸⁾



〈사진 147〉 束草驛舍(고려산업사)¹⁷⁹⁾

나. 동명동 성당

동명동 성당은 영랑로7길 10-5 일대(착공 당시 속초읍 속초2리 333-3번지)에 1951년 10월 1일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1953년 8월 15일에 완공하였다.

1951년 말까지 이주해온 난민의 수가 11,256명에 이르렀으나 당시 속초읍에 거주하고 있던 신자 수는 8가구 26명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춘천교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오 후베르트 신부는 속초지역에 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주목하여 속초리에 성당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원 파트리치오 신부를 속초에 파견하여 당시 속초읍장(민정관) 김근식(金根植, 베드로)을 만나 성당 부지에 대해 협의토록 하여 김근식 속초읍장의 직권으로 현 성당 부지 14필지 2,535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허가를 받아 속초성당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178)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레버렛 기증사진 No. 03-09.

179) 속초시·속초문화원(2001), 앞의 책, 72쪽.

다. 영화관(극장)

1960년대 중반 속초에는 4개의 극장이 성업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사흘마다 새 영화가 내걸렸으므로 평균 1주일에 8-9편의 영화가 개봉되었다. 4개 극장 관람석을 다 합하면 무려 3천 석, 하루 6회 공연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들 극장이 연일 만원(滿員)을 이루었으니 당시 속초 사람들이 얼마나 영화를 즐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어판장에 고기가 넘쳐나 수입이 좋을 때는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씩 영화 구경을 가곤 했으니, 극장은 1960년대 속초 사람들의 일상적인 공간이었다.¹⁸⁰⁾

1) 현대극장

속초에 정식으로 영화관이 들어선 것은 1959년 7월 3일의 일로 시청 맞은편에 675석 규모의 현대극장이 최초이다.

2) 제일극장

1962년 12월에 중앙동 국도변에 세워진 극장으로 관람석은 756석이 설치되었다.

3) 중앙극장

1962년 9월 10일 중앙동 425-1번지인 중앙시장 내에 중앙극장이 970석 규모로 개관하였다.

4) 대원극장

대원극장은 1966년 5월 9일 950석 규모의 2층 건물로 개관하였다.

180) 최재도·이수영, 앞의 책, 146~158쪽 참조.

8. 주요 기관 및 시설

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22호에 의하여 동년 6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88호에 의하여 1994년 3월 1일 합의 자원으로 승격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재판 관할 구역은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이다. 속초지원 산하에는 판사 비상주 법원으로서 직할 법원인 양양군 법원과 고성군 법원이 있고, 등기소 또한 각각의 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속초지원의 등기 관할 구역과 즉결 관할 구역은 속초시만 해당된다.

속초지원의 직할 법원인 양양군 법원과 고성군 법원의 업무는 소액 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합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과 공탁사건으로 변제공탁(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에 의한 변제공탁)과 재판상 보증공탁(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속초시와 양양군, 고성군의 검찰 사무를 담당하는 춘천지방검찰청의 지청으로 1967년 3월 속초시청 구청사를 하여 운영하다가 1970년 동명동에 총공사비 7천 5백만원을 들여 신청사를 준공하였고 1994년 3월 합의지청으로 승격했다. 현재는 신청사가 공사 중이다.

관할은 속초경찰서, 고성경찰서, 속초해양경찰서이고 지청장과 3명의 검사, 사무과가 있다. 1호 검사실은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외에 감찰, 기획, 교통, 병무, 소년, 공안, 범죄피해자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2호 검사실은 강력, 공중특수, 마약, 식품, 보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3호 검사실은 공판, 산림, 수산, 환경, 경제, 건축, 관세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마약 관련 범죄 가능성이 높은 해안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2호 검사실 산하에 마약수사반이 설치돼 마약 관련 수사와 마약 밀매 신고 접수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과는 수사계, 총무계, 사건계, 집행계, 정보통신계로 나뉘며, 인사관리, 검찰국

유재산 관리, 압수금품 접수·처리·보관·관리, 사건 접수 및 처리, 수사 지휘, 진정, 내사 사건 처리, 영장 신청 및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 사건의 수사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¹⁸¹⁾



<사진 148>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개청(1967년)



<사진 149> 2010년대



<사진 150> 2021년 신축공사중

다.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양경찰서는 1969년 11월 1일 해양경찰대 속초기지대로 발족하여 1972년 4월 17일 동해어로보호본부를 설치한 후 1991년 7월 31일 속초해양경찰서로 개칭하였다.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였고 1997년 4월 11일 신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2014년 11월 19일 속초해양경비안전서로 개칭하고 2017년 7월 26일 속초해양경찰서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강원 고성군을 시작으로 속초, 양양, 강릉, 주문진 해역까지 동해안 최북단 해역을 담당하는 해상 치안기관으로 해양에서의 각종 사고 예방과 구조, 해양범죄 단속 및 수사, 해양오염 방제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동해 최북단 어로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저도어장’ 과 ‘북방어장’ 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공서이다.

조직은 기획운영과, 경비구조과, 해양안전과, 장비관리운영팀, 수사과, 정보외사과, 해양오염방제과로 구성되고 속초, 낙산, 주문진, 거진에 파출소를 두고 있다.

라. KBS 속초방송 문화센터

KBS 속초방송 문화센터는 1956년 7월 15일 강원도 양양군 속초읍 3구 91번지 이동방송국으로 시작하여 1956년 8월 1일 속초 이동방송국으로 개국하였다. 1961년 12

18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홈페이지(<https://www.spo.go.kr/>)

월 31일 호출부호 HLCS를 통해 속초방송국으로 승격하였다. 1968년 12월 당시 450만원을 들여 동명동 산꼭대기에 대지 3천평에 건평 45평 단층으로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이전하였으며, 1971년 5월 15일에는 양양송신소를 개소하였다. 1973년 3월 1일 한국방송공사 속초방송국으로 개편 발족하였으며 1975년 5월에는 청사를 증축하였다. 1993년 8월 대지 2,161평, 건축면적 513평, 연면적 1,31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대리석 건물로 신사옥을 준공하였다. 신사옥 1층은 공개홀과 카메라실, 2층은 AM FM라디오실, 지하층에는 중앙감시실, 기계실이 자리 잡고 20m 높이의 전망대가 마련됐다. 1994년 8월 23일 TV 제작 장비 시설을 준공하여 1995년 2월 23일에는 TV를 개국하였다, 이를 위해 속초방송국은 스튜디오 카메라 2대, 녹화기 5대, 보도용 베타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갖췄으며 기자 2명, TV 기술 요원 5명, 스튜디오 카메라맨 1명을 증원했다. KBS속초방송국이 KBS 1, 2채널을 통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7시와 9시 영동권뉴스와 ‘6시 내고향’ 생방송 전국은 지금의 ‘TV정보센터’, ‘강원한마당’ 등이었다.¹⁸²⁾1996년 11월 25일 양양송신소를 자동화하여 이듬해 2월부터 원격제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2000년 8월 1일 KBS 해피FM(제2라디오)이 개국하였다.

속초방송국은 2004년 5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25개 지역방송국 가운데 자체 프로그램 제작 비율이 1.1%에 그치고 있는 16개 방송국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KBS측도 이를 수용하였다. KBS 속초방송국 폐지에 대하여 당시 속초 지역의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KBS 속초방송국 폐지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폐지 대상에 오른 다른 지역과 연대하여 지역방송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끝내 속초방송국은 폐지되었다.



<사진 151> 1956년 속초방송국(시청 옆에 위치한 KBS속초방송국의 전신)

182) 속초시(2013), 앞의 책(하), 60쪽.



〈사진 152〉 속초방송국 청사 준공식(1968년)



〈사진 153〉 1993년

마.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은 처음에는 현재 시청 앞에 있었다. 속초가 시로 승격된 것이 1963년인데 이 무렵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려 하루 3천명에 달했다 한다. 물론 환승 나온 이들과 마중 온 이들과 합친 인원이었다. 정식 터미널은 아니었고 이(李)모라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터미널이 마지막으로 존속하던 해인 1966년엔 버스 1대당 주차비가 20원, 경비비로 30원씩을 받고 있었고 이것과는 별도로 각 버스영업소로부터 하루 50원의 관리비를 받고 있었다. 게다가 비만 오면 진흙 구렁이 되는 데다 대합실엔 의자 하나 없었다.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청결을 유지하려는 의지도 없이 관리비만 올려 받자 버스회사 영업소와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결국 속초시가 나서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대책을 찾게 되었다.¹⁸³⁾

속초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대상지로 영랑동 일대와 당시 속초경찰서 맞은편 해안 그리고 빈 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교동 일대 등을 논의해 1966년 10월 현재의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로 확정하였다. 당시 이 자리는 작은 야산과 논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야산을 일부 헐어 논을 매워 공터를 만들고 대합실과 주차장을 세웠다. 기존 중심지인 영랑동에 이어 휴전 직후 새로이 중앙동 일대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은 터미널 부지로서 아주 적지(適地)였다. 이미 없어지긴 했으나 기차역이 그 인근에 있어서 확실히 우렝골은 교통 요충지로서의 풍수를 지니고 있었던 모양이다.¹⁸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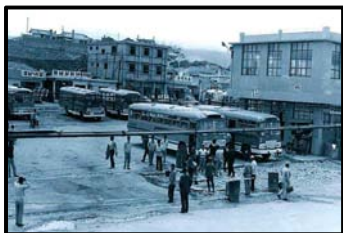
등대 부근의 새짜과 마짜 마을 일대가 중심지였기에 그보다 남쪽에 있는 수복탑 쪽 마을은 ‘웃말’이라 불렀고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경찰서 뒤편 마을은 ‘촌말’이라 불렀다. 1937년 대포에 있던 면사무소가 현재의 시청 자리로 옮겨오고 기

183) 속초시(2013), 앞의 책(부록), 114쪽.

184) 속초시(2013), 앞의 책(부록), 115쪽.

차역마저 우렁골에 들어서면서 그 위상이 서서히 바뀌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차에 버스터미널까지 들어서 이곳은 일약 속초 최대의 신흥 변화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당연히 여관과 여인숙들이 주변에 들어섰고 약국도 몇 개 들어왔다. 비슷한 시기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법원과 검찰청, 속초방송국과 속초문화원 등이 옮겨 와서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시청과 경찰서, 중앙시장 등 속초 시내 관공서와 요지에 다다를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위치였다.¹⁸⁵⁾

2017년 지상 2층으로 리모델링을 완성하여 운영 중이다. 상행선으로 7번과 44번 국도 경유 노선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방면으로 운행하고 하행 노선으로 강원도, 경상도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다. 운수 회사는 강원여객, 강원고속, 동해상사고속, 금강고속, 금아리무진, 금아여행, 강원홍업, 코리아와이드 경북, 경남여객, 대원고속, 경기고속 등이다.



<사진 154> 1960년대



<사진 155> 2000년대



<사진 156> 2020년대

바. 속초감리교회

속초감리교회는 1927년 5월 17일 원산지방 소속 평신도 선교사인 쿠퍼(Kate Cooper)의 전도로 당시 교인들의 연보와 쿠퍼 선교사의 도움으로 초가 8칸을 매입하여 속초지역의 모(母)교회로 창립되었다.

1939년 교회를 확장하여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 1구(현 속초시 동명동)에 24평의 예배당을 신축하고 교인 40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유년 주일학교를 조직하여 한글과 성경을 가르쳤다

1940년 12월 일제의 탄압으로 교회를 빼앗기고 교인들은 구금, 구타, 가택 수색 등으로 성경, 찬송을 빼앗기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다. 1950년 5월 종각을 세웠으나 공산당의 탄압으로 교회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1951년 8월 수복으로

185) 속초시(2013), 앞의 책(부록), 116쪽.

신앙의 자유를 얻고 닫혔던 교회의 문을 열어 다시 집회가 시작되었다.

1955년 10월 교회당을 건립하고 1967년 교육관을 신축하여 운영하다 2005년 4월 동명동 290번지에 대지를 구입하고 2008년 늘푸른 요양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사진 157> 1950년대 초



<사진 158> 1955년



<사진 159> 1972년



<사진 160> 1982년



<사진 161> 2021년

사. 춘천교구 동명동 성당

속초 지방은 병인박해 이전부터 있었던 상도문리 교우촌으로부터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었다. 상도문리 지역은 1914년 도천면에 편입되기 전 짜리재로 불리던 지역으로 짜리재 교우촌을 중심으로 공소가 건립되었다.

그후 도문동 본당으로 승격되었다가 본당이 이전하여 다시 도문동 공소가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6·25전쟁으로 공산치하에 있으면서 고통을 겪다가 1954년 속초지역 탈환으로 수복되었고 휴전 협정이 임박하여 고성군과 속초시 전역을 관할하는 본당이 설립되었다. 1951년 10월 1일 속초성당 건립을 위한 평탄작업과 건축자재를 확보하기 시작하여, 성당 외벽을 쌓는데 필요한 석재는 영금정 채석장에서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 성당 골조를 세울 자재를 확보하였고, 기초작업에 필요한 철근은 미군이 철거한 동해북부선 철로를 사용하였다. 성당 지붕은 미군 수송부대에서 사용했던 드럼통을 펼쳐서 활용하는 등 속초에 주둔한 미군의 도움을 받아 1953년 8월 15일 성당 건립을 완료하였다.

설립 당시 성당은 미군 원조를 받았고 초대 신부로 맥고원 파트리시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성당 설립 후 밀가루, 옥수수, 빵 등을 나눠주는 무료 급식을 실시하여 6·25전쟁 이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진행하였다.¹⁸⁶⁾

당시 건립된 성당의 모습은 미군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출입구를 비롯한 개구부는 모두 상부를 아치형으로 아케이드형식의 창호이며, 문짝과 창살은 모두 목재를 사용하였고, 측면 창호의 외형과 위치는 현재와 동일하며, 단지 낙수흡통의 위치가 현재와 달리 첫 번째 창호가 시작하는 지점과 측면 출입구 근처라는 차이가 있다.¹⁸⁷⁾

건립된 속초성당은 석재가 기본이 된 소박하고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수송부대에서 사용하였던 드럼통을 펴서 지붕을 만들면서 방수를 위해 검은 콜타르칠을 하여 ‘검은 교회’로 불리기도 하였다.¹⁸⁸⁾

186) 김경식의 증언, 김경식 씨는 현재 75세로 동명동 천주교회 사무실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87)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속초시 문화재자원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 보고서」, 속초시, 2018, 24쪽.

188) 8대 사목회장 서낙원(베드로)님의 구술 “지붕의 형식은 최초 드럼통을 펴서 만들었고, 깡통을 이어서 만들기도 하였으며, 이후 루핑지붕, 슬레이트 지붕을 거쳐 현재의 동판지붕으로 변화되었다고 함” (위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사진 162> 1950년대 동명동성당 전경¹⁸⁹⁾



<사진 163> 동명동성당(동쪽에서 서쪽으로)¹⁹⁰⁾



<사진 164> 2020년대 동명동성당 전경

국군 1군단과 미군부대가 이동하면서 속초리 1구(현재 영랑동)에 있던 제일시장이 어판장에 있던 속초시 3구로 이동하고, 1953년 중앙시장 개설 이어 청학시장이 개설 되면서, 1966년 교동 본당 신축을 시작으로 교동 본당이 속초본당에서 분가하게 되고 속초 본당의 명칭이 동명동 본당으로 개칭한 ‘동명동성당’ 은, 수복지구 내 이주 피란민을 위한 성당이라는 기념성과 6·25전쟁기간 중 건립을 시작한 성당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¹⁹¹⁾ 속초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속초리 1구 언덕 위에 건립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성당으로 속초시민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속초시의 시작이라는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¹⁹²⁾

속초시는 2017년 6월 성당 측의 문화재 등록 지정 요청에 따라 용역을 거쳐 2019년 12월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 및 건의를 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심사 후 등록될 예정이다.

189) 속초시·속초문화원(2001), 앞의 책, 83쪽.
 190)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레버렛 기증사진 No. 05-09.
 191)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앞의 책, 50쪽.
 192)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위의 책, 51쪽.

아. 속초시청

일제강점기 속초지역이던 도천면은 1937년 속초면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인구증가에 따라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해방으로 북한 소속 아래서는 속초면으로 강등되었다가, 1951년 8월 18일부터 수복지구로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읍으로 환원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고,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 『시설치(市設置)와 군(郡)의 관할구역(管轄區域) 및 명칭변경(名稱變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속초시로 승격하였다. 시(市) 승격으로 시장(市長) 산하에 1실(공보실), 6과(총무과, 재무과, 교육과, 사회과, 산업과, 건설과), 2개 사업소(농촌지도소, 보건소)가 설치되었으며, 공무원의 정원은 72명이었다. 속초시청사(束草市廳舍)는 1964년 7월 21일 착공하여 1966년 9월 28일 준공하였다.



<사진 165> 1967년



<사진 166> 2021년

자. 속초시의회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공포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30년 만에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1963년 시로 승격된 속초시로서는 시정 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며, 지방화시대의 개막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전 시민의 관심 가운데 헌정사상 유례없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1991년 4월 15일 속초시의회가 개원되었으며, 개원과 함께 열린 제1회 임시회에서 박용권 씨가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열었다.

속초시의회 개원에 앞서 속초시에서는 1989년부터 지방자치제 준비를 시작하여 시

청사 내에 의사당 신축을 착수하였고, 회의장 배치와 각종 집기 구입 물색 등 준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의회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583평 규모로 총 7억 5천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1990년 9월 21일에 완공되었다.



<사진 167> 2021년

차. 동명동 주민센터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2구를 동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온다는 의미로 동명동(東明洞)이라고 하였다. 동명동은 동해 바다에서 밝은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고장이라는 뜻이다. 속초 8경 중 하나인 등대전망대와 해돋이 정자, 속초항이 있어 속초의 또 다른 명소로 각광 받고 있으며, 속초~자루비노, 훈춘 항로의 출항으로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¹⁹³⁾

1963년 속초읍을 속초시로 승격함에 따라 속초리 2구가 동명동이 되었으며 영랑동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이다. 동명항은 비교적 큰 항포구로서 인근의 배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15년 동안 방파제를 축조하였다.

마을에는 처음에 구씨가 들어와 살았으며 그 후에 이씨, 신씨, 김씨, 정씨의 순서로 정착하였다. 이곳은 6·25전쟁 이후 속초를 수복하면서 1954년 5월 10일 세운 수복기념탑이 있는데, 1983년 4월 27일 강풍으로 인해 모자상(母子像)이 부서진 것을 그해 11월 17일 다시 세워 오늘에 이른다. 수복탑 위에 세워진 모자상은 복녘에 두고 온 고향을 향하는 실향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명동에는 명승인 영금정, 바닷가의 활어횃집, 보광사 등의 관광 명소가 있다.¹⁹⁴⁾

193) 속초시(2013), 앞의 책(上), 690쪽.

194)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사진 168〉 2021년

카. 금호동 주민센터

금호동은 영랑호와 청초호의 두 호수와 접하여 있고 옛날부터 시인들이 이 호수를 노래한 시문을 남긴 것처럼 호수의 주변이 아름다워 어디선가 거문고(琴)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호동은 중심도로인 중앙로를 끼고 상가와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전국1700여개 전통시장 중 중소기업청 지정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 육성되는 영북지역 최대의 전통시장인 속초관광수산시장이 있어 지역 경제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¹⁹⁵⁾

1942년 10월 1일 속초읍 속초리 4구(금호, 청학, 교동 포함)로 1954년 11월 17일 속초읍 속초리 6구(금호동, 청학동 포함)로 편성되었다가 1963년 1월 1일 속초가 시로 승격되며 속초시 속초리 4구로 편입되었다. 1966년 1월 1일 동계 실시로 중앙동, 금호동으로 분리되었다가 1998년 10월 17일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는 중앙동 사무소를 사용하고 동 명칭은 금호동으로 명명하였다.¹⁹⁶⁾

195)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196)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사진 169> 2021년

타. 중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는 1962년 9월 5일 학교 설립을 인가받아 1963년 4월 1일 중앙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교훈은 ‘새로운 생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건강한 어린이’이며, 교목은 향나무, 교화는 개나리이다.

1964년 2월 19일 제1회 졸업식(174명)을 거행하였고 1976년 3월 2일 특수학급을 신설하였으며, 1980년 3월 19일 학급을 증설하여 39학급으로 편성하였다. 1981년 3월 10일 병설유치원 1학급을 편성하여 개원하였다. 1995년 7월 3일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1996년 3월 1일 중앙초등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였다. 2021년 1월 13일 제58회 졸업식(졸업생 49명, 졸업생 누계 12,738명)을 거행하였고 2021년 3월 1일 현재 14학급(특수학급 포함)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이다.¹⁹⁷⁾



<사진 170> 1971년



<사진 171> 1973년



<사진 172> 1987년

197) 중앙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sjungang.gwe.es.kr/>)



<사진 173> 1994년



<사진 174> 2016년



<사진 175> 2021년

파. 속초해랑중(속초여중)

속초 해랑중학교는 1955년 3월 27일 속초여자중학교로 3학급을 설립 인가받아 1955년 5월 24일 개교하였다. 교훈은 ‘열정으로 세상을 밝히는 행복한 사람’ 이며 교목은 향나무, 교화는 목련이다.

1979년 3월 10일 속초여자고등학교와 분리하였고 2006년 3월 1일 28학급(특수학급 포함)을 편제하였다. 2019년 3월 1일 속초해랑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 2021년 1월 7일 제66회 졸업식(졸업생 178명, 누계 18,900명)을 거행하였다.



<사진 176> 1950년



<사진 177> 1955년 개교



<사진 178> 2000년대



<사진 179> 2020년대

하. 속초교육문화관

1985년 1월 25일 속초시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공포 후 1986년 5월 17일 교동에 속초시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1987년 4월 29일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공포 후 속초도서관 교동분관으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해 12월 4일 속초도서관 본관을 개관하였고 2001년 2월 2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고 6월 16일 속초평생교육정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3년 8월 4일 디지털 자료실을 개실하였고, 그 해 11월 10일에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2년 4월 1일 아트 스페이스를 개실하고, 2013년 3월 1일 속초교육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사진 180> 2020년대

거. 속초전신전화국

속초전신전화국은 1966년 완공한 현 우체국에서 시작하였다. 당시는 오징어 잡이가 성황을 이루어 경상도 등지에서 온 선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이 고향 집에 전화를 걸기 위해 속초 우체국으로 몰렸는데 전화통화 사정이 극히 불량해 항의가 빗발치고 교환수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당시는 매일 평균 1,500통의 시외전화 신청을 받았으나 1시간 이상 기다리다 취소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200여 통이나 되었다. 전화를 이용하는 주고객은 관광객과 오징어를 따라온 외지 어민과 상인들이었다.¹⁹⁸⁾ 시외전화 통화가 힘들어 가입자들이 통화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다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속초~강릉 간 시외전화는 모두 6회선으로 가입자들이 통화 신청을 해놓고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이 때문에

198) 속초시, 『시정30년사』(부록), 105쪽 참조.

하루 평균 15% 내외의 취소율을 보였고 내무부가 2회선, 체신부가 1회선을 전용으로 쓰게 되면서 통화 사정이 더 악화되어 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했다. 이에 따라 취소율은 22%로 늘어났고 속초~강릉 간 버스 운행 시간이 2시간 10분이니 전화가 자동차보다 더 늦은 셈이었다.¹⁹⁹⁾

1983년 1월 1일 전신전화국으로 전환하였다. 전신전화국 시절 속초에서 전화를 이용한 사람은 3만 회선이었으며 KT건물이 과거에는 제일 높은 건물로 속초의 대표적 건물이었다. 전신전화국 건물(2층 건물) 생겼을 때 내부 난방장치가 스팀이었고 화장실은 수세식이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신기해하며 구경도 했다.²⁰⁰⁾

1992년 10월 28일 1억여원을 투입하여 한국통신 속초전화국을 증개축하고 정보통신전시관을 설립하였다. 전시관은 국내 240개의 전화국 중 최초로 민원인이 한곳에서 즉시 업무를 취급받을 수 있는 one-stop 체계의 단일전담제를 도입하였다. 별도의 민원상담실 개설과 첨단전화의 화상처리장치 등 원주, 춘천에 이어 정보통신기기 8종을 설치해 고객센터 체계를 갖추기도 하였다.²⁰¹⁾



<사진 181> 1966년



<사진 182> 2021년

너. 속초우체국

속초 우체국은 속초·고성 지역의 우편 업무와 우체국 예금보험 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이다. 1954년 12월 1일 주사국으로 개국하여 1956년 7월 9일 사무관국으로 승격하였다. 1971년 12월 5일 서기관국으로 승격한 후 1983년 12월 30일 사무관국으로 조정되고 1989년 12월 14일 현 청사로 개축 이전하였다. 신청사는 중앙동 468-3 속초시청 옆에 9억 7천만원을 들여 부지 1,630㎡에

199) 속초시(2013), 앞의 책(부록), 105쪽.

200) 홍영건의 증언.

201) 속초시(2013), 앞의 책(下), 53쪽.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우편물의 집하 분류를 위한 화물엘리베이터 등을 갖추었다.²⁰²⁾ 2014년 2월 28일 동우대 우편취급국을 위탁계약 해지한 후 2014년 7월 1일 다시 서기관국으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6년 10월 4일 설악산 우체국을 폐국하였다. 관할 우체국은 간성, 거진, 대진, 속초교동, 속초모래기우편취급국, 속초조양, 속초현대우편 취급국, 죽왕, 천진 우체국 등 9개이다.



<사진 183> 1950년대



<사진 184> 2021년

다. 금융기관

속초의 금융기관은 읍 당시인 1956년 농업은행양양지점 속초출장소가 처음 개설되어 금융업무를 개시하였고, 1961년도에 농협중앙회 양양군조합 속초지소로 승격하여 속초지역 금융기관의 효시가 되었다. 속초시로 승격된 해인 1963년 2월 1일 국민은행 속초지점이 설립됨으로써 2개 은행으로 늘어났다. 1966년 상업은행 개점을 비롯하여 속초수협이 신용업무 취급, 강원은행 지점개설 등으로 금융기관이 확충되었고,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마을금고의 설립이 개시되면서 비통화금융기관도 대폭 증가하였다. 1988년 국민주 등 주식투자의 붐조성으로 증권회사가 개설되고 1992년 주택은행 지점까지 통화금융기관(일반은행, 특수은행)이 8개였다. 비통화금융기관(마을금고, 신용금고, 증권회사 등)도 20여 개에 달하며 금융시장의 황금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IMF라는 세태의 흐름 속에 금융가도 구조조정과 통폐합의 진통을 겪으며, 2002년말 현재 17개소의 금융기관²⁰³⁾이 영업하였다.

이런 가운데 각 은행들은 건물 증개축에 들어가는 데 국민은행 속초지점은 총공사비 5천만원으로 1977년 8월 6일 중앙동 468-75에 189평의 대지 위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2층 건물로 준공되었다.²⁰⁴⁾ 중앙새마을금고는 1982년 11월 25일에 5천 5백만

202) 속초시(2013), 앞의 책(下), 49쪽.
203) 속초시(2013), 앞의 책(上), 737쪽.

원을 들여 연건평 50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2층 건물²⁰⁵)로 준공하였다.

한일은행 속초지점은 1990년 1월 18일 중앙동에서 개점식을 갖고 업무 개시했고²⁰⁶) 동명동 새마을금고는 1990년 8월 30일 회관 준공식과 함께 자산 30억 달성 기념대회를 가졌다.²⁰⁷) 조흥은행은 1991년 7월 8일 청학동 644-30번지에 개점해 신용 업무를 개시했다.²⁰⁸)

한국주택은행 속초 출장소는 1992년 8월 11일에 영랑동 148-9 설악비치리호텔 내에 개소해 업무를 개시했다. 그동안 영북지방에 주택은행이 없어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사업에 따라 주택청약부금 가입자들이 강릉지점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 출장소는 그 후 12월 11일 지점으로 승격되었다.²⁰⁹)

속초농업협동조합은 1992년 10월 12일 13억 3천 5백만원을 들여 대지 314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81평으로 종합청사를 건립하였다.²¹⁰) 속초신용협동조합은 1993년 3월 15일 중앙동 468-216번지에 대지 395㎡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72㎡의 규모로서 객장과 사무실, 교육실, 협동마당을 갖춘 신청사를 건립하였다.²¹¹)

이후 금융권의 감원과 매장의 감소로 통폐합과 폐점이 이루어져 현재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단위농협, 새마을 금고, 수협, 신협 등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185〉 농업은행 속초출장소(1956년)

204) 속초시(2013), 위의 책(下), 30쪽.

205) 속초시(2013), 위의 책(下), 40쪽.

206) 속초시(2013), 위의 책(下), 49쪽.

207) 속초시(2013), 위의 책(下), 49쪽.

208) 속초시(2013), 위의 책(下), 51쪽.

209) 속초시(2013), 앞의 책(下), 52쪽.

210) 속초시(2013), 위의 책(下), 53쪽.

211) 속초시(2013), 위의 책(下), 54쪽.

9. 지명(地名)

행정동의 동명동은 기존의 동명동이며, 금호동은 중앙동과 금호동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법정동의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은 1963년 속초시가 만들어지면서 속초리 2구, 3구, 4구로 이름을 붙여 구역을 나누었는데 1966년 동제(洞制) 실시와 함께 2구가 동명동, 3구가 중앙동, 4구를 금호동으로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 동명동(東明洞)

1942년 10월 1일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束草里)를 4개 구(區)로 나눌 때 속초리 2구가 되었다. 속초읍이 1963년 시(市)로 승격된 후 3년이 지난 1966년 1월 1일 동(洞)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종래의 속초리 2구를 “**동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 온다**” 는 의미로 동명동(東明洞)이라고 명명하였다.

관음암(觀音岩)

속초의료원 뒤쪽(남서쪽) 산봉우리에 동쪽을 향해 서있는 큰 바위. 바위에 관음(觀音)이란 큰 글자가 새겨져 있음. 예부터 이곳에 관음보살이 출현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그것에 의거하여 1952년 6월 군정이 실시되고 있을 때, 이형근(李亨根) 장군과 최홍희(崔弘熙) 장군에 의해 글자가 새겨짐.

납생이바위

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범바위쪽 길로 가다 오른쪽 호수변 매몰된 잔디밭에 붙어 있는 바위. 납생이가 이 바위에 많이 올라와 쉬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일부 바위 형태가 땅과 맞붙어 있고 일부분만 호수와 접하고 있지만, 공사하기 전에는 육지와 떨어진 호수 가운데 이 바위가 있었고 바위 뒷면은 아주 넓은 반석이었다.

납시바위

통천군민 순국동지 충혼탑(通川郡民 殉國同志 忠魂塔) 바로 뒤(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이다. 예전에는 강태공들이 많이 몰려들어 납시를 한 곳이어서 납시바위란 이름이 붙여졌으나, 지금은 납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진 186〉 관음각자



〈사진 187〉 남생이바위



〈사진 188〉 뉘시바위

뚝적바위

영랑호 동쪽 해변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 밑에 뚝저기(뚝저구)가 서식하고 있어 뚝적바위란 이름이 생겼다. 뚝저기는 꺾저기²¹²⁾의 방언이다.

뚝적바위 옆에 있는 이형근(李亨根) 장군 공적비는 제1사단장이었던 그가 38선 이 북이었던 속초를 수복하고 지역재건에 공로가 커서 1953년 8만 주민의 이름으로 세운 기념비이다. 지금은 비신과 비개석²¹³⁾이 없어졌다.

마쪽(마짜개, 마작)

동명동(東明洞) 바닷가 등대가 있는 성황봉(城隍峰) 산등성이 남쪽 마을이다. 바다 사람들의 말로 새쪽은 동쪽, 마쪽은 남쪽을 뜻하는데 이 고장 방언으로 마쪽을 마작, 마짜개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마쪽마을이라고 부르나, 마을 주민들은 마짜개로 통용하고 있다.

비선대(秘仙臺)

옛 문헌과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등대 아래 바닷가 암반 자리를 부르던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비선대(秘仙臺)는 부(府) 북쪽 50리 쌍성호(雙城湖, 오늘날의 靑草湖) 동쪽에 있다. 둘 봉우리가 가파르게 빼어났고, 위에 노송(老松) 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 같다. 그 위에는 앓을 만하며, 실 같은 길이 육지와 통하는데, 바다 물결이 사나와지면 건널 수 없다.” 고 기록하였는데 실제로 경치가 아름다운 넓은 암봉이 있어 이곳을 비선대라고 하였다.

212) 꺾저괴에 속한 민물고기이다. 크기는 약 13센티 미터 정도이며, 몸빛은 전체가 광택이 나는 진한 갈색이고 아가미덮개에 커다란 청록색 반점이 있다. 호수나 물 흐름이 느린 강의 물풀이 자라는 곳에서 새우류나 수중 곤충, 작은 물고기 따위를 먹고 살며 5-6월에 산란한다. 우리나라,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213) 비신(碑身)은 비석에서 비문을 새긴 돌이며, 비신 위에 덮는 지붕 모양의 돌을 비개석(碑蓋石)이라고 한다.



<사진 189> 뚝적바위



<사진 190> 마쪽마을



<사진 191> 비선대

성황봉(城隍峰)

현재 등대가 있는 산봉우리로 지금은 약간 서쪽으로 옮겨졌으나 예전에는 등대 자리에 성황당(城隍堂)이 있었고, 그것에 연유하여 성황봉(城隍峰)이라고 불렀다.

솔섬(松島)

영금정 방파제 앞에 있는 섬. 노송들이 많아 솔섬이라고 불렀고 한자로는 송도(松島)라고 했다. 섬이지만 물이 깊지 않아 무릎을 걷어 올리면 건너갈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 축항 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위해 육지로 만들었다.

수복기념탑(收復紀念塔)

동명동 수복탑 사거리 주변에 위치해 있는 탑으로 일반적으로 수복탑(收復塔)이라고 부른다. 피란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수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기념탑으로 1954년에 건립하였다.



<사진 192> 성황봉



<사진 193> 솔섬



<사진 194> 수복기념탑

아랫말

수복탑(收復塔) 쪽이 윗말인데 대해, 등대 쪽 마을을 아랫말이라고 불렀다.

영금정(靈琴亭)

속초(束草) 등대 밑 동쪽 바닷가 일대를 부르는 이름으로 3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접한 석산이 있었는데, 이 석산이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

던 곳이다.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말기 속초항 개발 때, 이 석산을 파괴하여 나온 돌을 축항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 그러나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 영금정(靈琴亭)은 누대(樓臺) 정자가 있어서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音曲)이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읊으며 즐기는 곳이라 하여 비선대(緋仙臺)라고도 하였다. 화험정(火驗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재 석산은 없어져 넓은 바위만 남아있다.

오리바위

영금정(靈琴亭) 앞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로 언뜻 보기에는 가까운 것 같지만 헤엄쳐서 건너가 보면 오리쭈름 되는 것처럼 멀다고 하여 그렇게 불렀다. 일명 갈매기 바위라고도 하고, 돌이 많은 영금정 바닷가에 홀로 외롭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여 독(獨)바위로 부르기도 한다.

우렁골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한 산능선의 안쪽 마을로 현재 롯데캐슬 아파트가 건축 중이다.

우렁골의 유래에 대해 마을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증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우렁’은 무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렁이’를 가리키는데, 골짜기 움푹 파인 모양이 마치 우렁 모양으로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둘째는 우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다.



<사진 195> 아랫말



<사진 196> 오리바위



<사진 197> 우렁골

웃말(윗말)

등대 쪽이 아랫말인데 대해 수복탑(收復塔) 쪽 마을을 일컫던 마을이다.

응고개

우렁골 꼭대기에서 용숫골로 가는 윗고개의 옛 이름으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설운동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입구 해랑중학교로 가는 고개이다.

영랑시장이 5일장 일 때 노학동에서 시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노학동 농촌 사람들이 겨울철에 사용할 장작과 솔가지를 팔아 돈을 만들고자 지게에 지고 걸어서 시장까지 오고 가던 고갯길이었다. 농촌 사람들이 땀감나무를 지게로 지고 이 고개를 힘겹게 넘으면 지게 땀뺩에 양쪽 어깨가 짓눌려 응어리진다고 하여 응고개라 불려왔다.

장안골(장골)

법원·검찰청과 속초감리교회·동명동 성당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으로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돌레에 성터 흔적이 있었다. 최근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지의 일부를 확인하여 산성이 위치했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조선 보물·고적 조사 자료(朝鮮寶物·古蹟 調査 資料)』에 수록된 '속초리 성지(東草里城地)'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명 장골이라고도 했음.



<사진 198> 웃말



<사진 199> 응고개



<사진 200> 장안골

중간말

아랫말과 윗말의 중간에 위치했던 마을의 옛이름이다.

촌말

우렁골과 용소골 사이의 마을을 부르던 옛이름으로 (구) 경찰서 뒷편 마을이다.



〈사진 201〉 중간말



〈사진 202〉 촌말

【동명동의 사라진 지명】

경쟁바위(갱장바우)

1992년 신동명항이 건설되기 전 구 동명항구 한복판(현재 해양경찰서 앞)에 있던 두 개의 큰 바위이다.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헤엄쳐서 누가 먼저 건너가느냐를 시합하던 곳이라고 하여 경쟁바위라고 하였다. 공사하기 전에는 육지에서 약 150m 정도의 거리에 있었으며 미역, 고르매 나물, 성게 등 해산물이 많아 마쪽마을 사람들이 헤엄쳐 건너가 채취하던 곳이다.

건널바위(건너풀)

동명항 북쪽 방파제 맨 앞머리 근처에 있던 돌섬이다. 수중 암초로 맛풀이 많아 건너풀이라 불렀는데, 공식적으로는 건널바위라고 했다.

수심이 깊은 곳에 자리잡은 큰 암초로 낭떠러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바위 위쪽에는 맛풀(사람이 먹는 해초의 이름)이 귀신 머리카락 모양으로 길게 자라 파도가 일면 춤을 추듯 흐트러져, 이곳을 지날 때 보면 가슴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섭고 겁이 난다고 한다. 평상시 물결이 잔잔할 때도 배가 접근하면 그 돌섬이 마치 생물체인 양 급작스레 파도가 일어나 접근할 수 없었다.

이곳에 접근한 배는 사고가 많아 뱃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운행했다. 속초 해변에서 있었던 대형 해상참사도 이곳에서 발생하였다.

코굴바위

시외버스 터미널을 지나 예전 범바우 막국수집 있는 옆길로 등산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의 코 모양을 닮은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생긴 모습은 콧등의 끝이 땅바닥으로 거꾸로 서있는 모양으로, 흙 속에 파묻혀 바위를 받들고 있었다. 이 바위 아래쪽에는 돌구멍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맑은 옥수(玉水)가 나와 오목한 돌바닥에 모여 약수로 사용되었다. 이곳은 학생들이 학교를 오갈 때 힘들면 쉬어가던 곳이다.

섭바위

술섬 동남쪽 200m 지점에 있던 바위이다. 평소에는 보이지만 바닷물이 불어나면 보이지 않던 2, 30평 정도의 넓이의 바위이다. 이곳에는 섭(홍합)이 많아 섭바위라고 불렀다. 지금은 북방파제 중간부쯤에 매몰되었다.

성계바위

현 동명동사무소 앞에서 50M쯤 서쪽으로 위치하고 있었던 바위로 성계, 전복, 해삼, 미역, 고르매 나물 등이 많았다. 현재는 동명동 해변 국도 확장으로 매몰되었다.

나. 중앙동(中央洞)

1942년 10월 1일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郡)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束草里)를 4개 구(區)로 나눌 때 속초리 3구(중앙동, 청호동)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공산 치하에 있다가 6·25전쟁으로 수복되어 1951년부터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속초읍이 되었다. 그러다가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 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에 의거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되었다. 속초읍은 피란민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 5구와 6구가 신설되었는데, 이 때 속초읍 3구에서 5구가 분리되었다.

속초읍이 1963년 시(市)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난 1966년 1월 1일 동(洞)제 실시에 따라 종래의 속초리 3구가 6구 중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앙동(中央洞)으로 이름지었다.

이후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금호동과 중앙동이 금호동으로 통합되었다.



<사진 203> 중앙동

야채시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위(서쪽)에 야채를 취급하던 시장이었는데, 나중에 속초관광수산 시장이 넓어져서 이곳까지 포함하였으나 야채시장이란 말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용소골(용숫골, 용수골)

현재 속초관광수산시장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의 옛 이름으로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졌지만, 골 입구에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소(沼)가 있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용소골(龍沼谷)이라 부르던 것이 용숫골로 변화하였다.

장거리

속초관광수산시장을 가로지르고 있는 시장거리란 뜻이다.

속초관광수산시장(중앙시장, 3구 시장)

속초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속초리(束草里) 3구에 위치했으므로 3구시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동(洞)제 실시 때 3구가 중앙동(中央洞)으로 이름 지어짐에 따라 중앙시장으로 불리다가 속초관광수산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짱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외버스정류장, 미시령도로로 갈라지는 교차로의 옛 이름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짱치기 놀이를 했으므로 짱터라고 불렀다.



<사진 204> 야채시장

<사진 205> 3구시장

<사진 206> 짱터

속초관광수산시장, 중앙시장

다. 금호동(琴湖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4구를 금호동(琴湖洞)이라고 명명하였다. 금호동은 신라 화랑인 영랑(永郎)이 선유하였다는 영랑호(永郎湖)와 청초호(靑草湖)의

두 호수와 연하고 있다. 또한 옛날부터 시인들이 이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시문을 남긴 것처럼 “호수의 주변이 아름다워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가 들릴 듯하다” 하여 이런 낭만적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옛날 고려 말엽 동문수학했다는 안축(安軸)과 이곡(李穀) 두 시인이 이 호수에서 선유하면서 음자를 놓고 서로 시를 읊은 것을 보면 가히 금호동의 동명이 돋보인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호동명은 거문고 소리와 호수의 아름다운 정경이 서로 어울리는 깊은 뜻이 담긴 땅이름이라 할 것이다.

금호동은 1942년 10월 1일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束草里)를 4개 구(區)로 나눌 때 속초리 4구(금호동, 청학동, 교동)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공산 치하에 있다가 6·25전쟁으로 수복되어 1951년부터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속초읍이 되었다. 그러다가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 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에 의거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되었다. 이때 속초리 3, 4구는 피란민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 5구와 6구가 신설되었는데, 속초읍 4구에서 6구가 분리되었다.

관음암(觀音岩)

속초의료원 뒷쪽(남서쪽) 산봉우리에 동쪽을 향해 서 있는 큰 바위로 관음(觀音)이란 큰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옛 부터 이곳에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출현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그것에 의거하여 1952년 6월 군정이 실시되고 있을 때, 이형근(李亨根)장군과 최홍희(崔弘熙)장군에 의해 글자가 새겨졌다.

금장대(金將臺)

영랑호(永郎湖) 남쪽 범바위 바로 옆(동쪽)에 있던 정자이다. 6·25전쟁 때 이 지방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11사단장 김병휘(金炳徽)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자는 사라지고, 시멘트로 축조한 6각으로 된 기단부만 남아있다. 김장군(金將軍)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으니까, 당시에는 김장대(金將臺)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은 지도에 모두 금장대(金將臺)로 표기되고 있다.

모자바위

영랑호 남쪽 범바위와 할미바위의 중간쯤에 있다. 창이 달린 모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불렀는데 현재는 창 부분이 도로 밑에 들어가 있다.

범바위

영랑호(永郎湖) 남서쪽 가에 있는 큰 바위로 그 형상이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바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민간신앙 쪽에서는 성스러운 바위로 여기고 있어 무당들의 가무가 끊이지 않고, 찾아와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많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 207> 모자바위



<사진 208> 범바위



<사진 209> 관음암

보광사(普光寺)

영랑호(永郎湖) 동남쪽 골짜기에 위치한 사찰로 1937년 승려 정화담(鄭華潭)이 세웠다. 절 이름을 보광사(普光寺)라고 한 것은 석가모니의 제자 53불(佛) 중 수제자인 보광불존(普光佛尊)을 이 절에 봉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 중수하였으며, 절 입구 암벽에 '정화담(鄭華潭) 대법사(大法師) 보광사창건(普光寺創建)'이라고 새겨져 있다.

불당골(불당곡, 佛堂谷)

보광사(普光寺) 옆(동쪽) 골짜기로 예전에 불당이 있어 붙여진 골짜기 이름이다. 보광사 뒷산 활터 자리 과녁판이 세워져 있던 곳에서 영랑호 쪽으로 뚫린 산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편 왼쪽에는 기도처였던 암벽(巖壁)이 그대로 있다.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불당곡(佛堂谷)이라고도 했다.

연풍사(蓮豊寺)

미시령(彌矢嶺) 도로가에 있고 신흥사(新興寺)에 딸린 조그만 절이다.



<사진 210> 보광사



<사진 211> 불당골기도처



<사진 212> 연풍사

장사바위

영랑호 남쪽 모자바위 인근에 있는 바위이다. 화랑 영랑의 무리가 영랑호에 머무를 때 지도자들의 일부가 산책을 나갔다가 비를 맞아 이 바위 안으로 피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 두 손으로 밀어올려 공간을 확보했다는 전설이 있다.

지나무골

영랑호 둘레길 호수변과 골프장으로 길이 나뉘는 곳의 왼쪽 골짜기이다. 예전에 동방원양회에서 길가의 논바닥을 파서 양어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논바닥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이 일대 구렁텅이 골짜기를 지나무골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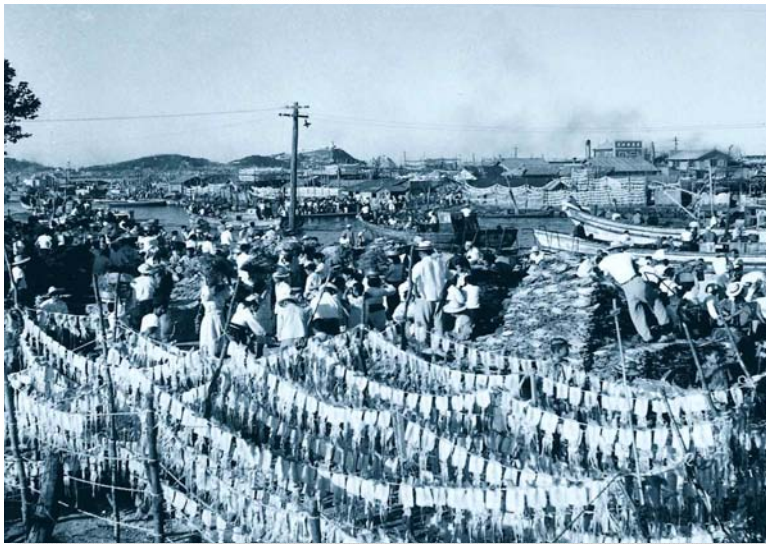


<사진 213> 장사바위



<사진 214> 지나무골

Ⅲ. 산 업



건오징어를 판매하기 위해 수협 어판장 모여든 어민들 1950년대초,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1. 속초 발전의 원동력 수산업

가. 개요

속초는 관광도시 이전에 수산도시이며 항구도시였다. 따라서 속초를 이해하는 단초는 어업과 항구개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장에서는 속초에서 어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를 간략히 다루고,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의 수산업 관련 인구 및 어선 현황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속초항의 발전과정과 주변 시설, 부두 현황, 방파제에 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식민통치 초기부터 본토 어장보다 어획량이 많은 식민지 어장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식민지 수탈정책의 하나로 어업개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속초를 위시한 동해안 전반의 어업이 질과 양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동해 중부 연안 어장은 멸치, 명태, 정어리, 청어의 황금어장으로 어업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중 함경도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되어 어업에 종사하였고 195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 오징어, 명태, 청어, 꽁치 등이 풍어를 이루면서 어업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속초항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산업은 날로 활기를 더해 1955년 속초의 어업인구가 23.9%로, 농업 인구 20.7%를 능가했다. 당시 『속초읍지』 기록에 의하면 어민 가족은 1,146호 5,666명이고, 농민은 895호 4,901명으로 나와 있다.²¹⁴⁾



<사진 215> 속초 어업 - 출어



<사진 216> 속초 어업 - 조업

214) 엄경선(2017), 앞의 책, 165쪽.



<사진 217> 속초 어업 - 하역



<사진 218> 속초 어업 - 위판

<표 28> 어업 현황(1973)

동별	수산업 관련 인구			어 선 수(척)		
	어업(명)	수산제조업(명)	계	동력	무동력	계
합계	26,675	9,940	35,615	453	432	885
영랑동	1,565	780	2,345	18	18	36
동명동	2,314	1,112	3,426	41	39	80
중앙동	1,887	624	2,511	78	24	102
금호동	3,291	1,071	4,362	60	14	74
청학동	3,010	832	3,842	53	6	59
교 동	3,681	977	4,658	55	14	69
청호동	7,420	3,224	10,644	115	100	215
대포동	1,565	826	2,391	13	130	143
장사동	942	494	1,436	20	87	107
속초시 총인구			75,968			

출처 : 속초시청 홈페이지

속초 어업의 최대 전성기였던 1973년 수산업 관련 인구는 어업인구와 수산제조업 인구를 합하여 35,615명으로 속초시 총인구 75,968명의 46.9%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조선업, 선박수리업, 수산물 유통업, 선구점 종사자, 부두노동자, 리어카꾼, 생선 껍 짝 제작소, 제재소, 시장어물전, 건어물 가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합치면 70%에 이르렀다.

당시 상황을 “전쟁 난민들로 재구성된 이 도시에서 생산기반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60~70년대 이미 속초 인구는 7만 명을 넘었고 이 시절 적어도 그 중 5만 명은 수산업이나 수산물가공업·수산물유통업 등으로 연명했을 것이다.” 215)라고 기록하고 있다.

215) 최재도·이수영 공저, 앞의 책, 65쪽.

<표 29> 어촌계 현황(2020)

어촌계별	어촌계원(명)	추정어업인구(명)	어 선 수(척)		
			동력	무동력	계
합계	615	1,418	324	3	327
동명	69	159	28	-	28
금호	57	131	45	-	45
청호	154	354	114	1	115
교동	63	145	41	-	41
장사	32	74	20	-	20
대포	139	320	31	2	33
외옹치	46	106	24	-	24
내물치	56	129	21	-	21
속초시 총가구 35,922		속초시 총인구 82,665		가구당 평균인구 2.3명	

출처 : 속초시청 홈페이지

2020년 속초시 어촌계원은 615명이고 당해 연도 가구당 평균 인구 2.3명을 곱하면 어업인구는 1,418명으로 속초시 총인구 82,665명의 1.7%로 급감하였다. 여기에 수산제조업 관련 인구 및 수산업 관련 업체 종사자들을 포함하여도 10%를 넘지 못했다.

한편 어선수를 살펴보면 1973년에는 동력선과 무동력선의 비중이 비슷하며 무동력선은 거룻배, 전마선으로 근해에서 미역, 다시마 등 해산물 채취와 조개잡이, 손뽕잡이, 가자미낚시를 포함하여 잡어잡이, 문어 통발업에 종사했다. 2020년 무동력선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동력선도 1973년에 비해 130여척 정도 감소하였다. 어업인구 감소에 비해 동력선의 감소폭은 크지 않은데 이것은 어선은 대형화되었으나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선원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나. 속초항의 발전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식민통치 초기인 1911년 6월 조선 어업에 대한 식민지 수탈과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수산(水産) 관련 기본법인 <어업령>을 공포하고, 어업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속초를 위시한 동해안 항구에서 어업방식과 어획량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일제는 근대적 어항 건설에도 주력하여 1923년 대포항, 1929년 외옹치항에 방파제를 갖춘 집안 부두를 건설하였고, 1937년 속초항 1기 수축공사가 완공되어 내항(청초항)과 외항(동명항)을 갖춘 현재 모습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동해북부선 철도가 개통되어 양양역과 속초역이 개설되었다.²¹⁶⁾

이어 1939년 양양 철광이 개발되면서 속초항은 대포항을 능가하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항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1941년 6월 제2기 축항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확인할 수 없으며 한국전쟁 중 함경도 피난민들이 남하하여 속초항을 기점으로 집단 거주하면서, 1963년 시승격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²¹⁷⁾



<사진 219> 홍보엽서의 청초호 하구 풍경(1929)



<사진 220> 속초항(1937)



<사진 221> 속초항(1950년대)



<사진 222> 속초항 항공사진(2000년대)

216) 엄경선(2017), 앞의 책, 140쪽.

217) 엄경선(2017), 위의 책, 148쪽.

속초항은 1962년 지정항, 1964년 개항장이 되었고, 이어 신부두 조성으로 1991년 국제항 지정, 1997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개항하였고, 2005년 남북직교역항만으로 지정되었다.

속초항은 근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이 보존되어 있어 어항으로 발전했으나, 인근에 양양철광이 개발되면서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철광석 적출항으로도 큰 역할을 하였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경수로항로, 북방항로, 금강산 항로, 한·중·일·러 신항로, 크루즈 신항로의 출발항으로 무역항과 관광항의 기능을 수행하여 종합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속초항은 내항(청초항)과 외항(동명항)으로 크게 구분되며 주요시설로는 항만과 부두(埠頭)²¹⁸⁾ 995m, 물량장(物揚場)²¹⁹⁾ 2,529m가 있으며, 외곽시설로 방파제(防波堤)²²⁰⁾ 1,203m, 호안(護岸)²²¹⁾ 527m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속초항은 지방관리항으로 국가관리항인 동해·묵호항에 비해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탁홍순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은 “속초항은 북방물류전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곳이지만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힘겹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도가 추진체를 갖고 속초시와 협의해 국가에 항만관리 등을 집중 건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 국가관리항인 여타 항구에 비해 낙후돼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²²²⁾



<사진 223> 속초항 상세도(청초항,구수로,동명항)
 <강원도 환동해본부 제공>

218) 항구에서 배를 대고 여객이 타고 내리거나 짐을 싣고 부리는 항만시설로 대형선 부두를 의미한다.
 219) 일반적으로, 1천 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 부두시설, 소형선 부두라고 한다.
 220) 외해로부터의 파랑을 막아서 내항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221) 해안에서 독을 보호하여 파랑 및 유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비탈면의 시설물을 말한다.
 222) 「강원도민일보」, 2010. 7. 28일자.

<표 30> 전국 항구 구분

구분		갯수	항구명
무역항	국가관리항	14	동해·목호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여수항,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 인천항, 장항항, 평택·당진항
	지방관리항	17	속초항 , 삼척항, 옥계항, 호산항, 고현항, 삼천포항, 서귀포항, 옥포항, 완도항, 장승포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하동항, 보령항, 서울항, 태안항
연안항	국가관리항	11	가거항리항, 대흑산도항, 상왕등도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거문도항, 국도항, 추자항, 화순항, 울릉항, 후포항
	지방관리항	18	주문진항,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진도항, 홍도항, 갈두항, 부산남항, 나로도항, 녹동신항, 성산포항, 신마항, 애월항, 중화항, 한림항, 화흥포항, 강구항, 구룡포항,
어항	국가어항	109	강릉항, 거진항, 공현진항, 궁촌항, 금진항, 남애항, 대진항, 대포항 , 덕산항, 사천진항, 수산항, 아야진항, 임원항, 장호항 등
	지방어항	285	가진항, 교암항, 동산항, 문암1리항, 문암2리항, 물치항, 봉포항, 소돌항, 신남항, 영진항, 오호항 천진항, 초곡항 호산항 등
	어촌정주어항	567	갈남항, 광진항, 기사문항, 낙산항, 노곡항, 대진항 (동해시), 대진항 (삼척시), 반암항, 비화항, 설악항 , 심곡항, 안인진항, 어달항, 오산항, 용화항, 월천항, 인구항, 작진항, 장사항 , 정동항, 천곡항, 초도항, 후진항(삼척시), 후진항(양양군) 등
	소규모어항	1,255	강문항, 광진항, 도직항, 동호항, 오리진항, 청간항, 하광정항 등
계		2,276	

출처 : 위키백과

<표 31> 속초항 부대 시설

세부시설	시설물명	연장	구조형식	준공연도	종별구분
부두	관광선부두/해경부두	270	중력식	2002	2종
운수시설	국제 크루즈터미널	9,985㎡	RC	2,017	2종
방파제	북방파제	933	혼성제	1994	2종
여객부두	크루즈여객부두	310	중력식	2016	2종
부두	관공선부두	249	중력식	1988	기타
물양장	금호물양장/교동물양장	150	중력식	1970	기타
물양장	동명항 물양장	298	중력식	1991	기타
호안	동명호안	85	혼성제	2010	기타
물양장	수협물양장/교동물양장	310	중력식	1970	기타
안벽	신부두 안벽(1)	260	중력식	1992	기타
안벽	신부두 안벽(2)	242	중력식	1992	기타
방파제	신수로 방파제	270	혼성제	2009	기타
호안	신수로 호안	243	혼성제	1999	기타
물양장	중앙물양장	241	중력식	1970	기타
물양장	청교물양장/교동물양장	550	중력식	1970	기타
호안	청초호 호안	199	혼성제	1991	기타
물양장	청호물양장	980	중력식	1999	기타
부두	해경부두	166	중력식	1970	기타

출처 : 강원도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그림 56> 속초항(내항과 외항)



<그림 57> 속초항 계획평면도



<그림 58> 속초항 그래픽 지도 <사진 http://metoo.kr/xe/board_qINL54/1077>



<사진 224> 속초항 외항(동명항) <사진 <https://blog.daum.net/stglass/15350119>>



<사진 225> 내항과 외항을 연결하는 구수로 <사진 <http://sokcho-port.co.kr/>>



<사진 226> 속초항 내항(청초항)

속초항 수축공사로 조성된 제1방파제는 과거 청호동 방파제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1932년 시작되어 1937년에 완공되었다. 이때 속초등대 아래 석산을 발파하여 나온 암석을 레일과 도선으로 운반하여 사용하였다. 제1방파제는 청호동과 구수로를 운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며 이로 인해 내항(청초항)에 선박이 무난히 정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항(동명항)의 안전에 필수적인 제2방파제는 북방파제로 불리는데 완공에

오랜 세월이 걸렸다. 현 방파제 위치에 암초가 위치하여 선박들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돌아서 운항하는 불편을 일상적으로 겪었으며 대형 해난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폭풍우, 태풍 같은 기상 악화시 외항에 정박했던 배들이 구수로를 통해 내항으로 피항하였고, 1968년 68해일 때는 동명항에 정박해 있던 수백 척의 어선이 전파 또는 반파되었다.

제2방파제 건설의 필요성은 일제강점기, 자유당 집권기, 박정희 정권 초기 등 수차례 계획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978년에 시작되어 1994년 11월 11일 총연장 933m의 오랜 공사가 완공되어 속초 어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



<사진 227> 북방파제 전경



<사진 228> 북방파제 정측면

<표 32> 속초항 북방파제(제2 방파제) 현황

시설물번호		시설물명		시설물분류						
				연장			시설물 종별	시설물구분	SOC성능평가 대상	
HB1994-0000005		속초항 북방파제		933m			2종	항만	무	
주소		관리주체		관리주체구분			소유자	소유주체구분		
강원도속초시 동명동 1-143		강원도 환동해본부		공공			해양 수산부	공공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V			V		
사업계획 승인일	준공일	하자담보 책임만료일	상세제원	안전점검 이력			보수보강 이력	5. 첨부자료 목록		
	1994년 11월11일	2014년 11월 11일	유	유			유	속초항 북방파제 전경.jpg 속초항 북방파제 측경.jpg		
설계기간		설계자		최종 공사기간			시공자	총공사비(백만원)		
		확인불가		1990-11-11 ~ 1994-11-11			확인불가	20,000		

출처 : 강원도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2. 속초 관광수산물시장

가. 발전과정

속초 관광의 필수 코스인 중앙시장은 1953년 삼구시장으로 출발하여 1966년 중앙시장, 2006년 속초관광수산물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1976년을 전후로 해서 설악산 관광이 활기를 띠었고 중앙시장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60여 개의 건어물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 이는 지역의 특산물인 수산물과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이후 속초는 수산물과 관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훗날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하게 되었다.²²³⁾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중반까지 설악산 관광 붐을 타고 시장은 더 활성화됐고 1988년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505개 점포가 입주할 수 있는 지금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지만 전통시장에 붙어 닦친 불황을 피해 가지는 못했다.

1994년 아남프라자 개장으로 위기가 시작된 중앙시장은 1998년 외환위기로 크게 타격을 받았고, 급기야 2003년 이마트 속초점 개장으로 직격탄을 맞아 1/3이 넘는 점포가 폐업하는 등 시장은 급속도로 쇠락했다. 상가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달이 안 돼 단전·단수 위기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2006년 속초시의 시장현대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시장 이름을 속초중앙시장에서 속초관광수산물시장으로 바꾼 속초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장활성화팀을 만들어 상가건물에 상주시키고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 사업에 착수했다.



〈사진 229〉 속초관광수산물시장(입구)



〈사진 230〉 속초관광수산물시장(상가건물)

223) 네이버 지식백과(속초관광수산물시장)



<사진 231> 속초관광수산물시장(조형물)



<사진 232> 속초관광수산물시장(지하횃집)

노후한 상가건물을 정비하고 난전과 골목에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다. 조명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시설하고 입구 2곳에는 시장을 알리는 대형조형물도 배치하였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총 463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대형주차장도 조성했으며 속초 앞바다의 청정 바닷물을 지하 회센터로 끌어오는 해수인입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 투자도 이루어졌다.

시장 상인회는 상인대학을 개설해 서비스와 친절도, 경영마인드를 키웠으며, 다채로운 세일 이벤트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시장투어,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했다.

침체했던 시장은 현대화사업 원년인 2006년 전국 재래시장 시범시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08년에는 우수 재래시장에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가볼 만한 전통시장 50선'과 '여행하기 좋은 전통시장 10선'에 선정됐다. 휴현재 폐업상태까지 내몰렸던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성공한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²²⁴⁾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개선의 여지도 남아 있다. 시 외곽 농촌마을과 인근 양양, 고성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과 비가림 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폐업한 의류 판매점이 많은 상가건물 2층 공간과 수협부지로 이전한 청년몰 사업장의 활용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또한 시장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의 상승과 외지인의 점포매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박이 상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외지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중앙시장은 속초 유일의 재래시장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24) 「연합뉴스」, 2019. 12. 22일자.



<사진 233> 비어있는 상가건물 2층 청년물



<사진 234> 폐업한 상가건물 2층 상가



<사진 235> 바가림 시설이 없는 난전



<사진 236> 노후한 어물전 뒷골목

<표 33> 중앙시장 발전일지

일자	내용
1953. 11. 5	3구 시장으로 개장, 점포 253개
1966.	중앙시장으로 명칭 변경
1977.	제일시장(영랑시장) 폐장
1983.	오구시장(청호시장) 폐장
1980년대 말	대포 5일장 폐장(5일, 10일)
1990. 5. 30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1,2층 상가건물 신축분양, 점포 505개
1990~1993	중앙시장 노점상 입주 거부, 노점상 철거, 차량 정체, 주차장 부족으로 갈등 심화
1993	중앙상가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하 어시장 남쪽 출입구를 추가로 개설
1994	아남프라자 개장, 현대쇼핑프라자 개장
1995. 3. 29	교통발전협의회에서 교통 터미널 예정부지에 남부시장 건립 주민서명운동 시작
1995. 11	설악신문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 연재 - 수산물시장, 농산물시장 통합 제시
1996. 11. 29	중앙가로를 경유하는 55번과 66번 시내버스 2개 노선 신설
1997.	부산쇼핑프라자, 대원한아름마트, 리빙마트, 킹마트 개장
1998.	IMF 여파 - 지하어시장 45개/172개 폐업 신고, 의류매장 21개/168개 폐업 신고

1999.	속초 관광엑스포 개최
2000.	육구시장(청학시장) 폐장
2001.	중앙시장 만석닭집 콕승털씨 - 닭강정 소스 개발로 특허 출원
2003. 11	이마트 개장으로 매출액 급감 - 빈 점포 135개
2003. 12. 10	중앙시장의 4개 상인단체 연합 ‘속초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구성
2004.	빈 점포 161개
2005.	빈 점포158개 - 2층 상가 1/2 빈 점포
2006.	속초 관광수산물시장으로 명칭 변경 - 시장 현대화 사업 시작
2006. 6. 30	수복로(교동사거리~중앙시장~시외버스터미널) 4차선으로 확포장 개통
2006. 8.	속초시 국내 최초로 과단위 전담 조직 신설 - 일자리경제과(공무원 5명 시장 근무)
2006~2011	속초 관광수산물시장 상인대학 개강 - 시장 상인들의 의식 전환 및 경영 마인드 함양
2006. 9. 26	대형 주차장 완공 - 주차차량 250대
2006~2010	비가림시설 설치 - 어물전 골목, 닭전 골목, 동화장 골목 등 6개 지역
2009~2010	지하 회센터 해수 인입시설 설치
2010. 2. 9	관광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준공식
2008. 10. 6	전국우수재래시장 선정
2011. 1.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2017. 10. 27	전국 1,500여개 시장 중에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
2021. 5. 2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준공 - 2층 3단 규모 (대형버스 17대, 승용차 517대)
2021. 9. 30	597개 점포(속초 종합 중앙시장-247개 점포 / 속초 중앙 재래시장-350개 점포)

출처 : 「설악신문」

나. 시설 현황

<표 34> 속초 종합 중앙시장(247개 점포)

위치	빈점포/점포수	주요업종
중앙 시장상가 지하	1개/55개	횃집, 문어, 젓갈, 수산물, 건어물, 슈퍼, 식당
중앙 시장상가 1층	0개/107개	수산물, 젓갈, 식재료, 야채, 반찬, 기름, 정육, 닭집, 음식점, 의류, 잡화, 수선, 수족관, 미용, 문구업
중앙 시장상가 2층	12개/85개	음식업, 건강식품, 마트, 의류, 수선, 수예, 십자수, 퀼트, 피부관리, 화장품, 가구의료기기, 도소매업
계	13개/247개	횃집(수산물센터)58개, 건어물 및 젓갈 38개, 닭강정 12개, 의류 45개, 기타(잡화, 농·축산물, 수선 등) 94개

출처 : 속초 관광수산물시장 홈페이지

〈표 35〉 속초 중앙 재래시장(350개 점포)

위치	주요업종
어물전 ²²⁵⁾ , 젓갈 골목	젓갈, 수산물(생선, 연체류, 조개류, 갑각류, 해초류)
닭전골목	닭집, 떡, 전, 야채, 반건조건어물, 농산물, 건강식품
청과골목	청과, 야채
고추골목	기름, 고추,
순대골목,장터	순대국집, 청과, 수산물
빛의거리	의류, 신발, 침구, 화장품, 미장원, 수피, 문구, 주차장, 약국
대형주차장인근	건어물, 청과, 건강식품, 음식점

출처: 속초 관광수산물시장 홈페이지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은 두 개의 조직(상인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속초중앙전통시장(재래시장)인 인정시장²²⁶⁾으로 상가 건물 외곽의 개별 건축물과 시장 진입로 주변의 개별 상가 건물들에 약 350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속초종합중앙시장은 1990년 5월 30일 준공된 상가건물 지하층, 1층, 2층에 개별분양한 점포가 247개 입점해 있다.

2006년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어 시장이 활성화되자 업종 변화 바람이 불어왔다. 2009년 8월 24일자 「설악신문」에서는 인정시장 점포들이 건어물 판매점으로 변화해 종합중앙시장 상인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3년 6월 13일자 신문에서는 종합중앙시장 상가 1층에 업종 변경 바람이 불어 의류와 포목점이 관광객을 상대로 한 건어물과 젓갈 판매점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시장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2017년 10월 23일자 신문에서는 시장 상인의 인터뷰를 통해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가게세가 치솟아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최근에는 외지인들까지 점포 매입에 나서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속초관광시장 상인회는 환경개선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모든 업소 신용카드 취급과 실명제 정착을 위한 원산지 및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을 높이기 위해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판매기법의 다양화, 상인들의 경영혁신과 서비스 마인드 변화를 향후 과제로 설정하고 전국 최고의 재래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져가고 있다.

225) 어물전은 양쪽 상인회에 포함되지 않은 미인정 점포로 30여개 난전으로 형성되어 있다.

226) 인정상가는 종합중앙시장 주변으로 파생된 개별상가라는 뜻으로 상인 및 시청관계자들이 편리하게 부르는 명칭이다.



<사진 237> 건어물가게 관태작업(1950년대)



<사진 238> 건어물가게·젓갈 가게(2021)



<사진 239> 어물전(비가림 시설 전)



<사진 240> 어물전(비가림 시설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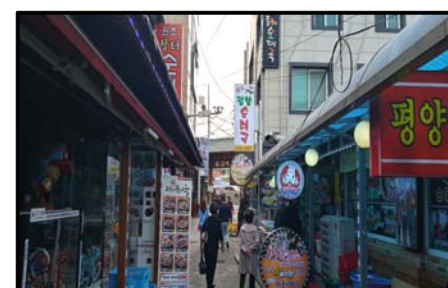
<사진 241> 닭전골목 북청닭집(1970년대)²²⁷⁾



<사진 242> 닭전골목(2012)



<사진 243> 순대골목(2012)



<사진 244> 순대골목(2021)

227) 사진제공 오광수(61세)



<그림 59> 속초관광수산시장 안내도

01 Fish Market 싱싱한 수산물 가득

위치: 지하수산물화센터, 수산물 직갈골목, 기타 지역

싱싱한 활어, 대게, 문어, 조개에 견어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은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이 모여는 집결지입니다. 물결창 해변에서 1.6km 북 25M 선에서 청정해수물 원수되어 1.9km. 관로를 통해 수산물화센터에 공급됩니다. 동해안 수산물, 없는 것 없고 다 있는 속초관광수산시장입니다!

02 Salted Seafood 맛있는 어머니 손맛정갈

위치: 지하수산물화센터, 수산물 직갈골목

속초의 맛을 직갈을 만나보세요. 동해안 직갈과 사해의 특산물, 속초, 속초 25 지역 원산지: 순산 살만마을이 다수 참여한 속초에서는 명태의 생미와 부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명태젓과 참돔젓, 아귀젓, 가자미젓 등 명태젓갈을 대량으로 만들어 반출하고 있습니다.

새해엔 청정고려 달미 반찬으로 먹는 속초젓갈, 전통 밑술(순산) 속초젓갈이 깊은 맛, 속초의 맛은 어머니 손맛 정갈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만나보세요.

03 Slices of raw Fish 풍집한 제철 생선회

위치: 중앙시장 지하 수산물화센터

속초에서 싱싱한 활어회를 가장 저렴하고 무심하고 먹는 방법 속초토박이들이 추천하는 바로 그곳이 속초관광수산시장 활어회센터입니다. 동해안 활어회의 주산지 속초 그날그날 물이 싱싱한 생선을 그 자리에서 골라 바로 조리 할 수 있습니다.

물가에 매운맛까지, 동해안에서 나오는 싱싱한 생선회와이 들을, 바닷가 특산물다 저렴한 가격에 알도 무심합니다.

04 Regional Product 특산물이 한자리에

위치: 시장 간역

동해안 대표 견어물과 반건조 견어물, 속초 향물 직갈과 쫄면대개, 실명산 대표물산 안반이순대와 오징어순대, 참미리 나는 신나물과 버섯 안초, 등 살면의 각종 농·수산물들, 물참호고 저렴한 특산물 소문들 판매해요? 살약의 특산물이 모두 모인 집합지, 속초관광수산시장이 직격입니다.

05 Chichen Gang Jeong 유명한 닭강정

바 식바식, 매콤달콤, 온가족의 입맛을 만족하는 속초의 닭강정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최고의 명물이자 자랑입니다. 닭강정, 닭전골까지 닭강정이 모두 저마다의 닭강정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닭강정은 섹션권 편의점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았습니다. 주말이면 닭강정을 사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인파들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06 Snack Bar 먹는 재미 술술~

관 광수산시장에는 구석구석 특색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속초의 별미와 군것질거리, 시장에서 먹는 재미의 매콤함을 수 업소.

수수부꾸미, 향음냉면, 꼬치떡볶이, 매콤진, 매콤김밥, 감자홍시등을 맛보는 먹거리가 가득한 속초관광수산시장으로 오세요~

속초관광수산시장 즐기기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 홈페이지>

IV. 문화예술



시민위안의 밤 행사(1961년)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1. 속초 문화의 특징

가. 다양한 성격의 문화 공존

속초는 행정구역상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설악산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흐르는 세 하천에 의해 3분 된다. 북쪽의 장천천은 영랑호로, 중앙의 청초천은 청초호로, 남쪽의 쌍천은 동해로 유입된다. 하천을 따라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져 농업이 발달하였고 해안을 따라 어업이 성행하였다. 설악산은 웅장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관광지로 개발되었고 그 이전에는 산촌 생활의 근거지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형성 기반으로 작용하여 속초의 문화를 농경문화, 어촌문화, 산촌문화가 공존하는 형태로 만들었다.

나. 문화 단절 현상

현대 속초 문화의 가장 큰 특성은 전통적 삶의 양식과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현대 속초의 구성원은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던 사람이 아니라 격심한 사회 변동으로 갑자기 유입된 새로운 세력들로 재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속초는 고유 전통문화의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기형적인 문화 양상을 보여왔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속초는 ‘인민공화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때 이 지역의 엘리트 계층인 ‘문화 주도 세력’ 들은 인민공화국 정부에 적극 협조하게 되었다. 1950년 전쟁이 나고 수복이 되자, 이들은 자진 월북할 수밖에 없었고 또는 남북당함으로써 속초 지역은 문화 주도 세력이 소멸되기에 이른다.

1919년에 개교한 대포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행방을 추적해 본 결과 60여명의 졸업생 중 20여 명이 북한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문화 주도 세력들의 상당수가 월북 또는 남북의 형태로 북한에 거주하게 된 것은 전통문화 소멸 원인의 단적인 예이다.

다. 이질적 문화의 혼합 현상

속초에 이주한 실향민들은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출신들이 고루 섞여 있어서 유년 시절의 문화적 체험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속초에는 북한 전역의

문화가 유입되어 기존의 문화와 혼합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생활양식에도 변화를 주어 어민들의 경우 조업 방식이나 선박 건조 방식 등도 북한 지방의 것이 도입되었고 어로요도 북한 지방의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북한 문화는 언어생활에도 침투해 북한 방언이 오히려 속초 고유의 방언을 밀어내고 있기 까지 했다.

이런 실향민들의 유입은 주로 해안지역이나 도심지가 영향을 받았고 농업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다. 이 이유는 실향민들이 주로 어업이나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문동, 노학동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실향민들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유년 시절의 문화적 체험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속초 문화는 이질적이고 혼합적인 문화 양식을 보이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피란민 문화 창출

속초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은 피란민 문화가 차지한다. 초기 속초에 정착한 피란민들은 이질적인 언어관습과 행동양식, 생활풍습, 문화방식 등으로 토착주민들과 융합되기가 힘들었다. 이들 대부분은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은 공지나 해변가에 임시로 집을 짓고 살면서 서로 마찰을 최소화하고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일념으로 일시적인 거주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속초에 거주한 피란민들은 나름대로 전통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 토착민과 일정한 민속 문화적 교섭을 가졌다. 그러한 예로 북청도청(北靑道廳)을 만들어 사자놀음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정서적 갈등을 해결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결집하면서 강인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며 주변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에 매진하여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면서 지역에 공헌하였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피란민과 그들의 민속은 피난 1세대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으므로 시대적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는 복합적 민속문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

2. 예술 활동

속초시의 예술활동은 1963년 시로 승격하기 전에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예술 활동은 문화적 인식도가 높은 몇몇 아마추어 동호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속초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된다. 초창기의 지역 예술 활동은 대체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교사가 전문교육을 받은 집단이고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동아리 조직이나 서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60년대 예술 활동은 주로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문학, 미술, 음악 등이 그 러한데 이 시기엔 아마추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열의는 대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1963년 ‘예총속초지부’가 구성되었다는 점을 볼 때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엔 주로 다방 등에서 활동하였는데 가야 다방이 많이 이용되었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속초의 문화예술 활동은 좀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0년대 말 창립된 ‘설악문우회’에 의해 문학 활동이 본격화되고, 미술 연극 분야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엔 ‘청년문화연구회’라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하는 청소년 단체가 구성되어 창작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80년대는 문학활동이 성숙기로 접어들어 향토문학인들이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시집 등 작품집을 대거 발간했고, 문학 대중화를 위해 시낭송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미술과 연극, 연예협회가 잇달아 지부로서의 정식 인가를 받게 되면서 예술활동의 본격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속초지부(약칭:속초예총)가 1989년 4월 7일 중앙 인준으로 설립되면서 속초의 예술문화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협회는 문인, 미술, 연극, 연예 4개 협회로 구성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 더욱 활발하고 왕성한 예술활동이 전개되었다. 각종 동아리나 단체가 결성되어 정기적인 발표를 하는가 하면 기존에 결성되어 움직이던 단체들로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여 회원을 늘리면서 결과물을 축적해 갔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 눈에 띄는 것은 많은 대회나 공연이 처음으로 계획되어 제1회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00년대는 속초의 문화예술 모든 분야가 도약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0~80년대나 90년대에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각종 대회, 공연, 전시 등의 문화 예술

활동이 더욱 내실 있고 성대하게 이루어지며 회원들의 활동도 유기적이고 왕성하게 전개된다. 각종 단체의 회원수도 늘어 조직의 양적 성장을 보았으며 많은 행사가 횡수를 거듭하면서 경험이 축적되어 치밀하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져 많은 관람과 참여 및 호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20년 현재 속초예총은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연예예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무용협회의 8개 회원협회 지부로 구성되어 각 분과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 문학 활동

가. 설악 문우회

설악문우회는 1969년 창립된 전통의 문학단체로 창립 당시에는 속초를 중심으로 회원구성이 되었으나 현재는 경향 각지에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순수 문학동인이다. 신생의 도시 속초에서 그 어느 예술단체보다도 일찍이 첫 씨앗을 심었던 설악문우회는 많은 문인들을 탄생시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설악문우회는 시, 소설, 동시, 동화, 희곡, 수필 등 각종 장르를 포용하는 동인지 『갈피』를 매년 발간하면서 문학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렸고 그 싹을 키워오고 있다. 또한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그 동안 『시마당』 행사, 초청연사 강연, 백일장 개최, 거리시화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갈피』는 ‘취의 산’이란 뜻으로 1970년 4월에 제1집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하여 2020년 50호를 발간하였다.



<사진 245> 2020년

나. 물소리 시낭송회

‘물소리 시낭송회’는 1981년 결성되었다. ‘설악문우회’ 회원이었던 일부 시인이 매월 시낭송회를 열기로 하고 9월 30일 다락 다실에서 첫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단체는 속초에만 고집하지 않고 인근 여타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독자 초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와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서울 ‘공간시낭송회’의 영향을 받아 발족 후 80년대 중후반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을 초청해 문학 강연을 시도하고 국악 해설을 곁들여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그후 지역의 많은 시인들이 물소리를 오고 가는 가운데 19년 동안 149회를 이어나갔으며, 1999년 6월 19일 잠시 숙면에 들었다가 2013년 12월 6일 제150회 시낭송을 통해 다시 시작하였고 2019년 161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현재 12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매월 작품 합평과 연 2~3회 시낭송회와 매년 동인지 발간으로 독자와 만나고 있다.



〈사진 246〉 2020년

다. 영북문학회(시마을)

지역문학회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문학활동을 위해 시연구 창작모임으로 출발한 ‘영북문학회’는 1992년 4월 27일 결성되어 탈지역성을 선포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영북문학회’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시 합평회를 열고 그 내용을 담은 회

보 『시마을』을 발간하여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도 전개하였다. 아울러 지역 문화 이해를 통한 문학 활동을 표방하여 문학기행을 기획, 강원도 전역의 문학기행을 펼치기도 하는 등 특정한 단체에 소속됨이 없이 지역문화 및 문학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후 새로운 회원이 활동하며 모임의 명칭도 ‘시마을’로 정하였다가 1997년 명칭을 ‘시마을 사람들’로 변경하였다. 주요활동 중 청소년문학교실은 1993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02년 제10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동을 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마을 사람들’은 2004년 12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활동을 마감했다.

4. 다방 문화 활동

문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절 속초의 문화 예술 활동은 주로 다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동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다방은 시낭송, 전시회, 기념회 등이 개최되는 장소였고 예술인들이 만나는 소통의 장소였다.

가야 다방에서는 1964년 5월 2일부터 8일까지 속초, 양양, 고성의 초등학교 교사 중에 시화동호인 14명으로 구성된 설악문미회가 회원작품 32점을 모아 시화발표회를 열었다.²²⁸⁾ 한국사진협회 속초지부는 1965년 4월 4일 ‘파다’ 회원들이 설악산을 방문하는 동안 사진촬영대회를 열고 우수작품을 한국관광협회를 통해 회원국에 보내기로 하고 입선된 사진 작품을 6월 13일부터 7일간 전시회를 가졌다.²²⁹⁾ 김승순 어린이의 피아노 독주회가 1966년 2월 12일 예충속초지부 주최로 개최되고²³⁰⁾ 속초미술협회 회원전이 1971년 5월 21일 ‘조용한 아침바다’ 등 작품 40점이 6일간 전시되었다.²³¹⁾ 미석 효송규의 동양화전이 1982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열렸다.²³²⁾

다랑 다방에서는 미협 속초지부 제8회 회원전이 1982년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려 속초중앙미술학원 김광수 원장의 서양화 ‘설악의 진달래’를 비롯해 회원들의 작품 32점이 출품되었다.²³³⁾ 1987년 12월 27일 ‘갈피’ 17집 발간을 기념하기 위한

228) 속초시 『시정 50년사』(下), 2013, 133쪽.

229) 속초시(2013), 위의 책(下), 134쪽.

230) 속초시(2013), 위의 책(下), 134쪽.

231) 속초시(2013), 위의 책(下), 138쪽.

232) 속초시(2013), 위의 책(下), 159쪽.

233) 속초시(2013), 위의 책(下), 159쪽.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렸다.²³⁴⁾ 다량 다방은 물소리 시낭송회가 처음 시작된 장소이고 다양한 사진전, 그림 전시회, 출판기념회, 시낭송이 이루어지고 최명길 시인의 마지막 출판기념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다락 다방은 물소리 시낭송회의 주무대로 활용되었다. 1981년 9월 30일 제1회 물소리 시낭송회를 시작으로 26회까지 다락에서 이루어지고 27회부터는 카페 사랑방, 레스토랑 목마, 카페 테라스, 카페 아쉬람, 레스토랑 그리그리 등에서 개최되었다.

그 외에 까망, 베니스, 암스텔담, 시나브로, 일출 등이 문화예술 공간이었고 1990년 초반까지 활성화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 주차난, 전원 카페, 노래방,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등이 발달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5. 극장 문화

속초 지역의 영화 관람은 한국전쟁 동안 미군 주둔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속초는 한국전쟁 중 미군 군수사령부가 주둔하면서 미군과 동부전선의 군인들에게 군수품을 지원하는 군사 전략 거점 지역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들은 여름철 저녁 미군부대 식당 앞에서 야외 상영하는 영화를 부대 밖 철조망 틈새를 통해 ‘어깨너머’ 식으로 구경하였다 <쉐인Shane>(1953) 등 할리우드 서부극을 주로 상영한 미군 부대는 지역민에게 “권선징악을 깨우치게” 만든 장소였다.²³⁵⁾

지역민의 영화 관람 역사가 전쟁과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것이라면, 흥행 목적의 본격적인 영화 상영이 시작된 것은 월남민이 개관한 극장과 함께였다.²³⁶⁾ 속초의 극장은 처음 1954년 11월 12일 속초극장이 현대식 2층 건물로 개관하여 고려극단이 ‘뒤주대왕’으로 축하 공연을 하였다.²³⁷⁾ 그 후 현대극장이 1959년 9월 3일 총공사비 당시 금액으로 사천 오백만원으로 건립하였다.²³⁸⁾ 제일극장은 1961년에 건립되었다가 1998년에 문을 닫았고 중앙극장은 1962년 9월 10일 중앙동에 건립되었다가 1981년에 철거되었다. 대원극장은 1966년 금호동에 설립되었고, 동보극장은 기존에 있던 현대극장이 1969년 7월 3일에 이름을 바꿔 재개장하였다.

234) 속초시(2013), 위의 책(下), 179쪽.

235) 동문성(당시 76세) 증언, 2011. 8. 17.

236) 동문성의 증언.

237) 「동아일보」, 1954. 11. 12일자.

238) 「동아일보」, 1959. 9. 3일자.

1956년 1월 5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속초극장과 중앙극장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앙극장에서 밤에 영화 상영이 끝나면 버스를 대절하여 손님을 귀가시키자 속초극장도 같은 방법을 써서 연말연시 두 극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²³⁹⁾

극장의 경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텔레비전이 대량으로 보급되기 전인 1970-71년 사이이다. 우리나라에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이 1974년부터이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없어서 만화방이나 잘 사는 집에 가서 구경하는 상황이었다. 그 때 극장의 영화프로그가 4일 만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4일에 한 번씩 극장을 찾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극장에서는 연예인 리사이틀도 유행했는데 하춘화, 신성실, 남진, 나훈아 등이 찾아 공연을 하는 주무대 역할을 하였다. 이 주일은 하춘화의 매니저로 방문했다. 제일극장 주인집은 이런 연예인들이 차도 마시고 쉬었다가 공연에 나가는 대기실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²⁴⁰⁾

리사이틀은 70년대 초반까지 많은 유행을 하였다. 특히 명절 때 극장이 잘되었는데 항상 만원사레였다. 그때는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에 손님이 오면 다 들여보냈다. 명절에 받은 용돈을 쓸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극장으로 몰렸다. 따라서 직원들은 맡은 일을 정신없이 했고 저녁에는 구겨진 돈을 펴서 뺏뺏하게 하여 백 장씩 묶는 일이 주인의 마지막 일과였다고 한다. 극장에서 리사이틀을 할 때는 먼저 관객들의 흥을 돋우려고 2층에서 밴드들이 연주를 했는데 맛보기처럼 연주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또한 학교에서는 특별한 문화 교육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단체관람을 하였다. 권장 영화가 있어서 학생단체 관람을 시키는 방식이어서 학생들은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었고 극장은 손님이 없는 낮에 학생들을 받으니 서로가 좋았다. 그 당시 선생님들은 극장으로 몰래 순찰을 나갈 때가 자주 있었다. 학생들이 보지 말아야 할 영화(미성년 관람불가)를 몰래 관람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순찰에 적발되어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일도 간혹 있었고 지도주임 같은 선생님들은 순찰하면서 영화도 보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²⁴¹⁾

당시 극장은 영화뿐 아니라 갖가지 쇼와 여러 행사들이 동시에 열리는 곳이었기에 큰무대가 필수적으로 겸비되어 있어야 했다. 미인을 뽑는 미스강원 선발대회도

239) 「경향신문」, 1956. 1. 5일자.

240) 이경상의 증언, 이경상 씨는 현재 59세로 제일극장을 운영하였던 이원익 사장의 자제분이며 2021년 9월 12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241) 이경상의 증언.

극장에서 열렸고 간첩 잡은 김종명 일병 환영식도 극장에서 개최됐다. 귀순 용사 강연회나 시국강연회도 극장에서 행해졌고 반공 쫓기대회나 국방 기금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도 극장으로 향했다. 이렇다 할 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졸업식 같은 행사를 극장에서 치르곤 했다. 이렇듯 극장은 당대 속초인들의 일상적 공간이었다.²⁴²⁾

1960년대 제일극장 주변 도로는 포장되어 있었다. 이 도로를 신작로라고 했고 인도와 도로 경계는 없었지만 선을 넘지 말라고 노란색과 검정색 사선으로 된 사슬로 줄이 쳐져 있었다. 인도와 도로의 분리가 처음 시작된 것이고 건물 앞 2층에 미영사진관이 있어 많은 기념사진을 거기서 찍었다. 건너편에 칠성사진관이 있었지만 나중에 생겼고 중앙낚시점, 한미제화, 동아서점 등이 있었다.²⁴³⁾

이렇게 1950~60년대 영화 상영의 주공간으로 이용되고 각종 문화행사의 무대였던 극장은 1970년대 텔레비전의 본격 보급으로 서서히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며 다각도로 활로를 찾았으나 시대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현재는 조양동에 현대식 극장 메가박스가 운영 중에 있다.

가. 밀림극장

밀림극장은 헌병 상사로 전역한 인물이 옛 영랑 1구 시장 바닷가에 설립하였다.²⁴⁴⁾ 주로 영화 상영과 서울에서 가수들이 내려와 공연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약 55년전 고복수씨와 그 지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였고 동보극장이 생기면서 헐려 명태 덕장으로 변했다.²⁴⁵⁾ 밀림극장은 목조 건물로 영화 상영보다 콩쿠르(concours) 또는 무대 공연을 위주로 운영되었다.²⁴⁶⁾

지역 극장 문화를 둘러싸고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밀림극장이라는 호칭에 대한 월남민의 반응이다. 월남민들은 북한 치하에서 생활할 때 김일성의 항일 만주 활동을 찬양한 선전 노래를 교육 받았는데, 선전 노래 가사 가운데 ‘밀림’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다 ‘밀림’이라는 단어는 낯설고 이국적인 문물로서 영화를 강조하기 위한 상업적 전략에서 차용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러나 수복지구 월남민에게 있어서 ‘밀

242) 최재도·이수영 공저, 앞의 책, 146~158쪽.

243) 이경상의 증언.

244) 동문성의 증언.

245) 김종규의 증언.

246) 동문성의 증언.

림’이라는 단어의 발화는 월남민의 사상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일이었다.²⁴⁷⁾

나. 속초극장

속초극장은 현재 동명동 사무소 옆에 자리했었고 1954년 11월 12일 현대식 2층 건물로 개관하여 고려극단이 ‘뒤주대왕’으로 축하 공연을 하였다. 밀림극장과 달리 속초극장은 주로 외화를 상영하였는데 규모면에서 밀림극장의 두 배 크기에 2층 건물이었다.²⁴⁸⁾ 속초극장은 1950년대 후반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변사 연행의 할리우드 영화 <카라마조프 형제 The BrothersKaramazove>(1958)를 관람한 기억이 그것을 뒷받침한다.²⁴⁹⁾

다. 현대극장

현대극장은 1959년 9월 3일 총공사비 당시 금액으로 사천오백만원으로 건립하였다. 좌석은 675석이었으며 4년간 독주 시대가 진행되었다. 당시 깡패들도 극장을 아지트로 삼아 활동했는데 당시 신문은 ○○○파가 현대극장을 주무대로 활동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²⁵⁰⁾ 그래서 극장 뒷좌석엔 ‘경찰관 입회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1964년 국민운동 속초시지부가 발회식을 거행하고, 1971년 10월 18일 퇴폐풍조 일소 웅변대회, 1973년 10월 20일 속초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영화뿐만 아니라 속초 관내 문화예술행사장으로도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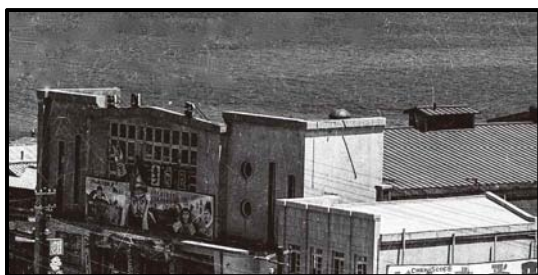
1970년대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점차 사람들은 극장을 멀리하게 되었다. 김일의 레슬링도, 김희갑의 명연기도 모두 브라운관에서 대할 수 있게 되어 굳이 극장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현대극장’은 ‘동보극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그 후 재개봉관으로 격하되어 한꺼번에 두 편의 영화를 보여주는 동시 상영으로 간신히 이어갔다. 1970년대 중반 들어서 속초의 모든 극장들이 흥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1970년대 후반 ‘동보극장’도 카바레로 용도를 바꾸면서 폐관하였다.

247)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 극장 문화 로컬리티(locality)」-강원도 도시를 중심으로, 565쪽.

248) 동문성의 증언.

249) 노광복(당시 68세)의 증언, 2010. 8. 12

250) 「강원일보」, 1966. 7. 20일자.



〈사진 247〉 1962년



〈사진 248〉 1965년

라. 제일극장

제일극장은 통천 회양군 출신인 이원익씨가 월남하여 미곡상을 운영하며 재산을 축적한 후 1962년 당시 건축 중이던 제일극장을 인수하여 756석 규모로 설립하였다. 초창기에는 7명 정도가 함께 투자한 주식회사 형태였다.

1960년대 지역 극장이 모두 4개였지만,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하여 이원익은 필름을 우선 배정받기 위해서 충무로 영화사에 직접 드나들었다. 서울 영화사에서 강원 지역 필름 배급 담당 직원을 두고 있었지만, 관주의 배급사 출현은 필름 배정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서울 개봉 극장에서 흥행을 검증받은 영화는 배급사와 제일극장 간 부율이 6대 4, 심지어 7대 3으로 정해질 정도로 속초 지역 극장 간 경쟁은 치열했다.²⁵¹⁾

제일극장은 아바이 마을로 가는 갯배 선착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 이동의 덕을 보아 흥행이 잘되는 극장이었다. 1960년대 극장 운영 애로점은 관객 수 변동이라기보다 영화 상영 검열과 극장 관리 감독 행정 기관과의 마찰이었다. 흥행 ‘대목’으로 불리는 설날 제일극장은 정원 700석을 넘어선 1,000여 명의 관객을 입장시키자 ‘정원초과’를 이유로 공보실로부터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²⁵²⁾

또한 제일극장에서는 1973년 3월 22일 속초시 식생활개선 여부반장 대회가 열려 유신 과업 완수를 통한 여성계도로 알뜰한 주부상을 정립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한 부업 혁명의 선구자가 되자고 다짐을 하는²⁵³⁾ 등 영화 상영 외에 다양한 행사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속초 극장 문화의 한 축을 이루다가 영화사업의 사양화로 1991년 관람석을

251) 이원익(당시 87세)의 증언, 2010. 8. 13.

252) 위경혜, 앞의 논문, 568쪽.

253) 속초시(2013), 위의 책(下), 360쪽.

축소하여 운영하다 1992년 서울예식장 자리에 중앙극장 소극장이 개관하자 폐업 준비에 들어 갔다. 이에 지역 유지들이 극장주를 설득하여 폐관을 막으려고 했으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1998년에 문을 닫았고 그해 바로 허물었다. 그때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공공건물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제일극장은 뼈대는 철근 없이 벽돌로만(조죽), 지붕은 나무로(목재크러스트) 지어져서 힘을 많이 못 받는 형태의 건물이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하게 되었고 위치는 현 제일주차장 자리였다.



<사진 249> 1963년



<사진 250> 1963년



<사진 251> 1965년

마. 중앙극장

1962년 9월 10일 중앙동 425-1번지 중앙시장 내 970석 규모로 건립하여 운영하였다. 영화 상영을 주로 하면서 1966년 6월 28일 속초시와 속초방송국이 공동 주최한 제2회 노래자랑과 토론대회가 있었다. 1968년 4월 22일에 재향군인회 반공강연회가 열려²⁵⁴⁾ 다른 극장과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대원극장이 성황을 이룰 때는 조직 폭력배의 황동 무대이기도 했으나 1981년에 현대슈퍼로 업종을 바꾸면서 폐관하였다.



<사진 252> 1960년대



<사진 253> 1960년대

254) 속초시(2013), 위의 책(下), 353쪽.

바. 대원극장

대원극장은 1966년 5월 9일 950석 규모의 2층 건물로 지어져 지하에는 다방이 있었으며, 공연장 내부는 냉난방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 속초에 대원극장이 설립됨으로써 영화 전성시대가 더욱 가속하게 되었다. 영화 상영 외에도 1967년 5월 20일 미스 강원 및 리틀미스 선발대회 개최, 1971년 12월 23일 제1회 크리스마스 자선음악회를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산가족 신년 성묘를 촉구하는 속초시민 쉼기대회가 1975년 11월 15일에 이북 5도민회 주최로 실시되었다. 여기서 ‘북송 일본인 처 자유 왕래 실천 본부장’인 이 깨다후미꼬 여사는 격려사를 통해 전 세계 자유민들은 북한의 만행을 단결된 힘으로 규탄하고 이산가족들의 자유 왕래를 실현시키자고 호소했다.²⁵⁵⁾ 1976년 2월 19일에는 새마을운동 농림증산 촉진대회가 열려 유공자 표창과 감사장 전달이 있었다.²⁵⁶⁾

이렇게 대원극장은 각종 대회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부도 수표 납발로 어려움을 겪어 소극장으로 축소하였다가 1997년 7월 14일 외화 ‘압솔루트 파워’ 상영을 끝으로 30년간 운영한 극장의 문을 닫았다.



<사진 254> 1960년대

사. 동보극장

기존에 있던 현대극장이 1969년 7월 3일에 이름을 바꿔 재개봉관으로 변신한 극장으로 평소 영화 상영을 하면서 1971년 10월 18일 속초경찰서가 주최하여 퇴폐풍조 일소 웅변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1973년 10월 20일 예총 속초지부가 주최하는 문

255) 속초시(2013), 위의 책(下), 367쪽.

256) 속초시(2013), 위의 책(下), 368쪽.

화의 달 기념 종합예술제가 개최되어 시낭송, 성악 및 기악, 무용 등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1978년 2월 25일 전국 최우수 반상회 운영 촉진대회가 열려 반상회를 통해 건전한 국민윤리관을 확립하고 반공사상을 굳건히 할 것을 다짐²⁵⁷⁾하기도 하여 각종 대회의 장으로 이용되어 활기를 띠었다.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극장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한꺼번에 2편의 영화를 보여주는 동시 상연을 시도하며 극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 경영난을 넘지 못하고 70년대 후반 카바레로 용도를 바꾸면서 폐관하였다.



<사진 255> 1960년대

6. 구비전승 설화

가. 영랑호 전설

영랑이라는 화랑이 와서 수도를 하고 놀다 갔다 해서 영랑호라 하지요. 사실은 이 영랑이라든가 술랑이라든가 남랑이라든가, 이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또는 화랑도 한 팀의 이름이다.

근데 속초 때 김삼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때 높은 관직에 계셨는데 율곡 선생하고 같은 시대야.

양반의 자손으로서 지켜왔기 때문에 백담사에서 조금 가다 보면 그게 왜 영시암이라 했냐 하면 화살을 한번 쏘 놓으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 해.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돌아 간다. 그래서 영시암이라 한다.

그 양반이 영랑호에 와서 글을 썼는데 경치가 좋아 놀다 가려니 경치가 너무 좋아서

257) 속초시(2013), 위의 책(下), 375쪽.

사흘을 통곡하고 갔다는 글이 있지.

그렇게 영랑호의 경치가 좋아서 나도 맨 처음엔 깜짝 놀랐어. 또 요즘도 처음 와서 영랑호를 처음 보는 사람은 탄복 않는 사람이 없소. 내가 예전에 영랑호를 자주 댕겼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 한 명이 가며 한다는 말이

“아저씨 이 호가 뭐래요? 이야 이렇게 좋은 호수에 왜 사람이 없소?”

“외진 곳이라 사람이 안 와서 그렇지.”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은 탄복을 하지.

근데 여기 청초호는 쌍성호라 했어. 『동국여지승람』에 쌍둥이로 이루었다. 왜 그러냐 하며 내가 생각해 볼 때 영랑호는 화랑이 왔다 갔다 해서 영랑호라는 이름을 받았거든. 근데 저게 이름을 못 받았다 이거야.

근데 호수가 쌍둥이처럼 생겼거든. 쌍성호라고 붙였겠느냐. 근데 청초호도 『동국여지승람』에 뭐라 써 있냐 하면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랑호보다 낫다. 그래서 『택리지』를 쓴 이종환이가 관동팔경에 낙산사를 안 넣고 청초호를 넣어서 유명해졌다고.

청초호에는 옛날에 용암이라는 속초 교동 앞에 가면 바위가 큰 게 있었어요. 그 바위가 이름이 난 것은 한말에 남궁억 선생이 양양군수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직전에 그때 와 있었어요. 애국자니까 이 양반이 사월 초파일에 화전놀이를 해서 더욱 이름이 났다 이거여.

그때 이 대포동이 아주 이 부근에서 중심지였는데 왜냐하면 그 항구가 이 부근에서 제일 수심이 깊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두에 하까다라는 배가 우편물을 싣고 사람도 태우는 그런 배가 있는데 거기를 떠나 대포를 들러서 원산까지 댕겼지.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서 대포가 중심지였어요.

대포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령으로 넘어가는 육로가 있고 배가 수로를 그렇게 댕기고 육로는 거기서 인제 회암산을 타고 원산으로 통하고, 그렇게 인제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랑호는 영랑이란 화랑도가 지나갔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영랑도이니까 영랑도가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해석되고, 결국 화랑이 수도했다는 역사에 의해 영랑호라고 지었다고 볼 수 있지.

〈박익훈, 남·84, 교동, 1999. 12. 1〉

나. 영랑호와 달마대사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신라시대 화랑인 영랑(永郎), 솔랑, 삼조, 남석 등이 금강산으로부터 고성 삼일포에 와서 3일 동안 수련을 하고 각각 분산했습니다. 영랑만이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를 하며 선유하던 곳이라 해서 이 호수의 이름이 영랑호라 불리어 왔습니다.

영랑호 남쪽 기슭에 송림이 울창한 복판에 자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서기 637년 전에 정혁담이라는 승려가 사지를 건립하고 53불의 보광부처를 보원하였다고 해서 보광사(普光寺)라고 이름이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영랑호는 아주 물결이 맑고 잔잔해서 언제나 여족이 풍부하며 낚시를 즐기는 태공(太公)들과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속초 시민의 휴식처가 바로 영랑호입니다.

그럼 영랑호를 떠나서 유래를 마치고 그전으로부터 불교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번성했나 하면 인도에서부터 번성했는데, 인도에서부터 번성하면, 당나라 동남사, 지상사, 원나라 윤재사, 개국사를 거쳐서 금강산으로부터 금강산 신개사, 유점사 장안사 3개 사찰을 거쳐 가지고, 이 영동지구 관동 8경을 쭉욱 내려 오는 그 승려가, 원래는 승려가 말을 탔다고 하면 위법적이지만, 그러나 거리가 워낙 멀고 보니 어딘가는 그 아주 말먹이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 꼭 말 먹이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에서 내려서 풀을 비어서 말을 먹일라고 풀을 비어서 등에다 싣고 말을 타고 올라와 보니 점심 때가 되었어요.

시장끼가 있어 하는 것 같아서 그 풀단을 풀어 가지고 말을 먹이고 그래 '먹이재'라 하는 데가 오늘날에 와서 그 풀단을 풀어서 먹었다고 해서 먹이재입니다.

그래 먹이재를 거쳐서 이 봉우리 꼭대기를 올라와 보니 인도에서부터 포도 전법이 부족한 지라 여기서 수 년간 수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바위 틈에서 수도를 수 년간하고 그래서 거기서 도(道)가 통했어요. 그 포도 전법을 통달을 해서 그분이 그제서 도가 통했다고 해서 이를 '달마봉'이라 불렀고, 달마대사가 바로 이분입니다.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V. 삶과 민속



탈곡하는 모습(1950년대)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1. 세시풍속(歲時風俗)

세시풍속은 오랫동안 전승되는 의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보편성을 띠고 행해진다.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의 세시풍속 역시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는 보편성을 지닌 것이 많다. 정월, 대보름, 한가위 풍속은 전국적인 것과 속초 다른 지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동과 금호동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형성된 마을이라서 전통적인 풍속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동명동 지역은 속초 어촌이 가장 먼저 형성된 새쪽마을과 가까이 있고, 속초의 발전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도 있다. 동명동 마쪽마을과 새쪽마을 주민들이 함께 행하던 어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속초의 민속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 발간된 『속초시지』, 『속초시사』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장정룡 교수의 연구물 『속초의 향토 민속』 등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지역민들의 증언에 의한 마쪽마을의 풍속을 정리한다.

가. 설날

설날에는 집집마다 설떡을 만들었다. 인절미, 가래떡, 팔고물떡, 콩가루찰살떡, 복개떡(밥그릇 복개로 잘라 만든 떡), 절편, 송편, 쑥떡, 송기떡(소나무 껍질을 섞어 만든 떡) 등 여러 가지 떡을 만들었는데, 어린아이들을 시켜 동네 이웃집에 떡 돌리기를 하였다.

설날 아침에는 정성껏 만든 푸짐한 음식으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차례를 올린다. 설날 제사에는 반드시 떡국을 올린다. 어떤 집은 밥과 떡국 두 음식을 동시에 차리는 가정도 있다.

아침식사가 끝나면 설빔을 곱게 차려입은 집안 아이들이 웃어른부터 시작하여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한다. 이때 세뱃돈을 받는다. 집안 어른들께 세배가 끝나면 동네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세뱃돈이나 먹을거리를 내어 주었다.

나. 선달 그림날

이 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그리고 부럼을 깨문다.

다. 정월 보름

- 1) 정월 대보름날에는 달맞이를 하였다.(도시변천사 I 참조)
- 2) 밤에는 쥐불놀이를 한다.
- 3) 귀신을 쫓는다고 하여 대문에 체를 달아 놓고 엄나무, 가시나무를 매달며 식구들 신발을 거꾸로 얹어 놓았다.
- 4) 상대방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 하고 소리쳐 더위를 판다. 이날은 하루종일 친한 사람, 마을 사람에게 더위 파는 것이 제일 재미있는 일이다.
- 5) 정월 보름날 아침에는 귀밝이술(耳明酒)을 먹는다.
정월 보름날 새벽에 술 한 잔씩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는 말이 있으며, 그해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듣는다는 전설도 있다. 이날 아침에는 누구든지 술을 한 잔 씩 마시는데 이것을 귀밝이술이라고 한다.

다. 설날~대보름

이 시기를 명절 기간이라고 하여 모두 일손을 놓고 옷놀이, 걸립패놀이, 널뛰기 등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일년 내내 집안 살림에 시달렸던 아녀자들은 널뛰기 이외에 친한 사람끼리 모여 물장구(큰 그릇에 물을 많이 붓고, 그 물에 바가지를 얹어 띄우고 그것을 나무때기로 친다.) 장단치며 억눌렀던 신명풀이로 노래하며 춤추며 노는 주부들의 놀이 모습이었다.

남의 집 머슴들은 정월 14일부터 일이 시작된다면서 이날은 밥그릇을 많이 비워야 일도 많이 한다는 날이다. 또 이 고장 마을에서는 정초에 걸립패 놀이가 시작되면 며칠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악을 울리며 지신밟기와 행운을 비는 농악놀이를 한다. 이 놀이에서 거두어지는 돈과 쌀은 동네 행사가 있을 때 쓰인다.

2. 마을신앙

마을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는 성황제(城隍祭)이다. 속초 지방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리마다 성황당(서낭당)이 존속되고 있다. 이번 조사 지역인 동명동·중앙동·금호동에는 동마다 성황당이 있다. 이곳에서는 무사태평과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뜻에서 성황제를 지내는데 마을마다 제사일은 차이가 난다.

가. 동명동 성황당

속초의 대표적인 성황제 중 하나가 영랑동 새쪽마을과 동명동 마쪽마을에서 함께 지내는 제사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5월 5일과 10월에 제사를 지내고, 3~4년마다 단오 때 풍어굿을 한다. 동명동 제당의 제사는 영랑동 어촌계에서 주관하여 지낸다.

제당 내부에는 중앙에 위패를 매달아 두었는데 한지에 한자로 ‘성황(城隍)’이라고 써서 붙여 놓았다. 이것을 중심으로 양쪽에 화상을 붙여 놓았다. 왼쪽의 ‘성황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신(主神) 격은 호랑이를 타고 있으며 갓을 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에는 수부상이 있는데 백마를 끌고 있는 수부신의 모습이 같은 크기로 걸려 있다.

원래 등대 주변에는 2개의 성황당이 있었다. 속초등대 뒤쪽 송림 속에 남(男)성황당이 있었고, 동명동에는 여(女)성황당이 있었다. 남성황당은 등대 건축으로 인해 근처 산으로 옮겼다.

여성황당은 동명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동으로 옮겨져 있다. 그곳으로 옮겨간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경상북도 울진 매화리 출신인 김진화라는 사람이 강원도 장전에서 살다가 속초로 이사와 여성황당을 중앙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고 윗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여 중앙동으로 옮겼다고 한다.²⁵⁸⁾

나. 금호동(중앙동) 동제

금호동(중앙동) 제당은 속초관광수산시장으로 내려가기 전 왼쪽 언덕에 있다. 1930년대에 건축되었다고 하며 동해바다를 향하고 있다. 내부에 위패와 화상을 봉안하고 있는데 위패에는 한자로 ‘성황지신위’라고 썼으며, 화상은 좌측에는 남성황신과 수부신상, 우측에는 여성황신이 걸려 있다.

258) 김정우, 앞의 책 81-82쪽 참조.

제사일은 매년 음력 9월 중에 택일하며 어촌계에서 주관한다.



〈사진 256〉 금호동(중앙동) 성황당 <깃발이 있는 곳>

3. 민속놀이

가. 집단놀이

민속놀이는 오래 전부터 즐겨오던 놀이로서 어린이나 어른, 남녀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농어촌 마을에서 고유한 민속놀이는 계속 행해지고 있다. 민속놀이는 성격상 제의성이 들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향토의식이 반영되고 예술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속초지역의 민속놀이는 자연마을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어서 지속적인 보존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중앙동 짚치기놀이

짚치기란 ‘짚방울’이라 하여 소나무 옹이로 주먹만한 공을 만들고, 끝이 꼬부라진 나무로 1m 정도 되는 긴 ‘짚채’를 만들거나 지게 작대기를 이용하여 공을 상대방 문에 넣는 놀이이다. 짚치기 골대는 한 평 크기로 세워놓았으며 놀이의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짚치기에 능한 장정이 심판을 맡는다. 양쪽에 10명 정도씩 동·서군으로 편을 가르고 중앙에 짚을 박아놓은 다음 “짚받아라” 하면서 시작된다. 경기의 제한은 짚을 상대방의 지게로 만든 골대에 넣는 숫자를 미리 정하여 먼저 득점을 하면 이긴다.

이 경기의 유래는 옛날 머슴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다음 그 나무로 내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긴 편이 진 편의 나뭇짐을 받기도 하고 아침에 하는 경우에는 그날 나무 한 짐씩 해주는 것으로 내기를 했다고 한다. 속초지방의 짱치기는 매우 성행했던 것으로 전하는데, 나무로 만든 짱이 눈에 맞아 실명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²⁵⁹⁾

짱터가 경기장으로 유명한 이유는 양쪽에 낮은 산이 있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골이 저 있었기 때문에 짱이 옆으로 도망가지 않아 안성맞춤의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짱치기가 성행하였다고 하는데, 해방 이후로는 놀이가 사라져 버렸다.

2) 보름날 줄다리기

보름날 동명동에서 행하던 놀이이다. 동명동의 윗마을(수복탑 근처 마을)과 아랫마을(영금정 쪽 마을)이 패를 갈라 해변 모래벌에서 행하였다.

나. 개인놀이

동명동·중앙동·금호동 마을의 개인놀이는 속초의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없다. 이 마을도 아이들 놀이가 대부분이며, 놀이들 중에서 1930년대~1970년대까지 마쪽마을에서 많이 행해지던 전통 놀이를 소개한다.

<마쪽마을, 새쪽마을의 어린이놀이>

자치기, 말타기, 땅뺏기, 비사치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옷놀이, 풀각시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바람개비 돌리기, 고무줄놀이, 그네뛰기, 숨바꼭질, 줄넘기, 햇불싸움, 망우리싸움

1) 돈치기

청소년들의 옥외 놀이로 머슴이나 나무꾼들이 나무지계를 세워 놓고 많이 한다. 손바닥 크기의 얇은 돌로 일정 거리에 동전을 던져 놓고 맞추어서 따먹는 놀이이다.

2) 자치기

259) 장정룡, 『2019 속초민속예술 이야기마당』, 속초문화원, 2019, 258~259쪽.

소년의 놀이로 겨울철에 많이 한다. 지름 1m쯤의 원을 그려놓고 50~60cm의 막대와 10cm의 나무 양 끝을 엇비슷이 자른 ‘메뚜기’로 놀이한다. 먼저 두 사람이 승점을 협의하여 500자 내기, 1,000자 내기 등이 결정되면 가위 바위 보로 이긴 사람이 원에 서서 긴 막대기로 메뚜기를 쳐서 땅에 떨어지면 상대가 그것을 주어 그 자리에서 원을 향하여 던진다. 던진 메뚜기가 원내에 들어가면 끝이 나고 동작을 서로 바꾼다. 메뚜기가 원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잣대를 든 사람이 메뚜기를 세 번 쳐서 되도록 원에서 멀리 가게 하여 놓고 원과의 거리를 눈으로 어렵하여 잣대의 대수를 부른다. 이렇게 하여 득점한 총계가 당초에 정한 점수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3) 비석차기

땅에 선을 그어 놓고 비석(그릇기와 깨진 것, 사금파리라고 부르는 손바닥 반 정도의 목자) 외발로 경충경충 뛰면서 비석을 발로 차서 금 안으로 차올려 밑에서부터 차례로 뒤칸 쪽으로 차 올라가 위에서 다시 되돌아 밑으로 나오는데 비석 찰 때 비석이 금위(線上)에 서면 무효가 되고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결과적으로 선에 목자가 걸치지 않고 비석을 발로 잘 움직여 간간(間間)을 전부 먼저 도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놀이이다.²⁶⁰⁾

4) 땅뺏기

소년·소녀들의 놀이로 마당에 지름 1m쯤의 원을 그리고 그 원을 여러 개의 반월형으로 구분을 한 다음 시작점인 자기 집에서 토기나 깨진 사기그릇의 말을 놓고 손가락으로 튕긴 후 금을 그어 땅을 빼앗아 가는 놀이이다.

5) 서리

주인 몰래 농작물이나 가축을 훔쳐 먹는 것이다. 이것은 절도라기보다는 옛날에는 청소년들의 놀이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잃은 주인도 찾으려 하지 않고 설사 누가 가져갔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고발하는 일이 없었다. 주로 머슴이나 일꾼들이 밤늦게까지 모여 놀다가 했던 풍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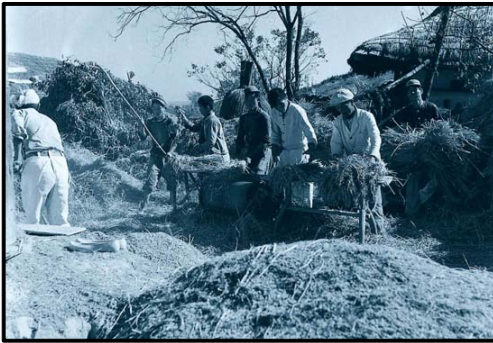
260) 김정우, 앞의 책, 115쪽.

4. 의식주

가. 토착적인 의복형태

속초가 위치한 영북지방은 동해와 설악산을 끼고 있어 해양과 산악의 지형적 영향을 크게 받아 어촌의 복식과 산악의 복식은 차이를 보인다. 현재는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아 어촌과 산악의 구분이 없지만, 해변에 위치한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은 해양문화의 영향으로 바람이 많은 바다에서 고기잡이할 때의 복식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속초 지역의 노동복은 특별하게 만든 옷은 없으나 농사일을 할 때 여름에는 베잠뱅이 등거리적삼을 입고 바지는 홑으로 된 중의를 입는다. 중의는 한복 바지와 서양식 바지의 중간 형태로 노동복으로 많이 입었다. 부인들은 평상복에 광목 행주치마를 두른다.



〈사진 257〉 1950년대 탈곡하는 모습



〈사진 258〉 망중환(1950년대)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의 어촌에서는 고기잡이를 할 때 입는 옷이 특이하다. 상의는 광목에 솜을 넣은 반 오바식의 솜옷을 곁에 입는다. 속저고리는 요대저고리라 하고 겹저고리를 큰저고리라 하여 7부로 만들어 입는다. 바지는 조각을 모아 만들고 속에 솜을 넣은 투텃바지를 입는다.²⁶¹⁾

손목에는 토시를 끼고 집에서 만든 통장갑을 ‘버대’라 하여 끼는데 손가락 끝은 구멍을 내어 나오게 하여 작업 시 편하도록 하였다. 머리에는 외포수건을 써서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도록 한다. 요즘의 어로작업복은 갑바를 입고 장화를 신는다.

261) 속초시(1991), 앞의 책, 1095-1096쪽.



<사진 259> 1930년대 동명항 인근에서 노동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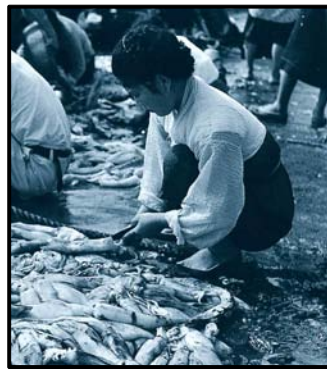
<사진설명> 1930년대 속초항 축항 공사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남자들은 바지,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고, 여자들의 경우 저고리에 치마, 몸빼 등을 입었다. 가운데 서있는 사람은 감독관이거나 관리로 추정되며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의생활을 규제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흰옷이 한민족의 상징이며 경제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색깔있는 옷을 입도록 장려하였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전시 동원 체제에 적합한 옷이라 하여 남성에게는 ‘국민복’ 을, 여성에게는 ‘몸빼’ 를 입도록 강요하였다. 이후 여성들의 노동복으로 한복저고리에 월남치마나 몸빼 등을 입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평상복은 한복이었는데 부인들은 여름에는 치마·적삼·깨끼적삼·단속곳·속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치마·저고리·단속곳·바지·마고자·덧저고리·두루마기를 입는다. 두루마기는 외출시에만 착용하고 덧저고리는 방한을 위해 입는데 마고자보다 길고 두루마기보다 짧으며 안에는 털을 대서 만들기도 한다.



<사진 260> 건오징어시장(1950년대)



<사진 261> 오징어 할복하는 아낙네(1950년대)

나. 식생활

음식 문화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속초 지역은 전통적으로 내륙 쪽에서는 농경생활을 해온 역사가 길고 곡류가 많이 생산된 반면, 해안가에서는 주로 어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농업과 어업을 통해 얻어진 식재료로 소금, 장류, 간장 등의 양념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속초의 음식 역사에서 한국전쟁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한국전쟁을 통한 피란민의 유입은 속초의 음식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냈다. 피란민이 정착하면서 함경도 지방의 음식 문화가 전래되어 이북 음식의 전통적인 모습이 전승되거나, 속초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주로 함경도 지방의 음식이 피란민에 의해 만들어지다가 속초지역에 확산되고 이제는 관광객들도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전승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된 모습도 보인다.

또한 항포구를 중심으로 속초만의 독특한 음식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 음식들 중에는 뱃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식도 있고, 일반 식당에서 부두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도 있다.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바다고기와 관련된 음식으로 항구에서 탄생하여 속초의 식문화로 정착하였다.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은 한국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속초항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의 음식은 속초지역의 음식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동명동·중앙동·금호동 항포구에서 만들어지거나 전승된 전통음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의 대표적인 음식

분류	음식명	비고
전통 음식	오징어불고기, 오징어물회, 생선찌개, 생선구이, 생선조림, 가자미미역국, 삼숙이탕, 도치두루치기볶음, 생선매운탕, 회무침	(구이용) 가자미, 도루묵, 콩치, 양미리 등 (조림용) 가자미, 도루묵, 콩치, 양미리, 명태, 아귀 등 (찌개용) 도루묵, 콩치, 명태 등
속초항포구에서 탄생한 음식	회국수, 오징어물국수회, 명태(도루묵) 칼국수, 명란젓	
함경도에서 전래되어 속초에서 변형된 음식	명태회냉면, 닭강정	
반찬류	미역나물, 쇠미역쌈, 쇠미역튀각, 지누아리짬아찌, 젓갈	

1)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의 전통 음식

가) 오징어를 이용한 전통 음식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속초하면 여름에는 오징어, 겨울에는 명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오징어는 뱃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어종으로 한때는 집집마다 오징어를 말리는 장면이 장관을 이루었다. 그러나 동해안 수온의 변화로 오징어도 예전만큼 많이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속초는 오징어의 도시답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어종이 오징어이다.

오징어는 『규합총서』에 의하면 “물 위에 떴다가 까마귀를 보면 죽으므로 오적어(烏賊魚)라 한다. 배 모양 같은 뼈가 누혈(漏血)과 금창(金瘡)에 피를 그치게 하는데 그만이요, 그 배의 검은 먹물로 글씨를 쓰나 해가 바뀌면 빛이 없어져 빈 종이가 되므로 헛맹세를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살을 얇게 저며 골패모양과 같이 썰어 닭과 함께 갯국을 걸러 여름에 쓰면 소담하고, 영계찜에 넣어도 좋다” 고 하였다.

오징어를 이용한 속초 지방의 명물 요리로는 오징어를 잘게 썰어 만든 오징어 물국수회가 있고, 오징어로 순대를 만들기도 하며 오징어 젓갈을 담그기도 한다. 오징어 젓의 원료는 배에서 잡자마자 냉동상태로 보관된 선동 오징어가 주로 쓰인다.

(1) 오징어불고기

오징어의 내장을 빼고 알맞은 크기의 조각으로 자른 후 1cm간격으로 어슷하게 칼집을 내어 양념장 골고루 바른 후 석쇠나 철판에 굽거나 볶아먹는 음식이다.

(2) 오징어 물회

오징어 물회는 어부들이 바다에서 2개월 정도의 장기조업을 할 때 건강식으로 먹던 음식이 대중화된 것이다. 오징어는 그냥 회로 먹기보다는 채소와 초고추장, 참기름, 양념으로 버무린 오징어회에 시원한 물을 부어서 만든 물회를 먹으면 일반 회와는 또 다른 특색있는 입맛을 느낄 수 있다.

(3) 오징어 젓갈(젓갈 부분 참조)

나) 생선을 이용한 음식

(1) 생선찌개

무를 납작하게 썰어 냄비에 깔고 도루묵, 콩치, 명태 등의 내장 등을 손질하여 깨끗하게 씻어 넣은 후 고춧가루, 파, 마늘 등의 양념을 한 후 끓이는 음식이다. 도루묵과 양미리는 내장과 알 등을 그대로 둔 채 조리한다.

(2) 생선조림

냄비에 감자나 무를 썰어 바닥에 깔고 여러 가지 생선을 넣어 고춧가루, 파, 마늘 등을 넣어 자박자박하게 조리낸 음식이다. 요즘에는 여러 종류의 생선이 들어가지만 속초 지역에서는 가자미, 도루묵, 콩치, 양미리, 명태 등을 조림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3) 생선구이

도루묵, 가자미, 양미리 등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석쇠 등에 굽는다.

(4) 가자미미역국

미역을 불려 적당히 썰어 냄비에 볶은 후 손질한 가자미를 포를 떠서 새알심을 빗어 넣어 끓인 미역국이다.

(5) 삼숙이탕(삼세기탕)

삼숙이는 속초에서 많이 나는 생선으로 ‘삼세기’ 라고도 불린다. 입이 큰 못생긴 생선으로 된장을 풀어 끓이면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난다.

(6) 회무침

생선회를 갖은 양념과 야채를 넣어 무침 음식으로 속초는 가자미, 오징어 등을 주로 사용한다.



〈사진 262〉 가자미회무침 시연: 최정자(전 속초회국수집 대표)

2) 속초항 포구에서 탄생한 음식

가) 회국수

회국수는 생선회와 국수를 양념으로 비벼서 먹는 음식이다. 주재료는 싱싱한 생선으로 가자미와 오징어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가자미는 사철 즐길 수 있는 횡감으로 뼈와 함께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회국수에는 싱싱한 횡감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는 데 생선과 궁합이 잘 맞는 깻잎이나 상추, 썬갓 등의 향긋한 맛이 생선의 비린내를 덜어주고 회국수의 신선함을 더한다. 특히 해녀들이 직접 뜯어온 생미역을 넣은 회국수는 그 중에서도 별미로 친다. 회국수를 먹기 전에 나오는 진한 멸치국물은 회국수의 매운 맛을 순화시켜주고 속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진 263〉 회국수

〈사진설명〉 속초 회국수를 탄생시킨 최정자 대표가 직접 재현하여 사진을 제공함.

나) 오징어 물국수회

1990년대까지 항포구 횡집에서 메뉴로 내놓았지만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음식이다. 두터운 오징어를 각을 떠서 국수가락처럼 가늘게 썰어 고추장을 풀어 만든 국수 양념을 넣어 물회처럼 먹던 음식이다.



〈사진 264〉 오징어 물국수회

시연: 최정자(전 속초회국수집 대표)

다) 물곰탕(곰치국)

물곰탕은 곰치에 무를 넣어 끓인 국으로 애주가들에게 사랑받는 동해안의 대표적 인 해장국이다. 곰치는 강원도 방언으로 곰치, 물곰이어서 강원도에서는 곰치국, 물곰탕이라고 한다. 곰치는 예전에는 어부들이 잡아 올려도 살 사람이 없어서 바다에 다시 버리던 생선이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시원한 국물 맛 때문에 해장국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동해안에서 물곰탕으로 유명한 곳은 속초와 삼척이다. 삼척 지방에서는 묵은 김치를 넣어 시큼하게 끓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속초에서는 무를 넣어 맑은 탕으로 끓이는데 고춧가루와 소금으로 간을 맞춰 국물 맛이 시원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 265> 물곰탕

라) 명태(도루묵) 칼국수, 명태 라면

냄비에 고추장과 된장을 푼 뒤 호박, 감자를 넣고 끓이다가 생선을 넣어 끓인 후 생선이 익으면 생선가시를 발라내고 칼국수를 넣은 뒤 파, 마늘, 후추, 깨소금 등으로 간을 맞춰 만든 칼국수이다.

생태탕에 라면을 넣어 명태 라면을 만들기도 했다.

3) 함경도에서 전래되어 속초에서 변형된 음식

가) 명태회냉면

명태회냉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 실항민에 의해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함흥냉면이란 말은 없었지만 고향 함흥을 그리워하며 식당 이름을 ‘함흥냉면옥’ 이라고 하면서부터 함흥냉면이라는 말이 붙여졌다. 함흥냉면은 녹말가루를 주원료로 매우 쫄깃쫄깃한 면을 만들고 생선회를 얹어 만든 비빔국수이다. 함흥 지역에서는 고명으로 신선한 가자미회를 양념하여 얹어 먹었는데 속초에서는 가자미회 대신 이 지역에서 많이 잡히던 명태를 회로 만들어 국수 위에 올려 먹었다.



〈사진 266〉 명태회냉면

나) 닭강정

닭강정은 닭튀김에 간장, 물엿 등을 넣어 조려내거나 볶아내는 음식이다. 얼핏보면 양념치킨과 유사하지만 다른 음식이다.

피란민의 증언에 의하면 북청지방에서는 보관을 오래하기 위해 익힌 닭고기를 꿀에 바르고 땅콩가루를 뿌려서 먹었던 음식이 있었다고 한다. 속초는 양계장이 많아 닭튀김을 파는 가게가 많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응용하여 조청과 청양고추로 만든 소스를 만들어 닭강정을 만들어 중앙시장 안에서 팔기 시작했다.



〈사진 267〉 닭강정

4) 향포구의 반찬류

가) 미역나물

미역은 마쪽마을과 수복탑 인근에 바위가 많아 주로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번성하

는 일년생을 채취하여 햇볕이나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한다. 생미역을 데친 후 볶은 쇠고기,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 깨소금, 소금, 참기름, 식초를 넣어 무친다.

나) 쇠미역쌈

쇠미역의 뿌리 부분을 다듬어 내고 씻은 후 끓는 물에 데친다. 식으면 10cm 길이로 잘라, 쌈을 싸기 좋은 모양으로 손질하여 양념 초고추장과 함께 낸다.

다) 쇠미역튀각

마른 쇠미역을 튀겨 까맣고 연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있다. 마른 쇠미역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130~140℃ 정도의 기름에 튀겨 낸 뒤 설탕을 뿌리기도 한다.

라) 지누아리 장아찌

해초류인 지누아리를 약간 말려 고추장에 박아 만든 장아찌이다.

마) 명란젓, 창란젓

수산물을 염장한 젓갈은 지방마다 담그는 종류와 시기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젓갈 종류는 약 140여 종에 이른다. 젓갈은 염장을 한 후 발효시킨 음식으로 속초에는 명란젓, 창란젓이 대표적이다. 속초의 명란젓, 창란젓의 역사는 알지 못하나 명태가 많이 잡히던 속초의 항포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명란젓, 창란젓 공장이 이미 들어서 있었다.

속초에는 젓갈류의 한 종류인 식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식해는 염장을 한 젓갈류와는 달리 곡류를 혼합해 숙성 발효 시킨 것을 말한다. 속초의 식해는 서거리식해, 오징어식해, 도루묵식해, 해떼기식해, 열갱이식해 등이 있다. 이들은 육질이 단단한 가자미, 도루묵, 명태, 해떼기, 열갱이 등의 생선을 좁쌀과 함께 버무려 발효시킨 함경도 음식인데 함경도 정착민들에 의해 속초에서 맛볼 수 있는 토속음식이 되었다. (식해는 청호동 편에서 소개할 예정임)

(1) 명란젓

명태의 알로 담근 젓갈로 동지 전인 11월 말이 담그기에 제철이다. 싱싱한 명태알을 골라 소금물에 행군 후 고춧가루, 다진 마늘, 소금으로 양념하여 숙성시켜 먹는 음식이다.

명란젓에 쓰는 알은 여문 정도에 따라 고운 알(미숙알)과 물알(완숙알)로 나눈다. 두 가지 모두 난막이 얇고 광택이 있어 투명하며 형태가 완전한 것이 좋다. 특히 할복 작업 때 명란의 막이 터진다는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젓갈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명란젓은 비타민 B1과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피로회복, 노화방지 등에 도움이 된다.

(2) 창란젓

강원도 특히 속초지역이 주요 생산지로 명태의 창자로 만든 것이다. 창란젓을 담을 때 동태 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생태 창자만으로 담그는 것이 질이 좋은 젓갈이 된다.

창란젓 제조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에서 창란을 채취한 후 창자에 묻어있는 흙이나 내장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보통 3%의 식염수로 창자를 세척하고 내장의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야만 창란의 깔끔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도시변천사

부 록

1. 동명동·중앙동·금호동 연표
2. 증언 기록
3. 동명동·중앙동·금호동 사진 기록
4. 추억을 기억하는 거리

부록 1. 동명동·중앙동·금호동 연표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29.03.24	양양 속초리에 축항기성회가 조직되어 활동	
1930.06.26	속초항 인근 매립지에 속초시장이 개설, 5일장 열림	
1930.08.23	양양군 속초리 태풍 피해	
1931.07.16	속초항수축공사 국고보조 신청(속초항 축조사업의 긴급성 제기)	
1932.11.06	오후 3시 악천후 속에 속초항만 기공식이 축항 부근 모래사장에서	
1932.11.13	폭풍 중 속초축항 기공식(지사 참여)	
1932.11.25	속초항 개발로 철도역이 속초리로 내정	
1935.09.15	약유(鱒油) 공장지대로 속초항을 지정	
1936.05.09	대포어업조합 속초항으로 이전	
1936.07.28	양양군 도천면소 속초항으로 이전	
1937.02.26	속초어업조합이 대포항에서 속초항으로 이전	
1937.03.30	속초항 수축공사 종료(총공사비 39만원,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음)	
1937.06.19	속초항 개항 기념 시민 체육대회(5일간 속초항공설운동장에서)	
1937.09.12	도천면사무소 속초로 이축	
1941.06.22	속초항 제2기 축항 기공식	
1942.10.01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승격, 읍승격 축하행사	
1942.10.25	읍민체육대회가 속초공설운동장에서	
1953.08.15	동명동 성당 건립공사 착공(평탄작업과 자재확보 등)	
1953.08.15	동명동 성당 건립공사 완공	
1953.11.05	속초 중앙시장 준공식, 총공사비 800여 만원, 점포 263개	
1953.12.17	수복이래 초대의 화재발생, 속초읍(속초읍) 3구와 4구 전소, 피해 약 560여 만원	
1954.05.10	수복기념탑 건립	
1954.11.12	속초극장 개관(현대식 2층 건물)	
1955.01.05	속초읍사무소 소실(난로연통 과열 원인)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55.02.02	수복지구 인제와 속초가 버스 운행(금강운수)	
1955.05.28	무자격 교사 퇴지와 기존교사들의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회 개최 (속초중학교 강당, 준교사 자격 부여)	
1955.07.21	속초 최초의 이장회의 개최	
1955.10.03	속초경찰서 준공식(건평 800평, 2층 건물)	
1955.12.01	속초우체국 개국	
1955.12.02	목호(목호)지방해무청 속초출장소 설립. 현재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속초출장소의 전신	
1956.07.23	속초방송국 시험전파 발사, 출력 0.3kw, 주파수 1,000kc	
1956.08.01	속초 이동방송국 개국	
1958.01.19	폭풍으로 속초항에서 선박 38척 파손	
1959.07.03	현대극장 개관(동보극장)	
1960.02.20	눈으로 선박 21척 침몰 또는 파손	
1961.08.26	5용사 묘비 제막식	
1962.01.02	경향신문(속초 앞바다에서 수복 이후 최대의 조난사고)	
1962.01.17	속초읍사무소에서 24명의 사망자에 대한 추모 위령제	
1962.04.01	속초어업협동조합 발족	
1962.09.05	중앙(中央) 초등학교 설립	
1962.09.10	중앙극장 개관	
1963.01.01	법률 제1176호로 속초시 승격	
1963.01.07	속초시 승격 경축행사	
1963.02.12	어판장 화재	
1963.10.14	노동회관 신축 낙성식	
1963.10.23	각령(각령)제1063호로 양양경찰서를 속초시로 이전하고, 속초경 찰서로 명칭 개정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63.11.01	속초경찰서 청사 낙성식	
1963.11.23	속초어업협동조합 어판장 낙성식	
1963.12.10	23헌병과건대 청사준공식	
1964.06.06	충혼탑 건립 제막식과 제9회 현충일 행사	
1964.07.21	시청사 기공식	
1964.08.22	전기복구 기공식	
1964.12.23	전기복구 준공식. 한전부담 6,413만 4,000원과 정부융자 5,000만원, 수요자 부담금 4,000만원 도합 1억5,413만4,000원으로 속초양양지구 6,116호를 대상으로 전기가설공사에 착수하여 64년 12월 23일 준공	
1965.03.01	예충 속초지부 창립	
1965.06.06	영북지구 제1회 초중고학생 미술실기대회	
1965.11.08	속초에서 철광석을 실은 리베리아 화물선(7,000t급)이 기관파열로 선원 53명을 태운 채 좌초	
1965.11.18	한국전력 속초출장소 청사 준공식	
1965.11.23	속초제일극장에서 강원도수산진흥 어민대회 개최	
1966.01.10	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공포식	
1966.03.17	속초상공회의소 창립	
1966.05.09	대원극장 개관	
1966.11.17	속초항 수로확장공사 기공	
1967.02.25	동명동 도로확장 등 공사 착수	
1967.04.14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든 유자망 어선 속초항 부둣가에서 진수식	
1967.06.17	법원지원 및 검찰지청 개청	
1967.11.13	디젤엔진 대형어선 1척의 진수식	
1968.02.16	속초 어협장 선거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68.03.17	속초항만 개발사업 착공	
1968.04.13	속초교육청 낙성	
1968.06.01	동명동 간선도로 포장 착공	
1968.12.22	속초방송국 신청사로 이전	
1969.04.15	속초 수산센터 개장. 대일청구권 자금 7,000만원 들여 2층 콘크리트 건물로	
1969.05.19	속초방송국 신축청사 준공식	
1969.05.20	충혼탑 이전 건립 제막	
1969.08.15	속초시민현장 선포	
1969.10.15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건립	
1969.10.28	속초측후소 신축 준공	
1970.06.20	제1회 영동지구 학생 백일장	
1970.07.08	법원 검찰청 신축청사 기공식	
1970.10.05	어로지도선 진수식	
1970.12.01	법원 검찰청 청사 준공식	
1971.06.26	초대형 오징어 잡힘(몸 둘레 40cm, 길이 125cm)	
1971.12.16	속초우체국 승격	
1972.09.07	속초항 소속 제3명성호 등 남북어선 7척, 어부 160명 귀환	
1972.09.15	속초항 소속 삼창호 등 남북어선 4척, 어부 93명 속초항으로 귀환	
1973.03.09	속초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1973.12.22	중앙파출소 신축청사 준공	
1974.07.04	중앙가로 개설공사 착수	
1974.07.15	속초어업협동조합에서 상호금융업무 개시	
1974.09.10	강원은행 속초지점 개점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75.02.24	국민은행 속초지점 점포 낙성식	
1975.03.09	제1회 연날리기 대회	
1975.10.20	제1회 속초시 문화상 시상식	
1975.11.12	중앙 새마을금고 설립	
1976.11.20	태풍피해 어선복구 진수식	
1977.01.04	10·28 해난사고 가족생계비 전달식	
1977.03.30	태풍피해 복구어선 진수식	
1977.04.01	속초어업협동조합이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77.07.15	중앙가로 포장공사 착공	
1977.11.25	중앙시장 화재	
1977.12.13	초대형 명태 잡힘(길이 102cm, 몸 둘레 40cm, 무게 4,005g)	
1977.12.13	속초항에서 용왕제 올림	
1977.12.28	속초소방서 개서식	
1978.04.10	속초역사 철거(동해북부선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음)	
1978.06.06	충혼탑 이전 건립 착공식	
1979.02.21	해경대 신축청사 준공	
1979.02.25	금호(琴湖)새마을금고 설립	
1979.06.20	동명(東明)새마을금고 설립	
1980.10.14	수협진입로 개설공사 착공	
1981.01.10	수협진입로 개설공사 준공	
1981.10.10	설악제 망향제 수복기념탑 앞에서 거행(6·25 30주년 만)	
1982.11.25	중앙새마을금고회관준공식	
1983.04.27	수복기념탑 모자상 파손	
1983.11.17	수복기념탑 복원 제막식	
1983.11.17	제1회 시민의 날 행사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85.10.25	속초~일본 나고야 직항로 개설(부정기 취항)	
1986.02.10	대한지적공사 출장소 청사 준공식	
1986.05.17	속초시 공공도서관 개관식	
1986.11.24	속초 중앙시장에서 불이나 속초약국 등 4개 점포 불담	
1987.09.26	근로자 복지회관 기공식	
1987.12.04	속초도서관 개관식	
1988.02.26	동남증권 속초지점 개설	
1988.03.30	중앙시장 신축기공식	
1988.12.20	근로자 복지회관 준공식	
1989.01.29	속초 중앙시장에 불이나 16개 점포 태움	
1989.12.04	속초우체국 청사 준공	
1990.01.18	한일은행 속초지점 개점	
1990.03.09	하나호 선장 유정충(劉禎忠)씨 전국어민장 엄수	
1990.06.04	속초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개최(공설운동장, 문화회관 등)	
1990.08.30	동명 새마을금고 회관 준공식	
1991.01.09	고 유정충 선장 동상 제막식	
1991.04.15	속초시의회 개원식	
1991.05.22	중앙시장 화재	
1991.07.08	조흥은행 속초지점 개점	
1991.10.15	KBS속초방송국 기공식	
1992.03.27	금호동 새마을금고 준공식	
1992.08.08	MBC 속초지사 승격	
1994.07.02	속초~울릉도간 정기여객선 취항 및 속초항 여객선터미널 준공식	
1997.04.11	속초 해경 신청사 준공식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98.05.03	범시민적인 통일시민대회 개최(수복기념탑 광장에서)	
1998.10.17	중앙동·금호동 2개의 법정동을 통합하여 금호동의 행정동으로.	
1998.10.17	중앙동·금호동 2개의 법정동을 통합하여 금호동의 행정동으로.	
2000.04.28	백두산항로(북방항로 개설), 동춘호 첫 출항	
2001.01.06	금강산 쾌속관광선 설봉호 속초 취항식, 속초↔장전간 첫 출항	
2006.04.06	뉴동춘호가 새로 백두산항로 투입	
2006.09.26	속초 관광수산시장 대형 주차장 완공(250대 주차)	
2009.07.28	한·중·일·러 신항로 운항(퀵 칭다오호 속초항에서 일본 니가타로 첫 출항)	
2009.09.19	설악로테오거리 준공식	
2010.02.09	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준공식	
2017.05.01	크루즈 항로 개설(속초→블라디보스크→가나자와→사카이미나토→부산→속초)	
2017.10.27	전국 1,500여개 시장 중에서 최우수시장으로 선정 대통령상 수상	
2018.10.26	보광사 현황도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73호로 지정	
2020.08.21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88호로 지정	

부록 2. 증언 기록

본 구술자료는 채록에 의미를 두어 그대로 서술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사일자 순으로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구술 표기 원칙>

- 구술자가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
 - ※ 단, 비표준어 표기 시 명확하지 않은 단어는 표준어로 교체
- 구술의 의미가 없는 단어 또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는 일부 생략

조사연구원 박경심, 강정모, 김정환, 최영택, 한정규

최정자 78세

2021년 6월 20일

고향은 어디시고 속초에 언제 어떻게 정착하게 되셨나요?

양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이모가 살고 계신 속초로 와서 살게 되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 시절에 내 주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예뻐해 주셨고 쪽 1등을 했어요. 학교는 속초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양양에서 다니다가 전학을 왔는데 그 때 21살의 같은반 친구도 있었어요. 아마 전쟁 통에 때를 놓치고 다녀서 그랬지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절반이었죠. 학교진도는 양양보다 많이 늦었어요. 내가 데모 1세대예요. 양양경찰서가 속초로 옮긴다고 해서 나도 반대시위를 했습니다. 양양경찰서 앞에서. 속초에 경찰서가 생기면 양양경찰서는 지서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반대를 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성향이 짝 있었어요. 속초 초등학교 2회? 3회? 졸업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 왔을 때 속초의 모습은 양양보다 더 커보였어요. 바닷가도 있고 배도 많고 초등학교만 다녔는데 그 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게 해주면 엄마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말 한게 생각이 납니다. 매일 울면서 얘기했지만 엄마의 형편이 나를 공부시킬 형편이 안되었고 그게 한이 돼서 결혼 후 아들 셋은 공부를 다 시켰어요. 남편의 적은 월급이지만 공부를 꼭 시켜서 이 사회에 나가서 올바르게 똑똑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언제부터 식당을 운영하셨나요?

36살부터 시작했고 내가 시작할 때는 속초에 회국수를 하는 곳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연히. 처음엔 칼국수를 해볼까 했었어요. 내가 음식에 관심도 있었고 잘한다고 (별난)시어머니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우연히 가게가 나서 거기서 시작했는데 처음엔 삼

양라면을 하루에 한 박스씩 팔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속초에 명태가 많이 낚았는데 판장에 명태 때문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낚았어요. 큰아들 대학 졸업 때 짬 명태가 나질 않아서 회국수로 바뀌게 되었어요. 라면에 명태를 넣고 팔아서 그게 명태라면이었는데 그것도 내가 속초에서 원조예요. 그 때 먹어보던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를 해요. 맛있었다고. 명태가 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명태라면을 끝난거죠. 수협직원들이 술을 많이 먹은 다음날 멸치육수를 끓여서 줬는데 맛있다고 하고 수협 직원들이 입찰을 하고 난 뒤 싱싱한 생선을 많이 갖고 와 본인들이 손질을 다 해서 무쳐달라고 했지요. 그게 우연히 회국수로 만들어진거죠. 수협직원들, 종매인 상인들, 배를 타시는 분들, 그 외 어판장에 드나들던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도 해달라 저렇게도 해달라 나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회국수라는 메뉴가 됐습니다. 시어머님이 고추장을 담가주셨고 허가도 없는 가게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사진을 찍은 게 없어요.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게 허가없이 하니 떳떳하지 못했지요. 회국수 먹으려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회국수를 먹으려고. 이웃의 식당들은 손님이 없는데 우리가게는 많으니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기도 했어요. 중앙파출소에서 저녁에 들어오라고 순경을 시켜 전하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말했지요. 그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한 건 자식들 잘 키워서 사회에 올바른 사람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허가도 안 난 가게에서 장사를 했다 수일내로 정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허가로 장사를 한 게 15년 정도 했어요. 문화원 건너편 넓은 곳으로 허가를 내고 당당하게 장사를 했고 세 번째는 중앙초등학교 입구에서 네 번째는 속초여자고등학교 입구에서 하고 거기서 끝냈습니다.

식당을 개업하고 처음에는 어떤 메뉴를 파셨나요?

명태라면인데 맛있었어요. 지금 젊은 엄마들한테 가르쳐주면 참 좋아할 것인데,,,

개업 당시에는 어떤 메뉴가 많이 팔렸나요?

명태라면, 회국수. 그 두 가지만 했는데 모두 인기메뉴였지요. 속초사람들에게 입맛에도 맞고 맛있었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아 이게 돈은 안 벌려도 재료를 좋은 걸 써서 하니 속초를 위해서 빛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초시에서도 이런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며칠 일이 있어서 가게를

안나가면 손님들이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속초시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시청으로 시민들이 전화를 한다 무슨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속초시를 위해서 음식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면서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개업 당시 주변에 주요한 건물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어촌지도소, 무선국, 수협 중매인조합, 유신냉동, 동명냉동, 극동냉동, 선인장식당 등

당시 상권은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음식재료는 어떤 식으로 공급받았나요?

속초 중앙시장이고 음식재료는 전부 시장에서 사왔어요. 매일매일 아침 10시에 싱싱한 생선이 들어왔거든요.

회국수를 시작한 년도는 기억하시나요?

1980년입니다.

회국수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자연산 명태가 없어지면서 명태라면도 자연스레 없어지고 회국수로 바꿨어요. 회국수에 들어가는 생선은 얼마든지 많았으니까. 모든 생선은 다 회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국수에는 어떤 생선이 들어가도 맛있었고 어판장이 바로 앞에 있었기에 회국수가 가능했어요. 열갱이도 맛있거든요.

처음에 회국수의 주재료는 무엇이었나요?

물가자미에다 해초도 넣었어요. 나중에 우연히 미역을 넣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청어회에 미역이 참 잘 어울렸고 봄에 미역이 익세지면 지누아리로 바꿨어요. 지누아리는 미역보다 씹으면 식감도 바다향기도 많이 나서 손님들도 좋아했어요.

서거리김치, 서거리식혜, 오징어식혜, 도루묵식혜는 북한 음식인가요?

맞아요. 다 북한음식입니다. 속초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해서 먹었는데 다른 생선으로도 식혜를 만들 수 있어요. 횡대기식혜도 만들면 맛있고 뼈가 익세지만 삭으면 아주 맛있어요. 다져서 질금에 버무려서 다른 양념을 넣고 같이 버무려서 한달쯤 지나서 먹으면 뼈가 말랑해지면서 맛있지요. 가자미보다 횡대기가 더 맛있어요.

삼숙이탕도 속초에서 만들어진 음식인가요?

네,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모두 삼숙이가 나지만 속초지역에서 잡힌 삼숙이가 빨간 색인데 엄청 맛있어요. 물곰탕도 사실 속초에서가 원조입니다.

물곰탕도 속초음식이라고 하던데 물곰탕이 만들어진 내용을 아시는지요?

사실입니다. 여기도 물곰을 많이 버렸어요. 동보극장 뒤 배가 들어오다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물곰을 다 버렸지요. 냉동했다가 쓰면 맹물이 돼서 없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물곰탕은 잡아서 바로 먹었지요. 그래서 물곰탕은 신선할 수밖에 없는 음식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곰탕을 파는 식당은 없었어요. 수협이나 중매인 상인들이 물곰을 들고 와서 끓여달라고 하면 끓여줬어요.

최윤선 84세

서울칼국수 2021년 6월 20일

고향은 어디시고, 속초에는 언제, 어떻게 정착하게 되셨나요?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1968년. 시동생이 살고 있었던 속초로 오게 되었어요. 그 때 남편이 조개잡이를 했습니다. 갯배 근처에 바지락이 많았었지요.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충주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남들은 가방 메고 학교를 가는데 나는 매일 밥을 해서 날랐어요. 그 때 생각하면 많이 속상해요. 6·25전쟁 때 피란 나오던 사람들이 재봉틀을 갖고 나왔는데 그걸 먹을 것과 바꿨어요. 그래서 재봉틀이 생겼어요. 머슴들 여름엔 종의적삼 두벌을, 겨울엔 솜옷 만들어줬어요. 머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 가족들 모두 옷을 만들어줬고 옛날엔 친정엄마가 누에를 길러서 실을 만들어 옷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서울칼국수는 언제부터 하게 되었나요?

1982년 1월 초부터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동명동 옛 경찰서 앞에서 충무식당을 3년 했고, 2년 쉬다가 서울칼국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먹고 살기위해,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식당을 개업하고 처음엔 어떤 메뉴가 있었나요?

처음부터 칼국수 한가지를 했습니다.

개업당시 식당 주변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큰 건물은 없었고 수협만 있었어요. 기름탱크, 유신냉동, 극동냉동, 무선국, 어촌지도소, 선인장식당, 물을 대주던 물배, 서울회관? 삼정회관?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 물고기는 많이 잡혔나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명태, 오징어, 도루묵, 양미리 등

당시 상권은 어디가 활성화되었나요?

그 때 중앙동, 중앙시장이 제일 변화가였어요.

음식재료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받았나요?

밀가루는 상회에서 받고 그 외는 시장에서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 사왔어요. 콩국수는 삶아서 시장에서 갈아왔어요.

칼국수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1982년 1월부터예요.

칼국수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인이 시장 칼국수집에서 일을 했는데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엔 시장 국수집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방식대로 하게 되었지요.

그 외 음식중 속초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음식이 있나요?

속초회국수집의 회국수가 있었고 갯배 근처에는 술집과 횡집이 좀 있었어요.

서거리김치, 서거리식혜, 도루묵식혜 다 북한음식이지요?

네. 예전에 처음 이사왔을 때 이런 음식을 이웃이 줘서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특히 도루묵 대가리를 다져서 젓갈을 담그던데 나도 한번 해봤지만 실패를 해서 그 이후론 안했어요.

삼숙이탕과 물곰탕도 속초에서 만들어진 음식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물곰탕을 안 먹었어요.

김옥순 76세

유달면옥 2021년 6월 21일

고향은 어디시고, 속초에는 언제 어떻게 정착하게 되셨나요?

양양군 강현면 옹호리입니다. 결혼해서 살게 되었어요.

속초에 이주하여 살던 곳은 어디인가요?

유달면옥 자리에서 살았고 그 집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벽돌로 지은 라멘조로 지은 집이었어요.

그곳의 상황(주변의 집들, 도로)은 어떠했나요?

결혼 전에는 유달면옥에서 법원으로 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였는데 법원이 생기면서 도로가 좋아졌고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는 다 논이었어요.

어릴 때 생활은 어떠했나요?

어릴 때는 궁색하게 살지 않았어요. 2살 때 아버지가 인민군에 끌려가서 북한으로 갔다가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셨지요. 11년 만에 오셨는데 그때 내 동생이 태어났고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오시고 바로 군대를 가셨어요. 오빠는 4살 차이. 엄마가 험하게 안 키우고 잘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40대에 제대를 하셔서 돌아오셨는데 제대로 된 군생활이 아닌 장교들의 집을 짓는 곳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나는 학교는 초등학교를 나왔고 결혼하기 전 옹호리에서 쪽 살았어요.

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유달면옥이 시작된 것은 몇 년도 인가요?

1977년 4월 25일입니다.

유달면옥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유달면옥 하기 전에는 구멍가게를 8년 정도 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생계를 이
어가려고 시작했고 또 한가지 이유는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들며 날며 먹어서 식당을 하면 이런 일은 없겠다 싶어서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음
식이었거든요. 한번 먹어보면 뭘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다 알 정도로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식당을 개업하고 냉면만 파셨나요?

냉면과 막국수를 팔았습니다. 메밀가루는 시장에서 빵아와서 반죽해서 팔았어요.

처음에 냉면은 얼마였나요?

처음엔 500원 800 1300 1800 2300 2500 2800 ...지금은 8000원입니다.

속초의 냉면은 유달면옥이 원조인가요?

아니예요. 함흥냉면이 먼저고 하지만 거긴 3대로 걸쳐서 했지만 우리 내가 한사람이
계속하고 있어요.

냉면은 속초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그때 결혼 전에 함흥냉면을 먹었는데 (200원 할 때) 맛있었어요. 반찬도 많이 안 해
도 되고 잘 될 것 같아 자신이 있었고 반죽을 잇반죽을 하면 면이 쫄깃한 게 맛있거
든요.

원래 냉면은 북한에서 가자미를 고품으로 하던데 명태로 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 시작할 때는 명태가 비싸서 가자미로 썼었어요. 하지만 원양태가 들어와 싸지고
가자미는 비싸니 자연스럽게 명태로 하게 되었어요. 사실 명태가 비린내도 안 나고
좋아요. 가자미는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터미널이 생기고 나서 장사에 영향을 받았나요?

아주 잘 됐어요. 터미널에서 보이니까 다 왔어요.

당시 주변의 환경을 기억하시나요?

시집을 왔을 때 터미널과 한전하고 방송국은 있었어요. 법원은 식당 개업을 하고 난 뒤에 들어왔고 문화원도 없었어요. 우리집 뒤는 단천마을이었어요.

건너편에 우렁골이 있었는데 우렁골은 왜 우렁골이라고 했는지 들은 것 없으신가요?

웁쪽 파여서 우렁골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일제 강점기 일이나 전쟁 후 동명동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어른들께 들은 이야기 중 기억하는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명동에서의 일은 들은 게 없고 친정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인민군들이 들어왔을 때 밥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나무가 없어서 못해준다 하니 전봇대를 잘라서 갖다 주더라요. 그래서 그 나무로 밥을 해줬다고 들은 얘기가 있어요.(물치에서 있었던 일)

홍영건 76세

2021년 6월 21일

속초에 정착은 언제 하셨나요?

1957년 1월 10일 초등학교 4학년 서울에서 속초로 이사왔어요.

정착을 하셔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청호동 5구에서 살았어요. 당시 청호동은 갯배쪽에서 1구로 시작해서 2구 3구... 이마트 있는 쪽이 5구였어요.

속초에 처음 오셨을 때 속초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때 포장도로는 없었고 전기불도 없었어요. 넘버원 사진관이 있었는데 황소광장 건너편 신한은행 지나 첫 번째 집이 유일하게 번듯한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페인트로

썼고 그 때 생선이 많이 낚여요. 겨울엔 명태, 봄엔 콩치, 여름엔 오징어 가을엔 양미리, 도루묵이 많이 낚여요. 그 중 명태가 돈이 됐지요. 청호동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살았어요. 처음엔 많이 모여산 곳이 영랑동이었는데 항구가 개발되면서 중앙동과 청호동쪽으로 옮겨왔고 일제강점기 때는 갯배있는 곳이 모래가 많이 쌓여서 바지를 무릎까지 걷고 건너다녔다고 들었어요. 청호초등학교 그 자리는 미군들이 쓰던 비행장이었어요. 청호동에 집을 지은 걸 보니 땅을 움푹 파고 벽과 지붕은 나무로 지어서 살았어요. 고향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신포 흥원 삼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으로 먹고 살았나요?

맞아요. 어업과 건조업...

피란민들은 처음에는 청호동에 자리 잡았다가 현재 서독약국 뒤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청호동에 자리가 없으니 그쪽으로 갔지요. 수협과 시장 쪽으로 사람이 모여 정착한 게 자연스럽게 정착하면서 중앙시장 안 닭골목이 다 술집이 많이 있었고 약 30채 정도.

6·8해일로 청호동에서 안쪽으로 이주한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피해규모나 이동인구, 새로운 정착지 마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나요?

해일로 인해서 신문기자한테 구두를 얻어 신었어요. 통신사였던 내가 그날의 소식을 전했지요. 청호동쪽은 전부 쓸려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청초호 안에도 파도가 많이 쳐서 배가 논산 앞에 다 올라가 있었지요. 속초우체국 전신과에 근무했는데 중앙일보 장창영기자가 새벽에 와서 서울에 알리자고 하여 같이 보냈어요. 바로 중앙일보 헬기가 와서 해일소식을 특종으로 알렸어요. 그 때 청호동의 주민들은 새마을로, 장사동은 고성군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청호동은 어떻게 다녔고 갯배는 언제쯤 생겼나요?

갯배는 정착민이 오면서 생겼어요. 예전에는 갯배가 다니던 곳이 얇아서 걸어서도 다녔어요. 바지를 무릎까지 걷고. 정착민들이 많이 들어오니 배를 댈 데가 없어서 항구를 만드느라 깊게 팠어요.

특이한 건물이나 기억나는 장소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1957년에 와서 보니 중앙시장 안에 중앙극장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유일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 읍내에서는 8·15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영랑동(초등학교 앞)에서 초, 중, 고 학생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멀리는 인제, 주문진 수고까지 와서 참석을 했어요. 예전엔 주문진수고가 축구로 유명했고 속초고등학교도 배구가 유명했지요. 전국 제패도 몇 번 했고 일본 원정경기를 갈 정도로 잘 했어요. 속초에 국가대표선수 안창호(속고 9회) 선수가 있었는데 너무 잘 하다보니 학교에서 졸업을 2년이나 미뤘네요.

속초의 문화적인 수준은 낮았어요. 청호동을 지나가면 쌍욕으로 시작해 쌍욕으로 끝날 정도로 주민들이 험한 말을 많이 했지요. 청호동에는 인구가 많은 반면 학교가 없었고 거기서는 속초초등학교를 다녔어요. 1958년에 청호초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 때는 집집마다 아이들이 4~5명이 있었고 그러니 청호동(1리~5리) 주민이 많으니 학생 수도 많았습니다. 몇 천 명이 있으니 운동회라도 하면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참석해서 청호동이 들썩거렸습니다.

전신전화국, KT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전신전화국은 어디에 있었나요?

처음엔 우체국에 있었어요. 1965년에 우체국을 짓기 시작해서 66년 완공했습니다. 현재 우체국 있는 곳입니다.

전신전화국은 언제 생겼나요?

1983년 1월 1일입니다.

전신전화국 시절 속초에 전화를 이용한 사람은 얼마나 되었나요?

3만 회선입니다.

KT건물이 과거에는 대한항공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로 속초의 대표적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졌나요?

대한항공 건물은 전신전화국이 지어지고 난 뒤에 생겼어요. 전신전화국 건물이(2층 건물) 생겼을 때 내부 난방장치가 스팀이었고 화장실은 수세식이었어요. 시민들이 신기해하며 구경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빌딩 앞 도로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때는 시청~갯배입구(황소광장), 서독약국 앞까지 변화가였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시청 앞(현 주차장)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고 1967년 지금의 장소로 옮겼습니다.

당시 중앙시장과 사십계단 쪽, 서독약국 쪽, 문천당 쪽, 현 농협 쪽, 시청 뒤 풍경은 어떠했나요?

사십계단 쪽은 노가리 촌이었고 서독약국 쪽도 상권이 좋았습니다. 문천당 쪽은 사람이 많았고 최고의 변화가였습니다. 뒤쪽은 건어물상회가 많았고 농협 쪽 바로 옆(현 우리은행)은 상업은행이 들어왔는데(1966년) 그곳이 그때는 금융 중심지였어요. 상업 중심지는 중앙동과 수협 쪽이었습니다.

중앙시장을 처음 보셨을 때 모습은 어떠했나요?

주위가 논이었고 질척거렸어요. 반듯한 건물은 없고 노점상들이 많았어요.

중앙시장의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기억하시는 것이 있나요? 중앙극장이 처음에는 시장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칠성사(쌀집)가 장사가 잘 됐어요. 시장 안 현대슈퍼 건물이 있는 그곳이 중앙극장이 있었어요.

전신전화국에 근무하실 때 시장 풍경은 어떠했나요?

1963년 속초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때부터 중앙동 영랑동 일부에 밤 12시까지 전기를 쬐지요. 그 시절 기쁜소리사? 이런 가게에서 노래를 틀었는데 지나가다 좋은 노래가 나오면 끝날 때까지 듣고 지나갔습니다.

언제 KT로 바뀌고 현 위치로는 언제 이사를 하셨나요?

우체국(체신부)에서 1983년 속초전신전화국으로 건물을 지어서 나왔어요. KT로 바뀌면서 퇴사를 했어요.

중앙시장과 주변에는 오래된 가게로 어떤 가게가 있나요?

문천당 밖에 없어요. 함경남도 문천이라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문천당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중앙시장 부근에 음식점으로 유명한 곳이 있었나요?

1970년 중반부터 갈비집이 생겼어요. 동일식당, 고바우식당, 두꺼비식당이 있었고 냉면집으로는 1970년 초에 조일식당, 신흥식당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광장 부근에 요정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혹시 어떤 곳인지 기억하시나요?

간판은 생각이 잘 안나지만 유명했던 건 알아요. 한때 물치에 있던 동경사령부 장교가 승진을 했는데 그 때 축하자리를 가지다가 그 장교가 그날 복상사를 당했대요. 그 때 하루는 승진축전을 전하느라 바빴고 그 다음날은 사망소식 전하느라 바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협 뒤엔 금강원, 전화국 건너편에는 서울집이라는 큰 술집이 있었고 모두 한복을 입은 종업원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들어가는 길에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인가요?

1950년대~1960년대에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현 국민은행 자리에 백설아이스케키 가게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명성사, 20세기 테일러, 입학사, 가야다방, 대한양행, 문천당, 대승당, 좀 아래에는 동아서점 등이 생겼어요.

중앙시장 부근 덕장은 어디 있었나요?

덕장은 신라예식장 자리에 있었고 쌍다리 바닷가쪽, 현 하나로마트 옆 아파트 짓는 곳, 그리고 청호초등학교에서 청초호 쪽으로 덕장이 있었어요.

김명선 동명동 어촌계장 71세

2021년 6월 22일

성함하고 나이하고 하시는 직업을 알려주세요.

나이는 71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은 어업, 어촌계장도 했고, 지금은 이제 금년

에 그만두고 이제 쉬고 있죠.

언제 속초에 정착하셨나요?

본적이 여기입니다.

1950년대, 1960년대 항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항구의 모습은 여기 저 안에 항구에 있었는데, 지금 해양경찰서. 그 자리가 원래 항구였어요. 이게 다, 이게 다 물이었어요.

경쟁바우, 건너풀, 섭바위, 성계바위 지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각자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건너풀이란 건 저저 지금 없애고 방파제를 만들었잖아요. 그 꼭대기에다가 여기 이 방파제를 만들었거든, 영금정 뒤쪽에 방파제. 경쟁바우는 저 안(해양경찰서 자리)에, 바윗돌이 두 개 있(었)어요, 거기 있었고, 해양경찰서 자리 거기. 건너풀 거기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섭바위는, 섭바위도 거기(경쟁바우) 옆에 돌이 있(었)어요. 지금 다 땅속에 들어가 있거든. 형제바위는 장사동에 있는데 지금도 섬이 이렇게 두 개있거든. 거기 형제바위에요. 성계바위는 모르겠어요.

제일극장 근처에서 콩치를 삶아서 조미료공장을 했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콩치는, 옛날에는 콩치통조림공장 그거는 청호동에서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옛날에 동창실업, 뭐 유한양회 공장이, 공장들이 거기 많았거든요.

동명항이나 청초호 그쪽에 조선소들이 있었나요?

여기(속초항)도 있었어요. 여기 바로 옆에가 정비소 자리에요.

그때 당시의 조선소 이름을 아시나요?

인디안조선소. 바로 여기(영금정 옆 수협건물). 함경조선소, 칠성조선소 교동 가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명조선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조선소들은 주로 목선을 만들었나요?

목선 만드는 데도 있었죠. 그 나머지를, 나무로 만든 배들은 저 자리, 저 뒤에 보편은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만들고, 목선을 만들고, 제일 또 배를 많이 만든 해가 있었거든. 250척인가 만들었는데, 속초뿐만 아니라 그전에 해일이 있어 가지고 고성군, 주문진까지 배를 거기서 250척을 만들었던 말이죠. 어디냐면 지금 저 유람선 타는 데 있잖아요. 저 청호동 가면. 그때 그 유람선 배 부두를 해봤잖아요. 그 배편에 거기서 전라도고, 경상도고 목수란 목수는 거기 다 왔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배를,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전에는 예인선이라는 게, 일본말로 말하면 아끼다마가 있고, 디젤은 그때는 없었거든. 그거 하나 나라에서 각 디젤엔진을 그것도 45만원 짜리, 그걸 정부에서 놔줬죠. 그래도 그 배도, 물배들도 오래돼서 (지금은) 없죠.

1954년에 수복탑 앞에 미군기지가 있었다는데 그에 관해 들으신 게 있나요?

미군기지는 저 지금 대명콘도 있잖아요. 저기 한화콘도 미군부대가 있었어요. 속초 시내에도 있었어요.

수복탑 앞에 어판들이 활성화돼있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나요?

수복탑 앞에는 어판장이 없었어요. 어판장은 지금 저 그 해경서 바로 옆에 그게 우리 수협에서 거기 사업소하던 자리가 있었거든. 옛날에는 명태를 잡아오며는 거기서 육지에다가 이 이판사업을 했지요.

그때 어판장의 모습을 아시나요?

그때는 명태, 송어. 지금도 뭐 송어는 저기 돈이 안 돼가지고 안 잡아서 그렇지, 지금도 그 송어가 속초 앞바다로 지나가요. 12월 달에 오지만은 봄에 많이 잡혀요. 그땐 송어를 잡아가지고 돈이 됐는데, 요즘은 안잡아요.

옛날에 어업이 특히 잘 됐던 해를 아시나요?

그전에는 배를 탈라 그러면 선주집에 가서 머슴처럼 잘 보여야지, 그 집 배를 탔다니까. 나도 그랬던 게 아버지가 먼저 그 집 배를 탔는데 아버지가 이제 노안이 들어가지고 못 타니까 그 대신에 내가 탔죠.

배는 얼마나 타셨나요?

배는, 지금 내 나이가 71니까, 16살 때부터 탔어요. 학교 다니기, 학교 다니기 전에 배에 갔다와가지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김중석 상인회 사무국장 54세

2021년 6월 22일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중앙시장에서 가장 번창하고 수익이 좋았던 가게와 그 가게의 현 위치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건물이 1953년도에 이제 중앙시장이라고 생겼어요. 난전식으로 해서. 그 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장이 열리다가 1988년도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현재의 속초 중앙시장이 1990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된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그때부터 속초 중앙시장이 된 거고요. 인근에 이제 이 건물 말고 개별 건물들로 해서 생긴게 파생돼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개인 건물들 개인 시장들이 쪽 생겼어요. 90년 이후에 지금은 속초관광수산시장이라고 전체를 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체가 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이고 이제 상인회 건물이 속초 종합중앙시장이고 이제 바깥에 쪽 개별 점포들이 생긴 게 속초 중앙전통시장이에요. 그래서 요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삼구시장 조성은 어떤 식으로 됐는지 90년대 전후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가 1953년도에 6·25전쟁 끝나고 자연스럽게 그냥 난전식으로 생겼어요. 그 때 형성돼가지고 쪽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 전에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집합건물로 해가지고 상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8년도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다 탔어요. 다시 건물을 지은게 이 건물 현재의 건물이고, 90년도 5월달에 완공이 돼가지고 현재 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럼 화재 난 곳은 이 중앙시장 일대 전부라고 보면 될까요?

이 자리에 있던 건물이 그대로 탔죠. 타가지고 다시 생긴 거니까.

시장이 조성될 때 1953년이랑 1990년에 주변에 집들이 있었나요?

예. 90년 전에 있던 건물들이, 옛날에 문천당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 쪽으로 쪽 해가지고 7번 국도가 생기기 전에 아주 옛날에 신작로라고 해서 그 주변에 문천당, 십자약국 등 아주 옛날 건물들이 쪽 형성이 돼 있었어요.

시장에 집들이 들어선 것은 언제이나요?

여기는 1953년도 그때부터 형성이 되면서 집들이 쪽 들어섰죠. 들어서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인제 옛날 집들, 1층 단층짜리 건물들이 쪽 서다가, 여기가 90년도 아까 우리가 건물 지은 다음부터 시장이 쪽 형성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한 2000년대 정도부터 해서 막 건물들이 들어섰죠. 그러니까 90년대 정도부터 해서 계속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거예요.

그때도 집들이 문천당 그쪽 거리에만 몰려있나요? 아니면 섞여 있었나요?

여기가 예전에는, 1990년 전에는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전 화재 나기 전에, 그 전에는 여기가 다 뺄로 알고 있었어요. 뺄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뺄이 매립된 건 50년대 60년대 그때로 알고 있어요.

서독약국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나요?

옛날에 있었죠. 서독약국에서 뒷길로 해가지고 지금 저 쪽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 뒤쪽에 사십계단 옆쪽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 통일교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셋길도 조그맣게 있었어요. 지금 대형 주차장 옆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지금 청학동 넘어가는 길이 조그마한 셋길들이 또 있었고, 그런식으로 있었죠.

처음에 시장이 만들어지고 상인들은 주로 무엇을 팔았나요?

여기는 예전부터 생선을 많이 팔았죠. 옛날부터 어시장이었으니까.

처음에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가게이름 중 혹시 알고 계신게 있나요?

여기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데가 1층에 제일포목이라고 포목점이 있었어요. 한 50년이 넘었어요. 하신 지가. 그분이 시장에 산 역사라고 볼 수 있죠.

화재 이전에 중앙시장 가장 수익이 좋고 번창한 가게를 알고 계신가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시장들과 포목점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포목점들이 그때 그러니까 뭐 맞춤 한복, 이불 팔고 그런 데가 장사가 잘 됐죠.

문천당, 제일포목과 같이 오래된 가게들을 알고 계시나요?

시장 안에 오래된 거는 포목점 중에 덕신포목이라고 그 집도 오래됐죠.

서독약국 뒤쪽과 시청 뒤 사이렌마을 중에 어디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사이렌마을은 옛날부터 형성이 돼있던 거고, 거기는 주거공간에 사람들 주택지이고, 서독약국 쪽은 상가들이고. 주택지는 옛날부터 5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이렌마을이 더 오래됐죠.

함매자 68세

덕신포목 2021년 6월 23일

어디 쪽 태어나시고 자라셨나요?

태어난 곳은 고성이고요. 여기 속초에 와서 산지는 한 40년 넘게 살았어요.

갯배가 속초 오시기 전에도 있었나요?

제가 여기(속초) 오기 전에도 갯배 있었어요.

1960년대 1980년대 사이에 수익이 가장 좋았던 가게와 현 위치를 아시나요?

1960년대는 그때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고 1980년대 그때는 알죠. 조금은. 옛날에는 물론 여기는 고기를 잡는 곳이잖아요. 오징어, 명태가 꽤 흔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명태잡고 오징어잡고 어민들이 살만했었죠. 지금 이 상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포목 장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한복을 팔았어요. 옛날에는 한복집들이 우리 시장에 많았어요. 10개 이상 점포가 포목점이었어요. 여기 인근에는 다 포목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포목이, 한복집이 많았어요. 서서히 한복집들이 없어지고 이제 겨우 한 집 남아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50-60년대에 속초에 파시라고 어업 전성시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속초에는 오징어하고 명태가 너무도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명태잡고, 오징어잡고 그래서 다들 좋았지. 그리고 명태 많이 잡고 했을 때, 여기에 유명한 젓갈 있잖아요. 명란젓. 명란공장, 창란공장, 명태에서 나오는 그 내장을 가지고 젓갈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속초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거 가지고 젓갈을 만들었다고요. 유명했죠. 옛날에 이쁜이젓갈이었나, 이쁜이공장이었나 하여간 그 명란공장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다 옛날이야기긴 하지만.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그 사이에 시청에서 청학사거리까지 지금의 다양한 메이커 윗가게 이전에 알고 계셨던 주요 가게들이나 그 가게 명칭이나 현 위치를 알고 계시나요?

아주 오래된 거는 금은방은 문천당이고, 서독약국 자리가 옛날에 서울약방. 서울약방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 오래까지 있다가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1980년대에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삼구시장(중앙시장)이 처음에 조성될 때 어떤 식으로 조성됐는지 아신가요?

이거는 새로 지은 건물인데, 화재 이전에는 그냥 상점가였어요. 지금 이런 3층 건물 이런 게 아니고, 복합건물이 아니고, 개인주택처럼 이렇게 집인데 상가였지. 그리고 뭐 여름에 장마만 지면 가관도 아니었었죠. 땅이 질고 이쪽 땅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은 이렇게 널빤지 놓고 건너가고 이런 정도의 그런 데였어요, 1970~80년대 여기는. 그러다가 상가를 여기 다시 지었지.

처음에 시장이 만들어질 때, 무엇을 주로 팔았었나요?

맨 처음에 이 상가에서 여기가 그냥 이것저것 다 파는 종합상가야. 여기는 어떤 한 가지만 파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갖다 놓고 파는 종합상가야, 이것저것. 없는 게 없었어요.

양용석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56세

2021년 6월 23일

예전에 중앙시장 근처에서 생활하셨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어 찾아 왔습니다. 그때 당시의 중앙시장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집은 중앙시장로 뒤편의 두 번째 블록이었어요. 건어물 가게가 모여 있던 곳이에요. 여기에 삼우상회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보통상회라는 이름을 많이 썼는데, 삼우상회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 옆에 해룡상회가 있었고, 남창철재 있었고, 여기에 고바우식당 이게 갈비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옆쪽으로 두꺼비식당, 동일식당이 있었는데 전부 다 1960년대, 1970년대 속초에서 유명한 갈비집들이에요. 그 당시에 동일식당이 제일 컸어요. 당시 중앙동이 다른 지역보다 1960~70년대에는 굉장히 컸으니까, 대표적인 갈비집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앙시장 근처에서 생활한 것이 몇 년도부터인가요?

1966년부터 1990년도 까지입니다. 삼우상회 안 2층 집에 살림집이 있었어요. 2층 집인데 그 당시는 일본식 가옥 형식이 많았어요. 2층에는 난방시설로 난로를 사용했어요. 바닥은 다다미방이라고 하는데, 마룻바닥 위에 짚을 엮은 자리 같은 것으로 깔고, 난로 피우고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때에 교동 럭키탕 부근으로 개인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가요. 여기(삼우상회 2층)는 부모님들은 살고 계셔서 90년대까지 왔다갔다 한 거죠. 이 골목에 건어물가게가 굉장히 많았던 것은 그 당시 속초에 고기가 많이 났어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바다에 어족자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명태, 오징어예요.

7번 국도 건너편에 갯배 타는 곳이 있어요. 지금 갯배 타는 곳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청년몰, 거기가 옛 수협이에요. 그러면 배들이 고기를 잡아서 여기다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요. 새벽마다 배들이 들어오면 경매가 이뤄지고, 고기를 산 사람들은 이쪽 길(현 갯배선착장에서 7번 국도로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이쪽(현 중앙로147번길 부근)으로 갑니다. 여기가 어시장이었어요. 어시장에 갖다 팔고 나머지는 건어물을 만들었어요. 명태를 할복 해가지고, 명란, 창란, 아가미로 분리해요. 아주 비싼 명란 같은 건 그때도 비싼 가격에 팔렸으니까 못건드리고, 창란, 애, 아가미 이런 거는 할복하신 분들이 일당 대신 받아갔어요. 할복한 명태는 덕장에 거는 거

예요. 그러면은 그게 건어물이 되겠죠. 건어물들은 여기 상회 쪽으로 와요. 그리고 상회 쪽에서 그것을 판매를 하는데, 이쪽 사람들이 이 중매(중개)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도매로 사가지고 서울, 대구 등 대도시 시장에 팔았어요.

고기가 많아지고 건어물가게가 번성하면 다른 업종도 번성했어요. 첫 번째, 운수업이 번성했어요. 고기가 들어오면 짐을 싣고, 여기(어시장)까지 나르려면 리어카, 손수레가 필요했는데, 손수레에 나무로 만든 궤짝에 고기를 담아 옮겼어요. 그래서 리어카 끄는 업(종)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생물을 팔아야되니까, 옛 수협 옆에 얼음공장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얼음을 받아가지고 가득 채워 냉장을 시키면서 이동했어요. 리어카를 이용한 운수업이 발달하면 나무 궤짝이 필요해서 목공소와 제재소가 속초에 많았어요. 이런 관련 산업들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아주 번성했어요. 또한 건어물 가게서는 가마니가 필요했는데, 가마니 공급을 위해 벗집, 비닐, 비닐봉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도 관련산업이에요.

예전에 오징어는 축으로 팔았어요, 한 축이 스무 마리에요. 팔 때는 비닐 포장지에 넣어주었어요. 봉투는 투명 비닐을 갖다가 끊어서 알맞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촛불을 켜놓고 실톱을 갖다가 거기다 대고 움직이면서 열을 가하면 붙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씩 이제 잘라가지고서는 끝부분은 끈으로 묶고, 앞부분의 밑동은 이렇게 봉해져 만들어 지물포에서 팔았죠, 종이도 팔고요. 지물포가 시장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들이 들어오면 선원중에는 외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배를 타서 돈을 벌고 그러다가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육지에 내릴 거 아니에요? 육지에 내리면 이분들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술 좋아시는 분들은 돈벌은 거 가지고 중앙시장 내에 그 옛날말로 하면 ‘니나노집’이라는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 있었어요. 중앙시장 내에 그런 술집도 몰려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장사가 되니까 모였다는 거예요. 시장 내에서도 경기가 좋으니까 술 먹으러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시장 안에는 옷가게들도 많았어요. 서울 같은 데서 가져다가 파는 옷가게였는데, 명절 전에는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속초에서 중앙시장은 1960~70년대에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그 외에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장 안에 극장이 있었어요, 중앙극장. 국민은행 옆에 제일극장. 예전 대원마트 자리에 대원극장. 지금 시청 건너편에 동보극장. 이런 극장들이 몰려 있다는 것은 거기가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경기가 좋다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어족자원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산 거예요. 그리고 속초시가 1963년에 시로 승격

이 돼요. 그런데 시의 승격에 필요조건이 인구란 말이에요. 당시는 실향민들, 속초 원주민들, 그리고 1/3은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객지에서 온 이유는 고기가 많이 나니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속초에는 경상도민회, 충청도민회, 전라도민회가 있어요. 그만큼 어족자원이 속초를 시로 만드는 데에, 또 속초의 어떤 규모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데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릴 때 기억으로는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었나요?

엄청나죠. 여기 옛날에 이 건어물가게들이 있잖아요. 당시 백열등이라는 전구가 있는 데요. 그게 각 가게마다 짝 켜져 있어요. 아주 밝게. 그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에요. 당시 속초로 외지에서 관광을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버스로 와요. 설악산 들렀다가 항상 들리는 곳이 이 건어물가게예요. 차가 시장 초입부분에 세워가지고 한 번에 손님들이 내리면은 4~50명이 동시에 들어가요. 가게에서는 오징어, 명태, 오징어포, 창란젓갈을 팔았던 거예요. 하여튼 경기가 좋았죠. 여기에서 돈 번 사람들은 시장에서 소비도 했을 테고, 옷도 샀을 테고, 갈비도 먹었을테고. 하여튼 여기가 다 잘된 거죠, 어족자원 때문에.

시장에 있던 길들이 현재랑 같은 그 길인가요?

지금의 길은 옛날 형태는 남아 있으되, 옛날처럼 활용하는 길이 있고, 활용하지 않고 사용되는 길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의 모습을 유지돼 있는데 가장 많이 바뀐 건 옛날의 중앙동사무소 옆이 어시장이었어요. 그게 완전히 폐쇄가 되어 없어졌어요. 그게 제일 많이 바뀐 것이고, 관광시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기본 틀, 뭐 기본 골목 유지하여 시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은 골목들은 지금 폐쇄된 곳도 많아요.

아이들이 놀만한 공간이 따로 있었나요?

중앙동사무소 옆에 황소광장이라고 있어요. 그 동네 애들이 모여가지고 놀던 곳 중의 한 곳인데 질그릇, 향아리 깨진 것을 가지고 놀았어요. 옆에 향아리 파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깨진 것을 주어서 놀았어요. 두 번째는 옛날 수협 건물 있잖아요. 그쪽 주변도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계단이 놓여 있어서 슬래잡기도 하고 그랬었고, 중앙시장에서 쪽 올라가면은 공설운동장, 거기가 멀지 않은 거리니까, 거기 가서 뭐 공

도 차기도하고, 다른 놀이도 하고 했죠.

동네 살던 아이들이 많았었나요?

많았죠. 그니까 그때만 해도 한 집에 보통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서너 명의 형제가, 서너 명 많으면 대여섯 명 그렇게 살았죠.

현재 그 서독약국 뒤쪽의 상황이 옛날에는 어떠했나요?

금호동 서독약국 뒤쪽으로는 집창촌이라고 해가지고 속초에서 그런 걸로 유명한 동네로 매음, 매춘 그런 곳이 모여 있던 곳 중에 하나예요. 서독약국 앞쪽에서 시장 쪽으로 쪽 들어가면서 빵집도 있고, 서울예식장도 있었어요. 중앙시장 안에 있던 중앙극장이 나중에는 작은 극장으로 아주 미니멀사이즈로 해가지고 서울예식장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있다가 몇 년 하다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사십계단 쪽에는 집들이 많았나요?

금호동 사십계단에는 집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중앙시장으로 접근성도 좋아요. 하지만 조용한 주택가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림집들을 다닥다닥 짓고 살던 곳이 사십계단이죠.

1950년대 시장이 생길 때, 땅이 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우리 아는 선배 부모님들이 속초 오셔가지고 거기가, 그 자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질퍽질퍽하고 습지식으로 막 돼있던 데가 많았나 봐요. 거기에 말뚝 박고 이 땅 내 땅 그러면은 거기가 자기 땅이었대요. 그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습지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이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안됐으니까 거기에 모여 살지 않았던 거죠. 그니까 재산권을 갖다가 주장할 그거도 없었고, 그니까 말뚝 박아 놓고, 그거 이제 내 땅 해가지고 아주 뭐 서류를 만들었는지 뭘 해가지고서는 또 술 좋아하시는 분도 술값으로 탕진하고 그거, 뭐 노름하고 그거 말기고 노름하고 막 그랬어요. 그니까 습지가 있었던 거는 맞대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살던 그런 곳은 아니었다, 옛날에는요.

어릴 때 기억으로는 몇 년도에 도로가 포장이 됐나요?

60년대 속초 중심가인데 땅을 보세요. 아스팔트 이런 게 아니죠? 흙길이에요, 흙길, 이쪽이. 금호동 국도 73년. 안 돼있죠. 선이 없잖아요, 일단. 이때도, 이때까지도 안 돼있었던 얘기에요. 자, 이쪽 81년, 이쪽은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포장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덮었던 얘기에요. 그니까 1975년도 1980년도 그쪽 사이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니까 일부 구간은 포장이 되고, 일부 구간은 포장 안 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쪽 로타리 문화회관, 79년도 사진에 이 자리, 로타리 쪽에. 자, 영금정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진입로를 만들었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부분적으로 어디는 되고 그전에,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동가로 같은 경우도 보세요. 81년인데도 아직까지 (포장이 안 돼있잖아요. 중앙극장 뒤편 골목 포장 70년대. 중앙극장이 제일 번성하고 그런데 그때 돼가지고 골목 포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70년대에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도 68년에 보시면은 이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문천당 시계점, 7번 국도 건너편. 이쪽이 중앙가로 개설공사 편입 때 철거된 건물인데 75년에, 그 75년에 저쪽 국민은행 건너편에, 중앙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 그 길을 갖다가 확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진입로 내고 확장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없애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때가 75년이란 말이죠. 편입 건물이 다 잘려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정비되어가는 7번 국도 주변, 70년대. 70년도가 아니고 70년대란 이야기에요. 시청 앞 광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1964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예상컨대 1960년대 후반서부터 1970년대 초반, 초중반, 그때 돼가지고 도로가 메인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이제 포장을 하고, 덮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주변에 골목길들이 포장이 들어가요. 좁은 골목길은 철거를 시켜버리고, 집들을, 상회들을, 뭐 상점을 철거시켜버리고 도로계획에 따라서 계획돼요.

반찬거리는 시장에서 주로 구입하셨나요?

그럼요. 바로 중앙시장이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생업에 종사하셨으니까, 어머니께서 안 바쁘고 그러면 장을 보러 갔어요. 장에 가면 정육점도 있고, 어묵가게도 있고해서 따라가면 얻어먹는 게 많아요. 하여튼 그 중앙시장 자체 안에서 생필품, 식용품, 육류, 가금류, 밑반찬까지 판매가 됐었어요.

초등학교는 어디를 다니셨나요?

중앙국민학교가 그 당시만 해도 시장이 크니까 전부 중앙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금호동 쪽은 속초국민학교 쪽으로 빠졌지만, 중앙국민학교가 그때 재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여기 모여 있었으니까.

초등학교는 어느 길로 다니셨나요?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집에서 나오면 야채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쪽을 따라 쪽 올라가면은 그 지금 금호동사무소 앞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와요. 그 쪽 길로도 다니고, 아니면 뒷길이라고 해서 그 옛날 북청도청 자리, 어디냐면 속초교육문화관, 해랑중학교 건너편의 도서관. 그 도서관 뒤 후문,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있는 데. 그쪽으로 내려가면 작은 길이 있어요. 천하갈비라고 아직도 있는데, 그쪽에 골목길이 있어요. 그쪽 골목길을 이용해서 학교 가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와 비교해서 주변지형이 변한 게 있나요?

메인 도로로는 그대로예요. 지금도 뭐, 골목길도 그렇고 메인 도로도 그렇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그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 공설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 길은 그대로 있어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시장이 변화되는 과정 중에 생각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1988년도 시장화재 이전에) 아주 옛날에도 불이 났어요. 1960~70년대에도 불이 났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옛날 시장 집들이) 2층식, 일본식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식 건물 들어서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상가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평수 맞춰 똑같이 개조된 게 198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예요.

고기가 덜 나면서 일부 업종 변경을 했어요. 건어물가게들도 잘 되는 데(만) 되고 쇠퇴의 길로 들어갔어요. 1990년대 기존의 오징어(가게), 건어물가게를 대신해서 철제가구점이 생기고 막 그래요.

중앙시장이 침체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나요?

중앙시장이 침체기는 고기가 나지 않으면서 침체기예요. 고기가 80년대 초반을 지나서, 중반으로 가면서 점점 고기가 안 났어요. 명태 같은 경우에는 씨, 어족자원이 말

랐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 중앙시장의 어시장의 기능도 점차 위축되었고, 그 다음에 건어물가게가 점점 없어지고, 덕장들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중심지 자체가 중앙동에서 이제 점차로 저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시장이 다시 부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옛날에 수산업, 어업에 중심지인 속초가 관광업으로 탈바꿈하면서 그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된 거죠. 고기가 많이 나가지고, 어족자원이 풍부해가지고 지금 중앙시장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관광자원화 되면서 거기(중앙시장)에 가면 볼거리, 먹거리가 많고, 유명하고 하니까 그렇게 몰려드는 거죠.

어르신들께 들은 시장에 관한 동네 이야기를 아시는 게 있나요?

옛날 원주민들이 살았어야 전설이 나오는데 전설은 없고요, 단지 예전에는 거지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하는 시간이면, 뒤에 와서 밥좀 달라고 해요. 60년대 그 때만 해도 속초가 사는 사람들은 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못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 환자들도 많았고, 뭐 전쟁후유증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가지고 정신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모’, ‘연모’. 이 양반의 특징은 머리를 뺨뺨 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인가 교장선생님이 본부석이나 올라가서 훈화를 해요. 지금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그 앞에 운동장 잔디가 있고, 그 앞에 큰 운동장 있는데, 옛날에 큰 운동장과 공설운동장과 그 작은 운동장이 연결돼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이 조회대를 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훈화를 할라고하면 ‘연모’라는 분이 본부석 뒤에 숨어 있다가 돌을 던져요. 그래서 ‘연모의 짱돌’이라 그랬어. 애들이 와 아하고 소리지르고, 조회서다 보면 도망가요. 이 사람이 중앙국민학교에서 특히 많이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셨고, 또 그런 분들을 치료시키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또 ‘오씨 아저씨’라고 교동 뒷산, 그러니까 교동국민학교 뒤에 그 산에 토굴을 만들어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정신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이예요. 그리고 ‘순이’라는 처녀 거지도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분인데 우릴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누구 앤지도 우리는 모르지. 가정도 집도 없는 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으니까.

또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제 불쌍하다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랬었어요.

그 외에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유치원을 보냈어요. 고기가 많이 나니까 건어물가게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돈은 있는 거야. 학교 들어가기 전 여섯 살일 때 걸어서 유치원을 다녔어요. KBS방송국, 거기 안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KBS 새싹유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유치원이 남들 보기에는 호강이었는데, 살펴보면 바빠서 애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보낸 거예요.

고기가 많이 날 때는 배를 타는 선원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육지에 도착하면 속초가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더블백에다가 지폐를 가득 담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은행에 저금을 잘하지 않았어요. 그걸 들고 니나노집으로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여기 니나노집서 자면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여기에서 술 마시고 또 돈 떨어지면 배 타러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앙시장 가는 길에는 지나가는 개도 뭐 십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 뭐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데죠. 당시 속초의 부자들은 건물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배가 있는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제일 부자들이 선주들이었어요.

장철석 86세

제일포목 2021년 6월 23일

여기서 장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여기서 장사한지는 60년 다 돼가요.

청초항이 지금은 많이 오염됐는데 무엇 때문에 오염됐는지 아시나요?

여기에 집을 짓고 하수도로 배수가 다 그리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오염되죠. 시장도 그렇고 다 모든 (배수가) 그리고 나가니까 오염이 돼서 고기는 못 먹어요.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삼구시장(중앙시장)에서 가장 번창하고 수익이 좋았던 가게

와 그때의 현 위치를 아시나요?

중앙시장 건물을 짓기 전에 그때는 장사가 잘 됐어요. 여기가 집이 다 판잣집이고 비가 와도 하수도가 있어도 여기 고양이, 쥐새끼들이 들락날락하고 참 아주 그땐 그 시절은 어려운 시절이었죠. 화장실도 공동변소가 있어서 멀리 가야 되고. 그때 번창했던 가게는 포목점들이 장사가 잘 됐어요. 이불, 뭐 한복도 잘 되고, 또 건어물이고 그때는 생선도 많이 나고 그때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때는 비 오면 물이 질질 새고, 그랬죠. 특정된 가게가 아니라 여러 가게들이 다 잘 됐어요. 아침 9시에 문 열면 저녁 11시~12시 까지는 장사 했으니까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속초에 어업이 잘 돼서 파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고기가 그때는 많이 나가지고, 파시란 건 고기가 이제 이렇게 성해져서 이런 걸 파시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생선도 많이 나고, 명태도 자연산(국내산), 지금은 자연산(국내산) 구경도 못 하지만 옛날에는 명태가 다 자연산(국내산)이었어요. 아주 생선도 많이 나고, 없는 고기가 없고 그랬죠. 그때가 좋았죠.

삼구시장(중앙시장) 조성은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옛날에는 다 판잣집이고 가게 만들어놓고, 판자쫓가리, 나무쫓가리로 가게를 만들어 사용했죠. 처음에는 바닥에서 물이 질질 나고, 진흙탕이고 그랬어요.

그럼 땅바닥을 매립했었나요?

매립한 건 없고, 물이 이제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 신발 신고, 이렇게 물건도 낮게 못 놓고 높게 이렇게 놓고 했죠. 옛날에는 쥐새끼 왔다갔다, 고양이 왔다갔다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조성될 때 집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집들이 들어선 건 언제였나요?

집들이 있었죠. 집들이 들어선 게 한 40년 됐으니까 집들을 짓기 전에는 이렇게 하수도가 있으면 소변, 대변, 뭐 고양이 죽은 게 다 떠내려갔어요, 바닷물로. 이렇게 지저분했지만 (시장을) 짓고 나서는 아주 많이 좋아졌죠.

공설운동장 쪽으로 나무들이 많아서 장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게 사실인가요?

예, 그랬죠. 그 뒤로 현대아파트 그쪽으로 다 산이었으니까 그랬죠.

처음에 시장이 만들어지고 주로 무엇을 팔았나요?

숙녀복, 기성복, 어물, 포목, 이불을 하고 했죠, 옛날에는. 50년 전에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김종규 동명동 노인회장 86세

동명동 2021년 7월 21일

면담자 김정환, 한정규, 최영택

비선대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나요?

영금정에 선녀들이 내려와서 놀던 곳이다라고 해서 비선대라고 했는데 원래는 영금정에 부속된 일종의 말입니다.

돌산 뒤쪽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돌산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돌산 뒤쪽으로 물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던 곳입니다. 왕래가 없었지요.

해안도로가 개설된 것은 언제인가요?

1996년도일겁니다.

해안도로가 생기기전 도로자리에는 집들이 있었는데 몇집이나 있었나요?

집들이 없었어요. 민가 한 곳은 전쟁 끝나고 루핀가옥 한 채가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산쪽으로

김정우 선생님은 영금정자리 기암괴석과 장군바위가 있었다고 하던데 장군바위는 어디 있었나요?

정상에 있었다고 하는데 평평한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말발굽자국이 있었고, 말먹이를 줄 수 있는 먹이통이 돌로 형상화되어 있었고, 하늘에 있는 말이 글루 다녔

다 그래서 장군바위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지어 주민들을 이주시켰다는데 아파트는 언제 지어졌나요?, 왜 이리로 이주 하셨나요?

1991년도 5월달에 지어졌고,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던 분들이 도로에 편입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시켰습니다.

석벽앞에 넓은 마당바위가 석벽을 뒤로하여 자리잡고 있었다는데 들어보셨나요?
등대북쪽에 있었다. 사람들이 열댓명이 앉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 서적에는 석벽위에 넓은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위에는 없었고 밑에서 볼 때 꼭 정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올라가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정자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거예요.

영금정이란 말은 언제부터 쓰였나요?

비선대라는 것은 영금정이 생겨서 비선대가 있는거지, 비선대가 먼저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 설악산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사람 왕래가 거의 없어 관광지라고 볼 수는 없죠. 영금정은 해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사람들이 다녔을 거고 구전도 되고 그렇게해서 생긴 것 같구요. 영금정은 유래가 바위가 길쭉하게 나와 있던 곳이라서 다른 곳보다 파도가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그걸 기지로 해서 서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영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도소리가 부딪쳐서 나는 음곡 그거하고 올라가보니까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영금정이란 말을 썼나요?

썼어요.

솔섬과 육지 사이에 건너다닐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바닥은 바위였나요? 솔섬과 육지 사이 물깊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건너다녔어요. 바닥이 암반으로 쪽 연결이 되어 있었고 옷을 건어서 건널수 있었어요. 신발들고

솔섬에 많이 건너가 노셨나요?

섭따러 가거나 그럴 때 한번씩 건넜습니다.

솔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소나무만 있었죠. 1951년쯤 국군이 들어와서 써치라이트를 설치하려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솔섬이라는 명칭과 송도라는 명칭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였나요?

식자들은 송도라고 했지만 보통 솔섬이라고 많이 하죠.

인공때는 전기불을 사용하셨나요?

송전으로 해서 전기를 사용했죠.

일정 때도 한전자리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송전하기 위한 변전소도 있고 그랬어요.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47년에 소련군이 철수하고 인민군 3개 여단이 삼팔이북에 배치되었다고 하던데 속초에도 여단이 있었나요?

속초는 여단이 없었어요. 인민군 포 부대가 있었어요. 포를 말이 끌었어요. 부대는 거거 하나예요. 노학동 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건 기억이 잘 안나요.

인민군들이 노학동에 있었으면 이 쪽으로는 잘 안내려 왔겠네요?

주민들하고는 접촉을 잘 안했어요.

고성군에서 들은 증언인데 한국전쟁시 1949년에 탱크 등이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곳 상황은 어떠 했나요?

여기는 탱크가 없었어요. 있었다면 양양이죠.

속초에서는 전쟁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24일에 속초항에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큰 배들이예요. 큰배들이 군인들 잔뜩 싣고 들어왔어요. 군함들이 아니고 창이배, 발동선 큰 거 그런배에다 몇십 명씩 군인들을 싣고 왔어요. 속초항과 조도에 정박했어요. 6.25날 전부 납치했죠.

전쟁후 국군 1군단이 주둔지가 청호동이었나요?

조양동하고 청호동, 올라와서 처음부터 주둔하고 있다고 노학동, 처음에 부월리, 청호동 그쪽으로 1군단이 있었어요.

군단이면 3만명이 주둔했다는 건가요?

전쟁이 나면서 1개 사단이 하루에 태어나는 거예요. 미 고문단이 필요하다 하면 사단 하나 생기는거예요. 29사단, 27사단 이게 다 조산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때 조산에 군단이 있었어요. 사단을 만들어 장교를 배치하고 사병을 끌어들이 규모는 적었어요. 조산에서 있던 군단 본부가 이쪽으로 온거죠. 여기있다가 학사평으로 갔죠. 학사평으로 간건 1954년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군단 창설 행사 때 동원되었어요. 그때 군정시대니까. 열병, 분열 하느라 죽어났어요. 우리가 키가 크나요. M1 메고 술한 고생했어요.

미군부대 배치 상황과 이동상황 그리고 속초에서 철수한 것은 언제인지 말씀해주세요.

미군부대는 51년에 같이 들어왔어요. 미군부대가 속초에 4군데 주둔하고 있었어요. 영랑동 다리건너 수송대가 있었는데 가장 컸어요. 서독약국 건너편 길로 쭉가다보면 주차장에 있었어요. 거기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인민군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당했잖아요. 밤에, 전쟁때니까,(52년 정도 됐겠네) 또 하나는 LST가 지금 해양경비정 정박하고 있는데 그 쪽에 LST가들어와서 거기 미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 부대에 보급을 했죠. 학사평은 별개예요. 미 8군 소속이에요. 커크랜드라고. 그 때는 학사평에 소형비행기도 뜨고 그랬어요. 정보부대로 통천, 원산, 성덕 이런데 다 보냈잖아요, 5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정확하게 1970년에 평택으로 갔어요.) 여기가 더 이상 미군부대가 필요없으니까 다른 데로 간 거죠.

장안돌곱창 건물 뒤편에 코굴바위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바위가 없어졌나요?

식당 축대 밑에 묻혔어요.

바위가 컸나요?

대어석이 앉아서 쉼터가 됐죠.

바위틈에서 샘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샘물은 동네 사람들이 이용했나요?(동명동 16통2반)

묻혀버려 샘이 없어졌죠. 척산, 도리원. 이목리 친구들의 거기에서 쉬었어요.

영랑호로 넘어가는 길이 그 옆으로 있었나요?

짱터에 큰 소나무가 있었어요. 세심촌 밑에, 거기서 걸어 넘어오면서 언덕을 내려오면서 코굴바위가 쉼터예요. 영랑호로 넘어가는 길은 이편한세상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일정때 제일극장 뒤쪽으로 갯물이 흘러내려 바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길이가 2,300M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일극장 쪽에는 선반 공장들이 몇 개 있었어요. 중석상회도 거기 있었어요. 동생은 선반하고 형은 명성사진관 세 번째 집에서 잡화하고

당시 개울물 폭은 지금의 반정도 되고 잔잔하게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맞나요?

조명상회쪽으로 물이 흘렀어요.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커요. 시장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두 모여 조명상회쪽으로 내려왔어요. 조명상회가 갯배쪽으로 가는데 4,50M 그 정도 오른쪽쪽으로 조명상회가 있었어요. 황소자리에서 갯배쪽으로 오른쪽쪽으로 조명상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수도로 되어 있어요. 하천자리인데 북개를 해서 도로로 만들어버렸죠.

중앙시장은 진흙탕이었겠네요.

지대가 낮아 물이 많이 차있었죠,

용소는 아시나요?

동해순대국 그 쪽으로 물이 흘렀어요.

시장이 만들어질 때 서독약국 뒤쪽은 집들이 많았나요?

언덕에 띄엄띄엄 있었어요. 그 전에는 생모리츠 자리가 산이었어요. 생모리츠 뒤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의 생업은 무엇인가요?

어민들이예요. 거기 가건물, 하꼬방 집이 많았어요, 철길이 잇고 그러니까. 거기 땅 주인도 한사람이어서 집짓기도 용이하고,

전쟁 끝나고 집들이 지어졌나요?

네, 청호동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고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일정 때는 사람들이 안 살았겠네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일정때는 대원극장 쪽 다케나카(죽중) 통조림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이 굉장히 컸어요. 군수품 조달하기 위해 만든 공장이에요.(만주사변 짬 만들어졌나요?) 네,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본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속초에 일본학교가 생긴거예요.

일본인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했나요?

기숙사, 공장 거기에 관사를 세워 거주했어요, 거기에 자녀들이 많아 학교를 지은 거예요.

갯배가 운행한 것은 몇 년도 인지 기억하시나요?

축항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식으로 만들어진거는 조막손이라는 고성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김씨인데 그 사람이 조그마하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조그만 배들이 왕래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그런 배는 없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갯배가 있기는 했는데 조그만해요. 한번씩 갈려며는 소리를 막 지르죠.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배태워주고, 조막손이라는 분이 와갖고 줄로 만들어다녔죠. 53년도. 내가 4학년때 해방이 됐어요.

인부들은 강제인가요, 모집인가요?

모집이지, 임금은 제 때 지급이 되었을거예요.

경쟁바위가 어디있었나요?

동명항구 한복판-동명항 중간 육지에서 150미터

건너풀(수중돌섬)의 위치는?

북방과제 맨끝

섬바위의 위치는?

솔섬 동남쪽 200m 지점에 위치한 바위, 면적 2,30평 방과제 중간쯤

마쪽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은 언제 마을에 정착했나요?

주요 성씨들은 일정때 들어왔고, 구씨, 이씨 신씨 김씨 순으로 들어왔어요.

심영호 속초중앙전통시장 상인회장 64세

중앙시장 2021년 9월 4일
면담자 김정환, 한정규

중앙시장 처음 건립할 때 이 지역은 어떠했나요?

시장 전체가 늪이었어요. 중앙시장 전체가 용소골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끝은 마사토 (마을금고)로 되어 있었어요. 가운데에 호수가 있고 그 주변이 늪이라고 보면 되고. 원래 피란 나와가지고 판잣집으로 형성되었었어요. 근데 시장이 3구로 넘어오면서 뱃머리하고 가까우니까 여기서 해산물 시장이 형성되니까 시장 건물을 질려고 하니까 물이 나와서 기소공사를 못할 정도였어요. 뺄이어서 애를 먹었대요. 마을금고 신축공사 할 때도 마사토 마지막 부분인데도 물이 나왔어요.

늪의 물이 바다로 흘렀다고 하는데 물길은 어디인가요?

도로 밑으로 물길이 있었고, 종석상회 앞으로 나갔습니다. 종석상회는 국민은행 우측 뒤쪽, 갯배나가는 길, 국민은행 사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종석공작소가 있었어요. 배수리를 했어요.

이경상 59세

금호동 2021년 9월 12일
면담자 강정모, 박경심

아버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통천 회양군입니다.

이북이시면 피란 정착과정을 말씀해주세요

전쟁이 나고 처음엔 인민군을 모집한다고 해서(인민군이 되기 싫어서) 도망을 치셨어요. 남으로 내려와 강릉까지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다가 속초에 정착을 하시게 되었어요.

속초에서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사업과정을 말씀해주세요

생계유지가 가장 컸어요. 미군부대가 영랑동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을 팔기도 하셨고 미곡상도 하셨어요. 영랑동에서 중앙시장으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미곡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이 자랑삼아 말씀하신 게 “나는 처음부터 도매업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서울 용산역에서 쌀을 떼어서 차로 싣고 와 속초에서 팔았는데 잘 팔렸다고 하셨어요. 미곡상으로 기반을 잡으셨죠. 그때는 쌀이 잘 팔리는 시기였으니까요.(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던 시기였으니까)

1961년 극장사업을 시작하셨어요. 혼자 사업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7명 정도 모여서 하시는 주식회사였어요. 제일극장을 비롯해 현대극장 동보극장 대원극장을 모두 그분들이 주주로 계셨어요. 마지막에 아버님이 제일극장을 혼자 하시게 되었고, 대원극장도 세 분이(하사장님을 비롯)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친께서는 극장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셨나요?

1969년에 미곡상(외삼촌에게 넘겨드리고)을 그만두고 영랑동에서 제일극장 앞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1970년 짬 극장만 하시다가 오징어건조, 명태건조업의 수산업도 시작하셨어요. 1973년도에 양양 인구에 양조장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수산업도 늘려가셨는데, 저인망 트롤어선을 7척을 하셨어요. 그 당시 허가가 난 배는 동해안에 모두 70척이 있었으니 규모가 컸죠. 냉동공장도 하셨는데, 대부분 수산업에 관련된 사업이었어요.

부친께서는 속초의 유지로 알려지셨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셨나요?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시고 중앙동 재개발 조합장을 하셨습니다.(중앙시장 개발에 관한)

제일극장은 지금 대우공업사 자리라고 하던데 위치가 맞는지요?

아닙니다. 제일주차장 자리입니다.

극장은 언제 생기고 언제 문을 닫았나요?

1961년 시작했고 1998년 닫았고 그해 바로 허물었습니다.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공공건물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제일극장이 뼈대는 철근 없이 벽돌로만(조적), 지붕은 나무로(목재크러스트) 지어져서 힘을 많이 못받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로 헐게 되었습니다.

극장이 가장 경기가 좋았던 해는 언제이고 그 해 특히 장사가 잘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70년, 71년 제일 좋았습니다. 티비가 보급되기 시작했던 해가 74년이었는데, (우리

집에는 72년에 티비가 있었다) 우리 어릴 때는 만화방에서, 잘 사는 집에 가서 봤어요. 그런 문화를 볼만한 곳이 없었고 오락거리도 없었으니 극장이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그 때 영화프로그가 4일에 한번 바뀌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4일에 한번 보러왔어요. 연예인의 리사이틀도 유행했는데 우리 극장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하춘화 리사이틀, 신성일 리사이틀... 우리집에서 그런 연예인들이 차도 마시고 쉬다가 극장으로 갔으니 어렸을 때 연예인을 많이 봤습니다. 하춘화는 이주일이 매니저를 했으니 같이 왔을 것이고, 남진, 나훈아도 왔었습니다.

콘서트도 했지만 졸업식도 했어요. 각종 행사, 창간대회, 발족식도 했습니다. 그때는 문화원이 없어서, 넓은 공간을 쓸 곳이 없었기에 극장에서 다 했어요.

극장이 폐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TV가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극장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공동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근무하면서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니 더 열심히(인원감축도 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 안되던 시기와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게 된 게 폐업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장에서 특별한 공연이나 행사 중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가능하면 연도도 알려주세요

리사이틀은 1970년대 초반이었고, 특히 명절 때 극장이 잘됐었는데 만원사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안전개념이 없었기에 손님이 오면 다 들여보냈습니다. 명절에 받은 용돈을 쓸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극장으로 왔어요. 직원들은 맡은 일을 정신 없이 했고 저녁에 구겨진 돈을 펴는게 나의 일이었어요. 그 돈을 펴서 뽀뽀하게 하고 백장씩 묶는 일이었어요.

당시 작은 도시에 극장이 4개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었으니까 학교에서도 단체관람이 많았어요. 권장영화라는 게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단체관람으로 갔습니다. 단체로 가니 학생들은 싸서 좋고 극장은 손님이 없는 낮에 학생들을 받으니까 서로가 좋았어요. 그 당시 선생님들은 극장에 순찰(?)할 때가 자주 있었어요. 학생들이 보지 말아야 할 영화(미성년 관람불가)를 몰래 보다가 걸리면 다음날 학교에서 혼났어요. 지도주임 같은 선생님들은 순찰하면서 영화도 보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혹시 극장을 운영할 때 사용되던 물품들 중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극장에서 리사이틀을 할 때 흥을 먼저 돋구려고 2층에서 밴드들이 연주를 했습니다. 맛보기처럼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아마 그 사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부친께서 들려주신 극장에 관한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신성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극장 바로 앞이니까 들려서 인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극장이야기 말고 항구나 동네이름이야기, 속초이야기 아무거나 들으신 것이 있나요?

그때 명태배가 많이 있었는데 놀다가 낚시바늘을 봤던 거, 우리가 저인망 사업을 했으니 집에 많은 연탄과 부식재료가 있었어요. 그 때는 배에서 연탄을 땀는데 우리 집에 연탄을 받아 놓으면 3일에 한번 '화장'이 와서 배에 실어갔어요. 쌀도 부식도 갖고 갔었죠. 화장은 부식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바다에 나가서는 선원들의 식사준비도 했습니다.

1960년대 제일극장 주변에는 건물들이나 항구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 당시 도로는 포장이나 다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신작로라고 했고 인도와 도로 경계가 없었지만, 선을 넘지 말라고 노란색과 검정색 사선으로 된 사슬로 줄이 쳐져 있었어요. 인도와 도로의 분리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앞부분에 2층에 미영사진관이 있었어요. 모든 기념사진은 거기서 찍었습니다. 건너편에 칠성사진관이 있었지만 나중에 생겼어요. 건너편에 중앙낚시점, 한미제화? 구두 만드는 가게가 있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구두를 맞춰준다 하고 거기서 만든 부츠를 신은 기억이 있어요. 동아서점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큰 도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도로포장, 도로가 건물, 가게...

문화여관이라고 있었고 십자약국이 있었고 올라가는데 꽃집이 있었어요. 상업은행 앞에도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영사진관 옆에 스케이트 가게가 있었는데 3A상표의 스케이트는 최상의 제품이었어요. 한전 지나서 4거리쯤 문화회관 자리가 논이었는데 거기가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는 곳이었습니다. 영랑호에서는 잘 안탔는데 너무 넓기도 하고 해마다 빠져죽는 사람이 있어서 어른들이 못가게 했어요. 바나나를 파는 곳도 있었어요. 감자옹심이 파는 그 부근쯤 인 것 같습니다. 닭전 골

목 지나 싸전골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팔죽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생각이 나질 않지만, 어떤 라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교복을 맞춰 입었어요. 설중 다닐 때 여름에 방학이 끝나서 교복을 입고 학교 가야하는데 덜 되어서 아침 새벽에 그 가게에서 기다려 찾아 입고 간 적이 있었어요. 참기름집이 있었고 우리집이 있었고 라사집이(병어리 라사)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거주하신 곳은 어디이시고 초등학교는 어디를 다니셨나요?

제일극장 앞(영랑동에서 이사한 후), 중앙초등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는 어느 길로 다니셨고, 그 길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시장쪽으로 해서 북청도청 앞으로 갔어요. 나중에 1974년쯤 야채시장이 생겼는데 그 때는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그쪽이 좀 더 곧은길이었어요. 야채시장은 지금의 금호동 사무소 건너편 쪽에 야채, 청과시장이 생겼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 때는 길과 벽이 다 흠이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벚나무는 중앙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들이 심었어요. 그 외... 르네상스 건물 지을 때 땅을 파는데 거기서 축대도 나오고 뿔도 나왔어요. 7번 국도를 낼 때 그 뿔 위에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처음엔 청초호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안갑니다.

김경식 76세, **권형호** 65세

동명동 성당 2021년 10월 2일

성함하고 연세와 하시는 일을 알려주세요?

A(김) 이름은 김경식이고 세례명은 베드로 현재 직업을 없고 1946년생입니다.

B(권) 이름은 권형호이고 본당 사목회를 맡고 직업은 교직에 있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1957년생입니다.

성당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건립되었나요?

A(김) 네, 처음부터 이 자리에 건립되었습니다.

성당을 배경으로 미군들이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성당과 미군이 관련이 있나요?

A(김) 그렇죠. 1952년도 당시 양양성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산에 성당이 있었고 속초에는 성당이 없었습니다. 6·25전쟁 중인 1952년 수복이 되면서 공사를 시작했고 원래는 속초성당이었는데 1966년 속초시 동명동에 속하면서 동명동 성당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당 위로 올라오시는 데 보면 동현아파트가 있는데 그 자리가 미군 공병대가 있었고 미군들이 원 파트리치오 초대 주임신부님의 부탁으로 속초 등대 밑에 있는 돌을 발파를 해서 그 돌로 성당 공사를 시작하여 1953년에 성당이 완공되었습니다.

B(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양양에 성당이 있었고 속초읍과 고성에는 성당이 없고 공소들만 있었는데, 6·25전쟁 중에 피난민이 대거 월남하면서, 춘천교구에서 이곳에 성당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A(김) 6·25전쟁 전에 고성 학아리 공소가 있었고 속초읍에는 도문 공소가 있었는데, 저는 도문공소에서 세례를 받고 동명동성당에서 제가 견진을 받았습니다. 도문공소는 그대로 있고, 설악산이 개발되어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니까 그곳에 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속초는 동명동 성당이 1호고, 두 번째가 분가한 성당, 교동 성당, 세 번째가 설악동 성당, 네 번째가 청호동 성당입니다. 그리고 도문공소 이전에 충청도에서 이주해온 신자들을 중심으로 싸리재 성당이 건립되었는데 오래가지 못했고 당시 최문식 신부님이 건물을 헐어 1921년에 양양에 양양성당을 건립하였고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B(권) 1952년 10월 1일인데 춘천교구에서 속초 성당 공사 결정이 났고 초대 신부님으로 아일랜드 출신 원 파트리치오 신부님이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당시 전쟁 중이라 미군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성당 공사를 시작했고 영금정에 있는 돌을 깨다가 기초 공사를 하고 지붕은 드럼통을 펴서 엮고 사이의 틈을 콜타르로 메웠고, 이후 슬레이트 교체하였다가 세월이 흐른 후 청동판을 얹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A(김) 원 파트리치오 신부님이 여기 오셔서 처음에는 현재 동명동 성당 내 파티마 강당 자리에 천막 성당을 짓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B(권) 동명동 성당 50년사에 보면 공사 시작 후 6.26 전쟁의 혼란속에서도 도문 공소, 학야리 공소에 있는 신자들이 5명씩 조 편성을 하여 이곳에 와서 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10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공되어 1953년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날 봉헌을 하였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전·후에 성당의 미사는 정상적으로 드렸나요?

A(김) 수복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B(권) 인공시절에는 탄압이 심했습니다.

A(김) 6·25전쟁 중 양양성당의 디모테오 원장 신부님과 수녀님이 신도들의 안내로 어성전 쪽으로 해서, 38휴게소 부근 남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B(권) 1951년 수복 후 도문공소와 학야리 공소의 신도수가 대폭 증가하자 원 파트리치오 신부님이 김근식 읍장님을 찾아가서 성당을 현재 장소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성당에서 운영하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 등이 있었나요?

A.(김) 수복후 동명동 성당은 숙초에서 최초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였고 구호물자로 밀가루빵, 옥수수빵도 만들어 신자, 비신자, 아무 사람이든 배가 고프 사람은 다 와서 끼니를 해결하였습니다. 휴전 후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영랑보육원을 이곳에 창설하였습니다.

춘천 교구청에서 지원은 없었나요?

A(김) 당시 춘천 교구청도 매우 살림이 어려워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B(권) 대신 원조물자가 아주 풍족히 들어왔습니다. 가톨릭 세계 무슨 재단이었는데... 우리 성당에만 그런 원조물자가 들어온 게 아니고, 각 읍면 단위로, 전쟁 후니까 나라에서 구호물자들을 많이 보내 준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읍사무소나 관공서에 구호물자가 오면, 다 귀하던 때니까, 서로 막 가져가고, 감춰놓고, 사재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성당에서도 타 교구에서 많은 물자들이 보내 주었는데,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여튼 나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A(김) 김현배 보육원 원장님이 도문서부터 어렵고 힘든 애들을 챙기다가, 속초가 도문보다 더 커지니까 여기에 영랑보육원을 만들었습니다.

B(권) 싸리재보육원이 영랑보육원의 전신입니다. 그 가톨릭재단에서 오는 원조물자를 가지고 불쌍한 빈민들을 도와주었는데, 특히 전쟁고아들을 영랑보육원을 통해서 수녀님들과 가르치면서 구호해주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는 장례식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A(김) 신부님 그 사제관 있는 그 자리에 천막을 쳐놓고 이 성당을 지었습니다. 완공이 되니까 천막은 철거했는데, 성당 이외 신부님 아버님이 살 곳, 각종 모임, 주일학교, 회합 장소가 없어서 미군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칸을 막아서 각종 단체 회합, 청년회 활동, 주일학교활동도 하고, 아이들이 탁구하고 농구하는 곳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자꾸만 불어났는데,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집에서 상을 치루는데 집들이 전부 다 오막살이로 허름하고 형편이 어려우니, 동명동성당에서 마지막 임종을 집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 장례를 성당에서 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령회가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 연령회 회원들이 지금 장례사들이 하는 걸 전부 다 했습니다, 우리가 소독도 다 하고, 염도 다 했습니다.

우리 성당에,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부가 중앙시장에서, 생활용품, 과자서부터 뭐 없는 게 없는 총 백화점같은 PX를 운영했는데, 그 부부가 우리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분들이 지금 성당이 앉은 산(땅), 여기를 기증한 것입니다.

B(권) 그걸 누가 기부를 했었나?

A(김) 그 PX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 땅을 기증했습니다, 저 산을. 지금 십자가에 있는 그 한쪽 귀퉁이에 ‘나 한자리만 다오’하고, 나머지는 요긴한 데 쓰시라고 해서 기증을 해서 저 성당 묘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은 원래 신부님 사제관이었는데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를 냉동실로 만들어 장례식장 겸으로 쓰면서 나사로의 집이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빈첸시오회에서 명란장사해서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육관으로 썼다가 외국 수녀님들이 오셔서 요양병원으로, 요양원으로 사용했습니다.

B(권) 양로원처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돌보고, 거기서 돌아가시면, 장례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동명동 신자들이, 신부님을 중심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이웃사랑 정신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A(김) 그러니까 그런 이웃사랑 정신이 동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문화원 옆에 무료급식소, 작은형제의 집, 이것도 우리 성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IMF 터지고 나서, 신부님들이 모여서 무료급식소 설립을 고민하고 있었고, 서베드로 회장이나 비오가 도와서 설립되었어요. 내가 신탁있으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고 동문성 시장이 문화원 뒤 공터로 옮겨 준 겁니다.

B(권) 실제로는 보기가 싫다고, 급식소를 철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 .

A(김) 무료급식소를 성당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했는데, 문화원쪽으로 옮기니 신부님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까리타스 수녀원에서 이거를 인수해서 운영합니다. 문제는 밥은 속초시민, 속초사람들이 다 먹는데, 속초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면은 작은 형제회의 운영주체인 까리타스가 고성군에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지원 해야한다고 합니다.

B(권) 장학사업도 크게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A(김) 장학사업은 동명동 성당 혼자서만 한 게 아니고, 동명동에서 시작해서 교동, 설악동, 청호동 등 다섯 개 본당이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시발을 동명동이지만, 동명동이 단독으로 한 건 아닙니다.

속초를 포함한 춘천교구가 아일랜드 신부님들이 많이 오신 이유가 있나요?

A(김) 아, 그때 당시는 한국인 신부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를 아일랜드 외방선교회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A(신부님) 여기가 원래 서울교구의 강원지목구였습니다. 교황청에서 아일랜드 골롬반 외방 선교회에 선교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1939년도 4월 25일경 독립해서 춘천지목구가 이제 춘천교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here를 아일랜드 신부님들이 담당했습니다. 인천교구는 메리놀 외방 선교회, 춘천교구는 골롬반 외방 선교회가 맡았고, 아일랜드 신부님들은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땅을 많이 확보하는 특성이 있었던 듯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사회사업은 많이 했는데,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교구는 이렇다 할 학교가 없

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골롬반 신부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강인 사제들 양성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한국 신부를 키우고, 똑똑한 신학생들을 키워서 공부를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그랬어야 했었는데 . . .

전쟁 때나 전쟁 끝나고 속초의 분위기나 경제상황 등에 들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A(김) 내가 얘기하다시피 피난민들 윗세대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래들이, 한 80대서부터 지금 70대가 2세대입니다.

A(신부님) 해방된 다음에 미군하고 소련군이 군정을 했습니다. 48년도에 우리 합법적인 정부가 있었고, 38선 이북은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38선 그어지기 전, 45년부터 48년까지 한 3년 정도는 군정이었었지만 왔다갔다 하면서, 통행이 지금처럼 삼엄한 경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왔다갔다 그러고 했었다고 합니다. 종교탄압이 있고, 사상검증이 있어 밤에 몰래 남쪽으로 넘어가는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A(김) 그때는 장사동이나 동명동은 항구가 아니라 작은 포구였습니다. 청초호 들어가는 거기가 속초항이었습니다. 동명항 이 주변은 큰 산이었다고 합니다.

A(신부님) 그 때 속초에 대포가 모여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48년에는 종교 믿는다 그러면 그냥 죽이고, 또 끌고 가 고문하고,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해서 피란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 성당 주변 마을 모습이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 어떠했나요?

A(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그 직업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논은 별로 없고 대부분 밭이어서 밭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농이라고 했습니다.

성당 주변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김) 여기 동현아파트 자리에 미군부대가 있었고, 미군부대가 옮기면서 그 자리에 속초의료원이 들어섰습니다. 속초도립병원이 지금 자리로 옮기면서 이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 변화가인 이 영랑동에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속초가 발전해 가면서 지금은 여기가 변두리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청 자리가 속초읍사무소 자리였는데, 그 주변이 발전하면서 중앙시장이 생겼습니다. 중앙시장이

생기기 전엔 전부 다 이 영랑동 1구, 여기가 속초의 중심지였습니다.

B(권) 중앙동이 옛날에 3구였고, 중앙시장은 삼구시장였습니다. 청학동 건너편 바닷가 쪽에 사구시장, 오구시장은 청호동에 있었습니다. 사구시장이 육구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랑동 시장이 제일 먼저 번성했고, 다음은 중앙시장이 제일 발전하였고, 각자 지역에서 발전하다가 지금은 중앙시장만 남아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당시 성당 주변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

B(권) 동명동 성당의 역사성과 6.25 전쟁당시 지역사회의 문화 등을 놓고 봤을 때, 역사와 문화가 없는 도시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속초시로 봤을 때 우리 동명동 성당이 갖는 역사성이나 문화성이 엄청 대단한 겁니다. 전문적인 학술연구가들이 이들을 연구하여 우리 속초의 역사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당이 전국에 해맞이 성당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6~700명이 여기 그 해맞이를 보러 와요. 우리 성당에서 바라본 해맞이, 여기서 바라본 설악산, 청초호 이 풍경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 이 아름다운 곳이 지금 경제 논리로 다 막히고 있습니다, A(김) 앞으로 속초시는 이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속초의 풍경, 해돋이 순간이 속초의 자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제논리로 들어선 42층 건물과 아파트들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속초의 자원이 되고, 일반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빌딩 숲 속초는 속초만의 천혜의 자원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를 잃는 것이라고 역사를 배우고 보존하듯이, 역사적 장소도 보존하고, 자연적 자원도 보존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속초문화원에서도, 지역의 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도, 속초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모두 힘을 모아 속초가 망가져가는 것을 방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발도 속초의 문화와 역사, 자연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초의 아파트, 빌딩들, 속초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두 살면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속초는 8만2천명의 도시입니다. 즉 여기는 지금 유령도시입니다. 투기꾼들을 불러들인 것이지, 여기에 살려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속초 문화를 지키는 역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보존의 가치를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황보해룡 62세

옛 <다량> 2021년 10월 20일

다량은 언제부터, 어디서, 누가 운영했나요?

옛 다량이 있던 곳에서 1988년 4월 1일 친구 김상용과 동업으로 시작했고 7년 간 같이 했어요. 다량을 하기 전에는 대한항공 건물 옆에서 <다락>이라는 클래식 다방에서 일을 했었어요. 시인들이 시낭송을 했었는데 물소리 시낭송이 거기서 처음 시작 되었어요. 시낭송을 할 때 물소리 녹음을 직접 설악산의 계곡에서 해왔지요. 그 소리를 틀며 시낭송을 했습니다. 다들 참 진지했고 그 때 시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도 왔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했나요?

젊은 층도 주로 왔었지만 문화예술에 목마름이 있던 다양한 속초사람들이 고객이었어요.

다량의 운영은 어땠나요?

처음 2년간 그리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 부터는 잘 됐지요. 명절 때는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줄을 서기도 했었습니다. 다량에 오면 궁금한 사람들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은 물론 소통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장소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다량에서 이루어진 문화행사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연대나 횃수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시낭송, 강연, 발표회)

다양한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사진전 그림전시회, 출판기념회, 시낭송 등등. 최명길 시인의 마지막 출판기념회를 다량에서 했었어요. 그 외 많은 시인들의 시집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다량 운영의 성수기는 언제였나요?

1990년대 초반이에요.

속초에서 다람이 성업을 이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을 논할 장소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다람이라는 공간이 그들을 모이게 했고 시, 연극, 음악, 춤, 예술에 대한 갈망을 풀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그 역할을 해주지만 그 때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으니까.

다람외에 유명했던 다방은 어디인가요?

까망, 베니스, 암스텔담, 아쉬람, 목마 정도가 있었어요. 클래식 전문카페는 <서곡>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초입에 있었습니다.

운영 당시 속초에서 다방의 의미나 역할은 무엇인가요?

소통의 장소였어요. 거기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거기 가야만 누군가의 소식을 알 수 있다는 등 다람은 그런 목마름의 장소였습니다.

다람이 문을 닫은 시기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6년. 주차난, 전원카페, 노래방,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등 각각의 분야로 흩어짐이 원인이었어요. 한마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다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었나요?

‘어느 미장공의 편지’ 자주 오는 손님 중 미장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책을 아주 많이 읽고 책이야기 하는 걸 좋아했어요. 수입의 반을 주위사람에게 책을 선물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편지가 한통 왔어요. 책으로 인한 인연이 좋았다고 그로 인해 행복했다고... 그 편지를 받고 한달 후 사망을 했어요. 그것도 알 수 없는 암호처럼 온 문자를 이렇게 저렇게 겨우 맞추고보니 병원에 있다는 내용이어서 서울로 가보니 사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부인이었는데 지적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에게 알려려고 암호같은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그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유명인이 방문한 경우가 있었나요?

황금찬, 구상, 이근배 초청강연, 이반교수님 지인, 세익스피어 연구 교수님의 강연, 등등

주원철 금호동 어촌계장 65세

2021년 10월 25일

영랑동에서 제사 지내던 걸 옮겨왔다고 들었는데 언제 옮겨왔는지 알 수 있을까?

영랑동이 아니고 중앙동에서 었어요. 우리는 당을 아직까지 몇 십 년 동안 옮기지 않고 있어요.

중앙동 성황당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시는 거죠?

속초에 성황당이 동명동 성황당, 금호동 성황당, 교동성황당, 청호동 성황당. 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즉, 할머니 중에 제일 높은 할머니가 금호동 사람이예요. 그래서 다른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금호동 성황당에 와가지고 이제 날을 받아가지고 가서 성황제를 지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러 큰 할머니인 금호동 성황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날을 받아가지고 성황제를 지내, 청호동이나 교동이나 동명동이나.

혹시 그 할머니. 그러니까 여성황신을 모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거의 다 할머니인데. 또 남자 할아버지 오시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 성황당마다 틀려요. 그거는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관리는 금호동 어촌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촌계에서 자기 성황당들을 관리하지요.

제사는 보통 어느 시기에 지내시나요?

보통 제사는 4월, 5월에 많이 지내요. 4월, 5월에 특정한 날짜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또 굿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굿은 동명동 어촌계. 동명동 어촌계에서만 따로 굿을 해요 금호동에서는 안 해요. 그리고 그제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제사 음식은 보통 맞춰서 소머리 하나하고 갈비하고 올리죠. 꿩지, 족, 갈비, 머리 이렇게 구입을 하죠.

그럼 그 제사 음식은 나중에 어민분들이 이렇게 나눠 가지시는 건가요?
성황당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밥 한 그릇 먹고 그러죠.

그러면 제사에 어민들도 많이 참석하시나요?
자기 성황지에는 자기 동네 사람들이 다 참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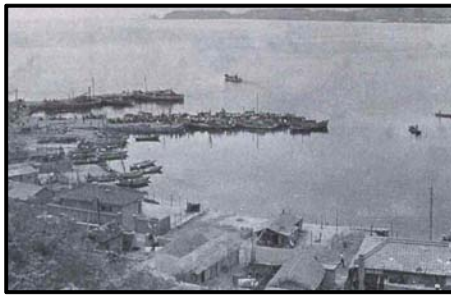
그럼 제사를 지내는 주요한 목적이 있을까요?
안전이고 만선입니다.

부록 3. 사진 기록 / 동명동·중앙동·금호동 지역

본 사진자료는 『속초시지』, 『속초시정50년사』, 『속초시사』, 『옛사진으로 보는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립박물관, 속초문화원, 전태극, 박경심, 기증사진 (폴펜처, 락웰), 개인소장 등으로 관련된 사진을 재구성 하였습니다.



1966년 속초항과 동명동.중앙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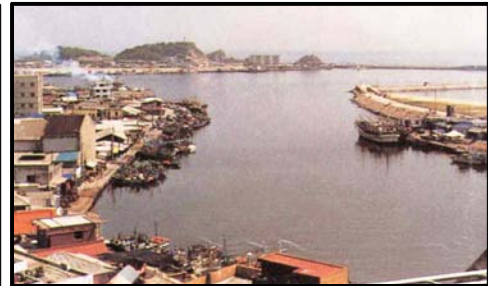
1966년경 동명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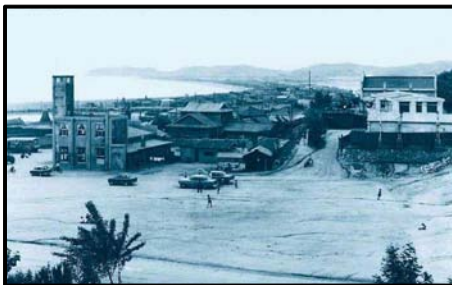
1990년대 동명항



속초내항 전경 1963년 시승격 이전



1990년대 속초내항



1964년 시청앞 광장



1990년대 시청앞 광장



중앙동거리 및 속초항 수로(시승격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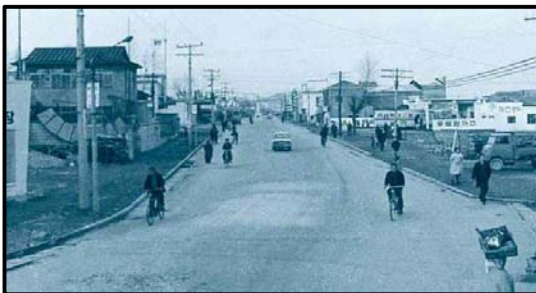
1990년대 중앙동 및 속초항 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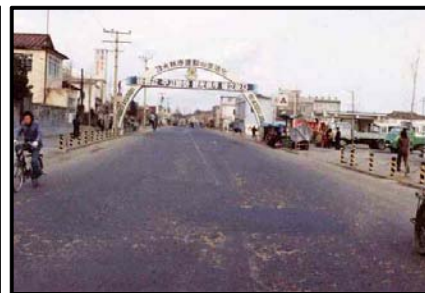
시승격이전 금호동 전경



1978년 금호동 전경



1972년경 시청 앞 국도



1981년경 시청 앞 국도



1968년경 중앙동 사거리



1981년경 중앙동 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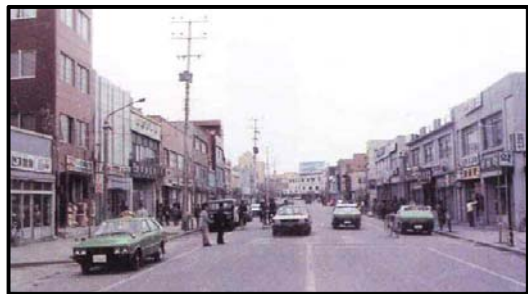
1968년경 중앙동·금호동간 도로



1981년경 중앙동, 금호동간 도로



1973년경 금호동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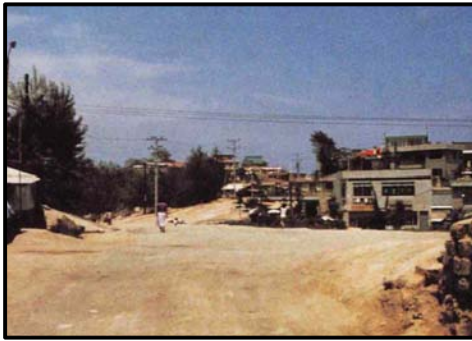
1981년경



1980년경 공설운동장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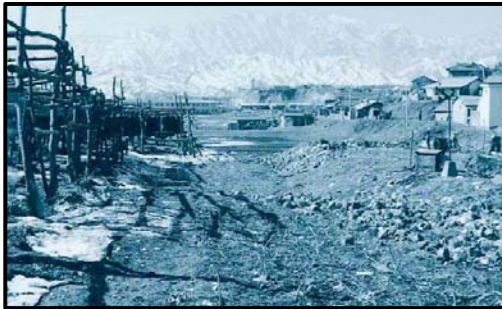
1990년경



1979년경 공설운동장 로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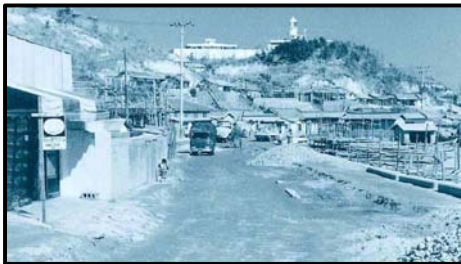
1990년경



1978년경 속여중 인근(현, 해랑중)



1990년경



1970~80년대 영금정 진입로



1990년경



1970~80년대 영금정 진입로



1990년경



1981년경 중앙가로 상단



1990년경



1979년경 중앙동 갯배 및 수협진입로



1990년경



1992년 11월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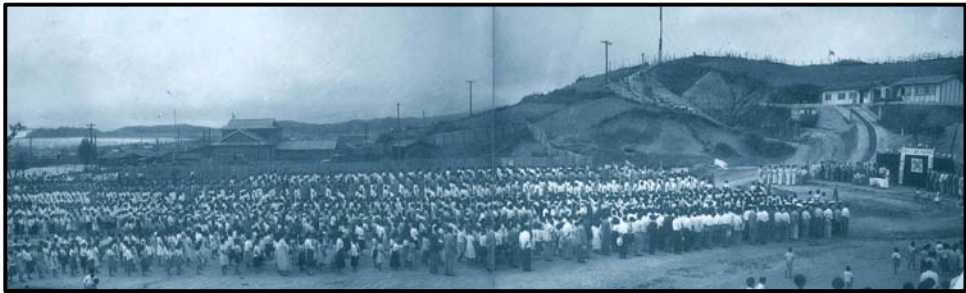
1950년대 현 시청 부근



1950년대 중앙동 거리 전경



1960년대 속초중심가



1957년 8월 15일 제12주년 광복절 경축대회(현 시청광장)



속초시제 실시 경축 기념대회(1963년 1월 7일, 현 시청광장)



속초시제 실시 경축 기념대회 시가행렬(1963년 1월 7일)



1950년대 말 북청사자놀이(금호동 북청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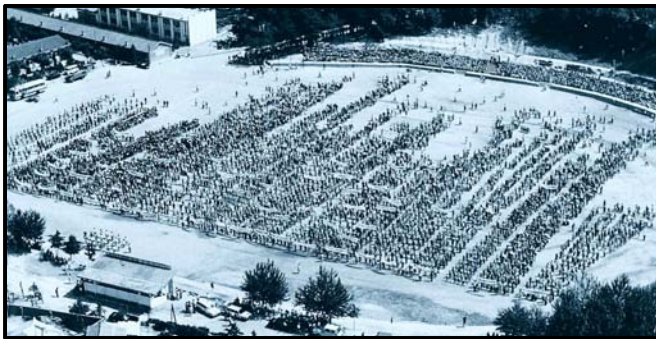
풍랑에 휩싸여 침몰하는 어선(1962년 1월 2일 시청 앞)



재건된 수복기념탑(1983년 11월 17일)



중앙시장 화재(1991년 1월 11일)



공설운동장에서 제5마산호 남북에 따른 시민꽃기대회(1982년)



영랑초등학교 학생들이 보광사 옆산 식수작업(1973년 4월)



제6회 설악제 산악인 시가행진(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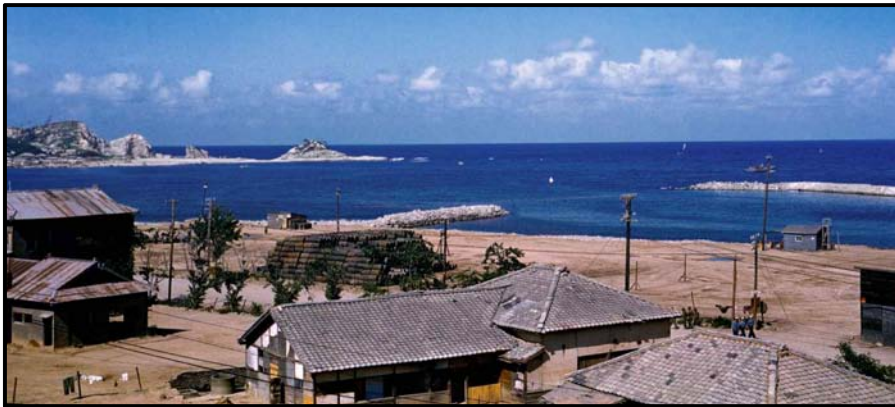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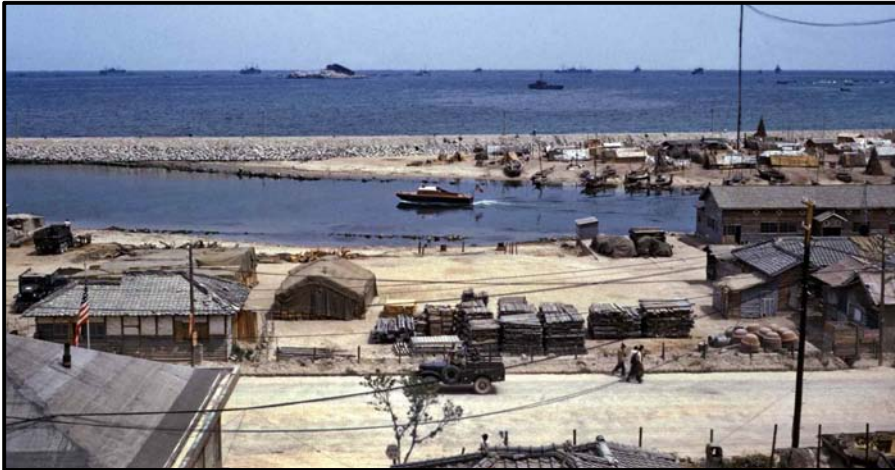
제일극장 앞 버스정류장(196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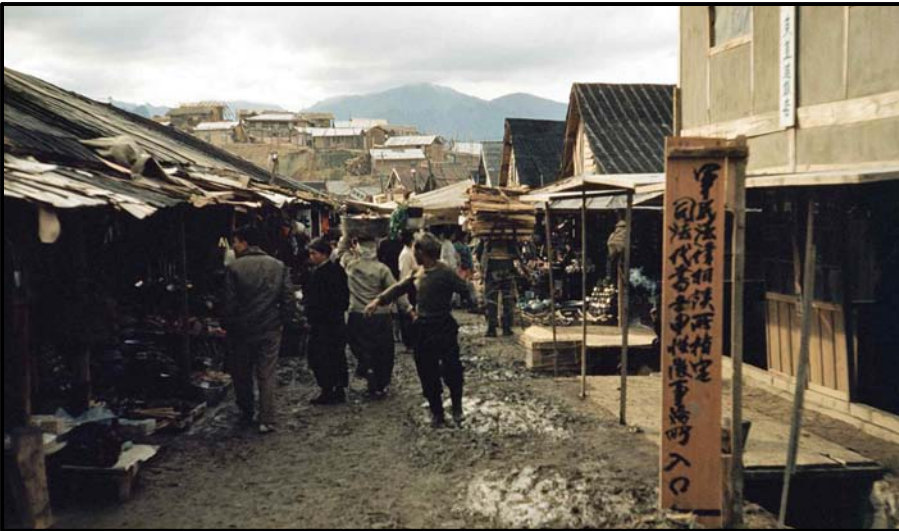
동명동 종합버스주차장(1970년대)

기증사진 / 사진제공(속초시립박물관) 1950년대, 1953~1954년

Paul Buford Fancher, Richard B. Rockwell 기증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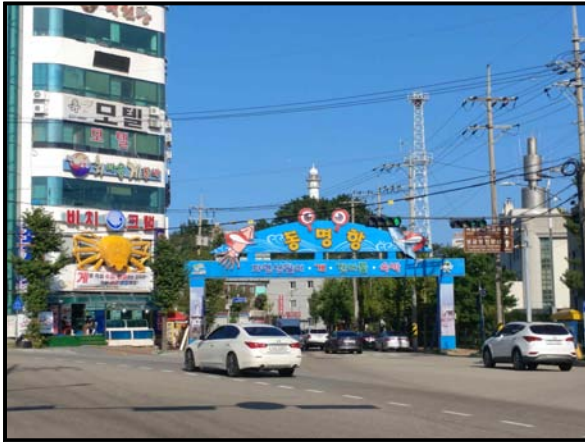




부록 4. 추억을 간직한 거리 / 동명동·중앙동·금호동 지역

이곳의 사진은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의 현재 모습을 남기고자 기록하였습니다.

사진은 박경심 사진작가가 촬영하여 제공해 주신 것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항 입구



속초항만지원센터



속초해양수산사무소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속초해양경찰서

동명동성당





속초감리교회



속초중앙초등학교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금호동 일원



금호동 거리



시청옆 인심의원



금호동(중앙동) 옹심이집



속초관광수산시장내 순대국 골목



속초관광수산시장(대형주차장 앞)

속초관광수산시장 순대국 골목



시장 대형주차장 옆(최고칼국수 앞)

사십계단 슈퍼인근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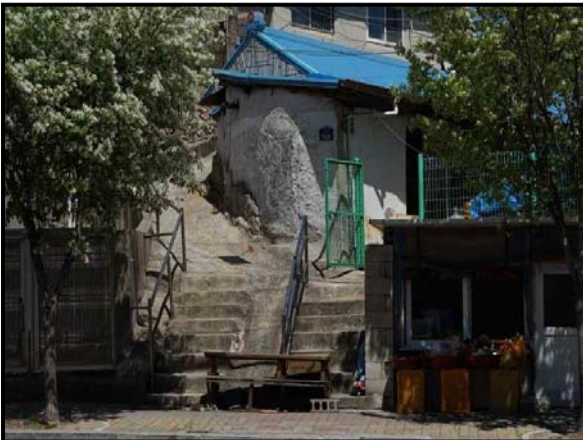




노가리촌에서 대형주차장 방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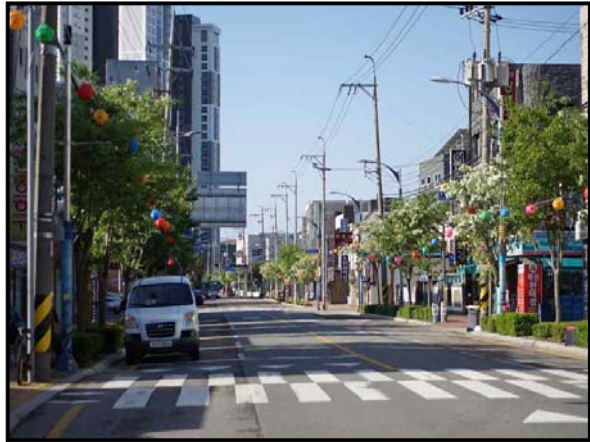


금강아파트 뒤편 골목



제일산부인과 맞은편 골목

수복탑에서 시청방면 전경



동명동 수복화원에서 속초감리교회 방면

서울칼국수 옆 일본식 가옥





서울대명2차에서 보는 금호동 전경



속초관광수산시장 건어물상가



중양로 국민은행



중양로 대승당약국



중양가로 설악수피 부근



중양가로 천년농산 부근



중앙가로



중앙가로 어시장 입구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입구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중앙가로



중앙가로 금호동주민센터



우렁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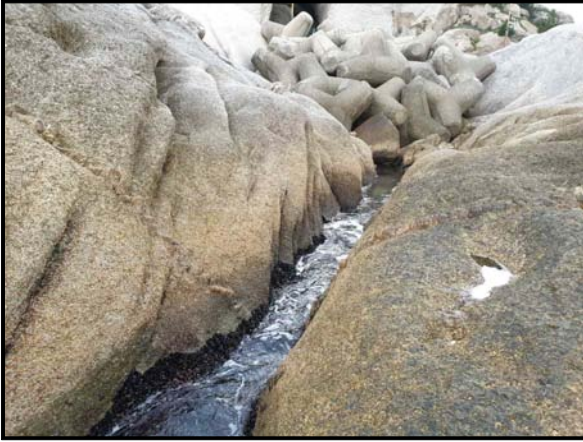
영금정



영금정



영금정



영금정



동명항 영금정 입구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뒷 골목



공설운동장 5거리

공설운동장5거리에서 중앙초교 방면





공설운동장 5거리



동명동 옛 동춘관



속초해랑중학교

속초교육문화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속초지원 청사 신축공사 조감도





속초지원 청사 신축공사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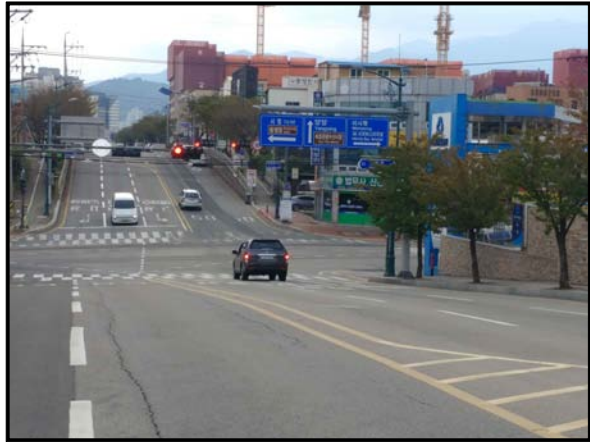


신축공사 현장



신축공사 현장

장안골에서 우렁골 방면



시외터미널 옆 천우장

수북탐인근 옛 동명새마을금고





수복기념탑



수복기념탑 앞 회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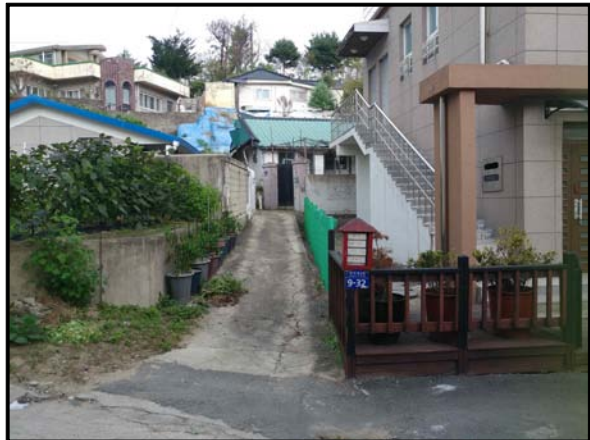
수복기념탑 앞 회차로

옛 속초역 뒤편마을



장안골 마을

장안골 마을





장안골 마을



장안골 마을



장안골 마을전경

장안골 마을



장안골 그리운보리밥

중양로 우체국 옆 미정식당





중안로 우리은행



중안로 파크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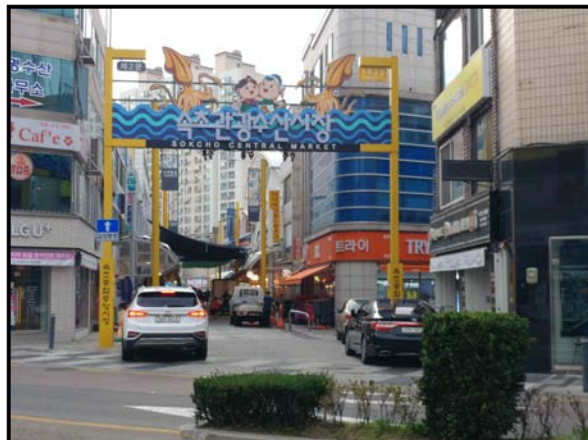
중안로 십자약국

중앙로 문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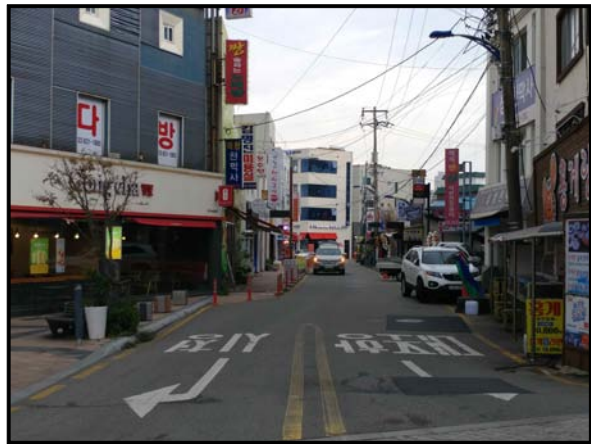
중앙로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입구

중앙로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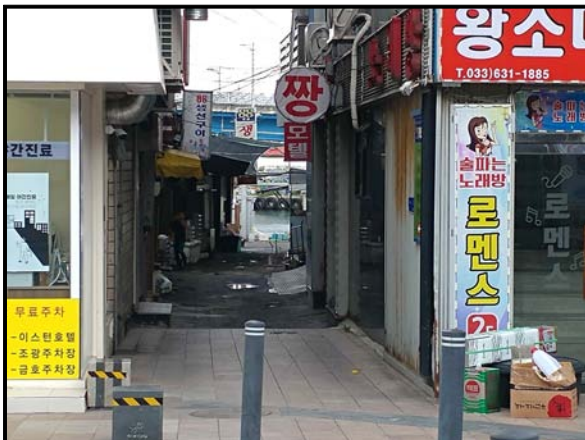




중앙로 황소광장



황소광장 옆 깃배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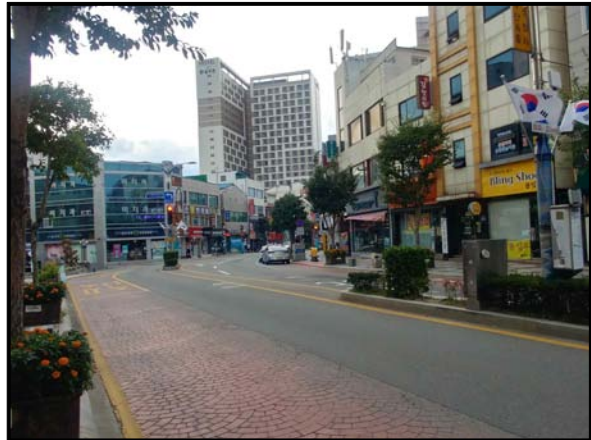
황소광장 인근 골목

중앙로 황소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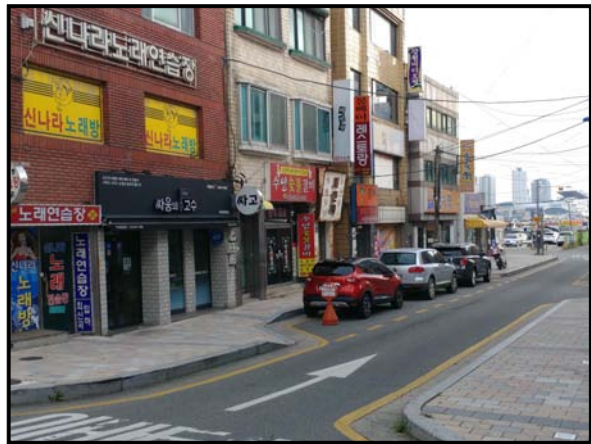
중앙로 신한은행 전경

중앙로 서독약국 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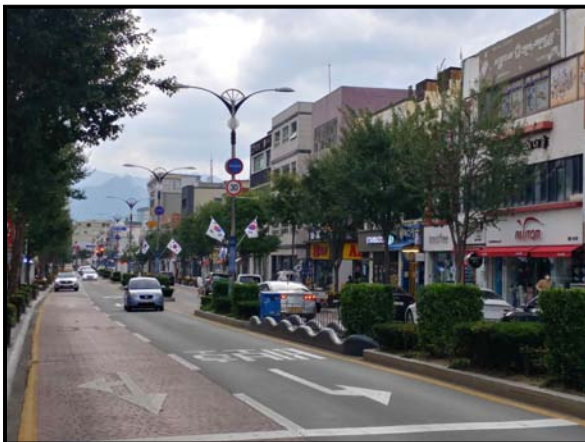




서독약국 맞은편 옛수협 방면



서독약국 맞은편 옛수협 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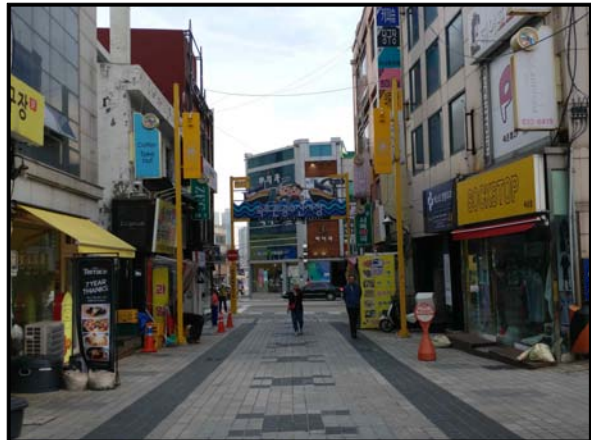
중앙로 서독약국 앞

중앙로 서독약국(구, 서울약방)



옛 중앙극장 자리(현, 주차장)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내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내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내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대형주차장 가는길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내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내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내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내



대형주차장 옆 도문집 칼국수



중안가로 빵튀기 상점



이편한 2차아파트 앞 동광상회



보광사 미니 골프장입구



영랑호 해병전우회사무실

갯배 인근 상가 송도물회



갯배선착장

갯배 인근 상가





갯배 인근 상가



갯배 인근 진양횃집



구 경찰서 뒤 촌말

참/고/문/헌



【기본사료】

- 『가주집(家州集)』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현산지(峴山誌)』
강원도, 束草港修築工事費補助, 1934.
강원도, 束草港修築工事實施設計變更書, 1934년.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토목편」, 2010.
성현(成愼), 『허백당시집(虛白堂詩集)』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홍인우(洪仁祐), 『치재선생유고(恥齋先生遺稿)』

【단행본】

- 김정우, 『내고향』, 강원일보사, 1997.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속초 도시변천사1』, 속초문화원, 2020.
도도로키 히로시, 『20세기 한반도 도로교통 체계변화』,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2004.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속초문화원, 『옛 문헌으로 본 속초 II』, 2008.
속초시, 『속초시지』, 1991.
속초시, 『속초읍사(束草邑史) 1차 조사본』, 2016.
속초시, 『시정 30년사』, 1994.
속초시, 『시정 40년사』, 2004.
속초시, 『시정 50년사』, 2013.
속초시·속초문화원,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2001.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 2006.
엄경선, 『속초 수산업의 발전 역사』, 속초문화원, 2017.
엄경선, 『속초 음식 생활사』, 속초문화원, 2018.
장정룡 외, 『강원도민 이북도민 정착사』, 속초시립박물관, 2009.
장정룡, 『2019 속초민속예술 이야기마당』, 속초문화원, 2019.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최재도·이수영 공저, 『속초 그때 그곳이 지금은』, 속초문화원, 2020.
황기수, 『속초교회 70년사』, 속초교회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97.

【논문】

-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속초시 문화재자원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 보고서」, 속초시, 2018.
- 김정환, 「日帝下 襄陽地域 農民運動의 展開에 關한 研究」,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 노광복, 「전쟁의 상흔과 새로운 희망의 공존」, 『1950년대 속초리 속으로』, 속초시박물관, 2011.
- 엄경선, 「속초 갯배 1백년의 역사를 찾아서」, 『속초문화』 제34호, 2018.
- (재)에뎁문화재연구원, 「속초 동명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2.
- 홍영호, 「속초시 속초리토성의 역사적 성격과 실체」, 백산학보 제108호, 2017.

【시청각자료】

-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레버렛 기증사진
-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폴펜처 기증사진
- 속초시립박물관, 『록웰 기증사진 전쟁이 멈춘 뒤, 속초』, 2021.

【웹사이트】

-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 나무위키 웹사이트(<https://namu.wiki>)
-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 속초 관광수산시장 홈페이지
-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 홈페이지
-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 중앙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sjungang.gwe.es.kr/>)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홈페이지(<https://chuncheon.scourt.go.kr/>)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홈페이지(<https://www.spo.go.kr/>)

속초 도시변천사 Ⅱ

동명동 · 중앙동 · 금호동

펴낸이 / 김계남

엮은이 / 한정규

펴낸곳 / 속초문화원

집필인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외

김정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대진고등학교 교사

한정규 속초문화재단 사무국장
전,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료조사위원

정종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속초시립박물관 학예담당

최영택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
속초고등학교 교사

박명선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과정 졸업
기린고등학교 교감

연구보조원 강정모 강원대학교 사회대학 행정학과 졸업

사진촬영 박경심 속초 사진 아카이브 회원

기획 / 속초문화원 사무국

출판 / 하늘공방

발행 / 2021. 12.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전화 (033) 632-1231 / 전송 (033) 632-1241

전자우편 sc2439@kccf.or.kr

홈페이지 <http://sokcho-culture.com>

[비매품]


ISBN 979-11-965930-7-0

◇ 이 책의 저작권은 속초문화원 및 집필 저자에게 있으니 무단으로 전제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속초 도시변천사



 속초문화원

